

목차

2022학년도 대학면접 후기집

인문사회계열

I. 인문계열

1. 불어불문학과	1
2. 사학과	10
3. 언어학과	17
4. 인문학부	22
5. 철학과	24
6. 국어국문학과	29
7. 영어영문학과	34
8. 중국어문화학과	36

II. 사회계열

1. 경영학	44
2. 경제학	63
3. 문헌정보학과	71
4. 미디어커뮤니케이션	73
5. 사회복지계열	78
6. 인류학과	84
7. 정치외교학과	88
8. 종교학과	92
9. 청소년지도학과	94
10. 행정학	96
11. 사회학	99

III. 교육계열

1. 초등교육과	102
2. 유아교육과	153

3. 국어교육과	174
4. 영어교육과	177
5. 지리교육과	187
6. 특수교육과	196
7. 독어교육과	204
8. 역사교육과	207
9. 교육학과	219
10. 아동학과	221

IV. 기타계열

1. 디자인학부	224
2. 국가안보융합학부	226
3. 소방행정학과	228
4. 소비자아동학부	233
5. 패션의류학과	235
6. 항공관광학과	239
7. 항공운항과	242
8. 호텔관광과	246
9. 간호학과(인문)	248
10. 기타	250

자연계열

I. 자연과학계열

1. 물리학과	263
2. 지질환경과학과	271

II. 공학계열

1. 기계공학과	273
2. 메카트로닉스공학과	283
3. 전기정보공학부	285
4. 화학소재공학부	290

5. 항공우주공학과	297
6. 신소재공학과	300
7. 융합생명공학부	306
8. 모바일시스템공학과	313
9. 정보통신공학과	315
10. 컴퓨터공학과	321
11. 인공지능공학과	335
12. 생물학과	337
13. 생명공학과	338
14. 산림과학부	349
15. 화학과	351
16. 전자공학부	357
17. 환경공학부	365
18. 식량자원과학과	378

III. 사범대학계열

1. 생물교육과	384
2. 컴퓨터교육과	387
3. 수학교육과	389

IV. 의학계열

1. 간호학과	393
2. 치위생학과	419
3. 물리치료학과	422
4. 의예과	428
5. 한의예과	434
6. 약학과	436
7. 수의예과	440
8. 작업치료학과	444
9. 임상병리학과	446

V. 과학기술원

1. 대구과학기술원	448
2. 광주과학기술원	453
3.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460

VI. 기타

1. 의류학과	463
2. 생활디자인	465
3. 디자인공학과	467
4. 화장품학과	471
5. 경영학과	477

에체능계열

1. 영상학부(디지털아트)	485
2. 광고브랜드디자인	488
3. 방송기술계열	491
4. 미술자율전공	496
5. 디자인예술학부	500
6. 영상제작과	503

2022학년도 대학면접 후기집

인문사회계열



경희대학교

대학명	경희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프랑스어학과	총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7번
전형유형	학생부 종합	전형명	네오르네상스 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 각 과별로 준비된 별도의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면접실 앞으로 2, 3명씩 이동한 후 한 명씩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 방식 - 대면 면접 - 면접관 2명 대 학생 1명		
기타 유의사항	1차에서 4배수를 뽑기 때문에 1차에서 뽑힌 인원인 많은 과의 경우에는 서류 넣은 순으로 일정 인원씩 나누어서 대기하고 면접을 봄. 따라서 같은 학과 같은 전형이더라도 다른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다른 면접실에서 면접을 볼 수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기다리면서 힘들지는 않았어요?

[답변] 네, 힘들지 않았습니다

[질문] 어젯밤에 잠은 잘 잤어요?

[답변] 사실 잘 자지는 못했습니다. (웃음)

[질문] 원래 이런 면접 하면서 긴장되고 전날 잠이 잘 안 오고 이런 거는 누구나 그런 거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답변해주세요!

[답변] 넵. 감사합니다!

[질문] 여기 자기소개서에 보면 프랑스의 지방 언어 탄압에 대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어요?

[답변] 네,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중앙 집권이 강한 나라여서 통일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프랑스의 파리 외에 지역에서 쓰이던 다양한 지방 언어들을 공공적인 자리에서 규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도 퍼져 정부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시민들 사이에서도 지방 언어는 프랑스어보다 더 열등한 언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시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학생은 언어 다양성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답변] 저는 언어의 다양성이 곧 문화의 다양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이

보존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언어의 다양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여기 또 자기소개서에서 보면 후배들에게 교과목을 설명해주는 활동을 했어요. 이로 인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된 점이든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있나요?

[답변] 저는 다음 학년에 배울 교과목을 선택하면서 수업과 과목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은 저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 교과목 박람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부스 활동을 하면서 후배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해주었고 제가 아는 지식과 정보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굉장히 뿌듯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 활동 후에도 후배들이 도움이 되었나요?

이 활동이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답변]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 못함) 혹시 다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질문] 이 활동을 당시에는 한 거고 이후의 변화라든가 지속적인 도움이 되었나요?

[답변] 네 제가 배우는 과목뿐만 아니라 후배들이 공부하게 될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하여서 설명을 해주어서 후배들이 앞으로 배울 과목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도 매년 열릴 예정이라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질문]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답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가는 일은 언제나 저에게 설렘을 안겨 줍니다. 저는 제가 습득한 외국어 능력과 외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인 항공사 지상직을 희망 진로로 정하였습니다. 저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글로벌 리더십을 갖추고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프랑스 및 프랑스어권 지역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경희대학교의 프랑스어학과에 진학하여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승객들과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항공사 지상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질문] 꿈이 항공사 지상직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답변] 네 저는 단순히 항공과 관련된 과에 지원하기보다는 제가 관심이 있는 외국어 및 외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과에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공용어로 쓰이는 영어는 다른 지원자들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저만의 특별한 언어를 배우고자 하였고 저는 그래서 프랑스어학과에 진학하고자 하였습니다.

[질문]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했던 봉사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 있어요? 그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랑 무엇을 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답변] 제가 고등학교 2, 3학년 내내 참여하였던 헌혈의 집 봉사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코로나 19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헌혈률이 많이 떨어졌다는 기사를 보았고 처음에는 헌혈률을 높이는 것이 동참하고자 헌혈을 하는 봉사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로 아쉽게도 헌혈에 참여할 수 없었고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헌혈률을 높이고 헌혈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을 돕고자 헌혈의 집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는 헌혈자분들을 안내해드리고 돕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질문] 헌혈자분들을 안내해드리고 돕는 활동을 하였다?

[답변] 네!

[질문]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간단하게! 해주세요

[답변] 저는 제가 제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모습 그 이상으로 프랑스어 및 프랑스어권의 문화에 대한 열정과 흥미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희대학교의 프랑스어학과에 뽑히게 된다면 저의 지적호기심과 열정, 흥미를 마음껏 발휘하여 경희대학교를 빛낼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경희대학교의 프랑스어학과 교수님들과 직접 만나 소중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겸손히 받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넵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경희대학교의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지원자의 인성에 대한 평가의 비중이 높은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볼 때도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참가자의 인성적 측면을 드러내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희대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자기소개서와 관련하여 꼼꼼하게 면접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중에 혹시 자사고나 특목고에 다니는 친구들에 비해 학교 생활기록부가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외에 추가로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수능 최저, 자기소개서, 면접이 있는 전형을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립공주대학교

대학명	국립공주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 합격
학과명	불어불문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일반전형(정원내)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서 진행되었으며, 난 오전 면접으로 9시까지 입실 하였다. 한꺼번에 15-20명 남짓의 학생이 함께 대기하며 대기실은 면접실보다 한층 더 높았기 때문에 내 순서가 되기 두 명 정도 전부터 이름을 호명해 주신 뒤에 면접 도우미 분이 면접실까지 함께 동행해 주셨다. 면접실에는 두 명의 면접관이 계셨는데 한분은 교수님 같았고 다른 한 분은 입학사정관 같으셨다. 면접은 10분 내외로 진행되었다.		
기타 유의사항	마스크는 꼭 kf-94를 준비해야 한다. 그곳에서도 나눠주긴 하지만 되도록 꼭 쓰고 갈 것!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지원동기-불어불문학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

[답변] 고등학교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은 상태로 1학년을 보내다가 제 2외국어로 프랑스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하니 패션 용어에 녹아있는 edt(오드뚜왈렛), edp(오드퍼퓸) 같은 프랑스어가 눈에 보이며 ‘분명 내가 배웠던 프랑스어에서는 뚜왈렛이 화장실인데, 그러면 향수는 화장실물이라는 건가?’ 등의 물음이 생기며 그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더욱 프랑스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대학교에 가서도 프랑스어의 어원, 역사 등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파고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패션이란 관심사와도 함께 연결지어가며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프랑스와 한국의 화장품 차이점은 뭔지 아시나요?

[답변] 제가 화장품보다는 옷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차이점은 잘 모르지만, 한국은 k-pop 말고도 k-뷰티로도 전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한국의 화장품과 프랑스의 옷과 관련된 패션을 함께 조화해서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또한 점차 나아가서 한국 전통의상인 한복의 재질이나 소재를 프랑스 스타일의 패션과 함께 연관짓게 된다면 해외 사람들이 한국의 패션에 대해 좀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Lg생활건강 등의 화장품 회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화장품이 뭔가?

[답변] (줄곳 화장품과 관련한 질문이 들어와 패션과 옷에 관심 있다고 답변함)

[질문] 젊은이들이 명품을 좋아하고 유행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답변] 저는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21세기 패션의 방향은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며 자기자신을 보여 줄 수 있는 패션입니다. 그러나 명품 선호 현상이나 편승효과외의 경우,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 단순히 인기가 많고 유행한다는 이유로 소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앞으로의 패션 시장이 크게 성장할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패션 하면 미국 이런 나라도 많은데 프랑스가 왜 패션에 대해 유명해졌다고 생각하나?

[답변] 저는 프랑스가 패션으로 유명해진 이유가 '프렌치 스타일'의 마케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패션' 하면 세련되고 앞서가는 패션을 연상될 정도로 프랑스는 18세기부터 '프렌치'라는 일종의 대상화를 하며 그 수식어를 붙여서 프렌치 토스트, 프렌치 룩 같은 단어를 만들어 그것이 '고유의 프랑스의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질문] 본인이 그러면 여기 와서 어떻게 학업계획과 진로계획을 세울 것인가?

[답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패션의 관심사를 쭉욱 유지하며 패션 속에 있는 프랑스어와, 또한 제가 그동안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기초 프랑스어를 적절히 잘 활용하고 심화시켜 이 공주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서 중급, 고급 프랑스어를 배우며 프랑스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 더욱 공부하여 프랑스의 패션 회사 본사에서 직적 한국을 알리고 싶습니다.

[질문] 프랑스어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하기

[답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프랑스의 패션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뵈요.' (예상은 했지만 정석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즉흥적으로 답변함)

후배들을 위한 조언

제 생기부에는 화장품에 대한 내용이 1도 담겨있지 않았지만, 지원동기에서 향수 얘기를 언급해서였는지 화장품을 큰 카테고리로 잡고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옷이 아닌 화장품에는 크게 전문지식이 없었던지라 조금 당황해서 동문서답을 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관심있는 지식은 빠삭하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며 자꾸 옷 쪽으로 질문을 유도하려고 계속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후배 분들도 예상치 못한 질문에 우왕좌왕 한다기 보다는 똑심있게 내가 이 한 분야에는 프랑스와 관련하여 확고한 관심이 있다. 라는 걸 어필하면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이팅!

성 신 여 자 대 학 교

대학명	성신여자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프랑스어문/문화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해당 사항 없음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자기주도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문에서 수험표 제시 후 발열 체크 대기실 입장 시작보다 일찍 도착한 경우 강당 같은 곳에서 먼저 대기 대기실 입장 시간에 어문계열 대기실로 입장하고 1시간 반 정도 대기한 후 10분 면접 보고 퇴장.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실은 독단적으로 갈 수 없고 감독관 선생님과 함께 가야 하며, 마실 물도 개인적으로 챙겨가는 것이 좋음. 서류는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만 볼 수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1. 봉사 활동 중 프랑스, 유럽, 국제 관련 봉사활동 진행한 것이 있었다면 말해주실래요?
 - 국제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씀 드리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약 2년간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뒤로 아이들이 겪었던 어려움, 해결해나갔던 과정을 언급함)

1-2 꼬리질문 : 총 교육 봉사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됐나요?
 - 총 합쳐서 148시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2. 프랑스어를 꽤 오랜 시간 배웠는데 프랑스 관련 수상 실적은 없네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 대회에 참여하기 위한 지원 자격이 되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영어과여서 프랑스어과 대회를 참여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학교 특성을 밝히면 안 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함)
3. 3년 내내 성적이 꾸준히 올랐네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특별한 비결이 있었을까요?
 - 1학년 때는 주로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였으나 성적의 진전이 없어 공부 방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문 이해, 영단어 실력 부족, 유의어와 반의어에 주의하여 학습했던 공부 경험에 대해 말씀드림)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4. 성신여대를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졸업 후, 한국의 제품을 프랑스로 수출하거나 프랑스의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수출 마케터가 되기를 최종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4-1 그렇다면 경영 분야나 마케팅 분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프랑스 어문 문화 학과를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 2년 내내 프랑스어를 공부하며 정말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배웠던 프랑스어와 문화는 기초적인 지식에 머물렀다고 생각하였고, 문화 이해 관련 지식을 얻기 위해 배우지 못했던 프랑스의 역사, 정치, 프랑스 광고 등을 심화적으로 배워 최종적인 목표를 이루고자 프랑스 어문 문화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5. 1학년 때는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네요, 왜 마케팅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알려주세요?

- 하나의 물건이라도 칭하는 말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언어를 활용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마케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케팅에 대해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6. 행동 발달 부분에 보면 소외된 아이들을 지켜주고, 중재자 역할을 많이 행했던 학생이라고 되어있어요. 소외된 아이들을 왜 지켜주었나요? 어떠한 사례가 있을까요?

-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의 자질은 무리 내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1학년 심화 영어 교과 시간에 한 외국인 조원이 빠른 한국어로 진행되는 회의에서 소외되자 그녀도 회의의 내용을 알아듣고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중간 중간 영어로 통역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6-1 외국인 조원을 위한 통역을 할 때마다 회의의 흐름이 끊겨서 다른 조원들이 불편해하지는 않았나요?

-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올수록 좋았던 아이디어 회의였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고, 조원들 또한 별말은 없었습니다.

7. 프랑스에 대해 독특하다고 생각하거나 한국과 가장 많이 다른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 일에 대한 가치관이 가장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에 대한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 상반되는 프랑스인들의 일에 대한 여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르피가로 잡지에 실린 기사를 언급하며 프랑스인들의 주 35제 근무 시간과 잦은 파업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고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적절한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여자 교수님, 남자 교수님 두 분 모두 잘 웃어주셨어요. 눈도 잘 마주쳐주시고, 생활 기록부에 칭찬할 부분이 있다면 긍정적인 표현을 써주시면서 다정하게 잘 대해 주셨습니다.

감독 위원분들도 친절하게 대해주시니 너무 걱정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다녀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어렵지 않은 편이고, 꼬리 질문이 자주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세세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충 남 대 학 교

대학명	충남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불합격
학과명	사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5번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prism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를 바탕으로 면접관(2인) : 지원자(1인) 15분 이내 개별면접 진행 (최저점 : 0점, 최고점 100점)		
기타 유의사항	□ 준비물 및 제출서류 공통사항: 수험표, 신분증, 단정한 복장(교복 착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본교에 지원한 동기는?

[답변] 제가 어릴 때부터 역사 관련 영화 드라마 책을 통해 재미를 쌓아갔으며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역사 관련 주제탐구 동아리 활동을 통해 역사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여 더 많은 역사를 배우고 공부하며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충남대 사학과와 전공 과정에서 역사 교육론과 같은 교육과 관련된 전공 과정이 있고 교직 이수라는 체계도 존재함으로 폭넓은 진로의 선택 길에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질문] 우리 학교의 교수진을 알고 있나요?

[답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올 때 알아 오겠습니다.

[질문] 학과 진학 후 진로 희망은?

[답변] 교직이수를 통해 역사교사로서 성장해 내고 싶습니다.

[질문] 자신만의 역사관?

[답변] 역사를 하나의 방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닌 넓고 다양한 시각 속에서 역사를 이해하며 탐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좋은 역사는 되새기고 존중해야 하며 안타깝고 부끄러운 역사는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를 통해 실수를 만회하며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 자신이 가장 공들인 고교생활의 활동은 무엇인가요?

[답변] 저는 2학년 때 만든 즐거운 역사생활이라는 동아리가 가장 공들였던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역사 관련 신문제작 달력 제작 등 다양한 기념일 행사를 통해 다양한 역사를 접하며 많이 배웠으며 저의 고교생활 목표였던 많은 친구들에게 역사를 관심에 두게 하는 목표를 많이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 동아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질문] 동아리 활동 속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요?

[답변] 역사 관련 기념일 행사 달력 만들기 신문 만들기 등 활동을 할 때 동아리 원 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며 친구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각자의 개성과 장점을 볼 수 있었고 그것들이 모여 최종 결과 본을 보니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던 활동을 다수의 친구가 함께해서 완성했다는 점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질문] 역사의 진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답변] 과거의 실수와 잘못된 역사는 반성하고 성찰하여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동아리 활동을 하며 어려웠던 점이 뭐가 있었나요?

[답변] 동아리 원 중 몇몇이 진로가 바뀌어 참석하지 않고 참여의식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친구들의 장점과 개성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한 예로는 광고 관련 학과 진학 희망하는 친구들에게는 동아리 홍보 관련 sns를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하였으며 위기를 극복해 나아갔습니다.

[질문] 세계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최근 몇 달 전까지 난민 문제 미얀마 민주화 시위 등의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세계 역사를 배우고 이해하며 발생하게 된 배경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나라는 어디이고 그 나라는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으며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게 미리 예방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고교생활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답변] 특히 2학년 때부터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꿈인 역사교사를 생각하며 끝까지 버텼고 다시 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답변] 많은 주변 사람들은 제가 성적이 떨어졌다고 하여 많이들 퇴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교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 관련 동아리와 주제탐구와 같이 많은 활동을 하며 역사의 열정을 계속하여 불태웠습니다. 저는 이러한 고교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끊임없이 역사교사의 꿈을 위해 달려갈 것이고 끝내 이를 것입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분위기 안 좋은 수도 있으니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연습 많이 하시길 충고해요. 분위기 좋지 않다고 긴장하시거나 소극적이게 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후회 없이 해요.

건국대학교

대학명	건국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불합
학과명	사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11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KU자기추천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시간	10	
	인원수	면접 위원 수: 2 / 조별 학생 수: 1	
	면접절차	대기실에서 대기하며 핸드폰 제출→신분증 검사→ 호명이 되면 도우미를 따라 면접실로 입실→ 면접 진행	
기타 유의사항	비대면 화상면접/사학과 윤혜민 교수님		

질문 및 답변 내용

- 질문: 효행상을 받았는데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답변한 내용: 제가 효행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말하려면 제 가정사에 대해 언급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교수님이 고개 끄덕이고 질문 패스함)

- 질문: 화폐사에 기반한 가상화폐 탐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했었나요?
- 답변한 내용: 저는 '돈으로 읽은 세계사'라는 책을 찾아 읽고 배운 돈의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활용해 명청시대에 화폐로 활용되었던 은과 달리 가상화폐는 경기 부흥의 촉매제가 될 수 없음을 탐구 결과에서 발표했습니다.

- 질문: 동아리 활동에서 김구 연표를 제작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제작했나요?
공동체에서 갈등을 해결했던 일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 답변한 내용: 동아리에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김구 연표를 제작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독립운동의 전개 과정을 담았고 김구의 일생에 대한 사소한 내용까지 담을지 말지 논의하던 중 갈등이 일어났는데, 연표의 제작 목적에 맞게 독립운동 전개를 중심으로 연표를 제작하자고 친구들을 설득하여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 질문: 읽은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 소개해주세요
- 답변한 내용: 시민교육을 위한 역사교육의 이론과 실천이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책 말미에 이봉창 의사에 대한 자아정체성을 탐구하는 역사교육 사례가 있었는데 역사의 다면적 해석을 추구하는 제게 인상 깊었습니다

○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주세요

- 답변한 내용: 국가정체성 중심의 커리큘럼인 역사교육과에서는 이봉창 의사와 같은 신성시 되는 인물을 다루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국대학교 사학과에서는 제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지원한 것입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 지원동기 말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만 물어봄, 위 답변 내용은 대략 적은 것
 - 건국대는 전공 관련 활동을 잘 물어보니까 준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연 세 대 학 교

대학명	연세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사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
전형유형	수시(학생부 교과)	전형명	추천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 시작 전]

- 들어가면 체온 측정하고 수험표 보이고 수험번호에 맞는 면접 대기실을 찾아가야 함.
- 여기서 수험번호, 성명, QR코드 등 적힌 목걸이 배부받음.
- 들어가면 안내 조교 3~4분 정도 계시고, 돌아다니면서 면접고사장 반입 금지 물품 수거함.
- 본인의 경우, 소강의실 같은 공간에서 대기하고, 고대보다는 작은 공간에서 대기함. (면접 대기실 크기는 고려대>연세대>서울대 순)
- 고대나 서울대보다 분위기가 매우 자유로움. 화장실도 별도 안내위원 허락 없이 아무 때나(단 자신이 면접 직전 대기 장소로 이동하기 5분 전 정도는 이동 제한, 그때 사전 안내해 줌) 갔다 올 수 있음.
- 자신이 호명되기 전까지 어느 면접 자료든 자유롭게 볼 수 있음. 특히 일찍 오면 책상 있는 자리를 잡으면(고대와 달리 연대는 수험번호에 맞춰 앉는 게 아닌 듯), 수험번호가 뒷면 아예 공부를 할 수 있음.
-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입학처장(?)분께서 오셔서 응원과 격려의 말씀 해 주시고 고대 관련된 재밌는 유머도 해 주셔서 서울대나 고려대보다 면접 대기실의 분위기가 유쾌함.
- 본명과 수험번호 모두로 호명함. 호명되어 대기실 밖으로 나가면 일렬로 서서 잠시 신원확인함.
- 신원 확인 끝나면 위층으로 올라가고, 면접실 직전 대기 장소(의자만 있었음)로 이동함.
- 여기서부터는 한 명 한 명씩 이동하는데, 면접실로 입실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서 면접번호가 앞 쪽이면 면접 관련 자료 볼 시간 없을 것임 (거기서조차 볼 수 있게는 함.)
- 자신이 호명되면 지정된 면접실로 입실함. 입실하면 조교 한 분이 계시고, 짐을 면접실 안 뒤쪽에 놓을 수 있음.
- 한쪽 벽에 태블릿과 가려진 제시문 있고, 옆에는 제시문 분석지(연습지- A4)가 있음. 태블릿에 QR코드 인식하면 태블릿과 조교가 지시하는 대로 면접 실시.

	<p>[면접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블릿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안내 다 해줌. 그대로 따르면 됨. - 제시문 분석 시간에는 태블릿 정면에 크게 타이머가 표시되고, 옆의 연습지 활용해서 제시문 분석하면. 제시문 자체는 재사용하기 때문에 필기할 수 없고, 오로지 연습지 해당란에만 필기 가능 - 제시문 분석 시간 종료되면 자동으로 10초 정도 텀을 두고 본격 녹화 시작함. - 시간 끝나면 칼 같이 녹화가 종료되고, 만약 주어진 시간 이전에 답변을 모두 끝냈으면, 조교에게 알리면 종료할 수 있음. <p>[면접 이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끝나면 짐 챙겨서 개별 퇴실함.
<p>기타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연고 중 유일하게 면접 건물 밖에 수험번호와 퇴실 예정 시각을 부착해 놓아 입실 전에 다른 사람(부모님 등)에게 퇴실 예정 시각을 알릴 수 있음. 서울대나 고려대의 경우 그런 안내가 없어서 언제쯤 끝날지 모름. - 한 대기실에서 10명 내외로 면접실 입실 직전 대기 장소로 이동함. 5분 정도 전에 알려 주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화장실 다녀와야 함. - 면접 시작되면 바로 답변하면 됨. 태블릿 우측 상단에 경과시간, 남은 시간 둘 다 보여주기 때문에 답변하면서 흘끔 보다 잘못 봐서 두 시간을 헛갈리면 큰일 남. 여기에서 착오가 없길 바람. - 면접 대기실을 한 번 나가면 돌아올 수 없으므로 모든 소지품을 챙겨서 나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공통)

질문 및 답변 내용

(제시문 면접)

제시문은 3개, (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근면성실'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내용, (나)는 개미와 베짚이 전래 동화 내용(보편적으로 알려진 전래동화 내용과 같음. 다만 길이 제한이 있다 보니 베짚이의 처지가 반전되는 장면을 중심으로 요약), (다)는 성실에 관한 실험 내용이었고, 실험에 대한 설명과 하단에 실험 결과를 도표로 정리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었음. 문제는 2개였음.

면접 시작하면, '문제 1번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멘트 하고, 1번에 대한 답변을 함. 답변 중간중간 우측 상단의 시간 확인해 가면서 답변 길이를 조정함. 마찬가지로 '문제 2번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멘트 하고, 2번에 대한 답을 함. 마지막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멘트로 마무리 하고, 본인의 경우 시간에 딱 맞춰서(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해서 거의 마지막 답변을 조금 생각하면서 까지) 마무리했기 때문에 따로 면접 종료 요청을 하지는 않았음.

문제 자체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1번은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비교 및 대조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기억함. 2번은 (다)에 제시된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그것을 제시문 (가), (나)와 연관짓는 것으로 기억함.

후배들을 위한 조언

1. 꾸준히 기출문제를 통해 연습하십시오: 다른 무엇보다도 기출문제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본인이 응시하게 될 대학 전형 제시문 면접 기출문제만이라도 여러번 연습해 보십시오. 반면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그것에 다른 대학 제시문 중 본인의 면접 기출 경향과 유사한 타 대학 기출문제, 교육청 등에서 배부하는 면접 대비 자료와 함께 연습하면 더 좋습니다.

2. 실전처럼 연습하십시오: 혼자 집에서 천천히 제시문을 읽고 답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실제 면접 상황을 가정하고, 시간 제한을 두면서, 실제 면접을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답변이 부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 연습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답변을 정교하게 다듬기 위함입니다. 또, 실전처럼 꾸준히 연습해 놓으면, 정말 면접장에서 긴장이 덜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3. 부가적인 노력을 하십시오: 본인은 면접 학원을 다니지 않고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최조합이라는 결과는 면접 학원이 필수가 아님을 입증합니다. 본인이 지나치게 내향적이고 말하기에 도저히 자신이 없다면 학원을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답변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답변 후, 선생님께서 자세나 말하기에 대한 피드백을 듣고, 그것을 복기 하며 태도를 고치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배경 지식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뉴스 등을 통해 시사 이슈에 대해 찾아보고, 인문계라면 사회 계열 교과서, 자연계라면 과학 계열 교과서를 정독하며 지식을 쌓는 것도 본인의 답변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교과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식 등 지식적인 내용을 다루는 영상 등을 찾아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기출문제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4. 면접형 말하기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무리 실전처럼 연습하더라도 막상 면접장에 들어가 면접에 임하게 되면 긴장되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긴장이 되면 본인도 모르게 평소의 말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친구들과, 부모님과 사소한 대화를 할 때도 면접에서 말하듯 논리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본인의 경우, '논리적 말하기'를 위해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Concession'과 'PREP'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작성했습니다.

5. 논리적 말하기 연습을 하십시오: Concession은 '양보, 인정'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물론 - 그러나' 형식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두괄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다가, 그와 반대되는 입장(경우)가 있음을 인정 하지만('물론~'), 그것은 반박될 수 있음을 보이는 것('그러나~')입니다. 마지막에는 '따라서~'로 자신의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하면 탄탄하고 논리적인 말하기를 갖출 수 있습니다. 'PREP'은 'Point-Reason-Example-Point'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해 '주장-근거-예시-주장'의 구조로 말하기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두 말하기 기법의 공통점은 본인의 주장이 가장 먼저 나오는 구조, 즉 두괄식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면접에서 답할 때는 두괄식으로 본인의 핵심적인 주장을 가장 먼저 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충 남 대 학 교

대학명	충남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언어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PRISM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1. 면접 시작 30분 전까지 면접 대기실 입실 완료 2. 면접 대상자에게 배부된 자리 확인 3. 전공 교수 각 두 명씩을 대상으로 15분 동안 대면 면접		
기타 유의사항	수험표 사본 및 신분증 필수 지참, 교복 착용 불가, 실명, 재학 중인 학교, 친인척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답변 금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 대상자는 면접 응시 자체가 불가능함. 면접 대기 시간이 되면 모든 전자기기 수거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1] 전공 교수1: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보니 언어학에 대한 관심이 많던데, 지원 동기가 무엇 인가요?

[답변] 대학교 합격 수기를 살펴보던 중, 인도네시아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봉사 활동을 다니는 언어학과 대학원생들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야인 어문과 사람을 돕고 싶다는 저의 목적에는 언어학과 이를 응용한 복지가 가장 걸맞다고 생각하여 고등학교 삼 년 내내 공부하고 진학 역시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질문2] 전공 교수2: 학생의 생활기록부 성적 현황을 살펴보니 비교과 활동은 점점 좋아지는 데 비해 성적은 많이 떨어졌던데, 복구하기가 어려웠나요?

[답변] 급격하게 바뀐 학습 환경과 진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떨어진 성적은 한정된 시간 내에 복구하려고 해 봐도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성적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 비교과 활동에 매진한 것도 큼니다.

[질문 3] 전공 교수1: 학생의 독서 목록을 살펴보면 빌 브라이슨의 ‘언어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던데, 간단하게 줄거리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답변] 3학년 1학기에 읽은 책이라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언어의 탄생, 발달 과정 그리고 역사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질문 4] 전공 교수1,2: 앞에 주어진 영어 제시문은 소리 내서 읽고 해석해 볼 수 있나요?

후배들을 위한 조언

1. 면접의 진행 방식이 달라진 만큼 미리 알고 들어가자.

같은 대학교 입시를 치룬 선배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과가 과인지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스러웠지만, 두 번 정도 다시 속으로 읽어보며 차근차근 해석했어요. 예상 질문에도, 면접 후기에도 없었던 새로운 유형이라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같은 과에 지원하게 되는 후배가 있다면 저런 제시문 역시 질문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네요.

2. 눈을 많이 마주치자.

제 바로 직전 순번의 지원자가 들어가 있을 때 면접에 대한 질문 소리는 들려도 웃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아마 학생이 많이 긴장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는 순간부터 교수님 두 분의 눈을 번갈아가며 마주치며 최대한 많이 웃었어요. 마스크 때문에 표정이 다 드러나지 않아 자칫하면 딱딱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눈을 많이 마주치니까 면접 분위기도 정말 좋았고, 실수해도 차근차근 다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레 생겼어요.

3. 생활기록부는 무조건 사본으로 준비하자.

면접 대기 시간이 되면 충남대학교는 모든 전자 기기를 수거해요. 노트북이나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생활기록부를 볼 수 없어요. 꼭 사본으로 지참하시길 바라요.

한 국 외 국 어 대 학 교

대학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언어인지과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학생부종합(면접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1. 면접 시작 30분 전까지 면접 대기실 입실 완료 2. 면접 대상자에게 배부된 가번호 확인 3. 전공 교수 각 두 명씩을 대상으로 7분 동안 대면 면접		
기타 유의사항	수험표 사본 및 신분증 필수 지참, 교복 착용 불가, 실명, 재학 중인 학교, 친인척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답변 금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 대상자는 면접 응시 자체가 불가능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1] 전공 교수1: 지원자가 제출한 생활기록부 전반을 살펴보니, 언어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많아 보이는데, 지원자가 생각하는 언어학과의 전망은 어떤가요?

[답변] 언어학이라는 학문은 대중에게 알려진 바가 적은 만큼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삼 년 내내 제가 관심 있게 바라본 언어학과의 전망은 차후 소수자들의 인권 신장에 맞춰질 세계 사회의 초점과 관련한 사회언어학적 응용입니다. 또, 이러한 전망을 목표로 삼기 위해선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산 언어학으로 유명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질문2] 전공 교수2: 지원자가 제출한 생활기록부 전반을 살펴보니, 1학년 성적에 비해 2, 3학년의 성적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유가 있나요?

[답변] 떨어진 성적에 대한 이유는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바뀐 학습 환경입니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 저는 시험 공부의 대부분을 학교 수업과 교내 자율학습으로 해결하던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런 비대면 수업 이후 심히 달라진 학습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때 말씀드렸다시피, 언어학은 대중에게 익히 알려진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국어 교육학과 언어학 사이에서 고민하다 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판단과 언어학에 대한 흥미 때문에 언어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적이 많이 떨어졌지만, 부족한 만큼 비교과 활동에 열심히 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질문3] 전공 교수: 지원자가 제출한 생활기록부의 동아리 활동 상황을 살펴보니, 이중언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 보여요. 지원자가 생각하는 이중언어란 무엇인가요?

[답변] 제가 생각하는 이중언어는 언어의 사용자가 제1언어와 제2언어를 평등하게 발휘할 수 있을 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이민자와 국제 결혼 가정의 자녀, 이주민, 소수민족 언어 사용자 등 언어적 소수자들이 핍박받지 않고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질문4] 전공 교수2: 지원자가 제출한 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을 살펴보니, 1학년 때의 출석 상황이 좋지 않아요.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답변] 제가 스트레스성 위염이 있는데, 고등학교 생활을 막 시작한 학기 초에 중학교와는 너무 달라진 환경 때문에 적응하기 전까지는 등교 전 내원을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1학년 후반 적응을 끝마친 뒤엔 병결 지각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질문5] 전공 교수1: 일반 질문 하나 할게요. 15세에서 34세 인구 중 일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는 인구를 '니트족'이라고 하는데, 해당 인구의 비율이 대한민국에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니트족의 증가가 개인과 사회 중 어느 쪽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나요?

[답변] 사회구조적 문제에 의한 증가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책임은 사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직 활동이나 결혼을 하지 않는 니트족들을 개인의 문제라고 질타하기엔, 그러한 노력 자체가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평범하게 누리고 사는 것들을 당연시 여길 수 없는 소수는 언제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사회가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6] 전공 교수2: 앞서 말씀하셨던 답변 중에 '언어적 소수자'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언어적 소수자들을 위한 지원자의 구체적인 도움 방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이중언어 사용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교실, 결혼이민자를 위한 가정 방문 교사,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위한 보조 교사제도 도입 등이 있습니다.

[질문7] 전공 교수2: 일반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백신 패스 아세요?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코로나가 더 장기화되고 예전과 같은 일상 생활을 복구하기 위해선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의 어느 정도 구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가 간의 이동을 위한 절차 확립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후배들을 위한 조언

1.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은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자.

답변엔 적지 않았지만, '잠시만 생각하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되물은 질문들이 많아요. 질문을 들은 직후 바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질문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리세요. 생각을 정리한 후 차분하게 답변하는 것이,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내뱉는 말보다 나아요.

2. 교수님 표정과 반응은 되도록 신경 쓰지 말자.

면접을 위해 입실하자마자 보이는 교수님 한 분의 표정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한 분의 교수님께서서는 면접 내내 웃으며 온화한 태도로 제 대답에 경청해 주셨고, 다른 한 분의 교수님께서서는 면접 내내 제가 말할 때마다 집중을 하지 않으시고, 대답이 시원치 않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가웃거리셨어요. 면접이 끝나고 같은 대학교 입시를 치루셨던 선배께 여쭙보니 교수님들이 사전에 콘셉트를 정하고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또, 서류 점수가 높은 경우 면접 질문과 답변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어요. 당장 저 같은 경우에도 지원 동기를 묻지 않으신 것처럼요.

3.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움을 받자.

저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의 면접을 3번이나 봤어요. 그걸로도 부족해서 담임 선생님께 따로 부탁드려 수업 시간에도 면접 질문 예상에 대해 논의했구요. 자신이 3년 내내 적은 비교과 활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활동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었는지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청 주 대 학 교

대학명	청주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인문학부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최초합격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형명	창의면접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 시간은 5분 내외였습니다. 교수님 3분, 지원자 1명으로 구성된 3:1 면접이었습니다. 긴장을 풀어주는 질문(오는 데 힘들지는 않았나 등)을 하신 뒤,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질문, 총 3개의 질문을 한다고 예고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대기실에서 휴대폰과 소지품을 전부 걷어가고 면접 후 돌려줍니다.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여, 학교 로고나 이름표가 붙은 교복을 입은 학생은 가릴 수 있도록 테이프를 주니 대기실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의 말씀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대기 중에 면접 준비한 용지를 보는 것은 금지입니다. 신분증을 챙기지 않을 시 퇴실 조치 되므로 꼭 챙기길 바랍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많은 대학 중에 우리 청주대학교를 지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소설가나 사서 같은 책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중고등학교 때 일본어를 배우고 나서 이 특기를 살리는 직업이 없을까 생각하다 한국의 책을 일본어로 출판하는 일이 장래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하였고, 1학년 때 학부 내에서 여러 강좌를 수강하고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해 다양하면서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 생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질문] 학부 내에 전공이 여러 개인데 어떤 전공을 선택하겠는지와 그 이유에 대해 말해줄 수 있을까요?

[답변] 동양어문학을 전공하고 싶습니다. 제 꿈을 위해서는 일본어와 일본 문화에 대해 깊이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책을 좋아한다고 답변을 해서 많은 책을 읽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과 그 이유도 말해줄 수 있을까요?

[답변] 히구치 이치요의 키재기라는 책을 가장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일본의 5000엔권 지폐 속 인물이 쓴 책이라 하여 읽게 되었는데 섬세한 심리묘사나 작품의 분위기가 우리나라의 동백꽃, 소나기와 같은 작품을 연상 시켜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19세기 유곽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질문] 시간이 남아서 질문을 하나 더 할게요. 긴장하지 말고 청주대에 입학하면 어떻게 공부를 하겠는지에 대한 포부를 말해줄 수 있을까요?

[답변] 일단 전공 수업을 깊이 있게 공부하여 많은 것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나비데이와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일본어 어학 자격증을 취득하여 꿈을 위해 준비하고, 기회가 된다면 국제 교류 프로그램과 봉사 동아리에서도 활동해보고 싶습니다.

[질문] 우리 대학교에 나비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답변] 청주대학교 홍보 책자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라 당황하여 짧게 대답하였는데 청주대학교에 관심이 많아 홍보 책자, 공식 홍보 블로그 등 여러 곳에서 나비데이를 언급하는 것을 보고 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했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청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수시모집 - 공지사항 -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검색하면 나오는 질문들에 전부 답변을 준비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꼭 찾아보시고 그것에 맞게 준비와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합격의 이유로는 모두 준비한 예상 질문이 나와서 준비한 대로 답변한 것과 전공 적합성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주대학교만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는 나비데이를 언급하여 학교에 관한 관심을 나타낸 점도 합격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북 대 학 교

대학명	전북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철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최초합)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큰사람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면접 - 개인 입실, 면접관 3 : 학생 1		
기타 유의사항	- 자기소개서 없음 - 일부 면접질문 생략		

질문 및 답변 내용

* 답변 내용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어, 기억과 사전에 작성했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질문] 철학과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

[답변] 가장 처음에는 형이상학적 의문을 해소하고 싶었다. 고등학교를 인문계로 진학한 이유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의문을 해소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이 되고 나선 형이상학적 질문뿐 아니라 철학이라고 명명되는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고 싶었다. 그래서 해당 학과에 지원했다.

[질문] “오르골”이라는 소설을 작성했다고 나와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답변] 인류애를 주제로 한 소설이다. 박애란 위대한 것임을 알고, 또 그런 인류애를 실천한 노인과 노인을 닮은 동료들 보며, 그렇지만 박애를 이해할 수 없는 스스로에게 실망과 좌절을 겪는 여자의 이야기다. 역량이 부족해 썩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질문] 그런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어머니를 보며 위대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포용하며 사랑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고 소설 속 여자처럼 그 사실에 절망했다. 그리고 세상의 나와 같은 사람에게 위안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질문] 볼테르의 저서를 세 권이나 읽었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볼테르를 처음 접한 건 사실 그의 대표 사상인 관용론 때문이 아니라 “칸디드 혹은 낙관주의”다. 본서에서 라이프니츠식 사고방식을 비판한 그가 관용론을 주장한 것을 알고 뒤이어 “관용론”을 읽었고, 여기서 나타난 그의 신관을 이해하고 싶어서 “불온한 철학사전”을 읽었다.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다기 보다, 우연한 계기로 그와 가까워졌고, “관용론”을 읽으며 관용을 체화하고, 그렇게 익힌 관용이 삶에 큰 도움이 되었다.

[질문] 볼테르의 관용이 삶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가?

[답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주위에 있다. 관용을 알기 전에는 그 사고방식을 옆에서 겪으며 무척 힘들었다. 화도 많이 났고, 위험한 생각도 할 정도였다. 그렇지만 관용의 사상을 알게되고 받아들이며, 큰 위안이 되었다. 누군가를 포용하고 다름을 이해하는 일에 아주 많은 도움을 주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답변] 철학과에 진학한다면 많은 거인의 말을 배울 것이다. 나는 그 모든 많은 말을 배우고, 또 그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 너른 세계를 향유하며 나만의 생각을 창조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스스로 철학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거인의 말을 배우고 싶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사전에 모의 면접을 꼭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이에 질문을 두고 손으로 답변을 적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퇴고를 통해 더없이 멋진 대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고 돌이킬 수 없는 목소리를 내는 일은 종이에 글을 적는 것과는 다릅니다. 부디 꼭 모의 면접을 해 보십시오. 종지와 글 없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접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면접이라도 아쉬움은 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았을걸, 내가 생각했던 답변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렇지만 아쉬움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말을 끝났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뒤집을 수 없는 일이라면 에이, 몰라, 하고 툭 털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연 세 대 학 교

대학명	연세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철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최초합
전형유형	교과/제시문면접	전형명	학교장추천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침에 정해진 시간까지 정해진 대기실 입실 (필자의 경우 상남경영원에 8시 20분까지 입실. 이는 오전/오후 면접에 따라 입실시간과 대기실 상이) 2. 대기실 입장 전, 면접 전용 수험표 부여 후 발열 체크 후 대기실 입장함. 3. 원하는 자리에 착석 후 미리 준비한 면접 대비용 제시문 읽기로 예열함. 4. 각종 전자기기는 모두 제출하지 않을 시, 실격 처리됨을 유의하고 제출함. 5. 수험표에 부여된 조 순서대로 수험생들을 호명한 뒤, 면접 직전 신분증과 얼굴 대조 진행함. 6. 조교들의 안내에 따라 조 멤버들이 단체로 이동함. 7. 면접장 밖에서 5분 정도 대기 후 면접실에 들어가 조교의 진행대로 비대면 면접 진행 8. 면접을 끝나고 바로 퇴실 진행함. 		
기타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실 시간 지각하지 마세요. 일요일 오전 면접에서 지각생 2명이 있었습니다. 지각하지 마세요!!!!!!!!!!!!!! 2. 연세대의 상남경영원의 비대면 면접장은 호텔 객실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들어가서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3. 이 문항은 내년에도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한다면,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3-1. 먼저 들어갔을 때 제시문은 파일철과 함께 책상에 고정되어있고, 그 제시문에는 어떠한 표시(밑줄, 체크 등)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로 연습장을 주십니다. 3-2. 또한 테블릿이 고정되어있는데, 조교들만 건들 수 있고, 어떠한 터치도 해선 안 됩니다. 다 안내해주십니다. 3-3. 중간에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타이머가 울립니다. 정말 시끄러우니 놀라지 마세요. 		

질문 및 답변 내용

제시문 (가). - 고전 수필 내용 비슷하게 나눔. 한 사람도 쉬지 말고 다 일해라. 일하지 않으면 그건 짐승이다. 이런 내용이었음

제시문 (나). -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원전 따옴.

제시문 (다). - 개미와 베짚이 이야기

제시문 (라). - 실험 결과

a집단 열심히 일하는 사람 100
 b집단 열심히 일하는 사람 80/대충하는 사람 20
 c집단 열심히 일하는 사람 30/대충하는 사람 70

--> 2개월 후 작업량 조사 A>B>C

--> 3년 후 작업량 조사 B>A>C

질문1. 제시문 ‘나’를 통해서 제시문 ‘가’와 ‘다’ 비판

답변: 제시문 ‘나’는 여가와 노동의 적절한 비율의 분배를 강조한다. 정해진 시간에만 일하고 나머지는 정신적, 신체적 여가를 즐긴다는 점이 그러하다. 이 입장을 빌려서 제시문 ‘가’를 비판 하면, 먼저 모두 쉬지 않고 일만 하기를 바라는 태도를 비판할 수 있다. 필자는 극단적으로 일하지 않는 자는 금수와 같다고 말한다. 이는 개인의 정신적 자유를 심히 고려하지 않는 입장이며, 현재 우리 사회의 ‘열정페이’가 투영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또한 제시문 ‘다’는 놀기만 하는 베짚이와 일만 하는 개미의 일화를 볼 수 있다. 이를 비판해보자면, 햇빛이 엄청난 여름 날, 쉬지 않고 몸을 혹사하는 개미는 잘못되었다고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베짚이 또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므로 비판할 수 있다.

질문 2. 제시문 (라) 해석 결과로 제시문 (가), (다) 평가

답변: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며) 단기적인 작업량으로 본다면, A집단의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고, 다음으로 B, C가 효과적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작업량으로 본다면, B집단의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고, 다음으로 A, C가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동을 쉬지 않고 하기만 하면 일정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노동의 브레이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에 반해 노동보다 여가의 시간의 비중을 더 많이 둔다면, 효율이 저하되고 집단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두 집단과 달리 노동의 비율이 높은 대신 여가의 시간도 있는 상황인 B집단을 본다면, 적절한 노동과 여가의 조화는 전체 이익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로 제시문 (가)와 (다)를 평가한다면, A집단의 결과로 (가)를 평가할 수 있다. 지나치게 노동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A집단과 제시문 (가)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구성원들이 일절의 여가없이 노동만 하게 된다면,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가의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보인다. 그리고, A와 C집단의 결과로 (다)를 평가할 수 있다. A집단의 결과로는 몸을 지나치게 혹사하는 개미를 비판할 수 있다. C집단의 결과에서 보인 개인의 여가를 더 중시하는 태도를 베짖이에게서 볼 수 있다. 개미와 베짖이의 태도는 제시문 (라)를 통해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둘 집단 모두 적절한 노동과 여가의 분배로 B집단과 같은 비율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면접을 본지 벌써 2개월이 지나서 복기가 잘 안 되지만 최대한 기억나는대로 써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시문 면접을 준비하면서 정말 다양하고 많은 제시문들을 접했어요. 성적대가 완벽히 안정권이 아니어서 면접으로 승부를 보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전 완벽한 면접을 위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물론이고 이화여대 논술, 성균관대 논술, 한양대 논술 문제까지 접했습니다. 모두 어렵다고 소문이 났거나, 연세대의 면접 방식과 비슷하다는 평을 받은 제시문들이었습니다. 모래주머니 효과라고 아실까요? 제가 연대 면접에서 제대로 느낀 것 같습니다. 연습 제시문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가 실전에선 별로 긴장도 안 됐어요.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대기실에선 즐기까지 했답니다. 모든 면접은 준비할 땐 어렵게하세요! 그리고 준비할 때는 주변 지인들께서 조언해주는 것들이 자기객관화를 더욱 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아요. 좋게만 말해주는 사람들이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적어도 입시에선 그렇더라고요. 겸허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꼴전형을 잘 찾아서 지원하면 생각보다 높은 대학까지 노릴 수 있어요! 파이팅 내년엔 후배로 만나요!

서울대학교

대학명	서울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국어국문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수시 종합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p>시간은 오후조로 12시 30분이었고 면접 장소는 인문1관이었습니다. 면접 도우미 분께 안내를 받고 발열 체크 및 손소독 후 대기실에 들어가 학생들 서로 거리를 두고 앉게 되었습니다. 인원은 10명으로 남자 2명에 여자 8명이었습니다. 앞에 면접 도우미 분이 30분마다 학생을 불러 면접장으로 보냈습니다. 대기실은 환기 때문에 약간 추웠고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였습니다. 하지만 종이 자료는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져온 자료를 보며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을 불리면 대기실을 나와 면접 도우미 분의 안내를 받고 답변 준비실로 가게 됩니다. 인문 지문 1개, 사회 과학 지문 1개와 플러스 펜과 종이를 받고 15분 동안 답변을 준비합니다. 1분이 남았을 때 도우미 분이 말해주시고 시간이 다 되면 지문과 종이, 펜을 챙기고 면접실로 가게 됩니다. 면접실에서는 두 분의 교수님과 30분 동안 면접을 하게 됩니다. 면접 중 1분 남았을 때 면접 도우미 분께서 노크를 하십니다. 면접이 끝난 후에는 종이와 펜은 반납하고 짐을 가지고 바로 나가면 됩니다.</p>		
기타 유의사항	<p>면접 대기실 온도에 유의해야 하며 자신이 면접 뒷번호라면 오래 기다릴 수 있으니 자료를 챙겨옵니다. 제가 있던 대기실은 책이나 자료를 볼 수 있었지만 다른 학과 대기실에서는 못 보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유의합니다.</p>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 1-1. 제시문 (가)의 대상의 표상화, 현실적 정보의 개념과 연관지어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 1-2. 제시문 (나) 또는 (다)와 연관지어 아래 보기에 있는 단어들 중 하나만 골라 단어가 잘 드러나는 문학작품을 하나 이야기하십시오
- 2-1. 제시문 (가)에서 드러난 사례를 제시문 (나)와 (다)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시오
- 2-2. 제시문 (라) 속에서 (가)와 (나) 중 무엇이 더욱 유해한지 선택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 하시오

[답변]

1-1. 제시문 (가)의 내용은 모두 개인의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대상의 표상화가 일어나 사람들이 같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도 각자 생각과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제시문 (나)와 (다)는 13세기 중엽 유럽인들이 몽골인들을 묘사한 글이었는데 제시문 (나)는 몽골인을 악마와 같이 묘사했고 제시문 (다)는 몽골인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모두 언급했다. 제시문 (가)와 관련지어 제시문 (나), (다)의 내용을 보자면 몽골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한 부분들은 대상의 표상화로 인해서 생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제시문 (나)와 (다)의 내용 차이도 그러하다. 하지만 제시문 (나)와 (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몽골인의 잔인한 침략 과정은 현실적 정보라고 볼 수 있다.

추가 질문 1. 제시문 (나)와 (다)가 사회의 관점에서는 각자 어떤 사회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가?

추가 질문 답변 1. 제시문 (나)는 몽골인에게 일방적으로 침략당한 사회, 제시문 (다)는 몽골인과 공존하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제시문 (나)에서는 단순한 몽골인에 대한 비판만 있는 반면 제시문 (다)에서는 몽골인에 대한 긍정적 서술도 있기 때문이다.

추가 질문 2. 그렇다면 만약 제시문 (나)와 (다)가 같은 사회에 있다고 한다면 제시문 (나)와 (다)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추가 질문 답변 2. 그렇다면 제시문 (다)의 화자가 제시문 (나)의 화자보다 더욱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제시문 (나)의 화자는 몽골인에게 저주에 가까운 서술만을 하고 있지만 제시문 (다)의 화자는 몽골인에 대한 비판과 함께 몽골인의 긍정적인 부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1-2. 나는 보기 중에서 분노라는 단어를 선택해 제시문 (나)와 연관지어 고전 소설 박씨전을 제시했다. (보기에는 분노, 두려움, 혐오감, 이질감 등의 단어가 있었다.) 왜냐하면 제시문 (나)에서는 화자가 몽골인에 대해 분노에 차 부정적인 서술을 남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박씨전 역시 몽골의 유럽 침략과 같이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침략을 다루고 있으며 당시 사회 사람들이 품었던 청나라인들에 대한 분노감이 박씨가 용골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부분에서 표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라는 단어에서 제시문 (나)와 박씨전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추가 질문: 그렇다면 제시문 (다)와 보기의 단어 중에 연관지을 것이 있는가?

추가 질문 답변: 나는 보기에서 이질감이라는 단어와 제시문 (다)를 연관짓고 싶다. 전 답변에서 이야기 했듯이 제시문 (다)의 화자는 몽골인과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시문 (다)에서 드러나는 몽골인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은 같은 공동체 내에서 다른 구성원에 대해 느끼는 이질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2-1. 제시문 (가)에서 드러난 사례는 독일에서 현재 비선출직 전문가가 정치에 참여해 정치에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제시문 (나)와 (다)에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우선 제시문 (나)는 대의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제시문 (나)의 화자는 제시문 (가)의 사례를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할 것이다. 제시문 (다)의 내용은 엘리트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제시문 (다)의 화자는 제시문 (가)의 사례에 대해서 엘리트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면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이다. 이에 대해 본인은 제시문 (나)에 공감하며 제시문 (가)의 사례와 제시문 (다)를 비판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2가지 근거가 있다. 첫 번째로는 시민들이 제시문 (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패한다고 해도 자정작용을 거쳐 더욱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은 정책의 피해에 대해 시민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제시문 (가)에서 쿠란 금지를 정책으로 내건 정치인이 당선되었을 경우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제시문 (가)의 경우는 시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게 된다.

2-2. 제시문 (라)에서 (가)는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 (나)는 참여가 없는 자유주의였다. 이에 대해 본인은 (가)가 사회에 더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가)는 독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자유가 없이 그저 선거만 하게 된다면 제대로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런 문제는 독재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크다고 예측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위 답변과 같게 자유 없는 선거는 제대로된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다. 그러므로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큰 의미가 없으며 이것이 (나)보다 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추가 질문: 그렇다면 (나)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추가 질문 답변: 이에 대해서는 2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참여 없는 자유주의는 방종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참여가 없이 주어진 자유는 귀중함을 잃고 자유의 사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방종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두 번째 이유는 참여 없이 자유를 얻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이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 등에 대해 참여함으로써 책임을 지게 되거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유는 부당하며 위험하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꼬리 질문이 매우 많으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선택하지 않은 주제의 답변도 생각해두어야 합니다.

대면면접이므로 인사나 시선처리에 신경써야 합니다.

이 화 여 자 대 학 교

대학명	이화여자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학과명	국어국문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 교과	전형명	고교추천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장 입구에서 QR코드와 수험표 검사 후 입장→입실 완료 시간까지 대기→입실 완료 시간이 되면 소지품 제출(대기실 앞쪽으로 모아둠)과 신분증&수험표 검사→호명이 되면 복도에서 수험표 검사&면접 대기→면접→퇴장		
기타 유의사항	비대면 면접(zoom), 면접시간 6분, 면접관 3명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국어국문학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와, 고등학교 과정 내에 학과와 관련한 활동은? (말투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지만, 친절하셨습니다)

[답변] 네. 제가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문학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선구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학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시간에 강은교 시인의 '일어서라 풀아'라는 시를 배운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어서라 풀아'라고 힘있고 강인한 어조로 민중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처럼 시가 가진 비판, 공감, 그리고 감동의 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보다 평화로운 사회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문학과 사람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여 문학을 깊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3학년 심화국어 시간에 '시 작품에 드러난 '시인'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탐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수업시간에 김종삼 시인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라는 시를 배운 후, 시인이 '시인' 그리고 '시 짓기'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백석과 윤동주 시인의 작품세계에 대한 한국시학연구의 논문을 참고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분석을 통해, 김광섭, 백석, 윤동주 시인이 시인을 '천명'으로 여기고, '고독한 존재'라고 여긴다는 공통점을 찾아내었습니다. 시 짓기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 역할에 대해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질문]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대학 졸업 후에 출판사 또는 비평가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제가 모르는 문학 작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출판사에서 일하며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학을 출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판 기획을 한다면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비평가로 활동한다면, 비평을 통해 사람들에게 문학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질문] (앞 질문의 꼬리질문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소수자를 중심으로 한 문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네. 저는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한 문학작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성, 노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한 문학작품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아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문학을 통해 이들을 겪는 어려움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1학년때 언어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문학 작품에 나타난 욕설과 비속어를 찾아보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어폭력이나 욕설 또한 사회의 일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네. 문학은 사회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욕설과 언어폭력의 묘사 또한 사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독자의 입장에서는 책을 읽다 욕설이 나오면 당혹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종료)

후배들을 위한 조언

- 생각보다 면접 시간이 짧으니, 답변은 두괄식으로 길지 않게 하는편이 좋음.
- 화상면접(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화면에서 내가 어떻게 나오고, 상대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잘 가늠이 어렵기 때문에 줌으로 모의면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음. 시선위치, 목소리 크기 등을 생각해보아야 함.
- 컴퓨터 화면이 조금 뒤로 누워있어서 내 모습이 가슴 부근까지 화면에 나왔음. 그래서 손동작이 안보이고 얼굴만 보였기 때문에 표정을 신경쓰는 것이 필요할 듯함.
- 대기시간이 길어져 배가 고플 수 있으니 밥을 든든하게 먹기.
- 대기실 내 시계가 없으니 손목시계 필요.

한 발 대 학교

대학명	한발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격
학과명	영어영문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종합	전형명	종합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12시 30분까지 입실 후 1시 면접 시작		
기타 유의사항	그 외 면접 관련 참고할 만한 내용: 면접장에 1시간 전에 도착하라고 써 있다면 잘 지키고 준비물도 전날에 미리 준비해서 가기		

질문 및 답변 내용

A: 이 학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와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2분내로 설명해보세요.

Q: 저에게 영어는 힘든 시기에 유일하게 공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 주었고,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더라도 더 열심히 배우고 싶게 만드는 정말 좋아하는 언어입니다. 여러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한국을 알리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미권에 대한 여러 지식과 무엇보다도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문학과의 수업을 통해 외국의 고유문화, 회화, 언어 등 영어에 기반이 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저의 모습은 저는 해외로 나가 여러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호텔 관련 일을 하거나 외국기업 또는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방면으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A: 책을 많이 읽었는데 기억에 남는 책이 있나요?/ 기억에 남는 작가도 있나요?

Q: 네. 기억에 남는 의미있는 책들은 정말 많았지만, 너무 많아서 하나를 고르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읽고 싶은 책은 있습니다. 유명한 죽은 시인의 사회, 현대 영어와는 다른 중세 영어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완전 새롭게 Underground railroad라는 책을 읽고 싶습니다./ 저는 헤르만 헤세라는 독일 작가의 책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영문학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영문학과 수업에서 다양한 작품을 읽고 자세하게 알아가고 싶습니다.

A: 의미있는 봉사활동이 있다면 어떤 점이 의미있었고 자신에게 좋은점은 무엇인가요?

Q: 네. 저는 헌혈 봉사가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요양원 봉사를 계속하기가 힘들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봉사를 찾다가 헌혈 캠페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변 환경이 좀 더 깨끗해지도록 청소하고, 헌혈하러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자국민을 비롯하여

지구촌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도움의 손길을 주는 따뜻한 마음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좋은점은 대충 돌려말했는데 교수님이 2번이나 나에게 좋은점을 물어보셔서 결국 교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셨다..)

A: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나요?

Q: 네. 제가 준비한게 있는데요..! Action~(뒷말이 기억 안나서 말을 늘어뜨리다가) speak louder than words!!! 말보단 행동이 낫다라는 속담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이 한밭대학교에서 교수님들과 수업도 듣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어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며 영어실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이 진심이 교수님들께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뽑아주십시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당황하거나 동문서답을 하는 상황이 와도 어떻게든 대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면접장을 나오기 전까지 당당하고 밝은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어라. (아무말 안하는 것보단 훨씬 좋음)

영문학과에서 다루는 책을 미리 조사해서 작은 그 책만의 특징을 알아놓는 것이 좋다.

만약 읽고 싶은 책을 말할 때 단순히 제목만 말한다기보단 특징과 함께 설명하면 내가 영문학 작품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이다.

또한, 면접볼 땐 나에게 어울리든 안어울리든 깔끔한 복장, 헤어스타일, no 악세서리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명	서울시립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중국어문화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관 두 분과 약 12분 간 대면면접 진행, 면접실 들어가서 큰 소리로 '면접주의사항' 읽고 면접 시작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1. 사회문화 수업에서 마르크스의 계층론, 베버의 계급론에 대해 수업했다고 하는데 어렵지 않았는지?

답: 이론적인 부분만 다뤄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마르크스의 계층론은 사회 불평등의 발생 원인을 경제적 측면에서만 따지지만, 베버의 계급론은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을 중점으로 발표했습니다.

2. '노동으로 보는 중국' 책을 읽었는데 어렵지 않았는지, 전체 부분을 다 읽었는지?

답: 솔직히 읽으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번 읽었던 것 같습니다.

2-1. 꼬리질문-노동으로보는 중국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답: '노동으로 보는 중국'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중국 노동구조의 불합리함, 즉 농민공 문제입니다. 중국 호적제도에서 비롯된 중국의 농촌 노동자의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생각합니다.

3. 중국 관련 책이 굉장히 많다, 3학년 때도 중국 관련한 책을 많이 읽었다, 수험생활 동안 어떻게 읽었나?

답: 저는 중국 관련 책에 처음에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삼관 매혈기'라는 소설을 처음 접하면서 "아, 중국 역사, 문화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특히 역사적인 부분이 잘 담겨있는 중국 소설의 특징을 통해 중국을 공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독서 활동을 자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제가 책 읽는 것 자체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4. 중국에서 인권 기자로 활동할 때, 제약이 많을텐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답: 중국에서 특히 인권 부분을 다루는 기자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는 누군가는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신장위구르족의 인권 문제가 국제 사회에 알려지게 된 배경 역시 중국 공안의 위협과 통제 속에서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기자들이 소식을 전한 것처럼 저 역시 비밀취재, 인터뷰를 통해서 차별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5. 자소서 소재 '하나의 중국'인데 한국 역시 중국처럼 분단국가이다. 하나의 한반도? 하나의 한국?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 한국과 중국 사회는 '이념갈등으로 인한 분단'이라는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인권 기자라는 진로를 통해서 중국의 분단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 문제 해결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중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국의 분단 문제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각 학과 별 인재상을 매우 중시합니다. 저는 성적이 높은 편이 아니었지만, 중국어문화학과 인재상에 부합하는 면이 많았기에 최조합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지원을 희망한다면 학과 인재상과 자신이 부합하는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합격 인원이 타 대학에 비해 적어서 그런지, 면접관님이 확실히 제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알고 질문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면접 준비 꼼꼼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경희대학교

대학명	경희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중국어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1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네오르네상스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생기부 / 자소서 기반 면접		
기타 유의사항	8-10분 진행 / 면접관 2명		

질문 및 답변 내용

실수해도 되고, 답변을 수정해도 되니 준비한 것들 최선을 다 해서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긴장을 풀어주심.

1. 국제개발협력가를 꿈꾼다고 했는데 어학을 배우는 과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지?

- 저는 교내 중국어 시간에 언어 뿐 만 아니라 중국의 정치, 경제, 현재 대두되고 있는 이슈를 학습했습니다. 또한 문학작품을 접하며 문학작품이 담고 있는 중국의 시대상황, 사회적 현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민중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의 사회현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탐구를 진행하다 보니 중국의 빈부격차, 불평등, 소수민족의 인권 탄압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욕이 앞서기 이 전에, 그 국가의 언어와 문화, 관습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학습해 이후 사회문제 해결에 지식을 적용해 해결하고 싶습니다.

2. 문학작품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 저는 위화의 '인생'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위화 작가는 해당 소설에서 주인공 푸구이를 통해 중국의 문화대혁명, 대약진운동과 같은 격변기적 상황 속에서 고통 받는 민중들을 그려냈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들을 읽으며, 작가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해석하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3. 중국의 빈부격차, 소수민족의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해서 많이 탐구해왔는데 어떤 활동을 했는지?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동부를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동부와 서부의 지역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서부대개발을 추진해 서부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부대개발은 소수민족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문제점과 더불어, 한족이 서부지역에

파견되어 애국주의 교육을 통해 동화정책을 실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점을 보완해 신서부대개발이라는 것을 추진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마련해보았습니다. 신서부대개발의 주요 정책은 중국의 소수민족의 문화적 다양성으로 보존하고, 이를 관광 산업으로 발전시켜 이들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또 이것이 중국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4. 중국이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되기 위해 강압적인 통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저는 중국이 단일민족, 즉, 단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하기 위해 펼치는 강압적인 통치로 인한 부당한 인권 탄압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권리인 인권을 수호하면서, 소수 민족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 끈기와 열정, 그리고 그를 통한 성장. 그것이 제가 가진 가장 큰 잠재력입니다. 중국의 문학 작품을 통해 키운 중국 사회에 대한 관심도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저의 열정을 경희 대학교에서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펼쳐 나가고 싶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자소서 혹은 면접을 준비하기 전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각 학교 별 인재상을 찾아보고, 이에 부합하는 활동을 자신의 생기부의 강점으로 삼아 더 꼼꼼하게 준비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희대학교는 인성 관련 질문을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어 준비했는데, 매년 달라지고 면접관 분들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만의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활동에 대한 내용/ 배운점 등을 정리해보면 어떤 질문이어도 매끄럽게 대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면접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교내 선생님들과 모의면접을 진행해보며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국대학교

대학명	건국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중어중문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최초합격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KU자기추천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생기부 / 자소서 기반 비대면 화상 면접		
기타 유의사항	약 10분 진행 / 면접관 2명		

질문 및 답변 내용

1.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소수민족 탄압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도 흑인에 대한 차별과 탄압이 이루어지는 것을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해줄 수 있나?
 - 국제 사회에서 인권 탄압이라는 주제로 비난을 받게 되면, 국제 사회 내에서 반중국감정이 심해질 것이고, 중국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것입니다.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해 유엔 인권 회의 내에서도 소수민족 인권 탄압 관련한 내용이 언급되면, 그것을 피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마찬가지로 인권 유린이라는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습니다. 저는 두 국가 모두 인권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인권을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저는 국제 사회의 어떤 국가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인권 수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중국이 빈부격차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며 동서지역간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해져 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수민족이 다수 거주하는 서부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서부대개발을 추진하긴 하였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족이 서부지역으로 파견되어 애국주의 교육과 한족 동화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보완하여 신서부대개발을 추진해, 소수민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킨다면, 소수민족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중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4. 중국이 빈곤퇴치사업을 추진해 유엔지속가능한개발목표를 앞당겨 달성했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나?
 - 시진핑 정부는 빈곤층의 고통을 해소하고,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곤퇴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유엔지속가능한개발목표 중 빈곤퇴치 목표를 앞당겨 달성해 찬사를 받았지만, 사실 중국 내에서 이 사업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빈곤층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사업 실시 전보다 생활 환경과 수준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실제로 통계가 위조되었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5. 국제엠네스티에 탄원편지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작성했는지?
- 사이트 내의 탄원편지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아닌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동의합니다’ 형식으로 그 소수민족의 인권 문제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6. 국제봉사단체기획PPT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발표했는지?
- 현재 유엔난민기구라는 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기구가 존재하지만, 저는 이 국제기구가 실제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난민이 주도하는 국제기구를 설립한다면, 그들이 살아온 환경에서 직접 겪은 어려움과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고통을 겪었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게 되어, 더욱 더 효과적인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로 난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대개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난민들은 혼자서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지 못한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이 직접 국제 협력가들과 국제기구를 주도해나간다면 이러한 인식을 극복함과 더불어 난민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 자소서/ 면접 준비할 때 전공 관련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을 2-3가지 선정해, 그 활동을 중점적으로 질문에 대비하는 것을 정말 추천합니다! 각자 생기부 별로 드러나는 희망 진로나 그 관련 활동에 대해서 분명 질문을 하실 테니까요! ‘인상깊었던 활동’ 혹은 준비한 내용이 적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도 자신이 준비한 강점을 가진 활동들과 엮어서 대답한다면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만의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활동에 대한 내용/ 배운점 등을 정리해보면 어떤 질문이어도 매끄럽게 대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면접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교내 선생님들과 모의면접을 진행해보며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명	이화여자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학과명	중어중문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예비 2번
전형유형	교과	전형명	고교추천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화여자대학교에 가서 줌으로 하는 비대면 면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대기실에서 대기하다 번호를 부르시면 면접 고사실로 이동하였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시작하기 전에 소지품 가방에 넣어서 앞으로 제출했습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중어중문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슈나, 인물, 계기가 있나? 그리고 교과목 성적이 우수한데, 성적이 좋지 않은 과목 이유는? (첫 질문을 엄청 길게, 연달아서 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준비한 지원동기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성적이 좋지 않은 과목이 영어라고 생각하는데 영어를 단순히 암기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로 인해 좋지 않은 성적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이후 영어를 무작정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하려고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질문] 토론동아리를 꾸준히 했는데 거기서 중어중문과 관련된 활동, 그리고 동아리에서 본인이 한 역할은?

[답변] '환경 보호와 도덕성의 관련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시작되기 전, 환경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도덕적 면모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시작된 후에는 점차 사람들의 인식과 도덕적인 면모가 높아지며 업사이클링과 같은 환경 보호와 관련된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며 문화는 그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러한 문화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에서 저는 친구들의 말을 정리해주고, 서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질문] 굳이 상을 타지 않았더라도 기억에 남는 대회가 있나?

[답변] 저는 확률과 통계 부문 수학경시대회가 기억에 남습니다. 전 질문에 성적이 좋지 않은 과목으로 영어를 예시로 들었는데, 저는 수학 또한 성적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시험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수학에 집중할 시간이 많은 대회 준비 기간에 다양한 유형의 수학 문제를 접하면서 수학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고, 성적이 낮은 과목이라도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다가 면접 시간이 다 되었다고 말씀하셔서 당황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두 번 말하고 나갔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 면접 고사실 들어가자마자 텅 빈 방에 책상 있고 그 위에 노트북 하나 놓여 있어서 위압감은 딱히 없었습니다.
- 줌으로 세 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신 채 기다리고 계셨고, 세 분 모두 다른 공간에 계셨습니다.
- 말할 때마다 자주 웃어주셨고, 질문을 조금 돌려서 하셔서 질문에 대한 파악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보다는 태도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 저는 선택 과목으로 중국어를 듣지 않았고, 생기부에 중국 관련 내용이 거의 없고 경영 관련 활동만 많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기본 질문으로만 많이 나왔습니다.
- 말을 많이 더듬었는데 다행히 이해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청 주 대 학 교

대학명	청주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격
학과명	경영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면접	전형명	창의면접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 1층에서 문진표, 예진표 등 작성, 제출 후 발열체크 하고 2층 대기실로 이동 - 대기실에서 관계자분께서 면접자 순서와 자리 안내해줌 - 3:1 면접 방식		
기타 유의사항	- 대기실에 면접시간 30분전에 미리 와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30분 전부터 1~2명 빼고 다 대기실에 계셨음) - 대기실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온 자료 못 보니 미리 연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 교복 착용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면접자 거의 다 교복 착용하심)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첫 번째 앉아계신 분께서) 청주대에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부모님 이외에 롤모델이 있나요?

[답변] 저는 마켓컬리 대표이신 김슬아 경영인이 저의 롤모델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소비자 생산자 직원 모두에게 옳은 일을 하겠다는 경영철학과 둘째 마켓컬리의 셋별배송 직거래 매입 방식 등 차별화된 방법으로 경영을 한다는 것, 셋째 상품위원회에서 품질 가격 등과 관련된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팔겠다는 그 철저함과 세심함 이 세 가지를 본받고 싶기 때문 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어 사회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마케터가 되고 싶습니다. (너무 떨려서 조금 버벅거린 감이 있지만 문장의 끝맺으려고 노력함)

[질문] 오 그러니까 이 경영인이 경영을 잘 하고 있다는걸 본받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그 사람 성격은 어떤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착한 면은 뭐가요?

[답변] (첫번째 질문부터 예상치 못해서 긴장을 더 했는데 꼬리질문에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당황한 티 최대한 안내려고 함) 그 분(마켓컬리 대표)께서는 모두에게 옳은 일로 경영을 한다는 것을 통해 좋은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서...(말끝 흐림...)

[질문] (두번째 앉아계신 분께서) 지원동기 한번 말해볼까요?

[답변] '우리의 결정이 커피 시장을 만들어내고 커피생산자들의 삶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회 학자 앤서니 기든스의 인용구를 근거삼아 발표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활동을 계기로 경영학과에 진학하고자하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또한 기업윤리와 윤리적 소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 윤리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면서도 합리적인 경영을 도출해내는 마케터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점이 청주대학교 교육이념 중 진리탐구와 덕성함양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긴장 돼 중간에 멈추고 숨 들이마시고 다시 말함)

[질문] 긴장했나보네요. 하하 괜찮으니까 천천히 말해도 되요. 우리학교 많이 오고 싶었나보네요~
지금 답변한 걸 보면 청주대학교 교육이념도 다 찾아보고 준비 많이 한 것 같네요. 이렇게 조사도
잘하고 열심히 준비한 것 같은데 공부는 잘해요?

[답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친구들도 열심히 하기에 성적이 잘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활동 측면에서는 열심히 준비한 만큼 결과가 좋아서 선생님께 항상 칭찬을 받습니다.

[질문] 대학교 들어와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첫째는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기에 동아리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고등
학교 때 동아리 활동이 일주일에 한 시간 밖에 되지 않아 활동하는 데에 있어 진전이 많이 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크게 남기 때문입니다.(두 번째, 세 번째까지 답변 준비했는데 말 못함)

[질문] (첫 번째 앉아계신 분께서) 취미가 뭐예요?

[답변] 악기와 요리하는 것입니다. (정말 취미를 대답함ㅋㅋ)

[질문] 악기는 뭐?

[답변] 클라리넷, 피아노, 비올라 등 다양한 악기 해봤습니다.

[질문] (두 번째 앉아계신 분께서) 음대를 가지 왜?

[답변] 어렸을 때 다양한 활동을 많이 접할 기회가 생겨 많은 악기를 취미로 하게 됐습니다.^^

[질문] (세 번째 앉아계신 분께서) 마지막 질문 할게요. ㅎㅎ 공부 하는 방법 말해주세요

[답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무작정 계획 없이 공부를 했었는데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한 후
스터디플래너에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하루에 정해진 목표를 하는 것으로 공부방법을 바꾸었더니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말하다가 버벅거리서 준비한 답변보다 못 말함)

[질문] 자기만의 특별한 장점을 이야기해볼래요? (하시다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보라고 하심)

[답변] 저는 마케터가 되기 위한 역량은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획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소비자들을 설득해 그것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이 저의 장점이기에 마케터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다시 한 번 청주대학교에 지원해줘서 고마워요. 나가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로 포부를 말하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틈을 안주심)

후배들을 위한 조언

저는 면접 하루 전까지 긴장이 안 되었는데 면접장을 실제로 가니까 정말 긴장이 많이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떨렸지만 문장의 끝맺음, 하고 싶은 말을 잘 하고 나온 것 같아 흥분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과 면접연습을 정말 많이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상 청주대학교 지원자 중에 성적이 낮은 축에 속할 거예요. 하지만 열심히
준비한 만큼 결과가 따라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좌절하지 말고 늘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한 국 외 국 어 대 학 교

대학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격
학과명	경영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면접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텍스 장갑 끼고 대기 후 입장, 투명한 판 달려있는 책상 앞에 앉아서 면접 진행.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스크는 KF94 착용(입구에서 배부) 면접 시간 7분 칼같이 지킴. 		

질문 및 답변 내용

Q 1. 생기부를 보니까 인사관리에 진짜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

A. 1학년 세계시민교육 시간에 OECD 국가들 중 우리나라의 일-행복 지수가 두번째로 낮다는 걸 배웠다. 구인구직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2030 신입사원들의 무려 절반 가량이 1년 이내에 퇴직을 결정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실시함에도 퇴직률이 굉장히 높다. 이는 2030 세대에게 있어 더이상 직업 선택의 척도가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홍보부 부장으로서 학생회를 이끌며 적재적소의 중요성을 체감했고, 기업이 앞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을 실현하려면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와 조직문화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2. 경제경영 동아리 부장을 했다. 뭘 했나?

A. 3학년 때 ○○○○이라는 동아리의 부장직을 맡았다. 경영이 워낙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학문인 만큼 나 혼자서는 동아리원들의 관심사를 다 포괄하기 힘들다고 생각했고, 학생들마다 무역부장, 마케팅부장, 회계부장 등으로 직책을 나눠 각자 가장 관심있는 분야를 탐구할 수 있게 했다. 이후 OCAI 툴을 활용한 조직유형진단에서는 관계지향형 조직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내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난다.

Q 2-1.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한건가?

A. 각 파트별로 주간을 만들어 운영했다. 예를 들어 마케팅 주간에는 직접 마케팅 사례를 찾아 포스터를 만들고, 인권 주간에는 esg포럼을 개최하는 등 동아리원들끼리 관심분야를 공부하고 나눌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했다.

Q 3. 한국외대 경영학과 와서 뭘 주로 배우고싶나?

A. 아무래도 인사관리와 마케팅이다. (조직관리를 말하는건가?) 맞다. 앞서 말했듯 나는 다양한 조직을 이끌며 적재적소의 중요성을 실감했고, 개별 조직이 가장 효율적으로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한국외대 경영학과에 진학하여 국내외 다양한 경영이론을 배우고, 조직들에 창의적이고 탄력적으로 적용해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경영인이 되고 싶다.

Q 4. 제일 좋은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이 어디라고 생각하나?

(인사관리를 잘 하는 기업이 어디라고 생각하나?)

A. 국내 기업인 ○○을 눈여겨보고 있다. (○○~ 하고 엄청 크게 따라하심) 이 기업은 직원들의 퇴사율이 굉장히 낮은 반면 사내 복지 만족도가 아주 높다. 더불어 이 기업이 사람을 채용할 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점이 아주 흥미롭다. ○○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원이 면접을 볼 때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지,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할때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한다. 이렇게 직원을 파악하고 직원이 가장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는 게 ○○의 퇴직률이 낮은 비결이 아닌가 싶다.

Q 5. 진로와 관련하여 가장 인상깊게 읽은 책이 무엇인가?

A. 강성춘 교수님의 인사이드 아웃이다. 이 책을 접하기 전까지 나는 단순히 어떤 기업이 우수 사례나 유명한 마케팅을 빨리 따라하느냐가 경영의 관건인 줄 알았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며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느꼈고, 특히 인적자원을 위해 쓰는 돈이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부분이 인상깊었다. 또 조직의 형태 중 몰입형 조직과 그 사례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기억에 남아 (갑자기 웃으셔서 나도 따라웃음) 나도 이후에 이런 몰입형 조직을 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Q 6. 봉사시간이 진짜 많다. 제일 인상깊거나 자신의 진로에 영향을 준 봉사가 무엇인가?

A.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가르친 게 기억에 남는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나보다 k-pop과 한류에 대해 더 잘 알고, 유지원생 아이들이 ○○과 같은 한국 애니메이션을 더 잘 알더라. 이를 보며 경영에 있어서도 문화산업과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느꼈다. (좀 머뭇거림)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되려 아이들에게 배우기도 했다. 일주일에 한두번밖에 안 보는 나에게 스티커를 선물해 주고 챙겨주는 게 너무 감동이었다. 아이들과 교류하며 인간 대 인간으로서 사람을 대하고 배려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다. 나도 그런 경영인이 되고 싶다.

Q 7. 시간이 다 됐다. 우리 학교 지원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A.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다. 면접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인사 두번 하고 나옴)

후배들을 위한 조언

특이점이 많은 생기부라 면접 준비가 까다로워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난이도도 낮고 분위기도 좋았음. 1차에서 이미 변별력을 충분히 갖춘 후 면접을 진행하는 것 같음. 면접관과 거리가 먼 데다가 마스크까지 끼고 있으므로 목소리와 발음을 충분히 뚜렷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음.

연 세 대 학 교

대학명	연세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불합
학과명	경영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예비X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 면접	전형명	학교장추천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8분 간 제시문 독해 + 태블릿으로 영상 녹화(최소 2분~최대 5분)		
기타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제시문 (가): 프로이트의 철학- 대상에게 리비도를 쏟다가 그 대상을 상실하게 되면 다른 대상에게 에너지를 쏟아붓는 행위를 '애도'라 함. 그러나 이때, 대상의 상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상실한 대상이 무엇인지 모를 때, 우울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우울은 개인적 측면의 것이지만, 나아가 사회적, 정치적 측면의 문제일 수도 있다.

...(중략)...'애도할 수 있음'과 '애도할 수 없음' 사이에서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기준이 나타난다. 또한, 애도할 수 없음의 상황에서 사회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제시문 (나):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모두 도움을 받고 살며 이는 물리적 거리 외에도 상호의존, 상호 책임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는 정부뿐 아니라 도시, 지역사회 등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다. 사회에서 개인은 연결되어 있으므로 서로에게 상호의존하며, 상호 책임을 진다. 이는 죽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는 죽음은 없다. 누군가가 죽는다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까지 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제시문 (다): 뉴욕시는 COVID-19 대유행 이후 무연고자 시신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를 임시로 하트 섬의 도시 공장에 묻어놓는 사회적 실태가 나타난다는 내용

제시문 (라): <그래프 1> 막대그래프: 2016~18년 무연고자 시신인수 포기 비율 증가, 2016~18년 무연고 사망자 비율 중 장애인 비율 높음

<그래프 2> 원 그래프: 2018년 무연고 시신의 연령별 비율→65세 이상이 상당히 높음

■질문1 : (가), (나)를 바탕으로, (다)에 나타난 사회적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시오

■질문2 : (가), (나)를 바탕으로, (라) 그래프에 나타난 사회현상을 '애도'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답변1 : 제시문 (가)를 살펴보면 프로이트의 사상으로, 상실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리비도를 다른 사람에게 쏟는데, 이를 애도라 합니다. 그런데 상실 그 자체 또는 그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울에 빠지고 이러한 우울은 사회 전체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도하지 못하는 상황, 우울의 순간이 오면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시문 (나)에서는 공동체 관점에서 우리는 모두 상호 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성원의 죽음은 곧 우리 에게도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시문 (다)를 보겠습니다. (다)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사망자 시신 처리 과정에서 무연고 사망자 시신을 섬의 도시 공장에 그냥 묻게 된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를 (가)의 측면에서 보면 무연고 시신들을 그냥 묻으면서 무연고 사망자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애도하지 못하는 우울에 처하게 되었고 사회 전체적 영역에서 어려움, 문제를 맞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 (나)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상호 의존했고, 상호 책임을 지는 무연고자의 죽음을 우리가 지나치게 외면한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는 적절치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2 : 제시문 (라)의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라)에서는 무연고 사망자들에 대한 시신 인수 포기 비율과 무연고 시신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그래프 1>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 2016년~2018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그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시문 (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 애도하지 못하고 우울에 빠지는 상황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 해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심해진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 제시문 (나)의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상호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 점차 찾아진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그래프 2>에서는 2018년의 무연고 사망자들을 연령별로 구분했을 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가장 비중이 높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시문을 통해 살펴보면, 제시문 (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느껴야 할 상호 책임을 느끼지 못한 모습이 그래프 2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답변이 굉장히 괜찮게 된 것 같은데, 중간에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같은 답 반복하기도 하는 등 그리 잘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읽기 편하게 정리한 것이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을 읽으면서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질문 1번에 대응 방안을 말하라고 했는데, 답을 못했습니다. 준비할 때부터 해결 방안 제시 부분에서 약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일날 긴장하니까 더더욱 아무 것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물론 연습할 때 해결방안을 구조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틀을 짜고 연습하는 등 노력했으나 그 방식이 체화가 되지 않아 현장에서, 긴장한 상태에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면 제시문 숙지와 답변 연습 때 구조화 방식 같은 것을 꼭 체화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복기해보면서 피상적으로 말했다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는데, 소외 계층(장애인&노인), 개인주의, 공동체 의식 부족 같은 좀 더 세부적인 키워드를 알고 있다면 언급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시문 난이도 자체는 지난해 활동우수형보다 쉬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애도, 무연고 사망자와 같은 소재는 코로나보다도 관심을 가지기 쉽지 않은 것이라 적용에 있어서 애를 먹기는 했지만, 통계도 읽기에 무난한 자료였고, 그래프는 2개였으나 <그래프 1>이 <그래프 2>에 영향을 주는 방식의 통계가 아니어서 무난했습니다.

내년에도 태블릿 녹화 면접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태블릿 녹화 같은 경우 꼬리 질문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시문의 초점을 잘못 잡았다면 그 방향을 정정해줄 면접관이 없기에 끝까지 출제의도에 적합하지 않게 말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라)의 통계를 통해 전체적인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제시문을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명	서울시립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학과명	경영학부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종합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은 대면 면접으로 이루어졌고, 경영학부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대기실과 면접 고사실 모두 여러 강의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 가림막이 쳐져 있는 면접 고사실에서 두 분이 면접을 보셨습니다. - 면접은 약 12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에 들어갈 때 수험표를 확인한 후 체온 측정을 하고 스티커를 붙여주셨습니다. - 대기실에서 투명 마스크를 나누어주셔서 투명 마스크를 끼고 면접을 봤습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조건부 확률은 확률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건부 확률은 확률과는 다르게 전체가 아닌 주어진 조건 안에서 특정 부분이 일어날 확률을 구한다는 것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질문] 확률과 통계 시간에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초개인화된 전략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무엇?

[답변] 넷플릭스를 사례로 들면서 만약 한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는 소비자가 같은 장르의 드라마를 좋아할 확률을 조건부 확률로 구해서 맞춤형 전략을 구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질문] 확률과 통계 시간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알았다고 하네요? 대학생도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고등학생이 이해했다니 대단하네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뭔가요?

[답변] 코딩처럼 컴퓨터 기법을 사용해야 해서 고등학생이 직접 해보기엔 무리가 있었고, 대학교에 와서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조사만 해봤다고 답변했습니다.

[질문] 학교 생활 중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

[답변] 학생회에서 3학년 때 문화부 부장으로 활동했을 때, 코로나로 인해 학교 자치 활동이 취소되고 학생들의 사기가 떨어졌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물찾기' 활동을 기획한 경험을 말했습니다. '보물찾기' 활동에 필요한 인원 중 부족한 인원을 학생회 다른 부서의 부원들을 통해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다른 부서를 설득시키려 각 부서 특징에 알맞은 역할을 배정하여 적극성을 끌어내고 인원을 충원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질문] 자기소개서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봤어요. 4차 산업 시대에 “생산비용을 줄이지 않으면서 이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다.”라고 했는데 이윤은 매출 - 생산비용으로 구해지고, 매출은 늘리기가 힘들고 늘려도 엄청 조금 늘어나요. 어떻게 이윤을 늘린다는 건가요?

[답변] (매출을 늘리는 방안으로 생각했는데, 질문에서 그 점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셔서 답변이 힘들었습니다.) 4차 산업 시대에 대부분의 기업이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하면서 생산비용을 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계가 있으며 노동자들은 일할 곳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노동자를 고용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는 높아지고 이는 기업 이미지 개선으로 이루어지며, 결국 매출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질문] 동아리 시간에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조사하면서 해결방안을 생각했다고 했는데, 어떤 걸?

[답변] (잠시 생각할 시간 좀 달라고 했는데, 면접관분들이 당황하시면서 “아 그럼요, 그럼요. 지금 면접 잘하고 있어요.”라고 격려해주셨습니다.) 자동정보교환제도에 대해 약간 두루뭉술하게 말했습니다.

[질문] 오른쪽 면접관분이 왼쪽 면접관분께 “시간 거의 다 됐죠?”라고 질문하시고, 끄덕이시면서 면접 끝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서울시립대는 마지막으로 할 말 질문 꼭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지 않으셔서 당황했지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 대학교에 들어갈 때와 미래관 안으로 들어갈 때도 수험표를 확인해서 꼭 수험표를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근처에 들어갈 만한 곳이 정말 없습니다. 근처 카페에는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에서 면접 준비를 하다가 걸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 쓴 질문들 제외하고 두 질문 정도 더 질문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면접 시간이 길어서 생기부 내용과 자기소개서 내용 모두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대학명	서울여자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불
학과명	경영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42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바름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코로나 상황으로 본교에서 비대면으로 진행. 면접장 들어가면 노트북과 마이크가 있었고 화면에 교수님 두 분과 지원자 화면모두보이며 zoom 활용한 면접임. 목소리가 안들릴 수 있으므로 소리체크가 필요했음.		
기타 유의사항	목소리가 안들릴 수 있으므로 소리체크가 필요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먼저 지원동기 말씀해주세요

[답변]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회시간에 합리적 소비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며 마케팅의 필요성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마케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고등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미래에 소비시장을 더 넓혀갈 수 있는 마케팅 컨설턴트가 되고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왜 마케팅이 많은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답변] 지금 사회에 마케팅은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답변] 음.. 그래도 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기업에 분야와 하는 일들엔 무엇무엇이 있는지 아나요?

[답변] 기업의 운영을 위한 인사 조직, 효율적인 판매를 위한 마케팅 팀, 재정 관리를 위한 회계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화법과 작문시간에 빅데이터 마케팅에 대해서 글쓰기를 했는데 빅데이터기술은 무엇이며 대학에 와서 이와 관련해 어떤 것을 배워야한다고 생각하나요?

[답변] (생기부 바탕으로 답변을 함)

[질문] 다문화 사회 수용에관한 콘텐츠 마케팅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러한

주제의 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자세히 무엇을 작성했는지 얘기해주세요

[답변] (읽었던 책으로 동기를 정하고 생기부 기반으로 답변을 함)

[질문] 그러면 이런 다문화 와 관련된 마케팅을 기획해보자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예를 들어 중국 문화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사의 물품의 중국 문화에 일부분을 포함 시켜 중국풍의 느낌이 나게 홍보하는 것을 예로 들 수있습니다.

[질문] 1학년 때 칭찬 왕으로 뽑혔는데 어떻게 뽑는건가요

[답변] 한 학기에 한명 뽑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본인이 한 학기에 한명 뽑는 칭찬 왕으로 뽑힌 거네요? 이유가 뭐하고 생각하나요?

[답변] 친구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해왔습니다. 특별실에서 수업을 하면 뒷정리를 하고 간다던지 교실 정화에 힘쓰는 활동을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뽑아준 것 같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말 있나요?

[답변] 제가 지금 너무 긴장하고 떨려서 저의 모습, 저의 역량을 모두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서울여대에 입학해서는 제가 꿈 과 목표를 이뤄가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여대에서 다시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서울여대 면접은 분위기가 그렇게 딱딱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로 떨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다 하고 오면 후회가 남지 않는 면접이 될 것 같습니다.

우 송 대 학 교

대학명	우송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
학과명	솔브릿지경영학부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 교과	전형명	일반2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시간: 15분~20분 면접위원수: 3명(다대일) 면접 절차: 대기실에서 대기- 면접실로 이동- 면접실 옆에서 대기- 차례대로 면접		
기타 유의사항	솔브릿지경영학부는 솔브릿지국제대학에서 면접 본다. 30분전에 입장, 수험표· 신분증 꼭 지참, 학교에서 주는 스티커 가슴 왼쪽에 부착.		

질문 및 답변 내용

Q1) 면접날 전까지 무엇을 준비했나요

A1) 기출 면접 질문보고 알맞은 답 작성해보고, 기본적으로 지원동기, 영어 자기소개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영어 모의고사 틀린 문제 분석, 영어 단어 외우기 등을 했습니다.

Q2) 그럼 준비한거 한번 해보세요

A2) 지원동기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국제 무역사를 꿈꾸고 있음 이 직업은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교육환경, 커리큘럼이 갖춰져 있는 우송대 솔브릿지 경영학부에 입학해야겠다고 큰 다짐을 하되었습니다. 저는 경영을 배우며 더 포괄적인 지식을 얻고 싶고, 마케팅 전공을 들으면서 제 꿈을 이루는데 디딤돌 역할이 될 것 같아 지원하였습니다. 솔브릿지경영학부에 다니며 시야 확장, 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세계의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능력 키우고 싶습니다.

Q3) 여기서 국제무역사가 되고싶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여행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 그들의 사는 삶의 모습을 접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쌓다보니 우리나라와 세상을 연결하여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국제무역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Q4) 영어 자기소개 해주세요

A4) Good morning!

I'm OOO, but you can just call me yun~.

I really love watching movies.

I like it enough to watch while not sleeping.

I think being positive about everything is my big advantage.

I'm here to take a wide knowledge of management and a marketing major for my dream.

It's my pleasure to be here.

Thank you everyone.

후배들을 위한 조언

학교 홈페이지에 기출 문제가 있으니 직접 자기가 답변 적어보기.

기출 문제들이 보통 자기 경험을 관련 지어 말하는 경우가 많다.

솔브릿지 경영학부는 영어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만, 자신감과 열정을 보여주면 좋게 봐주신다.

한 발 대 학교

대학명	한발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융합경영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예비2번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지역인재(학생부 종합)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확인절차거침->대기장소에 도착해서 2차 확인과 함께 대기->면접실시 1:3면접이었고 한 사람당 10분가량 진행		
기타 유의사항	- 한발대에는 학부모님들이 따로 기다리실만한 대기실 같은 곳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았음 - 면접관이 3명이라 그런진 몰라도 10분인 것 치고 질문이 은근 많았던 것 같음		

질문 및 답변 내용

- 공통질문) 이 학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와 미래에 희망하는 자신의 모습?
 - 나는~~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기엔 이 학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이 학교에선 ~~한 커리큘럼을 통해 ~~한 것을 배울 것이고 특히 '빠꼼'이라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마케팅과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졸업 후엔 ~~한 활동들을 하여 ~~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
- 콘텐츠마케터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콘텐츠마케터가 뭐냐?
 - 콘텐츠마케터에 대해 설명
- 취미나 특기 같은게 있냐?
 -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들을 보면서 의미를 분석해보기도 하고 이것을 감상한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찾아보기도 한다.
- 자소서에서 동아리에서 활동한 내용이 있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아라
 - 구체적인 설명.
- 학교생활이랑 밥먹고 자는 시간들을 제외한 시간들엔 주로 무엇을 하고 지내냐?
 - 블로그를 운영하며 ~~한 활동을 한다.(생기부에 있는 활동임)
- 블로그의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봐라
 - 구체적인 설명.
- 방문자 수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가?
 - n명정 도 됨 (생각보다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음)
- 수학 등등 성적이 그다지 높진 않은데 이를 대학교 와서는 어떻게 극복할건지?
 - 3학년 '자기 극복 프로젝트'에서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 모의고사 성적을 올린 경험이 있다. 대학교에서도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 발전해 나가겠다.

- 이 학교에 오기 전에 우리 학과에 대해 많이 찾아봤을텐데 어떤 점이 자신하고 잘 맞다고 생각했나?
 - 인재상 중 ‘융합형 리더’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내가 ~~하다는 점에서 나와 잘 맞을 것 같았다.
- 우리 학과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나?
 - 4차산업혁명 사회이자 융복합 사회라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경영 한 분야가 아닌 신기술과 같은 다양한 분야를 가르쳐주고 이들을 융합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려주는 것 같다.
- 그럼 우리 학과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나?
 - ... (순간 당황도 많이 하고 다른 질문들보다도 많이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 대답을 못했음)
- 아무래도 너무 찾기 어려운 질문이었지?(웃음)이 이후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심. 뭘진 잘 기억이 안나지만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질문도 몇 개 있었음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 면접을 준비하면서 한발대가 매력있음을 느낌. 나를 어필하고자 강점을 부각시켜 얘기했지만 부족함도 겸비한 지원자. 이곳에서 그것을 채워가고 싶고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겠음.

후배들을 위한 조언

- 작년 기출들을 보면서 준비했지만 생각보다 예상치 못한 질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음. 그 점을 유의하기 바람.
- 학습계획이나 미래의 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물어보는 것 같음
- 생각보다 면접관분들은 나를 쳐다봐주시지 않음.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할 말을 잘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음.
- 학과에 대한 질문도 은근 많았어서 이 학과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기억을 한 후 가는게 좋을 것 같음

한 발 대 학교

대학명	한발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융합경영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6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 진행시간 약 10분 (공통질문+생기부, 자소서 기반 질문) 면접 위원 수 2명 과정 : 발열체크, 문진표 제출 - 대기실 대기 - 면접 유의사항 공지 및 본인 확인 - 전자기기 제출 - 대기실 대기 - 호명 - 개인 짐 문 앞에 둔 후 입장 - 면접 진행		
기타 유의사항	블라인드 면접 (교복 착용x) 신분증, 수험표, 마스크 여분 지참		

질문 및 답변 내용

cf) 공통문항 이후 질문 순서와 답변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음. (아래 작성한 답변이 실제 답변 내용과 똑같지 않을 수 있음)

[질문] 점심 먹고 왔는지, 긴장 되는지 ?

[질문] (공통) 이 학과에 지원한 동기와 미래에 희망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 약 2분 내외

[답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학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융합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융합경영학과에 지원하기 위해 마케팅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면서 입학을 준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경영을 자세하게 배우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영과 관련된 도서, 보고서 작성 및 탐구활동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였으며, 그 결과 제가 경영학 중에서도 제일 관심이 많았던 마케팅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영 중에서 다른 학문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접하지 못했고, 마케팅에서도 배울 내용이 더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경영학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 융합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기업의 마케터가 되고 싶습니다. 한발대학교 융합경영학과에 입학하여 마케팅 등 다양한 경영적 지식을 쌓아 인재가 되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마케터가 되어 한발대학교를 빛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1학년에 미인정 지각이 한 번 있는데 왜 지각하게 되었나요?

[답변] 차를 타고 등교를 했는데 차가 막혀 지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유를 두고 출발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의 지각 없이 학교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봉사시간이 많네요?

[답변] 교내 봉사활동을 위주로 봉사했습니다. (더 말하고자 했으나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감)

[질문] 이 학교에 입학한 후 학업 계획이 있나요?

[답변] 필수과목 뿐만 아니라 선택과목도 열심히 수강할 것입니다. (나머지 답변 기억나지 않음)

[질문] 본인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 말해주세요.

[답변] 먼저 제 성격의 단점은 결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는 것이 경영인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는 경영인으로서 좋지 않은 단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교수님 질문 : 장점은?)

장점은 공감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저에게 고민을 얘기한 후 공감해주어 고민을 해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제 장점이 공감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감능력은 마케터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꼬리질문] 왜 마케터에게 공감능력이 중요한가요?

[답변] 마케터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마케팅을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 공감하며 소비자들의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마케팅을 진행해야 성공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질문]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생기부, 자소서 활동기반)

[답변] (답변 잘 기억나지 않음) 소비자가 배달 앱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정보들을 점주들이 아닌 기업이 수집한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주들이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여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꼬리질문] 점주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단골손님과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을 파악하여 취향에 맞는 메뉴를 새로 만들거나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공간혁신 아이디어 우수상을 받았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나요?

[답변] 친구들과 제가 원하는 바를 먼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교내 자습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친구들과 저의 공통적인 불만이었습니다. 따라서 교내에 빈 교실이나 복도에 학교에서 쓰지 않는 책상과 의자를 배치하여 자습공간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질문] 빅데이터 마케팅에 대해 탐구했다고 했는데, 빅데이터 마케팅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답변] 빅데이터 마케팅이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면접 시간이 끝나가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답변] 아직 배울 것이 많은 학생이지만, 한밭대학교 융합경영학과에 진학하여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열심히 배우며 발전할 수 있는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내년에 꼭 이 학교에서 교수님들의 수업을 듣고 발전하여 한밭대학교의 자랑스러운 학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면접 준비할 때 답변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키워드를 준비한 후 이를 이용하여 답변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함.

답변에는 정답이 없으니 자신의 생각을 자신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생기부, 자소서 여러번 읽어보고 말하는 연습 많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가천대학교

대학명	가천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불합격
학과명	의료경영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15
전형유형	교과 면접	전형명	지역균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대기실에 입실→마스크를 잠깐 내려서 신분증과 얼굴 확인, 전자기기 제출, 면접 가번호 배부 후 옷에 부착→각자 자신 면접 순서 대기→면접실 앞에서 대기→면접실에서 면접 진행 (2:1 면접 방식)		
기타 유의사항	면접 시간은 10분이고, 밖에서 10분이 된 것을 알리는 노크 소리 후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질문하심. 대기실에서 자료 볼 수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언제 와서 기다렸나요?

[답변] 3시쯤에 와서 가천대학교를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보다보니 주차장마다 고임목 수거함이 설치되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임목 수거함을 보고 가천대에서 가천대를 이용하는 학생과 교수를 위한 서비스가 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질문] 지원동기

[답변]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공공의료원을 경영하고 싶습니다.

2학년 때 배식 활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3학년 때 학급 특색활동으로 “사회복지개론”을 탐독하며 의료 복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탐독 후 작년 의사 총파업 이슈가 기억났고 이유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총파업의 이유는 공공의료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닌 인원을 늘리는 정책에 반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공공의료원 또한 경제적인 이유와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경영학과에서 보건행정학과 의료경영 학개론을 전문적으로 배워 공공의료원을 운영해 모두에게 의료 복지를 실현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자신의 장점

[답변] 매사에 적극적이고 리더십 있는 것이 저의 장점입니다.

2학년 때 학급 실장을 맡고, 학생 인권부의 부원으로서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가천대학교의 인재상인 나눔에 동참하는 실천인이 저를 지칭하는 것 같아 가천대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질문] 기억에 남는 활동

[답변] 학생회 활동으로 아나바다 시장을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다.

학생인권부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 토의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사용하지 않는 교과서를 기부 받아 아나바다시장을 통해 물품을 팔자고 제안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경로당이 문을 닫으며 노인분들이 외로움을 겪는다는 기사를 보게 되어 수익금으로 반려식물을 구매하여 전달해드리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제 의견에 부원들이 모두 동의하였고 아나바다시장 프로젝트를 주도하여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질문] 세특 (1) 1학년 때 '자유무역'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에서 토론했나?

[답변] 자유무역은 선진국에는 이득을 개발도상국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토론하였습니다.

[질문] 세특 (2) 3학년 때 화법과 작문에서 "분배정의" 읽고 무얼 했는지?

[답변] (기억안남...) 노인복지는 예방적 차원의 제도보다 구호적 제도가 많다는 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글을 작성 하였습니다.

[질문] 의료경영학과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답변] 3, 4학년에 배우는 보건의료기관 인턴십을 수강하고 싶습니다. 미래에 공공의료원을 경영할 것이기에 보건의료기관 인턴십을 수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 같기 때문입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답변] 저에게 의료 경영학은 남들보다 늦게 정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고민한 만큼 확고하게 정한 목표입니다.

장작을 때워 속도를 높이는 증기기관차처럼 제 꿈을 위한 노력을 장작 삼아 열심히 달려 누구보다 먼저 최고점에 도달하겠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아쉬웠던 점: 면접 시간이 생각보다 짧음. (체감 시간)

세특은 정말 아무 곳에서나 나와요!

건국대학교

대학명	건국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학과명	경제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예비 3위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KU 자기추천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합격 후 공지된 시간에 맞게 면접 고사 건물로 입실 - 대강당에서 본인 확인 후 호명될 때까지 대기 - 호명 후 고사실 앞 책상에서 대기 - 면접 순서가 오면 면접 고사실 안에서 화상 통화로 면접관 2명과 진행 (면접시간은 총 10분) - 끝난 후 면접 관련 설문조사 후 귀가 		
기타 유의사항	대강당에서 본인 확인 후 전자기기 사용금지, 면접 관련 유인물 사용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수학1 세트를 보면 CG와 미분에 대해 조사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답변] 유체의 점성을 다루는 유체동역학과 유체의 비점을 다루는 유체정역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체동역학은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으로, 유체정역학은 오일러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 어떻게 되어있죠?

[답변] CG를 만들기 위해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 사용된다는 것을 설명해주었습니다.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은 여러개의 독립변수로 이루어져 있는 편미분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질문] 뉴턴이 들려주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답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 구체적이게 설명되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로그함수를 이용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그래프상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질문] 로그함수와 지수함수를 설명해보세요.

[답변] 로그함수와 지수함수는 역함수 관계를 띄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지수함수는 y축 위에, 로그함수는 x축보다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질문] 지니계수가 무엇이죠?

[답변]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지표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질문]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어떻게요?

[답변] 현재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0.34로, 지니계수가 0.4이상이면 불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봉사활동을 보면 아동복지관에 가서 한 활동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답변] 저는 아동복지관에 가서 어린 아이들에게 어려운 국어, 수학 문제를 알려주었고, 친구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활동을 했습니다.

[질문] 가격 탄력성을 주제로 한 활동 중 매점 상품을 광고했는데 아직도 계속 광고를 진행 중 인가요?

[답변] 매점 상품을 광고한 결과 매점 매출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서 현재는 광고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질문] 어떤 때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죠?

[답변]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질문]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의 특징은 무엇이죠?

[답변]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답변] 제 꿈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서 한국 경제 불평등을 해결하는 한국 경제 정책 연구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저소득층만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되 저소득층에게 가장 많은 수혜가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치관을 정책 연구원이 되어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제 꿈을 이루는 과정 중에 건국대 경제 학과가 있다면 저는 제 꿈을 이루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1. 꾸준하고 장기간의 면접준비
2. 자신의 생기부, 자소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것. 진로와 관련되지 않은 비교과까지도 준비할 것.
3. 스스로 예상질문과 꼬리질문을 만들 것
4.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심층적인 지식 필요 (전공 관련 시사 공부 등)
5. 학교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꾸준히 모의 면접하여 피드백을 구할 것. (다양한 선생님에게 하면 할수록 좋음)

이런 기본적인 것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자신의 내신이 낮아서 갖는 부담감이나 면접으로 뒤집어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해가 된다.

자신이 준비한 만큼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오는 것과 차분하고 큰 목소리로 면접의 주도권을 잡는 것은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면접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의 답변에 정확함과 당당함을 부여한다. 그렇기에 면접준비는 바쁘더라도 틈틈이 준비할 것.

+ 건국대 같은 경우는 꼬리 질문이 많은 편이다. 그렇기에 자신이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사소한 것까지 파악해야 한다. 꼬리 질문을 대비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인 하 대 학 교

대학명	인하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경제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인하미래인재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합격 후 공지된 면접 고사장으로 입장함. - 면접 고사실 옆방에서 대기함. - 면접 차례가 오면 안내원에 따른 호출로 면접 고사실로 입실함. - 2명의 면접관과 면접을 진행. - 6분의 면접시간이 주어짐. - 1분이 남았을 때 안내원이 면접관에게 알려주기 위해 문을 두드림. - 이후 남은 1분 동안 면접을 진행한 후 퇴실함. 		
기타 유의사항	수험표와 신분증, 자가 문진표 소지 대기방에서 전자 기기 사용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인하대 경제학과에 지원한 지원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답변] 저는 교지편집부 활동을 하면서 경제부 기자라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경제 기자가 되기 경제 기사를 쓰며 경제에 흥미를 느꼈고 이를 계기로 경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경제 불평등에 관심을 가졌고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 불평등에 대해 알아가다보니 이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한국 경제 불평등을 해결하는 한국 경제 정책 연구원이 되기 위해 경제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질문] 경제수학 세트를 보면 연천인율, 도수율, 강도율이 있는데 이것이 뭔가요?

[답변] 연천인율은 1년간 근로자 1000명당 발생하는 재해 건수를 수치화한 것, 도수율은 근로자 100만 시간당 발생하는 재해 건수를 수치화한 것 그리고 강도율은 근로시간 1000시간당 재해로 인해 상실된 근로 손실일수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질문] 봉사시간이 엄청 많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답변] 제게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 활동은 온라인 축제를 기획한 것입니다. 저는 학생문 화부 부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축제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축 제를 진행시키기 위해 온라인 축제를 기획하였고 학교 축제에 부정적인 선생님들을 한분 한분 찾아가 직접 만든 계획서를 가지고 설득했습니다. 이후 학생들과 즐겁게 온라인 축제를 진행 시켰기 때문에 제게 있어서 온라인 학교 축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질문] 온라인 축제가 봉사 활동 기록에 없는데, 방송 봉사 활동에 포함된 건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복지관에서 학습지도를 한 봉사활동도 있었는데 이걸 기억에 안 남았어요?

[답변] 물론 복지관에 가 어린 친구들을 위해 봉사 활동을 한 것도 기억에 남지만 3년 동안의 학교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학교 축제를 기획하는 것이었습니다.

[질문] 자소서를 보면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답변]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에서 일정 소득을 넘어서면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져 노동의욕이 감소하고 여가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를 세금제도인 누진세제와 연결시켜 고소득자에게 고세율을 적용한다며 세후 소득이 낮아져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누진세제의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질문] 많은 책을 읽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게 있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넛지'입니다. 넛지라는 책은 디폴트값 즉, 기본값에 따라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 꿈이 경제 정책 연구원인데 처음에 수립한 정책을 잘 만든다면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어서 넛지라는 책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질문] 시간이 다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답변] 씨앗은 큰 나무가 될지 예쁜 꽃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이 발아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인하대라는 물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자신을 발아시키고 싶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1. 꾸준하고 장기간의 면접준비
2. 자신의 생기부, 자소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것. 진로와 관련되지 않은 비교과까지도 준비할 것.
3. 스스로 예상질문과 꼬리질문을 만들 것
4.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심층적인 지식 필요 (전공 관련 시사 공부 등)
5. 학교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꾸준히 모의 면접하여 피드백을 구할 것. (다양한 선생님에게 하면 할수록 좋음)

이런 기본적인 것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자신의 내신이 낮아서 갖는 부담감이나 면접으로 뒤집어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해가 된다.

자신이 준비한 만큼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오는 것과 차분하고 큰 목소리로 면접의 주도권을 잡는 것은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면접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의 답변에 정확함과 당당함을 부여한다. 그렇기에 면접준비는 바쁘더라도 틈틈이 준비할 것.

서울대학교

대학명	서울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불합격
학과명	경제학부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30분 간 문제 풀이 + 15분간 면접		
기타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사회과학>

1. 제시문 (나), (다)에서는 각각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동기와 상황에 대해 추론할 수 있다. 제시문 (나), (다)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에 나타난 인도의 회사법 개정에 대해 평가하시오.
2.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바람직한 역할 구분을 말하고, 그에 비추어 (가)의 회사법 개정을 논하시오.
- 2-1.(꼬리질문) (나)에 나타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가)의 회사법 개정을 자발성과 강제성 측면에서 논해볼 수 있을까요?

<수학>

1. $h(t) = 0$ 이 되도록 하는 t 의 값의 범위가 $t_1 \leq t \leq \frac{\pi}{2}$ 일 때, t_1 의 값을 구하시오.
2. 그릇에 담긴 물의 양이 기울이기 전과 같도록 하는 t 의 값의 범위가 $0 \leq t \leq t_0$ 일 때, t_0 의 값을 구하시오.
3. 함수 $h(t)$ 를 구하고, $\cos t_2 = \frac{2\sqrt{7}}{7}$ 일 때, $h(t_2)$ 의 값을 구하시오.

***답변**

<사회과학>

1. 먼저 (나)와 (다)를 바탕으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동기와 상황을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경우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자신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하나의 윤리적 동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반응 속에서

기업의 재화 구매는 증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기에 이런 이윤 창출이 하나의 윤리적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다)에서는 경쟁 기업과 독점 기업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의 측면에서, 독점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에 적합하나 경쟁 기업은 그렇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 이행의 상황으로는 해당 기업이 경쟁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도의 회사법 개정을 살펴보면 인도는 회사법을 개정해 특정 조건을 만족한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 이행의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는 (나)에서 본 바와 같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를 늘려 그들의 이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일 수 있지만, (다)를 볼 때, 회사법의 조건을 충족한 기업이 반드시 독점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경쟁 상황에 놓인 기업에 사회적 책임 이행 의무를 강조해 그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정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형평성을 핵심 동력원으로 하는 조직체이고, 기업의 경우에는 효율성을 핵심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사회 문제 해결 시에는 이에 충실하여 정부는 직접적인 개입, 이를테면 보조금 지급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의 경우에는 효율성이 핵심이므로, 사회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간접적인 개입, 즉 기부, 봉사활동, 스포츠팀 창설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가)의 회사법 개정을 논하면 정부는 기업에게 간접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회사법 개정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정부는 회사법 등으로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에 주력하기보다는 좀 더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 (나)의 경우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였고, 소비자의 윤리적 동기를 자극해 더 많은 이윤 창출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의 경우 회사법을 통해 기업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성의 모습으로 (다)의 경쟁 상황 기업에게 생존 위기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학>-교수님 도움으로 풀이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1. $t = \frac{\pi}{2}$ 일 때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축을 뚫고 내려가므로 $h(t) = 0$ 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t 의 값이 점점 줄어들다가 물그릇의 오른쪽 꼭짓점인 $(\sqrt{3}, \frac{3}{2})$ 의 점을 기울인 점이 x 축과 닿았을 때 $h(t) = 0$ 이 되는 가장 작은 각 t_1 의 값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t = 0$ 일 경우에는 물그릇이 전혀 기울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담긴 물의 양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 물그릇을 조금씩 기울이다 보면 $h(t)$ 의 높이가 물그릇의 오른쪽 꼭짓점인 $(\sqrt{3}, \frac{3}{2})$ 의 점을 기울인 점에서 x 축 간의 거리가 되는 지점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각이 t_0 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더 답변을 하지 못했고, 시간이 되어 내보내셨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1. 면접 대기실에서 가장 큰 특징은 가져온 자료를 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면접과 유사하다고 생각해, 면접을 기다리면서 볼 자료까지 전날 정리해둔 저로서는 조금 당황스러웠고, 또 대기시간이 굉장히 지루했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되는 마음에 심호흡하며 있었지만, 오전면접이라 아침부터 움직였을 지원자들 중 몇몇은 쪽잠을 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다른 과 지원한 친구들과 얘기해본 결과, 면접 대기 시 개인 자료를 볼 수 있는가는 단과대마다 다른 듯합니다.)

2. 제시문 숙독 때 가장 놀란 점은 숙독이 복도에서, 특히 면접실 바로 앞 복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옷을 두껍게 입지 않으면 날씨에 따라 매우 추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면접실 바로 옆에서 숙독하다보니 안에서 면접 보는 소리가 조금 들립니다. 그 소리에 집중력 흐트러지지 않고 제시문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항상 조용한 장소에서 제시문을 숙독해왔던 학생들의 경우 이 부분을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3. 면접 과정에서는 면접관과의 상호작용 부분이 핵심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왔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 그 중요성이 엿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리 면접을 준비하면서, 잘 모를 때는 교수님께서 힌트를 주시니 그 힌트를 잘 끌고 가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한 것은 제 면접을 기준으로 하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 수리 면접을 거의 하나도 접근하지 못한 채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망했다는 생각에 차서, 아주 원론적이고 기초적인 풀이만 앉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 뒤의 화이트보드(경제학부 면접실에는 수학 문제 풀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화이트보드와 보드마카, 지우개 등이 구비 되어 있습니다.)로 가서 풀어보라고 하였고, 힌트를 주고 계신다는 느낌에 덩석 가서 함수 개형을 그려보며 교수님의 힌트를 따라갔습니다. 교수님의 힌트를 통해 $t=t_1$ 이 되는 경우에서의 $h(t)$ 의 개형을 추론하는 것까지는 함께할 수 있었으나, 저는 t_1 의 값을 구하는데 접선의 방정식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고 교수님 역시 그 부분까지는 힌트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답을 구하는 것에서는 지원자 개인의 역량을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4. 서울대는 수리 면접이 핵심이니만큼 많은 공부를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합격하고 6~7일간 수능이 끝났다는 즐거움 속에서, 친구들은 놀러다니는 상황에서 혼자 앉아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일 것입니다. 게다가 본인은 부담스럽고 힘든데 주위에서는 그 어려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 기대를 불어넣기 때문에 준비하다 보면 너무 벅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서울대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그리고 수학 면접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수학을 열심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문과 학생들은 이과 학생들에 비해 수학 실력이 그다지 높지 못하기 때문에 평균 수준의 난이도 기준으로 절반 정도

풀면 합격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들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서울대의 수학이 어렵다는 뜻이기에,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남들 앞에서 풀이하는 연습을 하는 동시에 그 문제가 어떤 과목(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의 어떤 단원에 기초를 두고 출제했는지, 내가 그 단원의 개념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며 개념과 수학적 사고력을 모두 챙기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기출을 시간을 재고 풀어보고 설명하는 연습을 하되, 제한 시간 내에 못 풀었다고 무작정 해설지를 보는 것보다는, 모의면접을 해본 후에 몇십 분 정도 더 자신의 풀이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 앙 대 학 교

대학명	중앙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학과명	문헌정보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다빈치 인재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건물 입장 전 문진표 확인→고사실(대기실)입장→수험표 확인 및 가번호 배부→대기→면접실 이동→대기→면접→퇴장		
기타 유의사항	대면 면접, 면접시간 6분, 면접관 2명 원래는 면접 종료 1분 전에 노크를 해서 알려주었으나, 본인의 면접부터 면접관의 요청으로 노크 없이 면접이 진행됨. 해당 사항은 안내자분이 안내해주심.		

질문 및 답변 내용

1. 2학년 때 언어와 매체 시간에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에 대해 발표했는데, 사례를 하나 말해주세요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에 대해 발표하면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공주가 자신을 구해주기 위해 왕자를 기다리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구조는 수동적인 공주, 여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 3학년 동아리 활동에서 부원들간의 갈등은 없었나요
 자료조사 방식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인터넷과 도서 자료를 통해 조사하자는 의견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자료조사 방법을 사용하자고 중재했습니다.

3. 정보의 왜곡과 규제에 관해 활동하셨는데, 정보의 왜곡(자율성)과 정보의 규제 중 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어느 정도의 정보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생산까지 규제를 할 수는 없으나, 정보의 전달과 유통 과정에서 왜곡이 생겨난다면 이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정보의 왜곡과 편향된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합니다.

4. 사서의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서라는 직업은 이용자와 대면으로 접하는 자리입니다. 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호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제가 도서관에서 찾은 꿈과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도서관은 단지 책을 빌리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편히 있을 수 있는 안락한 도서관, 즐거움과 꿈이 가득한 활기찬 도서관이었습니다. 사서가 되어 제가 느꼈던 도서관의 느낌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와 비슷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알기에,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 입학하여 ‘함께’의 힘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이곳 중앙대학교에서 꼭 저의 꿈을 펼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첫 인사부터 마지막 인사까지 크고 자신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준비하지 않은 면접 질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소서와 생기부를 꼼꼼히 분석하고 인지하고 있는것이 중요. 준비가 잘 되어있으면, 긴장하지 않고 적절히 답변할 수 있을 것.

건국대학교

대학명	건국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학과명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KU자기추천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p>대기실에 들어가면 다양한 학과의 친구들이 모여있습니다. 입장 시작 시간부터 면접 시작시간까지 1시간정도 걸렸고, 면접이 시작되면 신분증 검사와 동시에 가지고 있던 면접자료를 모두 가방 속에 넣습니다.</p> <p>그대로 대기하다가 면접실 바로 앞 의자에 잠시 대기 후 들어가서 비대면 면접을 시작합니다. 카메라와 사람 사이 책상이 놓여 있기 때문에 제 얼굴은 화면에 정말 조그맣게 보입니다.</p>		
기타 유의사항	<p>대기실에 다양한 학과의 친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누가 같은 학과 친구들인지 모르고, 경쟁심리가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면접장으로 갈 때 한 번에 많은 친구들이 빠져서 내 순서가 생각보다 빠르게 옵니다.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하며, 다른 면접과는 다르게 대기하면서 면접자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완벽히 하고 가야 합니다.</p>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1. 밥 먹었어요? 떨리지 않아요?
2. 떨리면 어떡해요~
3. (웃으시면서) 자소서 보면 생리대를 기부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어떻게 한 거죠? 기부 금액은 얼마였어요?
- 3-1. (3번 중간에 끊으시면서) 아 학생이 직접 제안한 거예요?
4. 시장 홍보 영상을 제작했는데, 어떻게 효과를 냈나요?
- 4-1. 시장 스크린에 건다고 해서 홍보가 가능한가요? 시장을 가는 사람만 시장 스크린을 볼 수 있을텐데요.
- 4-2.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취지와 그 영상을 만든 이유인데, 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죠?
- 4-3. 그러면 학생이 미래에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나요?
5. 봉사상을 받았는데, 이건 뭐죠?
6.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있나요?

[답변]

1. 떨립니다.

2. 그래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3. 저는 봉사활동에서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면생리대를 만든 후 이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자율활동으로 연계해 친구들에게 우리 주변에 기본적인 생활도 보장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이야기 하며 캠페인을 진행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3-1 네!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3번 이어서) 생리대 기부 캠페인은 학급 캠페인이었기 때문에 지원 제작비와 지원 인원이 부족한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활동을 연극부 학생들과 협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선생님들께 저희의 취지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추진했습니다. 기부금액은 총 30만원이었으며, 그 중 일부는 생리대를 구입해 생리대와 함께 기부했습니다.

4. 저는 시장 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한 후 시장 스크린과 시 SNS에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4-1. 시내 중심에 있는 시장이었으며, 스크린이 시장 내부가 아니라 앞에 달려있었기 때문에 시내를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 뿐만 아니라 시 SNS에도 게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4-2. 저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을 하고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재난 지원금을 받고 우리 지역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상인 분들을 돕고, 시장 경제를 부흥시키기위한 목적으로 시장 홍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4-3. 저는 디지털 범죄 분야에 관심이 많아 미래에 디지털 범죄를 주제로 한 페이크 다큐멘터리를 시리즈 형식으로 제작해보고 싶습니다. 주제를 디지털 범죄로 정한 이유는 2학년 때 디지털 성범죄 UCC를 만들면서 2016년에 비해 지금까지 디지털 범죄가 4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리즈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을 선택한 이유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정보전달의 역할과 동시에 스토리의 흐름이 있다면 사람들이 더 재미와 흥미를 가지고 주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상해보았습니다.

5. 그 상은 반 친구들의 투표로 주어진 상이었습니다. 학급반장을 하면서 노력한 것에 대해 친구들이 보답해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반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항상 원탁토론을 진행했었습니다. 명확한 근거를 들어 설명하기 때문에 납득을 하기도 더욱 쉬우며, 좋은 의견에 더 좋은 의견이 합쳐져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결정 과정과 좋은 성과를 친구들이 느꼈기 때문에 저에게 투표를 해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6. 제가 건국대학교에 정말 입학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학업계획을 짜보았습니다. 먼저, 저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이해, 비평과 커뮤니케이션, 영상제작의 이론과 실제 과목을 들으면서 시사 PD가 되기 위한 이론과 실습 공부를 병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램과 해외봉사 프로그램도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 3자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았을 때 속해있을 때는 몰랐던 우리 사회의 현실들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글로벌 사회의 문제를 담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를 폭넓게 경험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소모임 '구름사다리'에서 친구들과 특별한 영상을 제작해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꼬리 질문이 많이 들어오면 자신의 말이 틀렸나 자신감이 없어질 수 있는데, 면접에서는 보통 정해진 답을 설명하는 질문은 나오지 않으니 끝까지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학업계획을 말했을 때 '학생은 우리 학교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 대한 간절함을 보여주는 데에는 마지막에 학업계획을 말하거나, 왜 자신이 꼭 이 학교에 입학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면접관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끊으시는 경우,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남아서 더 말씀드려도 되냐고 정중하게 질문 후, 하고 싶은 말을 이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당차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운대학교

대학명	광운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참빛인재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굉장히 큰 대기실에 많은 과 학생들이 섞여 있습니다. 대기하면서 준비한 면접 자료를 읽을 수 있습니다. 차례가 되면 대기실에서 나와 면접실 앞 의자에 잠시 대기 후 들어가서 비대면 면접을 시작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순서 굉장히 빠르게 빠져서 면접자료를 읽을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면접 전 충분히 준비를 해가셔야 합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1. 학생이 하고싶은 것은 무엇이며, 우리 학과를 왜 지원했죠?
2. PD에게 필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자신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이유?
3. 봉사활동이 많은데, 이유가 있나요?
3-1. 특히 아동 관련 봉사 활동이 많은 이유는?
3-2. 세계시민이 뭐죠?
4. 독서를 통해 어떤 걸 얻었나요?
5. 자소서 3번에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언론가가 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뭐죠?
6.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있나요?

[답변]

1. 도서 PD수첩을 읽고 저도 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저만의 정의를 내리는 시사 PD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에서 올바르게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과 현재 직면한 커뮤니케이션 현실을 배운다면 바람직한 커뮤니케이터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2. 저는 추진력을 갖추고 있고, 이것은 PD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고 느낀 것을 현실에 적용 시키는 능력은 시사 PD로써 취재를 하고,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과 차별화된 저만의 콘텐츠는 디지털 범죄를 주제로 한 시리즈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2학년 때 디지털 성범죄 UCC를 만든 후, 10년동안 디지털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미디어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이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에서 공부한 후, 저의 추진력을 발휘해 디지털 성범죄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겠습니다.

3. 봉사활동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내 활동 뿐만 아니라 교외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육 봉사나 홍보 영상 제작 등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어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3-1. 세계시민교육 보조 봉사활동을 진행한 후에 세계시민으로서 국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많은 문제들 중 빈곤 문제, 구체적으로 아동 노동 문제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아동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 봉사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3-2. 세계시민이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시민을 의미합니다.

4. 독서는 교과 수업에서 부족했던 지식을 쌓거나, 진로와 관련해 저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매개체였습니다. 독서를 통해 훗날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가치관과 직업관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5. 글로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 사회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혁신적인 언론가라는 표현을 쓴 것은 현재 획일화되어있는 콘텐츠를 넘어 색다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6. 저는 모두가 이해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더 말하려 하는데 시간이 끝나서 못말함)

후배들을 위한 조언

면접을 많이 봤는데 그 중 가장 못봤다고 생각하는 면접입니다. 답변이 구체적이지 못했고, 저의 생각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초반 면접은 긴장도 많이 되고,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보기가 힘듭니다. 저는 면접 후반으로 갈수록 1지망 대학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앞선 대학에서 경험을 해보면서 감을 찾을 수 있었지만, 저는 운이 좋았던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그 친구들은 친한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꾸준히 연습을 하고, 학교 선생님들이나 부모님, 학원 선생님들과 모의면접을 많이 진행해보면서 감을 익히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명 지 대 학 교

대학명	명지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불
학과명	사회과학대학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18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크리스천리더 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시 30분까지 대기실 입실. - 안내해주시는 분이 가 번호를 주심. 오후반이라 가 번호 17번부터 차례로 면접. - 면접실 안에는 교수님 두 분과 2대1면접. 면접을 하다가 타이머가 울리면 면접이 끝남. (교육청 모의면접과 분위기가 비슷함) 		
기타 유의사항	<p>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함.</p>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사회과학대학을 졸업한 이후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답변] 사회과학대학에 디지털 미디어 학과를 졸업한 이후 대학에 재학하며 배웠던 심층적인 미디어 기술 활용 능력과 광고기획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광고회사 및 방송국 인턴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고 광고 회사에 취업하여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기발한 광고를 기획해내서 여러 기업에서 필요로 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광고 기획자가 될 것입니다.

[질문] 세상과 소통하는 광고기획자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왜 광고 기획자는 소통해야한다고 생각하나요?

[답변] 광고는 세상과 가까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야 하며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럼 광고기획자가 되어 어떤 광고를 만들고 싶나요?

[답변] TV에 자주 나오는 '행복해져라' 라는 CM송을 활용한 광고를 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광고를 스쳐가듯이 봤지만 함들 때 힘이 되어주었고 저에게 희망을 준 광고였습니다. 저도 이런 광고처럼 희망과 행복, 선한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광고를 만들고 싶습니다.

[질문] 동아리 부장을 했는데 부장으로서 한 일이 무엇이 있나요?

[답변] 저는 동아리 부장으로서 동아리 부원들이 코로나19상황으로 접점이 부족하여 융합되지 않을 때 활동 방식을 모둠 형식으로 설계하고 온라인 앱을 활용한 소통원활 등의 활동을 만들어 동아리가 협력하여 원활한 활동이 될 수있게 하였습니다.

[질문] 사회과학대학에 들어온 후 학업계획을 말씀해주세요.

[답변] 저는 고등학교에서 홍보영상만들기, 캠페인 홍보물 제작하기 등의 활동을 하면서 실제적인 실무능력을 더 배우고 전문적인 광고기획자의 역량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명지 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재학하며 디지털 미디어 학과의 pr전략, 광고 마케팅, 디지털 광고 등의 커리큘럼을 공부하며 과 광고 및 프로그램 제작 공모전에 참여하고 매학기 현장 업체 견학을 통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하고 싶었던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실무능력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질문] 지원자가 광고 기획자를 꿈꾸게 된 계기가 있나요?

[답변] 짧은 시간 내에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광고에 대해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직접 기획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질문] 좀 더 구체적으로 활동이나 독서가 있을까요?

[답변] 고등학교 2학년 때 '광고 천재 이제석' 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책과 관련하여 꿈꾸게 된 내용을 자세히 얘기함)

[질문] 학업계획을 더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답변] (위에 학업계획과 관련된 답변에 자세한 내용을 추가해서 답변했는데 잘 기억이 안남.)

후배들을 위한 조언

모의면접을 정말 많이 하며 말하는 연습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명 대 학 교

대학명	세명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사회복지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형명	면접/실기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시간	10분 ~ 15분	
	인원수	면접 위원 수: 3, 조별 학생 수: 3	
	면접절차	대기실에서 대기하며 핸드폰 제출→신분증 검사→호명이 되면 도우미를 따라 면접준비실로 입실→10분 동안 면접 문항준비→준비 후 면접실 입실→질문에 대해서는 빠른 번호부터 1, 2, 3으로 대답하고 다음 질문은 3, 2, 1로 대답함	
기타 유의사항	대기실에 들어가자마자 핸드폰을 제출하니 준비한 것이 있다면 인쇄해서 가는 것이 좋다. 도착한 순서대로 면접을 진행하니 일찍 도착하는 것을 추천한다. (1시간 전쯤?) 면접실에 들어가도 심하게 딱딱한 분위기는 아니고 교수님분들께서 분위기를 풀어주시려고 한다. 교복은 착용할 수 없고, 기타 안내사항은 입학처 공지사항에 올려주니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따로 사회복지학과에서 선배의 면접 후기를 올려주기도 하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질문 및 답변 내용

-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제가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 경험이 풍부하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다는 점입니다. 제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려는 이유는 훗날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사회의 현장을 더 자세하고 생생하게 알려줄 수 있는 교수님들이 계신 세명대학교가 저에게는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실습의 기회가 많다는 점입니다.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실습을 2번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가지면서 노인복지 분야에 종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실습을 2번 진행함으로써 여러가지 경험을 해보며 사회복지사가 된 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경험을 중요시 여기기에 타 학교와는 다르게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세명대학교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동아리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는 수화를 배울 수 있는 동아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화

에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기도 하고 배워둔다면 후에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수화라는 이점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꼭 진학하고 싶습니다.

○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회복지와 가장 관련이 높았다고 생각하는 경험은 무엇입니까?
 -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회복지와 가장 관련이 높았다고 생각하는 경험은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때 아침 지각 체크 역할을 맡은 경험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에서 실천력과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우더라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실천을 하더라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지각 체크를 하여 선생님들께 칭찬도 받고 반 친구들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저의 작은 노력이 공동체에 기여되고 학급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실천력과 꾸준함의 장점을 살려서 사회복지사가 되어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 장점이 무엇입니까?
 - 저의 장점은 실천력과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는 실천력과 꾸준함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장점은 제가 그 누구보다 먼저 실천하고 끝까지 노력하여 마무리하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사회복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저는 사회복지를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필요로 하던 필요로 하지 않던 언제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바람이 먼저 더위를 식혀주려 찾아오는 것처럼 때로는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것을 사회복지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면접을 준비하면서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혼자서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께 질문에 대해 의견도 물어보고 모의 면접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실제로 사회복지가 뭐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비유를 하거나 정직하게 사회복지에 대해 말하는 등의 방법이 있기에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가천대학교

대학명	가천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사회복지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예비3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가천바람개비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p>면접 대기실에 들어가면 지정해주신 자리에 앉습니다. (자리 번호가 자신의 면접 순서입니다.) 스태프분께서 면접 관련 유의 사항을 알려 주신 뒤, 1번부터 차례대로 부릅니다. 면접자는 대기실에서 나와 면접 고사실로 들어갑니다.</p> <p>면접 고사실에는 세 분의 면접관분들이 앉아계십니다. 면접관과의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인사를 한 뒤 자리에 앉으면 면접관분들께서 가벼운 아이스브레이킹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그 뒤로 본 면접이 시작 됩니다.</p>		
기타 유의사항	<p>대기시간이 길 수가 있으니 물과 면접 준비 자료를 꼭 챙겨가세요! (휴대전화나 테블릿은 사용이 불가하니, 종이 자료를 챙겨가세요.)</p>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오느라 많이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답변] 네, 힘들지 않았습니다!

[질문] 자 그럼 시작할게요. 지원동기 짧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게 된 동기는 ‘한계를 넘어 세상을 바꾼다.’ 라는 가천대학교의 비전 때문입니다. 저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가천대학교의 비전은 도전정신에 자극을 주었고 가천대학교에서 저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지원하였습니다.

[질문] 지원동기에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는데, 그 사례가 있을까요?

[답변] 저는 다양한 대회에 도전하였습니다. 그 중 창의융합토론대회를 3년간 나가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질문] 토론대회에서 어떤 주제로 토론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주장을 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토론대회에서의 주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제는, ‘자사고와 특목고는 폐지해야 하는가?’입니다. 저는 찬성의 입장에서 토론에 임하였습니다. 찬성의 근거로는 자사고와 특목고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지 오래되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특목고와 자사고에서 졸업한 학생들 중 출신 학교와 관련이 없는 계열로 진학했다는 통계를 제시했으며 자사고는 자율성이라는 특권을 지녔으나 입시에 도움이 되는 과목의 수업만 늘리는 등 입시명문고가 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질문] 책을 많이 읽었네요. 기억에 남는 책 한 권 말해주세요.

[답변] '냉정한 이타주의자'라는 책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따뜻한 가슴에 차가운 머리를 결합시키는 것, 다시 말해 이타적 행위에 데이터와 이성을 적용할 때야 비로소 선한 의도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선의와 열정에만 이끌려 무턱대고 실천했던 이타주의를 반성하고 효율적인 선행을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질문]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 말해주세요.

[답변] 지적장애인 시설인 영생원 봉사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을 모아 봉사활동 모임을 만들어 한 학기 동안 한 달에 한 번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영생원에 직접 문의를 드리고 봉사활동 계획을 세워 매 달 다른 활동을 준비해갔던 순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영생원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님께서 활동이 끝난 뒤에 늘 연락을 주시면서 장애인분들이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전해주셨을 때 가장 기뻐했습니다. 또한 지적 장애인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그들은 존중하는 자세는 무엇인지를 몸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질문] 우리 학교에 와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요?

[답변] 저는 청소년 복지와 아동복지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수업을 열심히 듣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가천대학교 중앙동아리인 '인액터스'에 가입하여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해나가고 싶습니다.

[질문]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 기사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부양의무제로 인해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아버지 소유의 땅 값이 올라 의료 급여에서 탈락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더욱 생각해보게 되었으며 부양의무제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하루 빨리 법률상의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답변] 저는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찾는 관찰력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추진력을 동시에 갖춘 능동적인 인재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촘촘한 복지를 실천하며 우리 나라를 복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저의 다짐은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의 공부와 경험을 통해 이룰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여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이를 통해 배운 지식을 사회에 나가 공익을 위해 실천하고 싶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면접 준비를 하면서 예상 질문을 만들었는데, 실제 면접에서 준비했던 질문이 모두 나와 수월했던 면접이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실 때 꼭 대본을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또한 수많은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을 적어놓은 대본을 만들어 면접 직전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꼬리 질문이 무엇이 나올지 예상해보시고, 반드시 대답을 준비해보세요.

면접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밝고 당당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꼭 아이컨택을 하세요. 저도 아이컨택을 하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했는데, 그때 면접관님께서도 같이 웃어주셨던 기억이 남습니다. 마지막 대답까지 최선을 다해서 당차게 대답한다면 후회 없는 면접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서울대학교

대학명	서울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불합격
학과명	인류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X
전형유형	수시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실 입실 후 본인 차례 전까지 대기 - 본인 순번에 조교 지시 따라 면접장 앞 복도로 이동 - 복도에 놓인 책상에 앉아 30분간 제시문 분석 및 개요지에 답변 작성 - 제시문과 개요지 모두 들고 면접장으로 이동 - 15분간 제시문 및 그 외 추가질문 후 퇴실 		
기타 유의사항	별도 중간대기실 X 대기 중 전자기기 사용 금지, 그 외 자료 읽기 가능		
질문 및 답변 내용			

[제시문 1번]

1. 나 지문 진실 - 몽골인들이 영토를 크게 확장함

표상 - 악마, 메뚜기, 괴물 등의 상징으로 반감 드러냄

다 지문 사실 - 몽골인들이 자신들의 사회 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나 타 민족과의 전쟁 시 전투 민족의 특성을 드러냄

표상 - 글쓴이의 감정을 반영하여 주관적 기준 설정(세상에서 가장), 미루어 판단함(누구든 속이려고 함... etc)

2. 이질감

나 지문 - 악마, 메뚜기 때 - 성경에서 악마적 존재 13세기 유럽 가톨릭 퍼진 배경 미루어 보아 예수 믿는 자신들 <-> 악마적 존재로 비유된 몽골인들

다 지문 - 타타르인과 유럽 사람들을 철저히 다른 집단으로 분류

- 이러한 근거로 이질감 나타났다고 판단함

문학 작품 - <딸에 대하여>

동성애자 딸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질감을 느끼고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어머니와 딸의 갈등, 결말부에 이해를 통해 해결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나, 다 지문에 나타난 부정적 감정(두려움, 분노 등도) 유럽인들이 타타르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질감이 주된 감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시문 2]

1. (나) - 정치 행위에 국민 참여를 중시 (다) - 정치 행위를 국민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에 회의적

나 제시문은 공공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니 국민의 뜻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
다 제시문은 다수 의견 반영되어 이슬람 억압된 유럽 사례에 주목하여 전문가 개입으로 더 합리적인?? 방안 도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

나의 견해 - 둘 다 일리 있음.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근거 말함) 국민 뜻에 맡기되 국민이 다수성 외에 소수자들의 의견도 고려할 수 있도록 교육적 보완, 또는 소수 세력에게의 언론 등에서의 발언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 (빨리 말하고 생기부 질문하겠다 하셔서 축소해서 대답함) 권리 없는 민주주의 확산이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함 다수 의견 강화할 우려가 있고 특히 현재 sns 의 영향으로 혐오 정서가 더 잘 드러나고 잘 퍼지는 상황에서 제도적이고 정치적인 내용조차 개개인의 권리보다는 다수 의견에 더 치우친다면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함

<추가 생기부 질문>

1. 인류학과 지원 계기는?

- 다양한 사회 문제 탐구하던 중 환경 문제 관심 가지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친환경적인 문화의 정착을 생각함 하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지 알아내지 못함 진학해서 배워 보고 싶음

2. 사회, 지리 등 다른 학과도 많은데 왜 하필 인류학과였나?

- 문화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인류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려 한다는 면에서 제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3. 읽었던 인류학 도서를 아무거나 말해 보세요.

- 인류학에 관심 가지게 된 계기가 환경인 만큼 환경 인류학이라는 분야에 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도서는 꼭 집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외 다양한 사회 문제 탐구를 위한 도서를 읽으며 인류학적으로 총체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으로 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4. 본인이 생각하기에 친환경적인 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생각하는 지역 및 문화권을 아무거나 하나만 대 보세요.

- (이미 15분 지나서 빨리 말하라고 하셨음) 상대적으로 비문명화 된 지역에서 친환경적인 양식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준비할 때 제시문 관련 준비하는 것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특히 본인 희망 전공에 대해서 전공에 지원한 계기, 전공 지식 관련 단어, 유명한 학자 이름, 도서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공부해서 가세요! 끝나고 나니 그 부분이 가장 후회되었습니다. 또, 잘 모르는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아는 선 내에서 또렷하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 세 대 학 교

대학명	연세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문화인류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X
전형유형	수시	전형명	학생부교과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실 입실 후 본인 차례 전까지 대기 - 약 10명씩 한 조로 편성, 앞 조가 면접 진행하면 그 다음 조 중간 대기실로 이동 - 중간 대기실에서 면접장으로 개별 이동 후 8분간 제시문 분석 및 개요지에 답변 작성 - 조교 지시에 따라 패드에 5분간 답변 녹화(비대면 면접) - 답변 개요지 제출 후 퇴실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면접이기 때문에 추가 질문 X - 8분 개요 작성시간 중 1분 남았을 때 패드에서 안내음 울림 (놀라지 말 것) - 5분 지나면 자동으로 녹화 종료 - 패드 절대 조작 금지! - 대기 중 전자기기 사용 금지, 그 외 자료 읽기 가능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1. (가), (나) 제시문을 바탕으로 (다)에 나타난 사회적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시오.

[답변]

- (가) - 애도할 수 없는 상황이 불러오는 우울이라는 정서와 그것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
 (나) - 상호 의존과 상호책임??의 관점에서 연고가 없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슬픔을 느끼고 애도할 수 있음
 (다) -시신 냉동 컨테이너에 방치, 무연고자 시신 공동매장 : 비인도적인 시신 처리 형태

(가)의 입장에서 (다)를 바라보면: 코로나라는 상황이 모든 죽음에 일일히 애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것이 코로나 블루 등 사회적 우울 분위기에 영향을 미침
 (나)의 입장에서 (다)를 바라보면: 무연고 시신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 행태를 통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공동체 의식과 상호 책임 의식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대안: 무연고 시신의 매장 이전에 합동 영결제나 추모 행사 등을 진행해야 함

- ☞ 세월호 사태 당시 추모 행사를 통해 피해 학생들과 연고가 없는 사람도 함께 애도하는 분위기 조성되었던 사례 들
- ☞ 국가적 슬픔에 함께 슬퍼하면서 바람직한 애도 분위기와 우울감 해소, 사회 구성원 간 공동체 의식과 결속력 확인 가능한 효과

[질문]

2. (가), (나) 제시문을 통해 (라)의 그래프를 '애도'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답변]

(라) 그래프 해석 (그래프 2개 나왔음)

시신 인수 포기 증가 - 애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무연고 시신 중 노인, 장애인 비중 높음 - 특히 사회적 약자, 소외 계층에 대한 무관심

☞ 이 그래프를 애도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애도의 부재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도의 부재 상황이 나타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애도할 수 있음에도 애도하지 않음

- (가 제시문 입장) 애초에 타인에게 쏟은 리비도 자체가 없기에 애도도 하지 않음 / (나 제시문 입장) 개인주의 팽배, 구성원 간 결속력과 상호 책임 약화로 타인, 특히 연고가 없는 타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사랑의 반대는 무관심) 애도하지 않음

2. 애도할 수 없는 사회적 상황 형성

- 더 빨리 더 많이를 요구하는 현대 사회

- (가 제시문 입장) 코로나 19 상황까지 겹치면서 자신이 소외된 이웃에 대한 애정, 공감과 같은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자각할 여유가 없어 애도할 수 없음

후배들을 위한 조언

8분 안에 제시문 모두 해석하고 5분 짝 채워 알차게 답변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준비할 때 8분 안에 제시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연습, 그리고 5분 안에 하고 싶은 말을 조리 있게 말하는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스로 본인의 면접 연습 영상을 녹화하고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감 잃지 않도록 매일 연습하세요.

개요 작성할 필기구는 입학처에서 빌려주기도 하지만 본인이 지참하는 것이 편합니다.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마지막 조 기준 대기 4시간) 읽을 책(시사 이슈 관련된 책이면 더 좋을 듯), 면접 연습했던 자료, 예열 지문 등 준비해 가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퍼스 엄청 크고 면접장 위치에 따라서 정문에서 10분 이상 걸어가야 할 수도 있으므로 여유있게 도착하세요. (시간 못 맞춰서 결시 처리된 사람 의외로 몇 명 있음)

명 지 대 학 교

대학명	명지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정치외교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
전형유형	교과	전형명	교과면접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8시 40분까지 입실 완료 → 9시부터 면접기초자료 20분간 작성 → 자신의 가번호가 불릴때까지 대기실에서 대기 → 입장 후 자신의 가번호를 말하고 착석 → 5분간 면접실시 → 인사 후 퇴장		
기타 유의사항	자신의 가번호가 뒷번호일 수 있기에 면접 대기 시간에 면접 준비 자료 뿐만 아니라 잠시 쉬면서 생각을 전환 시킬 수 있는 책을 들고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면접 대기 시간이 길면 길수록 면접 준비에 집중이 잘 되지 않기에 잠시 쉬면서 면접 준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책을 준비 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면접기초자료>

[질문] 학교에 와서 가장하고 싶은 것과 그 이유

[답변] 캠퍼스 생활을 즐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우라미 활동을 하면서 외국인 학생들을 대하면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싶습니다. 여러나라의 문화를 겪어보면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미래의 국제인으로서 외국인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깨닫고 싶습니다.

[질문] 가장 자랑스러운 일과 그로 인해 느낀점

[답변] 저는 수학 성적을 상승시킨 것이 가장 자랑스롭습니다. 수학은 저에게 약점이었는데, 학교 방과후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과 토론과제를 진행하면서 여러 수학 문제를 풀어보면서 수학 성적을 많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대학 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제가 꾸준히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노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면접>

[질문] 지원동기

[답변] 저는 난민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하여 국제 정세를 알아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명지대학교에서 어우라미 활동을 하면서 외국인을 대하는 방법,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면서 외국인 학생들이 조금 더 대한민국에서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난민에 관심을 갖게된 계기

[답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때 국제정치라는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했습니다. 이 때, 수업을 들으면서 정치적인 박해 등을 이유로 자국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타국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난민에 대해 더 탐구해보니 생태학적 난민들을 알았고 이들은 국제기구의 도움 조차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국제기구를 만드는 활동을 하면서 생태학적 난민들을 위한 국제기구를 창설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단순히 난민은 무엇일까 라는 호기심으로 시작하여 난민을 돕고싶다고 생각하여 난민에 대해서 자세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질문] 난민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는가?

[답변] 전 유엔난민기구의 공식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난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습니다. 또한, 동영상 사이트에서 난민과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면서 난민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질문] 가장 기억에 남는 시사는?

[답변]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과 관련된 시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질문] 대한민국 입장에서 난민수용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취해야하는가?

[답변] 대한민국은 난민을 수용해야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한국전쟁때 난민이 되어 타국의 도움을 받은 국가입니다. 난민을 수용하는 입장을 펼치며 타국에게 받은 도움을 베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일부를 대한민국이 수용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6.25전쟁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은 도움을 준 국가로써 국민들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움을 이제는 대한민국이 베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을 난민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난민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답변] 정부는 난민이라고 언급하진 않았지만, 난민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아프가니스탄인들 모두 정치적 박해로 인해 고국을 떠난 사람들이기에 난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질문]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이유는?

[답변] 제가 도움을 주고자하는 분들은 국적과 상관없이 자국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통능력을 키워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면접 예상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에서도 꼬리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 내 답변에 대해서도 예상 질문을 만들어보고 갔음 좋겠습니다.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꼭 학과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해야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학과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많고 많은 학교중에 왜 이 학교를 선택했는지가 잘 드러나야합니다. 이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프로그램등을 언급하면서 지원동기를 말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에서 자신이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말은 차근 차근 하나씩 끊어가며 이야기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정치외교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수시 학종	전형명	면접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시간은 대략 7-10분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매우 짧음) - 면접관은 여자, 남자 각각 1분씩 떨어져 앉아계시고 노트북을 보심 - 아크릴 판이 세워져 있는 책상에 앉아서 일회용장갑을 끼고 면접 봄 - 면접 질문은 짧게 답하면 7-8개, 길게 답하면 5개 정도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문을 통과할 때, 수험표를 확인하니 수험표는 반드시 챙길 것 - 대기실에서도 수험표랑 주민등록증을 지속적으로 확인함 - 대기실에서는 휴대폰, 전자기기 등 인터넷 자료를 제외한 서류자료를 볼 수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고등학교 3년 동안 시사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네요. 그렇다면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한 활동이 있나요?

[답변] 저는 친환경 정책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무엇보다 친환경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질문] 코로나 이후 환경 문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답변]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마스크, 다수의 일회용품 사용이 지구온난화를 악화시키고 이는 국제환경협약을 위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환경정책을 탐구했습니다.

[질문] 고등학교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과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해볼까요?

[답변] 저는 3년간 동아리 단장과 실장활동을 하면서 저의 긍정적인 성격 덕분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한 가지를 뽑자면, 실장활동을 하면서 담임선생님과 학급 친구들의 의견조율을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담임선생님과는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학급 친구들의 의견을 전달했고, 학급 친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의견을 조율해나갔습니다.

[질문] 그렇군요. 독서활동을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특히 <코로나19 미국 대선 그 이후의 세계>에서 저자가 말하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무엇을 뜻

하는 것인가요?

[답변] (유일하게 준비 못한 책이 나와서 당황) 비대면 접촉이 활발한 요즘 AI와 환경에 무해한 에너지인 수소, 이차전지 등이 주를 이루는 세계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혹시 요즘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시사이슈가 있을까요?

[답변] 저는 최근 대만의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답변] 저는 중국이 이길 것 같습니다. (원래 미국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말이 헛나가서 당황)

[질문] 오 그래요? 특이하네 ㅎㅎ.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답변] 저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도 될까요?

[질문] 5초 이내로 끝내주세요.

[답변] 진리, 창조, 평화라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3가지 이념 아래에서 세계화를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 반드시 '두괄식'으로 말하기 (면접은 말하기 방식이므로 먼저 주제를 던져야 관심을 유발하고 말에 집중하게 할 수 있음)
- 모르면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하고 답변을 생각하면 됨
- 구구절절 말하지 않기. 핵심만 짚어서 임팩트 있는 답변이 중요함
-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질문과 다른 의도로 답변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
- 허리는 펴고 앉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주먹을 쥐고 두기
- 면접관을 번갈아 보면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함
- 첫인사와 마지막 인사는 밝은 톤으로 크게 하는 것이 중요함

서울대학교

대학명	서울대학교	최종 합격현황	최종 불합격
학과명	종교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제시문 면접으로, 30분동안 인문과학 제시문과 사회과학 제시문을 읽고 답변을 준비합니다. 그 후 준비한 답변을 15분동안 면접 자리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교수님이 추가 질문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답변으로 너무 오랜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추가질문1]종교학과를 진학한 후의 계획은?

[답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뚜렷하게 정해놓은 직업이나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업을 통해, 또 학교에서의 모든 활동들과 관계들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가치, 그 소중함이었습니다. 여러 문화권에 속한, 하나같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서사, 이야기의 존재와 가치를 인식하고, 그 가치를 지켜 휴머니즘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학문이 종교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개종교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고, 또 그것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삶의 형상들, 이야기들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것들이 가진 가치를 실현하게 하는 종교의 문법을 이곳에서 연구하고 싶어졌습니다.

[추가질문2] 여러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중, 자신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답변] 저는 예수의 진리에 대한 답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개개종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답변의 차이를 보면서, 그 중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질문을 품고, 답을 내려야 할 것 같아 혼란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성서를 찾아 보다가 예수가 진리에 대해 답변한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심문하는 장면이었는데, 그가 예수한테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야?”고 묻자, 예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답변이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진리’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쩌면 인간의 ‘언어’가 담아낼 수 없는 그 어떤 것이기에 예수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의 역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수많은 ‘진리’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진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천차만별의 강압적인 답변으로 인해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억압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의 이러한 답변, 반응을 보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삶을 초월하여, 사람들이 가진 삶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존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진실된 자신의 경험과 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면 됩니다. 떨릴 수 밖에 없는 자리지만, 교수님이 원하는 것은 학생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고, 학생을 한 명의 인격체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꾸밈없이, 후회 없이 보여줄 수 있는 답변을 하고,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명 지 대 학 교

대학명	명지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불합격
학과명	청소년지도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예비 8번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명지인재면접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p>면접 대기실에 들어가면 앉고 싶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전원을 끈 뒤 스태프분들께서 가번호를 부여해줍니다. 가번호 순서대로 스태프분들께서 호명한 학생은 면접고사실로 이동합니다. 면접관은 두 분이셨고, 두 분 모두 교수님이셨습니다. 면접관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습니다. 의자에 앉으면 본 면접이 시작됩니다.</p>		
기타 유의사항	<p>대기시간이 길 수가 있으니 물과 면접 준비 자료를 꼭 챙겨가세요! (휴대전화나 테블릿은 사용이 불가하니, 종이 자료를 챙겨가세요.)</p>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2학년 때 독서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그때 읽은 책을 말해주세요.

[답변] 총 다섯 권을 읽었는데 그 중 세 권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중 세권은 000, 000, 000 입니다.

[질문] 다섯 권 모두 기억이 안나나요? 책 이름을 모두 말해주세요.

[답변] 죄송합니다. 세 권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질문] 창의융합토론대회는 어떤 대회인가요?

[답변] 1,2,3학년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토론 대회이며, 다섯 가지의 다양한 분야의 주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모두 조사하여 토론 당일 날 대회의 주제와 찬, 반측을 정한 뒤 토론을 하는 대회입니다.

[질문] 1학년 때 토론대회에서의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답변] '자사고와 특목고는 폐지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질문] 왜 그 주제가 창의융합토론대회의 주제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창의융합하지 않은데?

[답변] 토론의 주제가 창의 융합하지 않지만 토론대회의 과정 중, 토론대회 시작 전에 주어지는 다섯 가지의 주제가 한 가지 분야에 치우쳐있지 않고 다양하다고 생각이 들어 융합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의문이 드는 표정을 지으심) 학생이 대회 이름을 정한 것이 아니니까 모를 수 있어요. 주제가 창의융합하지 않은데, 왜 창의융합인지 궁금하네요. (질문 같진 않고 혼자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답변] 답변 못함.

[질문] 창의적인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답변] 창의적인 것은 뻔한 것의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뻔한 방식을 벗어나면 새로운 해결책을 마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창의적인 것은 새로운 대안과 더 나은 해결책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뻔하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럼 창의적인 것은 어떠한가요?

[답변] 네. ‘뻔하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창의적인 것은...(앞에서 한 말과 비슷하게 했습니다.)

[질문] 학생은 사회복지 쪽에 더 잘 어울리는데, 왜 청소년지도학과를 선택했나요?

[답변] 네, 저는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더욱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청소년지도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질문] 우리 학과에서 어떤 수업을 듣고 싶나요?

[답변] ‘청소년 프로그램 및 개발과 평가’ 와 ‘특수아 상담’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 청소년 축구와 성인 축구가 같다고 생각하나요?

[답변] 축구에 적용되는 전체적인 룰은 같으나, 이루어지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답변] 저는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찾는 관찰력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추진력을 동시에 갖춘 능동적인 인재입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 할 부분을 찾아내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른이 되고자 하는 저의 목표는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에서의 공부와 경험을 통해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명지대학교의 면접은 꼬리질문이 상당히 많고 집요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 나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 지식에 대해서는 하나도 묻지 않았고, 생기부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대학의 명칭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꼼꼼히 준비하지 않아 후회가 되었습니다. 꼭 대학의 명칭과 어떤 대회인지에 대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통대학교

대학명	한국교통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불합격
학과명	행정학전공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9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나비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 비대면 영상 업로드 - 최종 면접 영상 업로드(10/28/목-10/29/금) 전 테스트 업로드용으로 3가지 질문을 줌 (면접평가 영향) - 최종 면접 영상 업로드 날10/18/목 아침에 질문 3가지를 제시함. 이에 맞는 답변들을 10분 안에 찍어서 업로드. 여러번 찍으면 마지막에 업로드한 영상으로 평가.		
기타 유의사항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영상을 끊지 않고 한번에 찍어야 함. 상반신 전체가 나오도록 영상을 찍어야 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1. 우리 학과(전공)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중요시 여긴 교과목과 그 교과목의 성적 향상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첫 번째 문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현대 사회와 행정' 특강을 들은 후 행정이 무엇인지, 행정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행정학전공에 지원했습니다. 중요시 여긴 교과목은 정치와 법입니다.

고교에서 '현대 사회와 행정' 특강을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듣고 '행정이란 무엇이다.' 광의와 협의 이외에도 다른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관련 지식을 쌓고자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1학년 진로활동으로 대학 학과 직업 체험에서 행정학과 및 법학과에 참여해 행정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밀접한 관계이며 뗄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 조직의 순기능을 발휘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 행정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전공 교육과정 편성표에 '정부와 기업, 공공정책분석 및 평가' 과목이 있고 고교에서 한 활동이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과목이 저의 목표를 이루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 같아 이 수업을 듣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와 법 성적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은 라디오와 인터넷 신문을 보며 자료 수집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길렀습니다. 고등학교 등하교를 위해 버스를 이용하던 중 시사 관련 라디오가 들렸습니다. 버스를 타는 짧지만 긴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평소 정치적 이슈에 평소 관심이 있어 인터넷 뉴스를 찾아보며 반성적사고와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 정치와 법 수업시간에 선거법 개혁 토론에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비록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1학기 보다 2학기에 성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2. 우리 학과(전공)를 진학하기 위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한 교내 활동과 그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 두 번째 문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도를 만드는 정책제안 활동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활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생활과윤리 시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교 앞 무단횡단과 신호위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둠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료조사와 포스터 제작, 설문조사 과정을 거쳐, 분석한 그 결과 보행자는 신호등에 둔감하게 반응하고 신호위반 처벌이 빈약하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꼼꼼히 생각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무단횡단 적발시 벌금 부과, 학생 자치교통단, 교통 안전지킴이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해 내어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며 활동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 안전지킴이를 고용함으로써 학생 안전 증가, 중장년층의 고용량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하며 제도나 정책이 모두 실행되기는 쉽지 않지만 실생활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19로 인해 국민 모두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 중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장 큰 문제였고 현재도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현재 5번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1차 재난지원금 뿐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에는 효과가 있지만 소비를 하는 사람도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어른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싶어 '재난지원금을 계속해서 받지 못한다면 정부가 시행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질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3학년 사회문화 시간에 배운 양적연구인 질문지법을 활용하여 "총 4번의 재난지원금, 정당하게 지급된 것일까?"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활동 당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이 중 1차 재난지원금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기에 저는 학교 선생님 25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두 1차 재난지원금만 받았지만 재난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저의 가설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운 자료조사 방법을 직접 활용해보면서 가설을 검증하는 시간은 전공에 대한 관심을 한 층 더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배움의 즐거움을 알아갈 수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는 행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앞으로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부서의 특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저는 활동을 통해 행정부는 국민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함을 써야함을 다시 한 번 인지하며 복지제도와 소통의 중요성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며 "국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정보를 분석하고 정책제안 활동을 하며 보다 행정직 공무원의 자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조사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행정학을 배우며 어떻게 실생활에 응용할지 고민할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직 공무원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에게 더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며, 얼마나 더 갖추어 져야 하는지 배우기 위해 행정학전공에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3.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 세 번째 문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정책을 만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과 환경정화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라는 공동체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며 대인관계 능력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성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많은 활동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 리더십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어떠한 목표를 이루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믿기에 저에게는 리더십이 정말 중요합니다. 리더십 형성에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저는 지역사회를 유심히 바라보고 문제점을 찾아 이를 해결하는 활동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커졌습니다. 이 관심은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과 환경정화 봉사로 이어져 대인관계 능력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 근처 체육공원을 자주 이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흡연, 음주 등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이 보였고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공원 이용 횟수가 점차 감소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장소가 체육공원의 설립목적과 다르게 청소년 비행의 장소로 바뀔 뿐만 아니라 시선이 안 좋게 보이면 지역 이미지 또한 안 좋아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매주 토요일마다 공원에 찾아가 쓰레기줍기의 환경정화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도 한 몫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시설들에서 봉사를 할 수 없었고 봉사의 기회와 폭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저는 봉사를 통해 봉사의 형태가 다양하고 끝이 없음을 깨닫고 코로나시대에 맞는, 맞춤형 온라인 화상통화를 이용해 정책제안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횡단보도 주정차 단속, 등하굣길이 위험한 학교 주변 차량 통행 금지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활동을 이끌었습니다. 여러 의견이 제시되며 정책제안 프로그램이 활발하고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여러 사람의 관심이 모여 더 좋은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간접체험할 수 있었고 단체 생활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협조적이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과 환경정화 봉사를 통해 봉사활동의 흥미를 느꼈고 매년 꾸준히 저의 장점인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중학생시절부터 봉사활동의 가치를 알고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점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웃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런 활동에서 배운 공동체 역량은 제가 행정학 전공을 위한 공부를 할 때는 물론,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인이 되었을 때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봉사하며 더욱 대인관계 능력을 키우는 데에 힘쓰며 대학교 생활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영상 업로드로 면접평가가 진행되었는데 한국교통대 면접 기출문제를 보고 미리 답변을 작성하는 것이 좋음.

충 남 대 학 교

대학명	충남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격
학과명	사회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최초합격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PRISM인재 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p>1. 우선 대기실로 집합한 다음, 휴대폰을 걷고 순서를 통보받은 후 자습 (대기 시간동안 각자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읽고 공부) 하는 시간을 가지며 대기하였다.</p> <p>2. 자신의 순서가 되면 번호를 부르고 윗층 시험실로 엘리베이터를 타며 이동한다. 하지만 아직 앞 차례의 학생분이 시험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면접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의자에서 다시 대기하였다.</p> <p>3. 약 10분정도 (면접시간은 15분 정도라고 나와 있었지만 체감상 훨씬 짧게 느껴졌다.) 면접을 보고 바로 나와서 귀가하였다.</p> <p>이렇게 대기시간까지 합쳐서 약 1시간 반정도 걸린 듯하다. (필자는 중간 정도의 순서였음.)</p>
------------------------------	--

기타 유의사항	<p>원서 접수할 때 받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꼭꼭 지참하자!</p> <p>또한,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교복을 절대 입어선 안 되고, 면접 당시 내 이름과 소속을 밝히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유념하자.</p> <p>(필자의 경우 첫인사를 할 때, 이름이 아닌 순서 번호를 말하는 것이 어색해서 실수할 뻔했다.)</p>
----------------	--

질문 및 답변 내용

똑똑, 노크를 하고 인사를 하며 시험장에 들어온 순간 여성, 남성 교수님 각각 한 분이 계셨다. 여성 교수님만이 얼굴을 들어서 날 바라보았고 남자 교수님은 계속 노트북에 시선을 집중했다. 무튼 이렇게 시작되었다.

[질문] 우선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인과를 밝혀 해결하는 단순한 현상을 단순하게만 보지 않는 학생, 면접번호 12번 학생입니다.

[질문] 사회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답변] 우선 제 꿈은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매체를 통해 사회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관심과 해결방안을 촉구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저 먼저 사회 문제를 있는 그대로 접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곳 충남대 사회학과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 생각했고 이곳에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일상 속 사회 부조리를 있는 그대로 접하고 싶었기 때문에 진학을 희망하였습니다.

[질문] 꿈이 시나리오 작가라고 하셨는데, 아마 사회학과 출신 유명한 분을 모티브로 삼은거겠죠? (웃음) (봉준호 감독을 이야기한 것, 필자 또한 동의하며 웃었다.) 다음으로 학교 생활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이 있었나요?

[답변] 3학년 당시 피터 싱어의 <죽음의 밥상>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채식의 중요성을 배웠고 나아가 이번 연도부터 교육청 주관으로 월에 한 번씩 채식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 채식의 날과 연관을 지어 탐구한 활동이 가장 의미있고 기억에 남습니다. 채식이 좋지만, 채식을 강요하는 지금 연 상황에는 적절한 교육 및 채식에 대한 거리감을 줄일 프로젝트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질문] 그럼 그 채식의 날 활동은 무엇무엇을 생각하게 되었다 까지만 한 것이고 직접 자신이 활동한 것은 없는 건가요?

[답변] 아니요! 이어서 전 직접 학교 급식 영양사 선생님과 면접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면접을 통해 현재 학교에서는 채식의 날을 진행하고 있지만, 안내문에 채식의 날이라는 점을 표시하면 학생들이 더더욱 급식을 먹으려 오지 않아, 잔반이 더 늘어나는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아예 표시조차 안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고 친구들에게도 채식의 날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등 활동을 했습니다.

[질문] 유독 사회과목 성적이 좋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필자는 사회과목이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거의 다 1등급이었음)

[답변] 우선 타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즐겨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또한 전 거의 교무실에 지내다시피 궁금한 점을 계속해서 선생님께 질문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과 친해지며 과목에 더더욱 흥미를 느낀 것 같습니다. 또한 범위 외의 심화 과정을 스스로 공부한 것이 도움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로의 시민불복종 파트에서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소로가 정부의 세금정책에 반대하여 숲속으로 도피하는 등의 내용을 찾아보며 더 재밌게 공부한 것 같습니다.

[질문] 학교 생활중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가 학교 부회장인데요. 부회장으로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과 대의원회의를 하며 불만, 건의사항을 받고 싶었지만,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그 점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설문조사를 돌리며 최대한 노력하였지만, 최소한의 인원, 반장 부반장들만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점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질문] (웃음) 음 그런거 말고 정말 자기 자신에게 힘들었던 점은요?

[답변] 저 자신에게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사회와는 달리 제가 수학과목에는 도통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정말 후회하지 않게, 여기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답변] 충남대가 광역시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가 사회학과에 입학하게 된다면 사회 조사 방법 등을 열심히 공부하고 도시사회학 등을 공부한 후, 직접 도시 속 현장에 뛰어들어 시민들의 갈등을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주력을 다 할 것입니다. 훗날 시민의 사회갈등 해결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학과 지원 동기, 장래희망은 정말 정말 필수이다. 당시에 떨어져서 말실수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이걸 꼭 외워서 가길 추천.

충남대의 경우, 면접이 종합전형의 반영 비율 33.3%이긴 하지만 '성적'이 제일제일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생기부 내용, 그리고 그다음이 면접임을 유념하자.

필자도 면접 때 많이 떨어져 유독 큰 소리로 답변하고,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상대방이 듣고 싶은 답변보단 내가 하고 싶은 말 만했다는 생각에 실패한 면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최초 합격을 받았다. 그 원인은 충남대 사회학과 3개년 합격 내신 성적보다 좋은 성적이었기 때문인 것 같다.

성적이라는 커다란 대리석을 먼저 취득해놓아야지 면접이라는 기술로 멋진 조각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면접이라는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다해도 대리석이 없으면 조각상을 만들 수 없지 않는가? 그러니 성적 획득에 심열을 기울이자.

경 인 교 육 대 학 교

대학명	경인교육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초등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최초합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교직적성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도착 / 가번호 부여 / 실외에서 조별 대기 / 건물, 대기실 입실 - 대기 후 면접실 이동 - 면접 도우미 분의 안내로 입장 - 면접관님의 블라인드, 제시문 면접 유의사항 안내, 면접 시작 - 가림막 설치, 타이머 시계와 불펜 구비 - 총 15분 - 2분 적성문항 검토 및 메모/4분 답변/4분 질의응답 - 1분 인성문항 검토 및 메모/4분 답변과 질의응답 - 면접 도우미 분께서 남은 시간 1분, 종료 안내해주심.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실시작시간 30분 전 대학 도착 - 입실시작시간 즈음 거의 모여서 건물 입실 시작 (가번호 100번 초반 기준 : 1시간 50분 대기 후 면접실 이동) - 대기 중 대화, 개인자료 열람 불가 - 화장실은 대기 중 안내 따라 이용 가능 - 전자통신기기 제출 시 전원 반드시 끌 것, 지키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 - 반드시 본인 면접 차시 확인 (대학입학처 합격정보 확인창 메뉴에서) - 면접세부사항 확인 가능) - 면접 중 시간 안내는 답변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듯함 - 면접실에는 지원자, 면접관 두 분, 면접 도우미 한 분 (시야 벗어난 좌측에 계심) 		

질문 및 답변 내용

1) 적성문항

[질문] 만들어가는 교과서의 장단점 각 2가지

[답변] 네, 답변하겠습니다.

장점-학습과정에 능동참여, 심화학습 가능

단점-기반 지식이 달라 학습 내용에 차이가 생김, 온라인 학습기기 사용이 어려운 학생들 문제
(제시문에 만들어가는 교과서가 온라인 학습자료를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첫 답변 시 단점을 이 부분에만 치중해 답변함)

이상입니다.

[질문] 교과서 자체를 만들어가는 경우에 생기는 장단점을 말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문제의 도로 풀어주심)

[답변] (잘못 말했구나 살짝 당황했지만 질문 내용 다시 말하며 장단점 생각하고 답변)

장점-생활 속에서 직접 학습 내용을 모색하며 탐구할 수 있으며, 스스로 참여했기에 적극 학습 가능

단점-정해진 내용이 없어 학교별, 지역별 학습 내용 차이 발생

[질문] 그렇다면 그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변]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에 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교사학습공동체-학습내용, 학습 방법 공유하며 차이 줄이고 부족한 부분 보완 가능(답변 듣고 메모하심)

2) 인성 문항

[질문] 약한 지적장애 학생, 학급에서 종종 문제 발생, 학부모는 특수학급 반대, 당신이 교사라면?

[답변] 네, 답변하겠습니다

특수학급 보냄

이유: 전문성-특수학급에서 전문성 갖춘 교사와 학습하는 것이 장애학생에게 더 도움, 장애학생 적응-계속해서 문제 발생 또는 학습차이 발생 경우 자존감 하락 우려, 다른 학생 수업권 보장-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학생들도 고려해야 함

[질문] 만약 학부모가 반대한다면 어떻게 대처?

[답변] 저는 특수학급에서 전문성을 갖춘 교사와 함께 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 설득할 것 같습니다. 또한 특수학급에 대한 편견 때문에 반대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특수학급이라고 해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에 나와 있듯이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학습하였을 때 생기는 학습 효과도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함께 하는 학습활동 기회를 마련한다면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학습했을 때 어떻게 학습효과가 생기는 걸까요?

[답변] 일단 장애 학생이 다른 학생과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접하며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에게 문제 발생 시 이것을 난관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헤쳐 나가며 성장할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른 사회 속에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협력하여 성장하는 방법을 배움을 통해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순서는 기억나지 않지만 혹시 장애학생과 함께 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 질문이 있었고,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면접종료 후) 일어나는데 의자를 뒤로 빼려다가 일체형이라 책상과 함께 뒤로 가버렸습니다... 면접관님과 면접 도우미 분 모두 웃으셨고, 저도 웃으며 일어나서 다시 책상을 복귀시키고 '감사합니다!' 인사 후 퇴실하였습니다. 부주의해 보일 수도 있으니 의자책상 조심하세요 ㅎㅎ

후배들을 위한 조언

딱히 압박적 분위기는 느끼지 못했지만, 면접관님 한 분은 굉장히 친절하고 온화하셨고 한 분은 처음에는 무관심한? 지루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하면서 눈도 마주치고 웃으며 자신 있게 이야기하다 보니 점점 관심을 보이시는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같은 답변이라도 목소리, 자신감, 웃음을 장착하면 점수가 더 좋은 게 당연합니다!! 연습, 생각 정리 많이 해보시길 추천해요.

적성 문항에서 문제의 논지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셔서 처음엔 당황했지만 빠르게 다시 생각해보고 답변하였습니다. 실수한 것이 있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기회를 더 주신 것이니 침착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적성 문항에서 장점 답변 시 학생의 입장 두 가지만 해서 구분이 모호했던 것 같은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할 때는 교사, 학생, 학부모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생각해 보는 연습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최저를 준비하는 입장이라 면접 준비 정말 일주일 단기 속성 공부였는데 성공적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인성 문항 답변 시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가 구분 없이 섞여 나와서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그럴 땐 문장이 길어지면 답변의 핵심이 무엇인지 전달하지 못하니 일단 짧게 마무리해보세요. 그리고 빠르게 생각해서 다시 정리하여 답변하면 됩니다.

“~인 것 같습니다”의 추측성 답변은 조심스럽게 답변하는 투라 자신감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긴장해서 위축된 상태라면 더욱 그럴겁니다. 자신이 생각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신 있게 말하는 연습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시문 답변 준비 시 시간이 남는다면 장단점 외에도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나올 부분이니 미리 생각해두세요. 또 나오지 않더라도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할 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서 꼬리질문을 유도해도 좋습니다.

의도는 아니었지만 마지막 면접 도우미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나가면 마지막까지 좋은 인상을 남길 것 같습니다.

광주교육대학교

대학명	광주교육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초등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최초합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교직적성우수자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실 시간 맞춰 대기 시작 - 재학생 분들 안내로 대기열 이동, 문진표 제출 및 발열체크와 입실 - 대기실 이동, 지정된 좌석 착석 - 면접 도우미 분 안내 따라 앉은 좌석 차례대로 대기와 면접 시행 - 문을 열고 들어가서 목례 후 착석 전 인사와 착석 - 블라인드 면접 유의사항 안내 및 면접 질문 시작 알림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유의사항 파일 미리 확인 - 대기실 확인, 자동차 통행, 방역용 문진표 - 대기 중 자유로운 개인자료 열람 - 대기실 내 가번호 10번대 후반 기준 입실 후 대기시간 3시간 30분 - 대기실 내 40~50번까지 있음 - 대기 중 화장실 이용은 1명씩, 면접 도우미 분께서 안내 및 복도 동행 - 면접실 입장 시, 인사 전에 착석 안내를 빠르게 하시니 들어오면서 목례 말고 바로 인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왜 자신이 초등교사에 대한 진로를 선택하였는지, 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해 보세요.

[답변]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 저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초등교사에 대한 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교육에 열정적인 선생님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모든 학교 활동에 성실히, 열정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단순히 초등교사 꿈의 계기에 대한 연습을 많이 했는데, 왜 '초등'교사라는 물음에 속으로 당황해서 준비했던 답변을 일부 빠르게 편집해서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조금 애매한 답변이네요..ㅠ)

[질문] 2학년 때 과학탐구토론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을 했는데 토론 주제와 자신의 입장은 무엇?

[답변] 토론 주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완할 창의적인 방법에 대한 고안이었습니다. 태풍 피해를 줄일 창의적인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 저는 친구와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놓은 방법은 해양 쓰레기가 많다는 점에도 주목하여 이

쓰레기를 활용해 태풍 피해를 막는 방파제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태풍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환경오염에 의한 기후 변화로 악화되는 문제점도 있는데 그 점도 함께 고려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막으면서 태풍 피해도 막는 방법을 고민하여 낸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큰 활동의의를 느낀 활동이라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다행히 이후 다른 질문과 이어져서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에 없어도 알고 싶은 활동의의가 있다면 미리 정리와 연습을 충분히 하고, 실전에서는 꼭 말하세요!!!)

[질문] 해양 쓰레기로 어떻게 방파제를 만드는 것이죠? (이후 기술적인? 용어 사용하심) 이런 건가요?

[답변] 해양 쓰레기를 압축 기술을 통해 압축하여 단단하게 만들고 그것을 방파제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토론 시에는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해외 사례와 논문도 찾아보았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하브루타 수업도 그렇고, 토론활동에 많이 참여하신 것 같은데 초등교육에서 토론 수업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답변] 저는 토론 활동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토론 참여자끼리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친구와 함께 과학탐구토론대회에 참여하며 대회 결과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열심히 참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하고 엉뚱한 아이디어들이었지만 그 의견마저 존중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보완해나가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토론 학습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서로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존중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아이들의 토론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면접관님 입장), 왜 그런 것 같나요?

[답변]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한 눈치를 보고, 걱정을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면접 당시에는 더 설득력 있게 말했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옆 면접관님께서 강하게 끄덕끄덕 하셨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론 학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표현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아이들이 점차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에 익숙해지고 토론 활동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질문] 3년 동안 교육동아리에서 활동했는데, 그 중에서 사교육이 꼭 필요한가? 에 대한 토론을 했네요. 이때 자신의 입장을 말해보세요.

[답변] 저는 '사교육이 꼭 필요한가?'라고 묻는 질문에 부정의 대답을 취하였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사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배우고 싶은 내용을 더욱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학습의지와 다르게 그 기회가 다르게 주어져 교육격차가 발생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사교육은 문제가 있고 또한, 공교육을 활성화한다면 사교육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해 부정의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질문] 네, 뭐 그럼, 이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 (면접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져서 중간 정도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물으시는 건가, 벌써 끝난 건가, 빨리 끝내고 보내시는 건가, 다른 의도였는데 내가 갑자기 면접 끝내는 분위기를 만드는 건 아닌가, 온갖 생각을 하며 동공지진이 일어난 모습을 보고 면접관님들 모두 웃으셨습니다. 그 후, 웃으시며 따뜻하게 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다시 말씀해주셨습니다.)

(준비한 답변 *똑같이 말고 이런 식으로 흥미롭게 자신만의 답변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로 ‘오히려 좋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불편하거나 힘들어 보이지만 당사자는 문제없다는 식의 말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초등교사를 꿈꿔오며 종종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선생님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걱정에 ‘오히려 좋아’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진정한 학습과 성장을 위해 고민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초등교사가 되기 위한 저의 다짐입니다.

(마지막 말은 준비하지 않다가 당일 아침에 생각해보고, 웃으며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야심차게 연습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님 눈을 끌고루 마주치고 웃으며 자신감 넘치게 답변할 수 있었고 면접관 분들께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면접 종료 안내 후)

인사 후 일어서려는데 한 분께서 “근데 가번호 몇 번 맞으시죠?”/“네, 맞습니다!”/“아~ 머리카락 때문에 번호가 안보였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아차 싶었는데 실제로도 “아!!” 하면서 머리를 뒤로 착 넘기고 “몇 번 맞습니다!!” 라고 하니 다들 따뜻한 웃음을 보이셨고, 옆 면접관님께서 웃으시며 “몇 번 맞아요~” 해주셨습니다. 그 후에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후 면접실을 나왔습니다. 나가는 중에는 마지막 답변에 당황한 저에 대해 다시 웃으시며 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ㅎㅎ///

후배들을 위한 조언

왜 다른 교육이 아닌 초등교육인지는 한 번쯤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볼 질문에 있었지만 준비하지 않았다가 당황해서 아무 말 했습니다 ㅎㅎ

이전 면접 때는 대기 시간 중 개인자료 열람이 불가능해서 이번에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3~4시간 동안 아무 자료도 없이 생기부 내용, 교육시사 관점, 교사 모습, 마지막 멘트 등등 생각하는 것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부디 광주교대는 자료를 챙겨 가지길 바랍니다!

몇몇 질문 답변 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면접시간이 10분으로 짧

다 보니 구체적인 답이 부족할 때 꼬리질문을 하시는 횟수가 적은 것 같으니, 답변 한 번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도록 연습해보세요.

저는 답변하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모두 담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있었는데 면접관님 반응은 모두 좋으셨습니다. 한 분은 강한 끄덕끄덕을 보이기도 하셨고, 면접 분위기를 편안하게 하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해주신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에만 만족하고 적당히만 답변하지 마세요! 준비한 만큼 아쉽지 않게 충분한 답변하고 오세요!!

다수의 면접관님이 모두 지원자를 바라본다면 질문하신 분뿐만 아니라 골고루 눈을 마주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세요. 질문하신 분께서만 바라보시고 다른 면접관님은 자료를 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질문 주신 분께 집중하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10분 서류기반 면접이다 보니 정말 시간이 짧습니다. 생각보다 질문 수도 답변 시간도 적다 보니 면접관님께서도 빨리 진행하시려는 느낌을 받아서 아쉬웠습니다. 한 번 답변할 때 꼭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면접 준비 시에는 질문별 답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을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에든 끌어와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한 가지 주제에 대한 나의 경험, 느낀 점, 교사로서 입장, 장단점과 해결방안 등 많은 측면에서 답변을 작성해보세요. 다른 주제까지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방향이나 학교생활을 통해 배우고 느낀 것들에 대한 핵심들이 생길 거예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답변 시 '예비 초등교사로서의 다짐' + '이 다짐을 광주교육대에 입학하여 함께'가 계획이었으나 다짐까지 말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셔서 "앗 네,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준비한 말이 있다면 끝까지 어필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잘 말할 수 있고, 본인을 잘 보여주거나 어필할 수 있는 자신만의 답변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음 좋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면접 분위기가 광주교대가 가장 좋았습니다. 면접 도우미 나오신 재학생 분들도 모두 친절하시고 환영해주셨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준비 열심히 하신 대로 편하게 하고 오세요!! 파이팅!

청주교육대학교

대학명	청주교육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초등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최초합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충북인재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차량 통행과 하차, 발열체크 후 건물입실 발열과 QR체크 후 대기실 입실, 본인확인과 화장실 이용, 전자통신기기 수거, 명찰 착용, 면접안내 면접위원 두 분, 생기부 기반 면접 10분 대기 장소에서 본인차례 5분전 면접 고사실 앞에서 다른 대기 학생들과 대기 앞 차례 지원자 퇴장 후 바로 입실 인사, 가번호 소개 후 착석, 바로 면접 시작		
기타 유의사항	건물 입실 전 1층 외부에 붙여진 고사실 안내 꼭 확인하고 가세요!! 안내가 잘 되어있지 않아서 해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π 근거리라고 시간 맞춰 가지 마시고 30분 정도 미리 도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복도가 많이 추워서 덜덜 떨다가 들어갔습니다. 자켓까지 착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본인의 생활기록부에서 초등교사로서 자랑할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답변해주세요.

[답변] 모든 활동 열심히 참여,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교육학, 심리학을 수강하며 능동적으로 학습함 /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다 보니 한 분야에 대한 깊은 활동을 진행한 것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 (이런 식보다는 자신을 어필하고 잘 설명할 수 있는 활동 하나씩을 선정해서 소개하는 것이 더 깔끔하고 원하는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질문] 그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은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변] 과학탐구토론대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음
 평소 앞에 나서서 논리적 말하기를 하는 것에 부족함을 느껴, 본인이 꿈꾸는 학생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도전하게 된 활동
 친구와 자유로운 분위기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보완하며 열심히 준비했고 성과도 좋았음
 이를 통해 협동 활동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것의 중요성과 도전의식을 느낄 수 있었음

[질문] 본인이 3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 말해보세요.

[답변] 30년 후, 학생들과 나이 차가 많이 날 텐데 그럼에도 끊임없이 학생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음. 또한 평소 심리학이나 음악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음악치료 자격증과 같은 분야에 도전하여 아이들의 심리적 부분을 채워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음.

[질문] 예체능과 심리학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예술 분야는 어떤 쪽에 관심이 있나요?

[답변] 예술분야로는 음악과 글쓰기. 평소 하루 일과 중 자신에게 가치가 있었던 것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 일기나 시를 쓰는 시간을 가지며 나만의 시간을 가짐. 노래를 듣고 부르는 것도 좋아해서 흥얼거리는 음악을 기록해두기도 하고 직접 쓴 글과 함께 노래를 만들기도 함.

(조금 민망해서 우물쭈물하다가 저만의 음악을 만듭니다!! 라고 답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시며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것이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은 무엇이고, 싫어하는 과목은 어떤 노력을 들였나요?

[답변]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 상대적으로 성적은 낮은 과목이지만 수학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보람을 느껴서 가장 부담없이 즐겁게 한 과목이었다 생각함.

싫어하는 과목은 체육. 체육에 소질이 없어서 처음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음. 하지만 친구들과 협력하여 실력을 향상하기도 하고, 선생님에게도 도움을 받으며 성장해 좋은 성적을 거두며 극복할 수 있었음.

[질문] 학교생활하며 갈등상황, 해결과정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답변] 학급 의견 수렴 시 겪은 갈등상황, 학급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해결해야겠다고 생각. 학급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점을 확인해 친구들의 동의를 구해 새로운 방식으로 의견 수렴하여 해결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해도 되는지 여쭙봤는데, 시간상 안 될 것 같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예전부터 희망해오던 지역 교대라 그런지, 대기 중 너무 추워서 그런지, 면접이 시작되었는데도 떨렸습니다. 긴장한 제 모습을 보시고 떨지 마시고 천천히 답변하라고 해주셔서 침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율, 동아리, 봉사, 계기, 독서, 진로활동 모두 안 나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후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생기부 활동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자신에 대한 탐구, 선생님으로서 미래 모습 등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청주교대 면접은 딱딱한 분위기, 날카로운 질문, 비중 큼 이런 것들에 대해 걱정이 많았는데 면접관님 모두 너무 따뜻하셨고 질문들도 생기부 활동 기반이라기보다 그냥 추상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평소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주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가져보며 예비교사로서 많은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공주교육 대학교

대학명	공주교육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최초합)
학과명	초등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농어촌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3분 동안 제시문을 읽고 접어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7분 동안 읽은 제시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면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면접장으로 이동합니다. 면접관분들이 질문은 읽어주십니다.		
기타 유의사항	3분 읽고 7분 숙고하는 시간 모두 필기구 사용할 수 없으며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야 합니다. 대기실에 물 제공해줍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1. 코로나19 상황이 해결된 후 대면 방식의 회복과 비대면 방식의 유지 확대라는 주장에 대해 여러분은 어느쪽을 지지할지 정하고, 근거를 들어 주장을 정당화하시오.

저는 대면방식의 회복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비대면 교육은 교육격차가 더 커지고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방식을 유지한다면 이러한 교육에 소외되고 있는 친구들을 더 소외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면 방식을 회복해야합니다. 두 번째로 학교라는 사회의 축소판에서 사회성을 기르기위해 대면 회복이 필요합니다. 저도 코로나로 인해 체육대회, 소풍 등 친구들과의 의사소통 기회가 줄어들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 함께했던 반 친구들과는 친해지는데 오래걸렸고 서먹서먹했습니다. 이처럼 학교에 나와 사회성을 키워야하기 때문에 대면 방식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사와 학생사이의 라포 형성을 위해 대면방식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파악하는데 비대면 교육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면 교육을 통해 교사와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라포를 형성한다면 아이들을 파악하는데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자신이 지지한 주장과 대립되는, 반대편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시오.

반대편 주장으로는 첫째,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 편리하여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학습을 했던 경험을 떠올려보면 대면 수업보다 수업은 빨리 끝나는데 비해 학습량은 똑같아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편 주장은 잘 기억이 안나요..죄송해요ㅠㅠ)

3. 두 가지 주장을 초등 교육의 관점에서 고려할 때, 코로나19 상황이 해결된 후 초등 교육이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을 근거를 들어 제시하세요.

저는 초등 교육이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결합한 형태로 변화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서 교육학 수업을 수강하면서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 배웠습니다.(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개념이 나오니 교수님들이 웃어주셨어요^^ 요즘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교수

학습이라고 주워 들어서 써먹었는데 좋게 작용한 것 같아요.) 블렌디드 러닝이란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결합한 형태로 각각의 수업의 장단점을 보완하며 학습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블렌디드 러닝의 한 예시로 거꾸로 수업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거꾸로 수업이란 아이들에게 온라인으로 짧은 영상을 보고오게 한 후 학교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수업 방식입니다. 이처럼 제가 초등교사가 된다면 거꾸로 수업을 적용하여 수업해보고 싶습니다.

꼬리질문 : 교육적인 관점 말고는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생각이 안 나서 조금 생각할 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린 뒤 답변했습니다. 비대면을 하게 된다면 코로나 방역에 효과적이며 대면은 상사와의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임기응변이 작용해서..자세히는 기억이 안나요..)

후배들을 위한 조언

공주교대 면접은 다른 교대 면접보다 정말정말 어려워요.. 특히 올해는 교육시사 제시문이 나와 평소 생각해볼 수 있는 주제여서 다행이었지만 작년 기출을 보면 '외국인들에게 부동산 매입을 규제해야할지 말지'가 제시문으로 나와서 공주교대 면접을 준비하면서 너무 막막했어요.교대는 사실상 초등교사가 되기 위한 학교기 때문에 좋고 나쁜 교대가 없고 집에서 가까운 교대가 제일이라 넣었는데 면접 50%라는 사실을 늦게 알아서..ㅠㅠ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공주교대 면접은 어떤 시사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찬반이 갈리거나 주장이 서로 상반되는 일반 시사들은 꼭 뉴스 기사들을 많이 접해볼수록 유리합니다! 저는 수교사 카페에서 판매하는 수교사 면접 책으로 공부했는데 여기에 일반시사부터 교육시사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 있어요! 책 두께도 어마무시하답니다.. 저는 5교대를 써서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할 시간이 많아 다 읽고 몇 번 돌려볼 수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최저를 공부할 때 저는 면접 공부를 했는데 진짜 면접도 쉬운 일 절대절대 아니에요. 특히 공주교대 면접은.. 정말 많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특히 필기구 없이 생각하는 시간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한 것 같아요. 기억한 내용도 까먹고 문제가 뭔지도 기억이 안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답니다..^^ 저도 처음 연습할 때 겨우 3분 나왔어요^^ 면접은 10분동안 진행되는데 말이죠.. 그러니 막막하셔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들 똑같답니다. 하지만 제시문 면접은 하면할수록 확실히 늘어요. 그리고 면접 4군데 다녀온 결과 공주교대 교수님들이 가장 착하세요. 그리고 면접 보러가기 전에 공주교대는 자유롭게 화장실 다녀올 수 있는데 저는 본인 차례 되기 전에 화장실 가서 목소리 나오나 확인해보고 오면서 긴장 푸는걸 추천드려요! 공주교대 교수님들이 진짜 제일 많이 웃어 주시고 제일 분위기도 좋으니 최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거예요 파이팅!!

진 주 교 육 대 학 교

대학명	진주교육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종 합격
학과명	초등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예비 24번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21세기형 교직 적성자 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p>면접은 3타임이 있었고, 저는 오전 시간대 면접이었습니다. 배정받은 조의 대기실에 가면 6명씩 있었습니다. 입실 시간이 끝나면 바로 봉투에 전자기기를 제출하고 가방도 바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제시문 면접을 먼저 보는데, 3분 동안 읽고 7분 숙고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에 대한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면접 도우미분들, 도우미 선배님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말 걸어주셔서 긴장이 조금은 풀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은 세 분 계셨고, 교수님들 자리와 학생 자리 모두 가림막이 있었습니다. 거리는 생각보다는 멀었고 면접 때 목소리를 크고 밝게 하신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p>		
기타 유의사항	<p>학교에 입장할 때, 라텍스 장갑을 착용합니다. 수험번호를 언급할 수 없었고, 진주교육대학교에서 지정해준 가번호만 말할 수 있습니다.</p>		

질문 및 답변 내용

제시문

- (1) 가르침은 과학이다. 어떤 교육방법이 효과가 더 좋을지를 분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교육이다. 라는 맥락의 짧은 지문 1개가 나왔습니다.
- (2) 가르침은 예술이다. 아이들마다 개별성을 인정해야 하고 매번 같은 방향으로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름을 존중해야 한다. 라는 맥락의 짧은 지문 1개가 나왔습니다.

[질문] 두 개의 제시문을 참고하여 가르침이 예술인가 과학인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수업을 말해보세요.

[답변] 저는 가르침은 과학과 예술적인 측면 모두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침에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탐구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과 동시에 아이들 개개인을 인정해주고 창의성을 인정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제시문 내용 중 조금 더 제 생각과 가까운 쪽을 말씀드려야 한다면, 가르침은 예술에 조금 더 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시로 인공지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르침이 오직 과학일 뿐이라면 그저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찾고 적용하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움에는 학습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성교육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아이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조금 두서없긴 했지만 제 진심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문] 혹시 특정 과목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음... 제가 학교에서 탐구해보았던 수학 수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도교사다'라는 활동을 하면서 재미있고 '함께'하는 수학 수업을 탐구하였습니다. 배운 지식을 활용해 과자집 만들기라는 활동을 기획하면서 친구들의 개성있는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에 교사가 된다면, 교과 내용을 미술 교과와 융합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개별질문

[질문1] PISA의 자료를 보고 학력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혹시 OECD에서의 성취도가 PISA에서의 성취도보다 높은지 낮은지 아나요?

[답변1] 음... PISA는 국제 학업 성취도로 알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OECD 성취도보다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황했어요. 생기부에 OECD 얘기도 없었고, 잘 모르기도 했거든요. 질문하신 교수님께서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네 하고 빠르게 다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2] 1학년 교과 체험 학습 때, 영어로 대화한 경험이 있네요? 우리 학교에도 해외에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떻게 참여할 건가요?

[답변2] 네. 저는 영어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말씀하신 체험과 대회에 나갔습니다. 진주교육대학교에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해외 교류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영어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이 아예 극복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학교에 와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질문3] 교육대학교는 몇 개 썼어요? 또 1차는 몇 개 붙었나요?

[답변3] 5개를 썼고, 그중에서 2개 붙었습니다. 한 개는 지역으로 붙었고 하나는 이곳입니다. (후회됩니다. 지역인재라고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었는데요.)

[질문4] 예체능 과목 중에서 가장 잘하는 과목과 조금 못하는 과목이 무엇인가요?

[답변4] 저는 음악이나 미술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육이 조금 저는 어려웠습니다. 공으로 하는 종목을 잘 못하고 체력이 약해서 학교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런 제 약점을 보완하고자 꾸준히 줄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질문5] 교외 봉사, 그러니까 교육 봉사가 적은 편이네요? 왜 적다고 생각하나요?

[답변5] 1학년 때부터 한 달에 2번씩 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2학년 때부터는 코로나 19 때문에 봉사센터가 문을 닫아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질문6]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주세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말해주세요.

[답변6] 저의 장점은 누군가를 공감해주는 것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친구들과 선생님이 자주 “너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라고 하시고 공감을 잘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점은...(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나서 조금 고민했어요.)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생각이 많다보니 다른 일에 지장이 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 저는 제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은 조금은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답변7] 진주교육대학교에서 진주알같은 멋진 교사 꿈나무 중에 한 명이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아이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이해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사실 진주를 거의 포기했었어요. 올해 경쟁률이 췌고, 수능도 준비해야 한다는 핑계로 제시문 준비를 거의 안하다가 발표가 나고 일주일 동안 제시문을 봤어요. 이렇게 단기간에 제시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벼락치기가 안된다는 거예요. 말하기 습관을 고치는 것이 쉽지 않고, 특히나 내 답변을 구상하는데에도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제시문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기부 면접 준비에 대해 드리고 싶은 팁은 ‘마인드맵 활용’이에요. 활동 하나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갈래로 질문이 나올 수 있기에 다양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노트에 활동을 적고 가지치기를 하면서 생각을 넓힌다면 좋을 것 같아요.

청주교육대학교

대학명	청주교육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종 합격
학과명	초등교육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예비 10번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충북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p>충북인재전형은 오전 면접이라서 8시 20분까지 입실하면 대기실에 조별로 앉아서 순서를 기다립니다. 준비한 면접자료를 볼 수 있고 순서가 되면 한 명씩 면접실로 이동합니다. 청주교대 면접은 생기부(서류) 기반 면접이어서 조금 대기하다가 바로 면접실로 들어갑니다. 면접 도우미 분들이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면접실에 들어갈 때도 교수님들께서 밝게 웃어주셔서 긴장이 조금은 풀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은 두 분 계셨고, 교수님들은 투명 가림막이 있었지만, 학생 자리는 가림막이 없었습니다. 거리는 생각보다는 가까웠지만, 그래도 면접 때 목소리가 크고 밝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p>		
기타 유의사항	<p>대기실에서 나눠주는 이름표 목걸이에 수험표를 접어서 넣고 매야 했습니다. 대기실에서 면접실로 이동할 때, 잠깐 의자에 앉아 대기할 때가 있는데, 이때 앞치마를 착용합니다.</p>		

질문 및 답변 내용

개별질문

[질문1] 체육대회나 뭐 다른 활동에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한 활동 중에 우리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활동 있으면 말해주세요.

[답변1] 저는 1학년 때 했던 ‘창작 스텝박스 안무 만들기’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스텝박스를 지도해주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팀원 간 춤에 대한 실력, 관심 격차가 커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춤을 잘 추는 친구들은 어려운 안무를 짜고 싶어했고 잘 못 추는 친구들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저도 춤을 그리 잘 추지 않기에 간단한 창작 안무 여러개를 친구들에게 알려주며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춤을 잘 못 추는 친구들은 함께 참여할 수 있었고, 잘 추는 친구들은 더 어려운 안무를 만들며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1-1]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답변1-1] 물론 있었습니다. 다 안무를 만들고 나니 어려운 안무들이 꽤 많았습니다. 결국 모두가 익힐 수 있도록 연습했고, 도왔습니다. 어려운 안무를 익히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함께 도와 연습하며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질문2] 교외 봉사(교육 봉사)도 있지만, 교내 봉사가 특별히 많네요. 어떤 활동 했는지 1가지만 말해주세요.

[답변2] 네. 저는 1학년 때부터 점심시간마다 서가 정리를 돕고 아이들 대출반납을 도와주는 도서도우미를 했습니다.

[질문2-1] 아...특별히 학생의 학교가 교내 봉사를 많이 주는 학교는 아닌가요?

[답변2-1] 네! 특별히 봉사를 많이 챙겨주는 학교는 아니었고, 제가 도서 도우미를 꾸준히 해서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기에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고개를 끄덕여주셨어요.)

[질문3] 담임을 맡게 된다면, 1학년과 6학년 중 어느 담임을 맡고 싶은가요? 이유는요?

[답변3] 저는 물론 다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기로는 1학년을 조금 더 맡고 싶습니다. 1학년 아이들이 아무래도 6학년 아이들보다는 한글이나 말하는 데 있어서 미숙합니다. 아이들을 차근차근 지도하고 싶습니다. 3학년 때 문해력과 관련한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국어 지도를 하는 방법을 탐구했습니다.

[질문4] 그럼 국어나 문과 과목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성적을 보니까 오히려 수학 성적이 크게 올랐네요?

[답변4] 네. 사실, 중학교 때부터 수학 과목이 항상 저에게는 어려웠습니다. 공부를 한 것에 비해 성적이 나오지 않았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제 수학 공부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개선한 방법으로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기에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5] 요즘 유튜브로 어떤 영상을 보나요?

[답변5] 저는 음악을 듣기도 하고, 교육 관련 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프로그램명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금쪽같은 띠띠띠’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조금 재미있게 하고 싶어서 띠띠띠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 말보다는 프로그램 자체에 관심을 주셨습니다.)

[질문5-1] 어! 그거 알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학생이 보나요? 어떻게 관심 가지게 됐어요?

[답변5-1] 음...처음부터 유튜브로 본 것은 아니고, 우연히 TV 프로그램을 돌려보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런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이라는 심정으로 보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영상을 꾸준히 보면서 더 넓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질문6]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특별한 활동을 한 게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답변6] 음...(이때 조금 고민했어요. 공간혁신 활동과 꾸준히 해왔던 교사 관련 활동 중에 고민하다가 저에게 좀 더 의미있었던 교사 관련 활동 이야기했는데 끝나고 보니 살짝 후회되네요.)

저는 3년 동안 내내 했던 ‘나도교사다’ 활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활동은 제가 직접 수업지도안을 짜고 재미있는 수학 수업을 고민해왔던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배운 수학 개념을 이용해서 과자집을 만든다든지 제가 직접 만든 놀이 교구를 이용해서 수업을 계획해보았습니다.

[질문기 (급하게 휴대폰을 만지시면서) 시간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답변기 네! (저도 덩달아 급해졌어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말 간단하게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저의 꿈은 변함없었고, 아이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생기부 기반 면접이었지만, 생기부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보다는 포괄적인 질문, 교직 적합성을 보기 위한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학교생활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했던 활동 한 두 개를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대학교 첫 면접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떨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떨고 있는 자신을 불안해하기보단 ‘당연히 떨리는 거고, 누구나 떨려.’라는 마음가짐 덕에 조금은 편안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간절하고 떨리겠지만, 떨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불안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청주교육대학교

대학명	청주교육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초등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충북지역인재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대기실에서 대기-> 면접 순서 다가오면 복도에서 대기-> 면접		
기타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수험번호 말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바로 면접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학생의 생기부에 드러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볼래요?

[답변] 저의 장점은 포용력이 넓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장을 맡았던 3학년 때의 반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학생들과 그런 분위기를 답답해 하는 학생들이 공존하는 반이었습니다. 공부하는데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바로 “조용히 해!”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공부에 의욕이 없는 친구들조차도 저의 반의 구성원이므로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급회의를 열어 입장이 다른 두 친구들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고, 그 결과 선생님들께 학급 분위기가 가장 좋은 반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단점은 자존감이 낮았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서 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1학년 말에 전교생 앞에서 저만의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면접 당시에는 활동 명이 생각이 안나서 말을 못해서 아쉬웠어요. 활동 명을 제대로 말하면 신뢰감을 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질문] 동아리나 수학여행, 체육대회에서 재미있었던 경험 있으면 말해줄래요? 없다면 미래에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것도?

[답변] 1학년 동아리 시간에 다문화를 차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계획했던 ‘우드아트 볼 만들기’ 부스 체험을 진행했었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다문화 제도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보았습니다. 보고서로만 작성했던 것이 아쉬움에 남아서 미래의 선생님이 되었을 때 다문화 아이들과 직접 만나 교육해보고 싶습니다!

(꼬리질문) [질문] ‘우드 아트볼 만들기’가 재미있었던 활동인가요?

[답변] 네. 우드아트 볼에 손을 잡고 있는 다문화 아이들이 그려져 있어서 친구들과 색칠하고 어느 나라 사람일지 유추해 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저에게는 재미있었습니다. (당황해서 손 동작을 크게 했던 것 같아요.)

[질문] 원격수업을 받아봤죠? 어떤 수업이 제일 좋았고 어떤 수업이 제일 별로였는지 말해줄래요?

[답변]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문학' 수업입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수업 자료와 선생님의 목소리가 담긴 수업이었기 때문에 원격 수업일지라도 학교에서 수업받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문학작품을 구연동화처럼 읽어주시면서 수업하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선생님의 열정과 노력으로 재미있는 수업이 탄생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일 듣기 힘들었던 수업은 ebs강의를 그대로 올려주시는 선생님의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의 질은 높았지만, 한시간이 넘는 강의가 많았고 교과서 이상의 지식이 담겨져 있을 때가 있어서 공부하기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나는 미래에는 어떤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 좋았겠다. 아쉬움이 있었어요.)

[질문]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변화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을텐데, 미래의 학교에 어떻게 적용시킬건지 말해볼래요?

[답변]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주칠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목소리 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문제 중에서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환경 교육을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농촌체험, 텃밭 가꾸기 등을 통해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변화하는 환경 문제에 따라 변화하는 수업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학생들이 환경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급경영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셋째를 말하다가 종료 알림이 울려서 빠르게 마무리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불가능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청주교대가 올해부터 제시문 형태의 면접에서 생기부 기반 면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면접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 도중에도 생활기록부의 점수를 넘기지 시 알려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거는 내신 챙기기입니다.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 때까지 공부하세요, 그렇다면 결과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라고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거는 생기부 활동입니다. 내신 챙기느라 바빠서 활동을 다 참여하기는 힘들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부각하고 싶은 모습이 드러날 활동(교사상을 정립해두고 그에 맞는 활동을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활동(저는 1,2학년때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 3학년때 실장을 했어요) 혹은 1,2,3학년 연계되는 활동(저는 1,2,3학년 모두 나도교사다를 참여했고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을 골라서 하여 푹부러지게 시간분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사람은 분명히 알아봐 주실겁니다. 정말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 내신이 조금 낮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활동 열심히 하면서 학교생활 보내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파이팅^^

청주교육대학교

대학명	청주교육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최초합)
학과명	초등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충북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10분간 생기부 & 교직인적성 문제에 대해 질의응답		
기타 유의사항	시청각실에 있다가 복도에서 대기를 하는데 복도가 너무 추워서 떨려서 떨기보다 추워서 떨었어요.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ㅠㅠ 그리고 이름, 수험번호는 말할 수 없으니 꼭 당일날 주는 가번호를 얘기하셔야 합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Q. 고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경험과 아쉬웠던 경험에 대해 말해보세요.

A. 뿌듯했던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대화가 중요함을 깨닫게 해준 학급카페 부위원장을 했던 경험이 가장 뿌듯합니다. 1학년 때 학급카페 부위원장을 하였습니다.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카페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기위해 아이디어팀, 소품팀, 예산팀, 홍보팀 등으로 부서를 나누었는데 오히려 소품팀과 예산팀과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급기야 소품팀 친구들이 학급카페준비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저는 이를 해결하기위해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였고 공감해주며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사실 갈등은 교사와 학생사이 그리고 교사와 교사간에 있어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대화가 갈등에 있어 최선의 해결방안임을 깨닫게되어 뿌듯했습니다.

아쉬웠던 경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봉사시간이 적은 것이 아쉽습니다. 여러 교육기관에 연락을 드려보았지만 코로나19로 조심스럽다는 이야기를 받아서 아쉽지만 봉사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봉사가 꼭 기록으로만 된 것이 봉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록으로는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친구들의 상담을 들어주고 부반장 역할을 하며 학급에 힘썼습니다. 이처럼 꼭 기록으로만 적힌 것으로 저의 봉사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Q-1. 교내봉사를 할 수 있었을텐데 교내봉사는 그럼 왜 없나요?

A. 저도 교내봉사를 정말 하고 싶었지만 코로나19로 다들 봉사시간이 없어 학교 분위기가상 너도 나도 봉사를 하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로 교내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가위 바위보를 거의 다 했는데 계속 져서 아쉽지만 교내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이 말을 하고 교수님들이 요즘은 또 그렇게 정하는구나~하시면서 웃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긴장이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이 말 할때 표정이랑 목소리 톤을 최대한 아쉽게 말했어요!!)

Q. 성적이 상승곡선인데 이유가 있나요?

A. 저는 단순히 가르치는게 좋아서 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과 학습플래너를 공유하였습니다.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때였는데 담임선생님께서 응원의 메시지와 위로를 매일매일 달아주셔서 정서적으로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 지식전달이 목적이 아닌 아이들에게 더 정서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초등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등교사라는 목표를 설정한 뒤부터 저는 제 성적이 초등교사가 되기에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초등교사라는 목표를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다보니 성적이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한 교수님이 아주 좋은 방향이네요~ 하고 말씀해주셨어요^^)

후배들을 위한 조언

청주교대 충북인재 전형같은 경우 추합이 많이 돌지 않아 1차 합격을 해도 안심할 수 없어서 많이 떨어지거든요ㅠㅠ 심지어 면접비율이 40%라 면접의 영향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원래는 청주교대가 꼬리 질문이 많고 딱딱한 분위기라고 소문이 자자했는데 다행히도 올해 면접은 세특 하나 없이 정말 기본적인 적인성 질문만 나왔어요^^ 저뿐만 아니라 수만회에서 많이들 면접수준이 평이었다고 하더라구요. 학교에서 실시하는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많이 해본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면접 준비를 하면서 해요체에서 하십시오체로 바꾸는 것과 '~인 것 같습니다'를 '~라고 생각합니다'로 바꾸는 과정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독서가 많은 편인데 읽지 않은 책들도 넣어서 독서 정리만 거의 한달 넘게 하고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요. 독서질문을 답변 못하면 과연 이 많은 책들을 애가 진짜로 다 읽었을까 하고 질문이 마구 들어올 수 있다는 글을 어디서 봐서 독서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여러분들은 3학년이라도 기재하려는 책들은 모두 읽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ㅠㅠ!! 그렇지만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감과 말투라고 생각해요. 특히 예비교사는 더욱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야하니까 떨면 좋게 보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모의면접을 최대한 많이하여 덜 떠는 법만 익혀도 좋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엔 저도 엄청 떨었는데 모의면접 덕분인지 면접장에서는 하나도 안떨게 되었어요. 어렵겠지만 연습밖에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면접을 준비하기 전 자신만의 교사상을 성립해두면 만능 답변이 될테니 교사상은 꼭 정하고 준비하세요!! 예비 교대생 여러분 파이팅하세요!!

청주교육대학교

대학명	청주교육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초등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충북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은 생기부 기반 면접이지만 생기부의 내용보단 교직 인성 적합 면접의 위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아 대기실이 많으며 다소 긴장이 많이 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관은 두 분이셨습니다. 청주교육대학교 면접은 유독 기억에 남는데요. 그 이유는 면접관분들이 저를 쳐다보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면접의 일부인지 아니면 제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매우 당황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제발 나 좀 봐 달라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상을 보니 과학문자디자인이라는 상이 있던데 어떤 활동인가요?

[답변] 이 상은 과학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던 제가 과학에 보다 흥미를 느낀 활동입니다. 제가 꿈꾸는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과목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과 과목을 주로 공부하던 저에게 과학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을 이론적으로 다가가기에는 큰 부담이였고 과학을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 문자디자인이 저에게 크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주었는데요. 과학을 재미있는 활동으로 체험하고 경험을 해보니 과학이라는 과목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앞으로 이런 경험을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위해 나누어 주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흥미가 없거나 어려운 과목이 있으면 이론적인 면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통한 교육이 옳다고 생각하여 이 점을 교육관으로 만들어 고등학교 3년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교사라는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꼬리질문] 과학 용어 디자인의 키워드는 어떤 것으로 했나요?

[답변] 키워드는 지구온난화로 했습니다. 저는 자연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미래 교육에서도 자연이 크게 아이들에게 접목될 것이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 큰 문제인 지구온난화를 조사하고 키워드로 만들어 용어 디자인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이 있던 식농교육을 통해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식농교육은 제가 유족 관심이 있던 교육법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양한 교육법을 탐구하면서 알게 된 교육법입니다.

[질문] 자신의 장단점을 말해보세요.

[답변] 저의 장점은 어떤 활동이던지 열정과 노력을 끊임없이 쏟아 부은 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정말 다양하고 많은 활동들을 기획하고 운영했으며 이 점을 주변 친구들에게 인정받아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전교회장이라는 역할을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정이 저에게는 큰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고자하는 마음에 제 자신에게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기도 하며 주변 친구들도 큰 부담감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고치기 위해 큰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활동의 결과는 매우 중요하지만 결과 보다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저의 모습을 보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앞으로 포기하지 말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갈등을 해결한 활동을 말해보세요

[답변] 고등학교 3학년 때 회장으로 했던 활동 중 비대면 온라인 나눔 시장이 기억납니다. 저는 교사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학교의 대표로서 많은 학생들이 꿈을 꾸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정말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의 운영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같이 준비한 학생회 친구들이 활동을 포기하자, 아니다 다른 활동을 더 만들어보자 라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둘을 잘 융합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온라인이나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한 방식 이였습니다. 특히 원래 진행하려던 베품시장을 온라인 사이트로 변환해서 진행을 한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기존의 베품시장을 온라인 마켓의 형식으로 변환을 한 후 블로그를 제작해 더 많은 학생들이 편리하게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행사가 되었고 많은 학교들과 연합해 더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추후 이 활동은 교육청에 가서 교육감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교육감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결책을 찾으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와 성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제가 꿈꾸는 교사가 되기 위해 포기 없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질문] 동아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답변] 동아리에서 많은 활동을 했지만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고등학교 3학년 때 마지막으로 했던 수업 시연입니다. 많은 수업시연을 해보았지만 실제 타 학교의 학생들에게 수업시연활동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아리의 부장으로서 교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실제 타 학교에서 수업시연을 경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다른 학교에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해보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허락을 해주셨고 아이들을 위해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하는 수업은 처음이라 많이 무섭고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잘 참여를 안할까봐, 우리를 싫어할까봐 많이 걱정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수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자신감이 생기니 수업을 잘 마친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해주고 잘 참여해

주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주는 웃음에서 큰 행복을 느꼈고 같이 활동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런 점이 교사라는 직업이 갖는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그 행복이 작을 지라도 제가 꿈꾸는 교사라는 직업이 저와 잘 맞는 것을 확신했으며 앞으로 교사의 꿈을 확실하게 키우고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많은 경험과 체험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청주교육대학교는 이번년도는 특히 생기부에 대한 질문이 적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동기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생기부의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교직 인성관련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통해 생기부와 연관해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할 때에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중 몇 분들은 면접 중 힘든 상황을 연출시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분들이 절대 저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토론을 하는 것과 같이 공격적인 태도이신 면접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상황이 나오므로 면접을 준비할 때 당황하지 않도록 연습과 다양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의 분위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면접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노력을 응원합니다! 언제나 노력하면 그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청주교육대학교

대학명	청주교육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충원합격
학과명	초등교육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2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충북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생기부를 기반으로 한 교직인적성 면접 (10분) 처음에는 학생들이 다 모여있는 큰 대기실에 있고, 면접 보기 5분 전에는 면접실 앞 복도에서 대기함.		
기타 유의사항	입고 있는 옷까지 가리기 때문에 의상은 깔끔하게만 입으면 됨. 큰 대기실에서는 가져온 자료를 모두 볼 수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1] 자신의 생기부에서 초등교사로서 자랑할 점과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각각 말씀해주세요.

[답변1]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랑할 점은 아이들의 인성을 위한 교육 방법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초등교사는 아이들의 인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3학년 자율활동 '교실 속 문제 찾기'에서 '나의 꿈, 나의 삶의 이유!'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인성을 키우기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하였습니다. 부족한 점은 초등교사는 모든 과목을 잘해야 하는데 저에게는 부족한 과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와 체육의 성적이 특히 좋지 못했지만, 교내 생활 중 점점 성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질문2] 성적이 점점 많이 올랐는데, 성적향상 비결이나 계기가 있나요?

[답변2]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 때는 그 당시 나온 성적을 보고 '이정도면 되겠지.' 하며 안주했습니다. 하지만 2학년이 되고 NIE를 하면서 아이들의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고 사랑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어서 꼭 청주교대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마냥 안주하는 것보다는 직접 노력하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질문3] 학생이 생각하는 독서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답변3] 원래 책 읽는 것을 안 좋아했는데 교사가 되기 위해 다양한 책을 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교사로서, 이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관점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책들도 있었습니다. 독서는 이처럼 마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관점을 바꾸고 더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4] 그렇게 생각하는 것 치고는, 독서가 양적으로는 적지 않나?

[답변4] 물론 양으로 봤을 땐 적지만, 전 독서를 깊이있게 읽는 걸 좋아합니다.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거나 그 책을 가지고 활동 및 토론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래서 제 독서 기록에 있는 책들도 다 다른 활동들과 연계된 책들입니다.

[질문5] 교사가 아니라면 무엇을 할 것 같나요?

[답변5] 물론 교사를 꼭 하고 싶지만 교사가 아니라면 게임 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게임은 좋지 않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아이들이 함부로 못하게 하고, 실제로 게임이 악영향을 미칠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으며 교육적인 게임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감과 동시에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가장 되고 싶은 건 교사니까 이런 게임을 만드는 법을 배워서 수업 때 활용하고 싶습니다.

[질문6] 게임을 좋아하나요?

[답변6] 네, 좋아합니다. (웃으며)

[질문7] 단점이 하나 더 있네요. 봉사 시간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 현저히 적어요.

[답변7] 외부 봉사는 하지 못했지만, 교내에서 3년간 멘토링을 하면서 그 멘티들에게 집중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멘티를 위한 수업, 멘티와의 관계 등 교육 봉사에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실장과 선생님의 일을 돕는 등 제가 할 수 있는 일엔 최선을 다해서 2학년 때 봉사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질문8] 30년 뒤 자신의 모습은 어떨 것 같나요?

[답변8] 저의 진짜 꿈은 저를 통해 행복한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을 통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쯤은 저의 제자들 중에서도 어른이 된 제자들이 많을테니 그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에 기쁨을 느끼며 교직 생활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질문9] 어떻게 바로 다 대답하죠? 질문이 다 유출됐나요? (교수님들끼리도 이런 대화를 하시며 웃으심)

[답변9] (같이 웃으며) 저도 제가 평소에 많이 생각해왔던 것들을 질문해주셔서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니 한 교수님께서서는 교육에 대해 많이 생각해본 것 같다고 웃으심.)

[질문10] 하지만 만약에 교사가 된다면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주입식 교육은 안 되니까 교사는 자신의 의견이 너무 강하면 안 돼요.

[답변10] 네, 그래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최대한 제 의견을 줄이고 경청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질문11] 교사는 아이들 의견을 잘 들어주고, 무슨 말인지 알죠?

[답변11] 네, 맞습니다. 그 부분 꼭 명심하겠습니다. (웃으며)

[질문12] 그럼 이제 마지막 말 하고 마칩시다.

[답변12] 네, 아이들은 모두 한 명, 한 명 소중합니다. 이 아이들의 가치를 지키며 사랑을 전하고 또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지적해준 면접관님 바라보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청주교대에 와서 아이들을 이해하는 법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법을 배워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 솔직히 떨리긴 했지만 이럴 수록 자신감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음. 나는 오히려 교사에게 필요한 사랑을 교수님께 알려드리러 간다고 생각함.
- 교수님들께서 하시는 질문에 내가 외워온 답변을 기계처럼 뱉기보단, 편하게 대화한다고 생각하면 좋음. 교수님은 궁금한 입장이고 내가 알려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됨.
- 면접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이 풀리니, 웃으면서 즐기고 오면 됨!

청주교육대학교

대학명	청주교육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초등교육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충북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대기실에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대기 (대기하는 동안 면접 자료, 생기부를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차례 직전에 복도에서 대기 -> 면접실에 입실		
기타 유의사항	복도에서 대기 할 때 꽤 추우니까 핫팩 챙겨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 긴장하면 목소리가 연습한것처럼 잘 안나오니까 직전에 물 한 모금 마시는 걸 추천합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인사) 안녕하세요! 가번호 000입니다.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이때 교수님들이 빵 터지셨어요.)

1. 교사가 되고싶은 동기

- 초등학교때의 저는 매우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어 발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 담임선생님 덕분에 발표도 자신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초등교사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초등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선한영향력을 주고싶어 교대에 지원했습니다.

2. 요즘은 학급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나요?

- 수업시간중에 발표할 때 손을 들지 않고 무작정 말하기. 갑자기 뛰쳐나가기 등 그런 돌발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이럴땐 무작정 벌을 주고 혼내기 보단 손들고 발표했을 때 칭찬스티커 등을 부여하는식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3. 학교에서 자신만의 교사가 되기위한 활동?

- 다양한 협력활동 (학급 실장, 총무, 멘토멘티)
 - 교육심리학 공부(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 비고츠키의 구성주의 이론등 언급)
 (비고츠키의 구성주의 이론을 듣고 우와 이런것까지 하셨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3-1. 그러면 비고츠키 구성주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구성주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저도 이런 점을 반영해 교사가 되었을 때 협력수업을 진행해보고 싶다고 답변했어요.)

3-2. 협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을 이야기해주세요.

- (제가 실장이었을 때 학급활동에서 있었던 갈등사례와 제가 해결한 방법으로 답변했어요. 그리고 답변을 듣고 교수님께서 오~ 소수의 반영도 의견했군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4. 3학년 1학기 성적이 떨어졌는데 이유가 있나요?

- 2학년때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와야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오히려 좋지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투리시간을 이용하여 멘토멘티활동에서 친구들과 복습노트를 작성하고 스터디 플래너로 다시 계획을 짜보는 과정을 통해 기말고사때는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5. 학교생활에서 창의성을 발휘한 적 있나요?

- 2학년 동아리 활동으로 zoom을 이용한 환경 모의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줌을 이용하다보니 친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일상과 환경과 관련된 사례를 제시해주고 또 보드게임 형식으로 환경 수업을 진행하여 친구들의 호응을 이끌어 이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6. 초등교사가 되었을 때 첫발령이 된다면 대도시? 농촌?

- 저는 농촌에 발령되고 싶습니다. 초등교사는 아이들의 개성과 특징을 하나하나 파악해야합니다. 그리고 첫 교직생활이다보니 학급인원수가 많은 대도시에서 아이들을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급인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에서 아이들의 개성을 파악하고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7. 요즘 4차산업혁명이잖아요. 이런 시대에서 초등교사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우선 코로나19 이후로 원격수업을 매일 진행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활용하고 줌수업을 하는 능력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코딩능력과 AI로봇등 예를들면 아티보같은 그런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도 배우고 다루는 것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1. 아티보가 뭐예요?

- (아티보에 대해서 설명)

7-2. 아티보를 사용해본적 있나요?

- (사용해본적은 없지만 나중에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 배워보고 활용해볼 것이라고 답변)

8. 30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짧게 해주세요.

- (준비한 말보다 짧게 답변했어요.)

후배들을 위한 조언

우선 청주교대는 생기부기반 질문보다 공통질문(교직인적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는 생기부에서 나온 질문이 3학년 성적이었어요.

하지만 생기부 숙지와 교육학 교과서를 읽으며 면접을 준비하면 공통질문을 수월하게 답변하는데 매우 큰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면접은 우선 자기자신을 사랑하는 자리니까 자신의 장점, 자신만의 활동을 답변에 잘 녹여내는 연습, 미소 지으며 자신있게 답변하는 연습(가장 중요)을 많이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청주교육대학교

대학명	청주교육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충북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대기실은 두 조가 같이 사용했고 가번호 순서대로 기다리다가 도우미 분께서 차례대로 번호 불러주십니다! 면접실에는 교수님 두 분이 계시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면접은 학생부 기반으로 한 질문을 하였고, 10분 내로 진행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할 때 히터가 매우 썰서 정말 좋습니다.. 면접 번호가 뒷번호신 분들은 잠깐 수 있도록 속으로 말하는 연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생기부를 보니 3년간 초등교사를 희망한 것 같은데 고등학교 생활 3년간 초등교사로써 가장 의미있었던 일과 아쉬웠던 일을 말해주세요.

[답변] 네, 고등학교 생활동안 가장 의미있었던 일은 3학년 때 실장을 했던 점입니다. 저희 반에는 수시가 아닌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거나 수업시간에 인강을 듣는 모습을 보여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시기에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실장으로서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평소보다 수업시간에 더욱 더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이유, 수업을 듣지 않았을 때 선생님들이 느끼시는 감정, 수업을 들었을 때 이점 등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친구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해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긍정의 표시를 했지만 바로 수업 분위기가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기다림으로써 차차 수업 분위기가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선생님들께서도 수업 분위기가 좋아졌다며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 더불어 모범학급에 선정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기다림의 중요성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생활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은 성적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입니다. 2학년 때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공부시간 분배를 잘하지 못하여 성적이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2학년 때의 부진을 극복하고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3학년으로 올라오면서 공부계획리스트를 세우고 하루하루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짜 놓 계획도 다 지키고 학업에 열중하였습니다. 하지만 3학년 때 저에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로서 그 아이의 건강상태가 매우 걱정이 되었고, 하루하루 그 친구의 애

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느라 매일밤을 새벽 4-5시에 잠들곤 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그 친구에게 오늘 기분은 괜찮은 지, 힘들 지는 않은 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늦게 자는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피로감으로 인해 학업에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여름방학 때쯤 우울증을 극복하여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하였고, 저도 그 이후로는 학업에 열중하였습니다. 비록 성적 관리에 소홀했지만 저는 이 친구를 도와줌으로써 다른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깨달았고, 또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질문] 현재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답변] 저는 현재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코로나 19로인해 학습격차가 커졌다는 점입니다. 2학년 때 '코로나 시대의 교육'이라는 책으로 진행한 비경쟁독서토론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습격차가 커졌다는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한 해결책은 플립러닝 방법이었습니다. (여기부터 기억이 잘 안나요..)

[질문] 동아리 활동이나 체육대회 등 가장 인상깊었던 활동은?

[답변] 네, 저는 1학년 때 동아리 시간에 영자신문을 제작했던 활동이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영자신문 제작은 '5G로 인해 변화할 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미래에는 교육현장에서 무선백팩 등 클라우드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학생들이 기기하나만 있으면 수업이 가능할 것이고,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을 이용하여 기존에 체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체험해볼 수 있다는 영자신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질문] 아! 영자신문을 쓸 정도면 영어에 관심이 많나봐요?

[답변] 네! 영어에 관심도 많고 영어교과 시간에도 항상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질문]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답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제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힘든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항상 제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모습이 제겐 엄청난 위로가 되었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도 미래에 초등교사가 되었을 때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밝은 힘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저는 성적이 낮은데도, 면접으로 뒤집어서 최초합한 케이스입니다! 면접 비중이 40%인 만큼 면접이 정말 중요한데 저는 학술적인 부분을 드러내기보다 인성적인 부분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아 그리고 면접 준비 시기에 멘탈이 많이 흔들릴텐데 그 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내가 짱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어요!! ㅎㅎ

청주교육대학교

대학명	청주교육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형	전형명	충북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침에 정해진 시간까지 정해진 대기실 입실 (필자의 경우 청주교육대학교 예술관에 8시 20분까지 입실함. 이는 오전/오후 면접에 따라 입실시간과 대기실 상이) 2. 대기실 입장 전, 면접 전용 목걸이 부여 후 발열 체크 후 대기실 입장함. 3. 벽면에 부착된 배치표 확인 후, 지정된 자리에 착석. 그 다음 미리 준비한 고교 생기부 훑어봄. 4. 각종 전자기기는 모두 제출하지 않을 시, 실격 처리됨을 유의하고 모두 제출함, 5. 수험표에 부여된 조 순서대로 수험생들을 호명한 뒤, 면접 직전 신분증과 면접 전용 수험표를 확인함. 6. 조교들의 안내에 따라 각 조의 멤버 한 명씩 단체로 이동함. 7. 면접장 밖에서 5분 정도 대기 후 면접실에 들어가 조교의 진행대로 면접 진행 8. 면접을 끝나고 바로 퇴실 진행함. 		
기타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차 합격 시, 면접용 수험표가 발부됩니다. 꼭 프린팅해서 가져가세요! 신분증보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면접을 아예 못 봐요. 2. 면접에서 궁금한 것은 모두 조교님에게 여쭙보세요. 매우 친절하시고 정확하시답니다. 3. 입실시각 지각 절대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1. 고교생활 3년 동안 했던 활동 중, 가장 흥미로웠던 활동과 그 이유를 말하시오.
 고등학교 2학년 때 독서토론모임을 직접 조직하고 1년간 운영했던 것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완독하기 어려운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습관을 교정하고, 1학년 때
 관심이 생긴 인문학을 책으로 접근해보고 싶어서 친구들과 조직을 꾸려 운영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운영했기 때문에 처음엔 차질도 많았습니다. 운영 방식부터 만남 계획, 후속 활동까지
 직접 꾸리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조언으로 차근차근 조직을 완성
 해 나갔고, 1년 간 5권의 책을 독서 및 토론, 그리고 후속 활동까지 진행했습니다. 저는 직접
 조직을 운영해본 것이 처음이어서 이 활동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질문 1-1. 그렇다면 토론했던 책 중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책과 그 이유는?

저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이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체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사피엔스에 이어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옥수수를 소들에게 먹이고, 그 소를 상류층이 먹는다. 이 구조는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전까진 그냥 해당 국가가 잘 살지 못하니까 국민도 못 사는 구조인 줄만 알았는데, 기업의 의도가 섞이고 의도적으로 그들을 무시하는 행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난민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는데, 아직까지도 환경난민이 일반적 난민과 동등한 위치는커녕, 난민이라고 정의할 수도 없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질문 2. 예비 초등 교사로서 자신의 생기부를 보았을 때, 장점과 단점 하나씩 말하시오.

제 생기부에서 드러나는 장점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란 리더가 팔로워들을 아래에서 받치며 이끌어가는 리더십입니다. 이 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활동은 1학년 영어 시간입니다. 이때 항상 조장을 맡으며 영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과 함께 조식을 구성했었습니다. 저는 조원들에게 영어 공부를 할 때 어떤 점이 가장 곤욕인지 각자 불러 면담을 했고, 그 결과로 조원들의 페이스에 맞추어 조별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반대로, 제 생기부에서 드러나는 단점은 공감 능력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영어 시간에 아이들의 고충을 알긴 했지만, 마음속에 확 와 닿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잊고 제 페이스에 맞춰 조별활동을 진행하다가 조원들의 불만을 샀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줄 때, 공감이 잘되지 않아 해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단점을 교육대학교에 다니며 소통하는 법을 더 배우고 실천해나가며 극복하고 싶습니다.

질문 3. 초등 교사가 다른 직장과 차별되는 매력점은?

첫 번째로, 다른 전문직들과 구분되는 특징으로, 한 학문에만 얽매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초등 교사들이 가르치는 과목들이 굉장히 넓게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지식들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아이들과 소통하는 직업이라는 특성으로,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생기부를 보았을 때 타인과 공감하는 점이 잘 드러나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점을 초등교사가 되었을 때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제관계에서 교사로서 나의 학생이 어떻게 불편함을 겪고, 어떤 부분에서 행복을 얻고 있으며,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교사의 역량도 높이고 공감 능력도 향상시켜 더욱 풍부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질문 4. 아이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유튜브 채널이나 콘텐츠는?

저는 식물키우기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키우면 모두 시들거나 얼마 못 가 죽는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마다 생각보다 좌절감이 크게 느껴졌는데, 유튜브를 보니 굉장히 세세하게 식물 종류에 따라 유의해야할 점, 발아 시기, 개화 유도 방법 등 초보자

들에게 유익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초등학생 시기 때 교육과정에 식물기르기가 있을 정도로 식물을 직접 기르고 관찰하며, 흑여 열매가 있을 경우 수확해보는 과정 하나 하나가 초등생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와 같이 지속적으로 실패를 경험한다면 좌절감을 느끼고, 자존감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 이 유튜브 콘텐츠를 추천하여 저와 같은 좌절감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청 주교대는 생기부 기반 질문이 정말 적었습니다. 제가 질문은 6~7가지 정도 받았는데(위엔 기억이 안나서 4개만 $\pi\pi$) 생기부 기반 내용 질문은 2가지 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요즘은 교인적성 심층 면접이 더 중요해진다는 걸 방증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생기부를 덜 챙겨도 좋다는 건 아니에요. 1차는 오직 생기부만으로 평가해서 합불이 결정나니까요.

또한 내신은 중요하고,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특히 제 입시 이후로는 대학에서 평가하는 요소가 줄어들어서, 그럴수록 내신과 세특의 중요성이 더욱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내신 챙기면서 할 수 있는 정보력과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이 대학을 가야죠!!

마지막으로 공부 슬럼프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1.6-2.16?-1.17로 2학년 슬럼프, 3학년 급등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엔 2학년 때가 챙길 내신과목도 많고 이제 막 자신의 생기부가 드러나야 하는 시기여서 그런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거기다가 번아웃 증후군과 인간관계도 흐트러졌거든요. 이 시기를 겪은 사람으로서 단순하게 “그 시기만 잘 넘기면 돼!”라고 말하는 건 참 창피한 짓인 것 같아요. 2학년을 회상해보면 너무 생각이 커지고 불안감도 그에 배가 되면서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고 가만히 있고 싶을 때가 7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글을 보는 누군가도 같은 상황이라면, 일단 현재 능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해보세요. 그리고 움직이세요. 가만히 있으면 몸은 더 타들어갑니다. 움직여서 생각을 떨치세요. 더 좋은 방법들이 20대 때는 많겠지만, 고등학교 입시라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이런 너무 기초적인 말밖에 못 해줘서 안쓰러울 따름이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보상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교대생들 화이팅!

경 인 교 육 대 학 교

대학명	경인교육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초등교육학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교직적성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15분		
	면접 위원 수: 2명 조별 학생 수: 1명		
	시청각실에서 대기->면접장 문 앞에서 대기->면접 도우미분이 문 열어주시면 입장->자리에 앉으면 면접 시작->제시문1 3분동안 읽기 ->답변 5분, 질의응답 3분->제시문2 1분동안 읽기->답변 및 질의 응답 7분		
기타 유의사항	한 교수님은 면 산 보시고 다른 교수님은 책상과 면접자 번갈아 보시는데 교수님별 컨셉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면산 보시던 교수님이 꼬리질문 더 많이 하셨어요.		

질문 및 답변 내용

- ‘온라인 교과서로 인한 만들어가는 교실’에 대한 장단점
 - 장점
 1. 아이들의 창의력 교육이 가능하다
 2. 교과서 오류 수정이 용이하다
 3. 융합 수업을 쉽게 할 수 있다
 - 단점
 1. 아이들과 교사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2.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인 태도의 학생 위주의 수업이 만들어진다
 3. 아이들의 저작권 의식이 약화될 수 있다

- 장애아동과 한 반에서 수업을 해야하는가?
 -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은 같은 반에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뉘어진 사회에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합교실을 운영하면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같은 반에서 정서를 교류하며 배려와 협력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편견을 심어주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장애아동봉사 예시 들)

후배들을 위한 조언

학창시절의 경험과 엮어서 대답을 하려고 한게 플러스 요인이었을 것 같아요. 직접 경험한거니까 신뢰감도 생기고 자신감있게 말해서 본인의 교육관이 확립되어있다는 인상을 주었을 것 이라고 생각해요.

당당하게 말하고 오면 틀린 이야기라도 교수님들께서 수긍하십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뭐라도 말하고 오세요 :) 파이팅입니다!

청주교육대학교

대학명	청주교육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초등교육학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충북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10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면접 위원 수: 2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조별 학생 수: 1명</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대기실에서 대기-> 면접장 앞에서 대기-> 노크하고 면접장 입실 ->생기부 기반 면접 10분동안 실시->퇴실</td> </tr> </table>			10분		면접 위원 수: 2명	조별 학생 수: 1명	대기실에서 대기-> 면접장 앞에서 대기-> 노크하고 면접장 입실 ->생기부 기반 면접 10분동안 실시->퇴실	
10분									
면접 위원 수: 2명	조별 학생 수: 1명								
대기실에서 대기-> 면접장 앞에서 대기-> 노크하고 면접장 입실 ->생기부 기반 면접 10분동안 실시->퇴실									
기타 유의사항	코로나로 1회용 가운 주십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 고등학교 3년 중 본인이 예비 교사로서의 자질을 어떻게 길렀다고 생각하는가?
 - 저는 3년동안 실장을 맡아오면서 예비 교사로서의 자질을 길렀습니다. 교사는 한 반을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의 부재시에 반의 대표가 되어서 한 반을 이끄는 역할인 실장을 하면서 리더십과 아이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수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 그렇다면 실장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 저는 실장을 하면서 제가 하기 싫어하는 일도 주도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체육대회때 계주에 한 명이 부족해서 대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기 싫었지만 친구들과 협동하여 대회를 준비하면서 오는 즐거움이 더 컸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대표는 하기 싫은 일이라도 협동하여 극복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본인이 리더형인 것 같은데 같은 조에 리더형이 있을 때 의견이 엇갈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저는 리더가 본인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취합하여 결정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리더형 친구들과 같은 조가 되었다고 해도 서로 양보하면서 조를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제가 3년동안 실장한 이야기를 하니깐 그 부분이 인상깊다고 하셨어요. 사실 고3때 실장하기 쉽지 않다면서 그 희생정신을 높게 봐주신 것 같아요. 본인이 공동체에서 맡은 역할을 잘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청주교대는 올해 면접이 생기부 기반으로 바뀌었는데 어려운 질문 많이 만나오니깐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고 오세요!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명	서울교육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미발표
학과명	초등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기회균등 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 방식: 제시문 발표 (10분) 대기실->제시문 숙지(7분)->발표(10분) +면접관=2명		
기타 유의사항	면접 대기실에서 가져온 자료 열람 가능, 2022 수시 면접 경우 립부 마스크 착용 후 면접 참가함.		

질문 및 답변 내용

-교직 교양 제시문-

[제시문 1-1]

병목사회에 대한 설명+그림

>>1. 병목사회의 부작용 두가지 제시

[답변] 첫 번째 부작용은 경쟁이 과열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설명에서 나와있듯이 병목사회 같은 경우 사람들이 추구하거나 열망하는 목표를 향하고 그것을 도달하는 길은 좁기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능력과 경쟁이 요구시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쟁을 심화시켜 사회 구성원 간의 배려보다 그들간의 경쟁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배려 라는 덕목이 중요시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경쟁이 과열된다면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화될것입니다. 경쟁이 심화 되면 성과, 능력을 더 중요시하게 되는데 소외계층같은 경우 출발점이 달라 그 안에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빈부격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부작용으로는 다양성이 존재, 추구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병목사회에서 그 길을 건너는데 더 좁은 이유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권위, 명예, 돈을 중요시해 그와 관련된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고 이러한 현상은 병목사회를 심화시키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과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그러한 특성을 지닌 직업을 우선순위로 두게 되면서 직업의 다양성을 추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시문 1-2]

예술의 변화에 대한 글

>>2. 1-2를 참고하여 병목사회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1. 최근 예술은 예전과 달리 사람들의 관심, 흥미에 따라 작품이 전시되고 다양한 체험거리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병목 사회의 다양성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수업이 아닌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을 살려줄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야합니다. 먼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게 다양한 진로 체험을 마련해주고 현재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인재로 살아가기 위한 수업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그 안에서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빈부격차 해결 같은 경우도 학교 안에서 교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학생들의 수준과 적성에 따라 맞춤형 수업을 진행해 그 학생들의 잠재력을 일으키는 교육을 해야합니다.

-적인성 제시문-

[제시문 2]

플레밍과 스펜서의 발명에 대해 소개

>>1. 이 사람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

플레밍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경험에 의문을 가지고 탐구했기 때문입니다. 페니실린 같은 경우 푸른 곰팡이를 보게되고 그 의문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존 듀이 또한 사람은 경험에 의문을 가지고 재구성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유용한 지식은 경험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플레밍도 경험에 의문을 가져 탐구하였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펜서 같은 경우 경험의 실패를 극복해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원래 강한 접착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약한 접착제가 나왔을 때 그 단계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닌 그 실패를 다른 성공을 만들어내 포스트잇 이라는 발명품을 개발해냈습니다. 스펜서는 자신의 경험, 실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는 도전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2. 이러한 성공적 학습자를 키우기 위해 교사가 해야할 것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학생들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하고 탐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을 해보고 그 경험을 재구성 하는 과정 중에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경험을 늘려야합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이 의문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하는 수업을 해나아가야합니다. 질문을 하게되면 사소한 것이라도 그 안에서 호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호기심은 창의력을 키우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업을 해나간다면 아이들이 미래의 인재로도 성장 할

뿐만 아니라 경험에서 의문을 갖고 탐구를 해 성장 해나아갈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급의 분위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 질문을 하면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선생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 질문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평소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좋아하는 교사라고 인식이 되어야하고 학습 분위기 또한 질문을 유발해 호기심을 자극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서울교대 제시문 같은 경우 발표시간은 길지만 숙지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할 때 시간을 재며 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같은 경우 2017년도 기출까지 7분 타이머를 맞추고 키워드 형식으로 빠르게 적어나가는 연습을 하고 10분 동안 혼자 발표를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제시문 답변에 대한 살을 더 붙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담, 관련 지식을 이끌어내면 좋기 때문에 평소 자신의 생기부(경험)에 대한 숙지와 교육, 일반 이슈, 교육 학자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경 인 교 육 대 학 교

대학명	경인교육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초등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교직적성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p>면접장에 들어가면 책상 위에 문제지가 있고, 문제지는 두 장으로 한 장에 문제가 하나씩 있습니다. 착석 후 문제 검토 시간이 부여되면 답변을 준비합니다. 검토 시간이 끝나면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고, 답변이 끝나면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답변과 질의응답 시간이 합쳐져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문제의 경우 준비 시간 2분, 답변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은 각각 4분이고, 두 번째 문제는 준비 시간 1분, 답변 및 질의응답 시간은 4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답변 시간 4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남은 답변 시간이 면접관님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합쳐집니다. 이렇게 총 15분간 면접이 진행되고, 이 시간이 끝나면 즉시 퇴실합니다.</p>		
기타 유의사항	<p>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면접 진행요원이 면접관과 함께 있고, 시간을 초과한 답변은 절대 허용되지 않으니 시간 분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장에 비치된 펜으로 문제지에 메모가 가능하고, 입실 시 간단한 인사를 제외한 별도의 자기소개는 하지 않습니다. 면접관은 총 두 분이 계셨습니다.</p>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1] 지문 내용 요약: 디지털 매체(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교과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제시.

문제: 이러한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교과서’의 장단점을 각각 두 가지씩 말하시오.

[답변 1] 첫 번째 장점으로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의 우려가 적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서는 현직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기 때문에 실제 교육 현장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더 나은 교육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에 반해, 기존 교수와 전문 연구진이 만들던 교과서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 도서, 산간 지역처럼 디지털 기기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사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질의응답 1] Q1 .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이는 교육과는 거리가 있는 답변으로 보입니다. 교육과 관련하여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A.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교육적 장점으로는 ‘만들어 가는 교과서’가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하므로 기존 서책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동영상, 음악 등 다양한 양식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오감을 자극하여 더욱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Q2. 전문성이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A. 네, 교사와 학부모가 주로 집필을 하는 ‘만들어 가는 교과서’의 큰 틀은 유지하되, 해당 교과나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 교과서 집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전문가들의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여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Q3. 도서-산간지역에서 디지털 기기를 쉽게 접하기 힘든 점을 극복할 방안이 있을까요?

A. 지금도 일부 학교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국비 지원을 통해 태블릿, 노트북 등의 디지털 기기를 공유하는 정책을 더욱 확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2] 지문 내용 요약: 면접자가 초등학교의 한 반의 담임교사임을 가정하고, 해당 반에 경증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이 있는 상황을 제시

문제: 본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을 특수반으로 보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거와 함께 답하시오.

[답변 2] 저는 해당 학생을 특수반으로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 근거로 먼저 학부모께서 해당 학생을 특수반으로 보내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지문 속 세부 내용) 이를 존중해서입니다. 교육의 주체에는 학생과 교사 뿐 아니라 학부모도 포함되기 때문에 학부모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좋은 교육을 펼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해당 학생이 중증이 아닌 경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업에서 학생이 잘 따라오는지 그 여부를 실제로 관찰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학생을 즉시 특수반으로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도, 당사자인 해당 학생의 의사를 지문 속에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알 수 없다면 일단은 특수반으로 보내지 않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이러한 근거로 교사인 제 자신은 특수반으로 보내는 결정을 반대하고, 부모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민주 사회의 다수결의 원칙(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러한 느낌으로 답변을 마무리했습니다)에 따라 해당 학생을 특수반으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질의응답2] Q. 해당 학생이 수업에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A. 네, 일단 수업에서 부진할 경우 학습 부진 학생들을 위한 보충 수업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어 학습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학생을 특수반으로 보내는 선택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 답변에 시간이 많이 소모돼서 면접은 여기서 끝났던 것 같습니다. [문제2]에 대해 조금 첨언하자면, 제 답변과는 상관없이, 이 문제는 학생을 특수반으로 보내지 않는 것이 옳은 답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께서 학생의 특수반행을 원하지 않으시다는 것처럼 여러

세부 요소들이 특수반으로 보내지 않는 결정을 내렸을 때 근거를 쉽게 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수반으로 보내는 선택을 하고, 적절한 근거를 생각해 낼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답변 준비 시간은 단 60초였습니다. 이처럼 제한 시간을 항상 염두에 두고 답변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실제 면접장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위의 [면접 절차 및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답변 발표 및 질의응답에 배정된 시간(각각 8분, 4분)에 비해 문항 검토(답변 준비) 시간(각각 2분, 1분)이 매우 촉박합니다. 따라서 본 면접의 주안점은 거창한 답변을 생각해내는 능력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문제의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순발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해서인지,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니다. 제 생각이지만 이런 유형의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선, 대학의 지난 기출 문제를 잘 살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평소 일반 및 교육 시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때그때 자신의 의견과 근거를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3학년이 되시는 후배들께서 학업으로 바쁘신 건 아주 잘 알지만 시간이 날 때 뉴스나 칼럼 등을 찾아보며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면접뿐 아니라 다른 공부를 할 때도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경인교육대학교 면접 수기가 교육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모쪼록 작은 도움이나마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떨리면 심호흡을 크게 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당당하게 답변하세요! 자신감 있는 모습은 여러분의 답변에도 신뢰감을 줄 것입니다.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명	서울교육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사향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전, 오후 면접으로 나눠서 진행 (오전 - 교직인/적성, 오후 - 과제형 발표) 2. 오전 면접 - 10분 / 오후 면접 - 준비 시간 30분 + 발표 및 질의 응답 시간 10분 3. 두 면접 모두 제시문 4. 대면 면접으로 진행되며 3(교수님) : 1(본인)으로 진행 5. 랜덤으로 부여된 가번호 순서대로 면접이 진행 6. 오전 면접이 끝난 학생은 학생식당으로 이동하여 싸 온 도시락 먹으며 자유시간을 보내다가 오후 면접 입실 시간에 맞춰 오전 면접 대기실로 들어가야 함. 		
기타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오전 면접>

[질문] 본인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아 힘들어 한다면 본인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는 무엇인지 말하십시오.

[답변]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아 힘들어하는 저에게 ‘지금도 잘하고 있어 힘들지만 조금 더 힘내서 끝까지 해보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그 노력에 비해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 많은 힘들음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한마디처럼 혼자 되새기고 힘들에 지친 제가 정신적, 신체적인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 달에 두 세 번씩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다시 일어나서 저의 특성에 맞는 학습법인 ‘백지학습법’, ‘반복 학습법’을 스스로 터득하고 그에 맞춰 학습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성과를 얻어 힘들음을 극복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아 힘들어하는 저에게 ‘지금도 잘하고 있어 힘들지만 조금 더 힘내서 끝까지 해보자’라고 말함으로써 저를 끊임없이 격려해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질문] 본인에게 성공한 삶이란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말하시오.

[답변] 자신이 희망하는 꿈을 노력하여 성취하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초등교사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여 미래에 실제로 초등교사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성공한 삶을 이뤄내기 위해서 서울교육대학교에 진학하게 된다면 초등교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초등교사에게는 다양한 성향과 특성을 지닌 학생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질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그들을 이끌어보는 경험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총학생회, 동아리연합 등의 다양한 장을 맡아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경험을 통해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라는 자질을 기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초등교사에게는 학생 개개인을 이해하기 앞서서 먼저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장 및 발달 단계에 대한 전문 지식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해 여러 서적과 논문 등을 통해서 지식을 함양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처럼 대학에 진학하면서 초등교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길러 성공한 삶에 도달하고 싶습니다.

[질문] 반에 소외된 친구를 도와준 경험이 있으면 말하시오.

[답변]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급 실장을 맡았을 때, 소극적인 성향으로 인해 다른 학급 급우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채 소외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미세먼지의 영향 및 대처법'이라는 학급 특색활동을 진행할 때도 그 소외된 친구는 활동에 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성향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했고, 대화를 통해서 그 친구가 손재주가 좋아 미술을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급 특색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하기보다는 그 친구가 만들 수 있도록 활동의 계획을 유연하게 바꾸어 그 친구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친구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함으로써 그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질문] 현재 인류가 처한 문제를 말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교사로서 본인이 국내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시오.

[답변] 세계적으로 인류가 처한 문제는 교육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는 전 세계 교육현장에서 교육 불평등을 작고 큰 다양한 형태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초등교사가 된다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여러 교사들이 학습에 대해 더 탐구하는 자발적 결사체인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서 다양한 교사들과 함께 국내외적으로 교육 불평등이 나타나는 원인을 파악하고, 현재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분석해 나갈 것입니다. 그 후에는 교육 불평등 해소방안들의 좋은 장점만 모아 각 국가의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등 다양한 분야에 맞춰서 더 나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국외적으로는 여러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 국가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 및 재능 기부 봉사를 진행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주변을 개선하는

등 조금이라도 제가 교육 불평등 해소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오후 면접>

과제 : 테마 마을 안내판 만들기

준비물 : 4절 도화지, 12색 유성 매직

조건 : 마을 지도와 주요 프로그램 3가지 이상 (3가지 프로그램은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호수, 폐교 등의 마을 건축물 이용해야 함)

저는 '더불어 마을'이라는 테마를 잡아 사람과 자연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주의 마을에 관한 안내판을 제작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폐교를 활용한 목공교실', '다문화 플리마켓', '일일 농부 체험' 총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들을 체험하기 앞서서 도장판을 제공할 것이고, 프로그램 하나를 체험할 때마다 도장을 하나 얻고 그 도장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되면 마을 주변에 있는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5천 원권 지역 화폐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돕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시했던 프로그램들이 조금 창의적이지 않고 단순하지만, 교수님들이 제 발표를 듣고 물어봐 주신 질문에 답변을 막힘없이 했으며 발표 형식을 해당 마을의 방문객에게 홍보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교수님들께 설명해드리는 식이 아닌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발표했기에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서울교대 사향인재전형의 오후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후 면접 기출을 활용하여 실제로 자신이 도화지에 제작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후 면접 기출을 교육이슈에 맞춰 자신이 조금 변형시켜본 후, 푸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후 면접 기출을 발표 형식을 단순히 교수님들께 설명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제 주제에 맞춰서 조금 독특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주교육대학교

대학명	청주교육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학과명	초등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충북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시간 : 10분 면접절차 : 입구에서 열 체크, 손 소독 후 수험표 확인 -> QR코드 찍고 대기실로 이동->신분증 검사 후 가번호 명찰 목에 걸기->핸드폰 전원 꺼서 제출->호명이 되면 면접실 앞 복도로 이동->복도에서 대기 및 방역용 앞치마 착용, 소지품 놓고 대기->면접실로 입실->면접 진행		
기타 유의사항	대기실이 공연장 비슷한 곳 다들 생기부나 노트 보고 있고, 긴장되는 분위기 대기실 내에서 물 마실 수 없음(복도로 나가야 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1] 자신의 생활기록부에서 자랑할만한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1] 제 생활기록부에서 자랑할만한 점은 2015 개정교육과정을 탐구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역량과 창의적사고역량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방식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STEAM 교육까지 탐구해보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좀 더 교육적으로 활동을 확장해나간 것이 자랑할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STEAM 교육이 어려워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STEAM 교육은 청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하여 열심히 교수법 강의를 듣고, 전공 서적을 읽어보며 더 탐구하고 싶습니다.

[질문 2] 학생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무엇입니까?

[답변 2] 저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교육봉사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봉사를 할 때 유난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어서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수업에 잘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해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과학 개념을 그림을 함께 그리며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많이 밝아졌고,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초등교사를 꿈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질문 3] 학생이 성적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많이 낮고, 하향곡선인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답변 3]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스스로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시험 때마다 긴장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반복되다 보니, 시험에 대한 부담감과 압박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긴장감을 떨쳐내기 위해 하루에 10분씩 명상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4] 특히 어떤 과목이 많이 부진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4] 사회 과목이 많이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5] 사회 과목에서도 다양한 도서를 읽었는데, 이것이 성적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답변 5] 사회 과목에서 시사 이슈나 교육과 관련되어 ‘코로나 이후 학교의 미래’ 등의 여러 책을 읽으면서 교육적인 시사도 많이 알게 되었고 교사로서의 역량을 키우는데는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문 6] 동아리 활동 중에 자신의 진로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활동은 무엇입니까?

[답변 6] 저는 1, 2학년 때 학교공간혁신을 한 것이 저의 진로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아리 부원들과 학교를 돌아다니며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조별 과제나 서로 상의할 일이 있을 때 소통할 마땅한 공간이 없다는 문제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쓰이는 빈 교실에서 책상과 의자를 가져다놓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조성한 다음 토론 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하면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직접 닿는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에게 편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었을 때 항상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7] 공간만 조성해둔다면, 과연 학생들의 학습 효율이 오를까요?

[답변 7] 교사로서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별 활동이나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활동을 할 때 토론 쉼터를 활용한다면 공간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고, 학생들도 소통하는 수업을 하며 의사소통 역량까지 키울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8]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무엇이었습니까?

[답변 8] 3학년 때 학급 반장을 하면서 소통에 대해 배운 것이 가장 행복했던 기억입니다. 학급 특색 활동의 주제를 정할 때 반 친구들의 희망 진로가 다르다 보니, 주제를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 저는 저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반 친구들의 진로를 모두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하자면 반 친구들의 의견에 경청하여 학급 진로 신문을 제작하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소통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고, 이후에 공감과 경청을 통한 소통을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활동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입니다.

[질문 9]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답변 9] 저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국내교육정책 탐구와 2015 개정교육과정 탐구, STEAM 교육 탐구 등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교사로서의 역량을 키웠습니다. 어떠한 과제가 주어지더라도 항상 열정을 다해 탐구하며 매순간 노력할 자신이 있습니다. 청주교육대학교에 합격하게 된다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배우고, 동아리와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내년에 꼭 청주교육대학교에서 만나 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저는 교대에 지원하기에 많이 낮은 내신이었지만, 교대나 사범대는 면접에서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신이 낮다고 해서 자신감을 잃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신이 낮은 이유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한 후 답변만 잘 한다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은 자신감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 어필하고 싶은 활동들 잘 녹여내서 답변한다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파이팅!

청주교육대학교

대학명	청주교육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학과명	초등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33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충북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개별면접으로 진행되었고, 면접관은 2분 계셨습니다. 대기실에서 본인 확인하고 각 조의 가번호 1번부터 면접실로 이동했습니다. 일회용 앞치마를 주셔서 그거 하고 면접실로 들어가서 자기소개 없이 본인 가번호를 말하고 바로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생기부 기반 인적성 문제였는데, 생기부 이외의 질문을 많이 하셔서 예상 외의 질문에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처능력을 많이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2학년때 교외봉사활동이 없네요. 왜 그런가요?

[답변] 그때 교육봉사를 꼭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신청을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자신의 학생부의 장점과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장점은 먼저 1학년때 동아리에서 국어 멘토링을 했고, 2학년때는 생명과학과 수학 멘토링, 3학년때는 사회문화 멘토링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교과목들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단점은 3학년때 더 성적을 높이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3학년때 더욱 열심히 하기도 했고,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하느라 학업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질문] 우리 청주교대 블로그나 유튜브도 있고, 뭐 브이로그 같은 것도 올리던데 본 적이 있나요? 그런 것들을 보고 교대와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저는 청주교대에 피아노를 연습할 공간이 많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3학년때 음악시간에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데 음악시간 외에는 피아노를 많이 연습하지 못해 청주교대에서 피아노 실력을 더 기르고 싶습니다.

[질문] 유튜브 즐겨보나요? 즐겨본다면 어떤 영상을 즐겨보나요?

[답변] 저는 아무래도 3학년이다 보니까 입시 관련 영상을 즐겨보는 것 같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유튜브 채널이 있을까요?

[답변] 저는 문학줍줍이라는 채널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문학 작품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채널인데, 학생들이 문학작품을 더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채널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질문] '지혜로운 교사는 어떻게 말하는가'라는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이 책은 어떤 내용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교사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 책은 지혜로운 교사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말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이 '이건 쉬운거야'라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고 저도 학생으로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느꼈던 부담감이 떠올랐고 교사로서 말을 조심히 해야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교사는 공감해주는 교사입니다. (이유도 얘기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음)

후배들을 위한 조언

예상질문에서 거의 다 빛나가서 속으로 정말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과의 모의면접, 교육청 모의면접에서 했을 때 받았던 질문과 하나(독서 질문) 빼고 다 달랐습니다. 그만큼 대처능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모의면접을 많이 해보면서 대처능력을 많이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

대학명	강릉원주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유아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학생부종합(해람인재)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시간	10분	
	인원수	면접 위원 수: 2명	
	면접절차	대기실에서 대기→신분증 검사 및 휴대폰 제출→순서 되면 조교님이 면접실 앞까지 데려다 주심→앞에서 대기하면서 본인 확인 사인→앞 순서 나오면 30초 뒤에 입장	
기타 유의사항	생기부에 있는 내용만 질문하심. 교복 착용 불가능, kf 94 마스크 착용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 긴장 풀 겸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말해주세요. (*본인 이름, 학교 같은 개인정보는 언급 불가능!)

[답변] : 안녕하세요. 저는 긍정적인 성격을 가져 항상 웃고 어떠한 일을 마주하게 되면 못하겠다는 말보다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여 사람들의 특징과 변한 모습이나 상황의 흐름을 잘 파악합니다. 이런 성격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이쁨을 받곤 합니다. 저는 단순히 아이들의 순수하고 병아리 같은 모습이 예뻐 보여 이 꿈을 생각했습니다. 노란 버스를 타고 등원하고 하원 하는 아이들을 보고 이 아이들을 맞이해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생명에 첫 시작을 알리는 병아리들의 성장과 교육에 도움을 주는 닻이 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릉원주대학교에서 유아교육을 바탕으로 한 학문적 지식과 실천적 능력을 갖추고 현장실습을 경험하여 영유아들을 위한 교육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습니다.

[질문] : 미인정 지각이 하나 있던데 이유가 있나요?

[답변] : 등교를 하려고 평소와 같은 시간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부모님의 차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날따라 눈이 많이 내려 상당히 많은 차들이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느라 이중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차 앞에도 이중 주차가 되어 있어서 앞에 있는 차들을 밀고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 지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집에서 좀 더 일찍 나와 등교를 하게 되어 지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질문] :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책이었는데?

[답변] :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은 구로야나기 데츠코 저자인 창가의 토토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에 나오는 교장 선생님의 모습이 저의 교육관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생각하게 만드는 표현을 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교장 선생님은 말썽쟁이 토토의 이야기를 몇 시간 동안 공감해주며 끝까지 들어주고 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을 평등하고 예쁜 눈빛으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됐을 땐 잘못했다고 단호하게 말해주는 선생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러한 점들이 기본적인 것들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유치원 선생님의 웃는 얼굴과 수업받는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아이들을 웃게 해주는 행복한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꿈꿔왔습니다. 선생님의 이러한 점들이 저의 교육관과 비슷하다고 느껴 더욱 감명 깊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산에서 나고 들에서 나고 바다에서 나는 것들로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생각하게 만드는 표현을 한 것이 저에겐 새롭게 다가와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질문] : 사회 문화 시간에 ‘아동학대 기사를 많이 접할수록 학부모가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답변] : 제 예상과는 다르게 ‘보육시설에 보낼 것이다.’라는 항목이 투표수가 많았습니다. 부모의 맞벌이나 자신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이유로 보육시설에 보낼 것이라는 항목에 투표수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꼬리 질문 : 본인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보내실 건가요?

-저는 유치원 교사가 되어서 많은 아이를 수용 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라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하고 주의할 것입니다.

[질문] :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가장 열심히 하고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무엇인가요?

[답변] : 저는 평소에 길거리를 다니면서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러운 길거리를 보고 아이들이 이런 길거리에서 뛰어놀고 눈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봉사단체에 들어가 3년 동안 길거리 순찰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체계적이고 깨끗한 지역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직접 자진하여 단장을 맡아 봉사하는 단원들을 이끌어 길거리 정화에 힘을 썼습니다.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마다 모여 길거리 쓰레기를 줍고 깨끗해지는 길거리를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쓰레기를 줍는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뀌어 가는 환경에 작은 변화가 큰 변화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길거리 정화 봉사활동을 통해 공동체를 위한 배려의 자세를 배웠고, 말보다 행동이 앞선 실천이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첫걸음임을 깨달았습니다.

[질문] : 10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답변] : 정말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직업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중 이 학교에 관심이 갔던 이유는 주요 교과목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미닝메이킹 북과 같은 특별한 활동을 진행하여 저의 꿈에 도움이 될만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학교에 와서 면접을 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부 기반으로 다양한 예상 질문을 만들고, 가서 내용을 다 못 말할 수도 있으니 구체적이고 키워드 중심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 대기실에서 다른 과랑 같이 대기해서 많은 사람이 대기하니까 생기부 읽는데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전날 꼼꼼히 읽고 점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교수님들 다 친절하시고 잘 웃어주시니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목 원 대 학 교

대학명	목원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불합격
학과명	유아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예비 72번
전형유형	일반교과	전형명	일반교과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대기실에서 대기-수험번호 순으로 5명씩 면접실 앞으로 이동-공지된 면접문항 3개 중 공통문항 제시받은 후 나머지 2개 문항 중 한 개 뽑기-유의사항 들은 후 면접실 입장		
기타 유의사항	신분증과 수험표, 마스크 필수, 교수님들 친절하심, 전자기기 제출X		

질문 및 답변 내용

Q.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유아교사의 역량을 3가지 제시하고, 그 중 자신에게 잘 갖추어진 역량과 앞으로 보다 노력해야 할 역량을 각각 설명하시오.

-저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유아교사의 역량은 글로벌 소통능력, 공감 능력, 그리고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는 점점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반에 다양한 아이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말 뿐만 아니라 마음과 눈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도록 돕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유아 교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되면서 단순 지식전달은 로봇으로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유아교사에게는 로봇이 갖추고 있지 않은 공감이 있기 때문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통찰력을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 봉사를 다니며 학습지도도 했지만 자율 놀이 시간에 아이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보았고 그림으로써 아이들의 기질과 성격에 대해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다가갔고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아이에게는 무언가를 전해주기 전에 공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아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보다 소통을 통한 교육이 중요한 요즘 이러한 제 역량이 미래 유치원 교사가 되었을 때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앞으로 보다 노력해야 할 역량은 글로벌 소통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재학 생활 중 한문화반 도우미 활동을 하며 말로는 소통이 안되더라도 마음과 눈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목원대학교에 입학하고 교환학생에 지원하여 최대한 많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 글로벌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이 시기에 걸맞는 유능한 교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유아교사의 역할은 교육계획자, 지지자, 안내자, 상담자, 연구자 등 다양합니다. 본인이 가장 공감되는 역할 2가지를 뽑아,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제가 가장 공감되는 역할 2가지는 교육계획자와 지지자 역할입니다. 우선 교육계획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교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교육과정이 수업의 질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유아들의 발달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놀이교육과 다양한 교재교구를 통해서 유아가 중심이 되는 충실한 수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아에게는 용기를 전해주고 존중받도록 도와주며 유아들의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 유아들의 올바른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성장하는 유아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던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사회적 능력이 부족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자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놀이 중심 유아교육”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신의 유아기 놀이 경험과 관련 지어 설명하시오.

-저는 놀이 중심 유아교육이 상대적으로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있어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아이들이 학습 주제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협동적인 게임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학습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놀이는 교육의 첫 걸음이자 유아의 학습과 발달의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저는 유치원을 다니면서 한 소꿉놀이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활동을 할 때면 주어진 역할에 몰입을 하면서 어울리는 것이 재밌다는 것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배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저는 놀이 중심 유아교육이 유아교육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목원대는 면접 질문 3개를 미리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특색 있는 답변이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답변 내용을 너무 외운 것처럼 말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열심히 준비하시고 5명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떨릴 수 있는데 떨지 말고 앞서 사람이 먼저 한 말이여도 자신이 준비한 말은 다 당당하게 다 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들 면접 파이팅!

백 석 대 학 교

대학명	백석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불합격
학과명	유아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교과전형	전형명	백석인재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대기실 입장-받은 옷핀으로 자신이 가져온 수험표 왼쪽 가슴에 부착-대기-면접 안내 학생을 따라 3명씩 면접실 앞으로 이동-대기-1명씩 면접실 입장		
기타 유의사항	신분증과 수험표, 마스크 필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의미있었던 경험이 있었다면 말해보세요.

-제가 1학년 때까지는 성적이 주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저의 학습방법이 저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 학습플래너를 작성하는 노력을 통해 학습 진도를 관리하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최대한 여러 과목을 주어진 시간 내에 적정하게 분배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노력을 통해 학업성적을 많이 올리며 저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 큰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Q. 백석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학교 홍보물을 통해 백석대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어떤 대학인지 사전조사를 해보던 중 백석대학교 인재상 세 가지 중 글로벌 소통이라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에게 소통은 말 뿐만 아니라 마음과 눈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저는 평소 점점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한 교실에 피부색이 다른 아이가 생겨날 수도 있고 그림으로써 아이들 같은 경우에 거리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유아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저와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 꼭 진학하고 싶은 백석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지구의 종말이 1년 밖에 남지 않았다면, 남은 1년 동안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1년 뒤에 지구 종말이 온다고 해서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의 모토를 말씀드리자면 '하루하루 충실하자'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정말 모르는 것이기에 저는 현재의 충실한 삶, 내일 당장 사라지더라도 저의 모토처럼 후회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 마지막 날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혹시라도, 제가 이 면접에서 잘 돋보이지 않았더라도, 저는 3년동안, 더 나아가 유치원 교사라는 꿈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께서 이 직업이 저와 잘 어울린다고 말씀하셨고 한번도 유아 교사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 챕터가 마무리된 고등학교 생활을 기점으로 또 다른 챕터를 백석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시작하여 누구보다 학교를 빛낼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백석대학교 정문에서 본부동까지 올라가는 데 오르막길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니 여유 있게 가는 것을 추천해요. 백석대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예상질문이 60개였는데 막상 면접에서 물어보는 질문은 되게 적어서 저는 끝나고 제가 준비한 것을 다 보여드리지 못한 거 같아 허무함과 아쉬움을 느꼈어요. 그런데 질문은 다 예상질문에서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예상질문만 완벽하게 준비해가되 자신감을 갖고 크게 말하세요. 다들 면접 파이팅!

신한대학교

대학명	신한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학과명	유아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160
전형유형	학생부교과전형	전형명	일반학생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대기실 입장-비닐장갑과 페이스섀드 착용-핸드폰 전원 꺼서 스스로 보관-대기-가번호 순서대로 3명씩 면접실 앞 의자에 대기-1명씩 면접실 입장		
기타 유의사항	수험표와 신분증, 마스크 필수, 교복 착용 금지, 핸드폰, 태블릿 등의 전자 기기 사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지원동기와 앞으로의 포부

-평소 저는 많은 사촌동생들과 가까이 살며 서로 친하게 지내다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어울리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게 될 기회가 많았습니다. 동생들을 돌보며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느꼈고 제가 아이들을 잘 돌보고 가르치게 될 거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지만 유치원 교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었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키즈나래'라는 유아교육 관련 동아리에 가입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유아교육에 관련된 여러 활동을 하면서 막연히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었던 제 자신을 넘어서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교사가 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의 적성을 바탕으로 신한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함으로써 더 성장해 많은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재활용품을 활용한 교재교구를 만들어 초등 돌봄 교실에 가져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행복했던 경험이 있기에 교재교구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대학교에 입학한다면 교재교구 동아리에 가입해 더 많은 교재교구를 제작하는 데 힘쓰고 싶습니다.

Q. 독서는 오랫동안 중요하다고 강조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디지털시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독서가 여전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지와 그 이유에 대해 말해보세요

-저는 독서가 여전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정보 습득을 위해서라면 유튜브를 포함한 멀티 미디어 동영상 등을 활용하면 되는데 굳이 독서를 왜하냐는 말에 설득력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요즘 청소년들이 영상을 통해 많은 지식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 영상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을뿐더러 활자에 비해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독서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독서를 함으로써 문해력과 공감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두 가지 능력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크게 결여된 두 가지이기 때문에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전보다 심각하게 고려하고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아직 남아있는 독서가 가져다주는 효용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신한대는 면접 질문을 미리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특색 있는 답변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 열심히 준비하시고 대기실에서 핸드폰과 태블릿과 같은 전자기기 못하게 하니까 답변 같은 경우에는 종이에 써가거나 프린트 해가는 것을 추천해요. 참고로 저는 면접 볼 때 자신감이 없고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예비번호를 받은 거 같아요. 특히 신한대는 마스크와 페이스 실드 둘 다 착용하기 때문에 더욱 목소리가 잘 안들리니 자신감을 갖고 크게 말하세요. 다들 면접 파이팅!

유 원 대 학 교

대학명	유원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격
학과명	유아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교과전형	전형명	일반학생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대기실 입장-선착순으로 온 순서대로 면접실 앞 의자에서 3명씩 대기-이름 스티커 부착-면접실 입장		
기타 유의사항	수험표와 신분증, 마스크 필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어느 지역에서 왔고 자신을 ‘한문장 또는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무엇이고,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제 자신을 확장기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항상 안내사항이 있으면 제가 먼저 나서서 친구들에게 알려주었고 누군가를 돕는 것을 좋아하는 저의 성격이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남을 도우면서 행복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 진학해서도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확장기같은 저의 성격으로 대학교에 입학하여 홍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주에서 왔습니다.

Q. 유아교사의 꿈을 갖게 된 동기

-평소 저는 많은 사촌동생들과 가까이 살며 서로 친하게 지내다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어울리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게 될 기회가 많았습니다. 동생들을 돌보며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느꼈고 제가 아이들을 잘 돌보고 가르치게 될 거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지만 유치원 교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었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키즈나래’라는 유아교육 관련 동아리에 가입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유아교육에 관련된 많은 활동을 하면서 막연히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었던 제 자신을 넘어서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꿈을 키워주는 교사가 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대학교에 와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동아리 활동을 가장 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의 동아리 활동은 간단한 활동에서 그친 활동이었지만, 대학교에 진학해서는 자기 전공과목과 연계해 자기 적성에 알맞은 더욱 심화된 동아리 활동을 경험하면서 더욱 전문적인 유아 교사가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유원대학교에 입학한다면 ‘그린나래’ 동아리에 가입하여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형극을 직접 제작하고 공연하고 싶습니다.

Q. 6개 다 유아교육과 지원했는지? 그리고 유원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지원한 동기

-일단 저는 예전부터 유아교육과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6개 다 유아교육과로 지원했습니다. 저는 유아교육과 대학을 찾아보다가 유원대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어떤 대학인지 사전조사를 해보던 중 총장님께서 기사에 실리셨을 때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쓰여져 있던 글 중 “작지만 강한 대학을 만들겠다”라는 말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을 크게 키우고 싶어하시고 대학인재양성에 힘쓰시겠다는 의지가 보여 이 문구가 저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은 작은 나지만, 유원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강한 교사가 되겠다라는 결심이 생겼기에 꼭 진학하고 싶어 유원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혹시라도 제가 이 면접에서 잘 돋보이지 않았더라도, 저는 3년동안, 더 나아가 유치원 교사라는 꿈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께서 이 직업이 저와 잘 어울린다고 말씀하셨고 한번도 유아 교사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 챕터가 마무리된 고등학교 생활을 기점으로 또 다른 챕터를 유원대학교 유아교육과와 함께 시작하여 누구보다 학교를 빛낼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저는 면접을 보러가기 전 이 학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면접 볼 때 이 학교에 관심이 있고 꼭 오고 싶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러한 답변을 하면 교수님들도 정말 좋아하시는 거 같으니 면접 준비할 때 유원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스크 때문에 소리도 작고 입모양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자신감을 갖고 대답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유원대는 제가 면접 본 학교 중 가장 교수님들의 반응이 좋았고 면접실 들어가기 전 선배분께서 긴장 많이 풀어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면접 파이팅!!

충청대학교

대학명	충청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격
학과명	유아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교과전형	전형명	수시 1차 일반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안내에 따라 면접대기실로 이동-대기실에서 수험표와 신분증 확인-대기-호명 되면 도우미와 함께 면접실 앞으로 이동-면접		
기타 유의사항	수험표와 신분증, 마스크 필수,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기에 교복 착용 가능, 소지품은 대기실에 놓고 면접실에 들어감		

질문 및 답변 내용

Q. 충청대의 첫인상은 어떠한지?(긴장 풀어주기 위한 질문)

-오늘 충청대에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크고 시설도 좋아서 놀랐고 이 학교에 오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Q. 충청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지인을 통해 충청대 유아교육과에 대해 관심을 갖던 중 입시설명회라는 좋은 기회가 있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친절한 교수님과 충청대 유아교육과의 전통, 그리고 충북에서 유일하게 있는 유아숲지도사 수료제도가 있는 등의 장점에 매력을 느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자신만의 장점을 말해보자면?

-저의 장점은 밝은 미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 상대방과 대화할 때 미소를 잃지 않는 것은 상대방이 저와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즐거워하고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의 장점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런 것처럼 나중에 아이들과 생활할 때 아이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주어 기분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고 저 또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Q. 유아교육 관련 책이나 기사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저는 '독일 교육 이야기'라는 책이 기억에 남습니다. 책 내용에서 독일의 교육방식 중 아프리카에 기부하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동안 아프리카 축제를 열고 자연스럽게 기부의 필요성에 대해 배우는 장면을 보고 이러한 교육방식이 마음에 들었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재학기간 동안 많은 활동을 했을텐데 그 중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던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

-저희 학교에서 1년에 한번씩 하는 반별 합창대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 중창 동아리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왔기에 반 친구들을 이끌어나가야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기 소리만 크게 내기 바빴고 그렇게 연습을 하다보니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알려주었고 음정을 잘 잡지 못하는 친구는 1대 1로 같이 음정을 잡아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실전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혹시라도, 제가 이 면접에서 잘 돋보이지 않았더라도, 저는 3년동안, 더 나아가 유치원 교사라는 꿈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께서 이 직업이 저와 잘 어울린다고 말씀하셨고 한번도 유아 교사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 챕터가 마무리된 고등학교 생활을 기점으로 충청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새로운 시작을 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 기출에 대한 답을 다 적으면서 연습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면접 후기 많으니 면접 보는 학교 기출에 대한 답을 꼭 한번 적어보고 가고 친구든 선생님이든 좋으니까 모의면접을 한번쯤은 해보고 면접을 보러 가는 것을 추천해요. 면접을 많이 보면서 느낀점은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제 면접장에서 긴장도 덜 하는 거 같더라고요. 또한, 마스크 때문에 소리도 작고 입모양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자신감을 갖고 대답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들 면접 파이팅!

호 서 대 학 교

대학명	호서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격
학과명	유아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호서인재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대기실 입장-수험표와 신분증 확인-대기-수험번호 순으로 면접 안내 학생 따라 면접실 앞으로 이동-소지품 면접실 앞에 둔 뒤 면접실 입장		
기타 유의사항	신분증과 수험표, 마스크 필수, 7~8분 지나면 밖에서 푹푹 거림		

질문 및 답변 내용

Q. 유치원 교사의 꿈을 갖기까지의 과정을 말해주세요.

-평소 저는 많은 사촌동생들과 가까이 살며 서로 친하게 지내다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어울리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게 될 기회가 많았습니다. 동생들을 돌보며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느꼈고 제가 아이들을 잘 돌보고 가르치게 될 거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지만 유치원 교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었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키즈나래'라는 유아교육 관련 동아리에 가입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유아교육에 관련된 많은 활동을 하면서 막연히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었던 제 자신을 넘어서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꿈을 키워주는 교사가 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생기부에 '라이팅 칠드런' (전기가 없이 살아가는 아동들에게 태양광 랜턴을 직접 만들어 선물해주는 활동) 이라는 활동이 있는데 이것은 외부에서 개최한 활동인가요? 학교가 직접적으로 주최한 활동인가요?

-학교에서 직접 주최한 활동입니다.

Q. 그럼 학교에서 그걸 주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학교가 글로벌 융합 중점학교다 보니 선생님께서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데 학생들에게 전기가 없이 살아가는 아동들의 삶을 이해시켜주고 싶은 것 같아 이 활동을 주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Q. 그럼 이것이 지원자의 학교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요?

-이 활동으로 전기가 없이 살아가는 아동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가 없이 살아가는 것도 결국 가난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2학년 영어 시간에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에게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주제로 선정해 탐구해보고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시

간에 굶주리고 교육 받지 못하는 전 세계 아동들을 위한 국제기구 창설을 제안한 것도 이 활동을 통해 글로벌 아동들의 삶에 대해 많은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유치원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글로벌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소통이라는 것은 말 뿐만 아니라 마음과 눈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는 점점 글로벌 시대가 되어가면서 한 교실에 피부색이 다른 아이가 생겨날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아이들 같은 경우에 거리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유아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벌써 시간이 끝났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혹시라도, 제가 이 면접에서 잘 돋보이지 않았더라도, 저는 3년동안, 더 나아가 유치원 교사라는 꿈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께서 이 직업이 저와 잘 어울린다고 말씀하셨고 한번도 유아 교사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 챕터가 마무리된 고등학교 생활을 기점으로 또 다른 챕터를 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시작하여 누구보다 학교를 빛낼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앞에 계신 교수님분들을 3월에 꼭 다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생기부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자기 생기부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하고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면접 분위기가 좋은 편이니 걱정할 필요 없이 자신이 이 학과를 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꼼꼼하게 생각해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거나 어려운 질문을 해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답해요. 빨리 대답 안한다고 해서 재촉하지 않으니 면접관분께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 충분히 생각해보고 대답해도 좋아요. 그리고 말을 할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긴장해 말이 떨리더라도 되도록이면 면접관이랑 눈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질문을 듣는동안 계속 최대한 밝은 눈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다들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 파이팅!

서 원 대 학 교

대학명	서원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
학과명	유아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
전형유형	교과	전형명	지역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형식 : 영상업로드 - 홈페이지에 게시된 5문항 중 2문항을 골라서 2분 이내로 답변 (블라인드 면접- 본인확인 차 영상에서는 언급시키는 거 같음 / 말하기 형식 주어져 있었음/ 문항은 매년 바뀜)		
기타 유의사항	-		

질문 및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000 (이름)입니다.

(문제: 지원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유아교사의 자질과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유아교사의 자질은 '인내심' 입니다. 아이들은 감정이나 행동을 제어할 능력을 완벽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교사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고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교육자로서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기다려주며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아이들의 의견을 항상 귀 기울여 들어주며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말도 경청해야 합니다. 교사가 한 인간으로서 아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더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유아들에게 놀이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5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유아들에게 놀이는 '가장 적합한 교육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아의 발달 특성상 문자 중심 학습보다는 생활 속에서 사물을 직접 다루는 놀이 학습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유아는 놀이를 통해서 궁금한 것을 해소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생활 태도를 익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아를 형성하고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을 통해 사고를 확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치원 교사는 유아가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놀이를 중심으로 학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수험번호 000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 영상업로드이기 때문에 계속 다시 찍어보면서 가장 좋은 걸로 제출하세요.
 - 대본을 미리 써놓기는 하지만 영상 찍을 때 보고 말하는 게 다 티가 나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서** 찍어야 합니다!!
 - 5문항 중에서 자신이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2가지를 고르는 게 좋아요.
 - 최저공부도 열심히 하기!!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명	성신여자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불합격
학과명	유아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22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자기주도인재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 자가진단표를 제출하고 1차 대기실(강당)로 이동 - 면접 시간이 가까워지면 면접 진행 위원분께서 “00시 면접 보는 사람들 이동할게요”라고 하시면 따라서 이동		
기타 유의사항	면접자 유의사항 꼭!! 자세히 보고 가기 대기실 안에서는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만 볼 수 있음 면접관은 교수님이 아닌 해당 학교 입학사정관 2명임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3년간 동아리 활동 전체적으로 말해보시오. (특정 학년 X)

[답변] 1, 2학년 때 토론 동아리에서의 활동명을 언급하며 활동하며 배운 점과 3학년 때 교육 동아리를 통해 배운 점을 말함.

[질문] 동아리 활동하면서 나타난 지원자 성격의 장단점

[답변] 장점으로는 동아리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노력한 것을 성격과 연관 지어 말함. 단점으로는 참여를 이끄는 과정에서의 부족했던 점을 연관 지어 말함.

[질문]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한 경험

[답변] 수학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이야기함. 예시로 공부법과 멘토링 등을 들음.

[질문] 젠더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소서 질문)

[답변] 양성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사회임.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올바른 젠더 교육 필요. 올바른 젠더 교육은 미래사회를 더 양성 평등한 사회로 만들 수 있음.

[질문] 유아 젠더 교육 전문가를 꿈꾸게 된 계기? (자소서 질문)

[답변]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주제로 한 논술 대회에서의 경험을 설명. 유아기에 잘못 심어진 성 고정관념이 문제라는 것을 인지함. 유아를 위한 올바른 성교육을 고민하다가 젠더 교육을 알게 되었고 유아 젠더 교육 전문가를 꿈꾸게 되었음.

[질문] 친구와 다투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답변] 상황을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먼저 다가감.

[질문] 대학 생활하며 어려운 학문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수학 성적 상승을 위해 노력한 과정과 결과 말하며 어려운 학문을 만나도 이처럼 극복해 나갈 것임.

후배들을 위한 조언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기에 자기소개, 지원동기 같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어보는 학교도 있을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준비해놓고 미리 외워두고 면접 직전에는 다른 질문 더 들여다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면접 예상 질문을 만들 때,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위주로 먼저 만들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가치관, 갈등 상황 등의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분들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면접장에 들어가세요.

중 앙 대 학 교

대학명	중앙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총원 합격
학과명	유아교육과	총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2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다빈치형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 면접(입학사정관 2명) - 면접시간: 8분 (원래는 10분이었으나 현장에서 8분이라고 공지함, 6분 30초에 밖에서 문을 두드림) - 면접절차: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앞사람이 면접 시작하면 면접실 앞으로 이동 		
기타 유의사항	<p>대기실에서 어떤 자료를 봐도 상관없음. 공지된 면접 시간은 10분인데 현장에서 실제로는 8분만 진행된다고 공지 받음. 6분만 진행한 학과도 있음(면접 인원에 따라 조정하는 듯).</p>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우리가 몰랐던 바이러스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는데,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바이러스가 있나?

[답변] 이 책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를 처음 알게 되었음. 유아기는 아직 인지능력이 부족하기에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잘 모름. 코로나바이러스를 소개하여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려주고 싶음.

[질문] 사회문화 시간에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에 관해 질적 연구방법과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연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 것인가?

[답변] 질적 연구방법과 문헌 연구방법의 정의를 설명.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알 수 있었음.

[질문] 미래에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의 장점과 단점 설명.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 설명. 이러한 방법들을 유치원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적용하여 올바른 멀티미디어 교육을 할 것.

[질문] 요즘 아이들의 자존감을 위해 칭찬을 많이 하는데, 아이가 칭찬으로 인해 과도하게 반응하여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 끼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부모와 아이 사이’라는 책을 통해 알게 된 올바른 칭찬법을 설명함. 이러한 방법을 통해 아이들에게 올바른 칭찬법을 적용할 것. 아이의 자존감이 중요한 것은 사실. 하지만 과도한 자존감으로 인해 피해 끼치는 것을 옳지 않음. 피해 끼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친구들이 피해받는 상황을 설명하고 스스로 반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를 진정시킬 것.

[질문] 3년간 학생회 임원을 했는데, 학생들에게 이러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답변] 경청하는 자세와 신뢰감. 평소 친구들과 대화할 때 경청하는 모습과 이유 설명. 선거 공약을 성실히 실천한 경험.

[질문] (공약실천) 그러한 사례가 있나?

[답변] 평소 학생들이 교복 자켓을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고 해결하고 싶었음. 선거 공약으로 플리스 제작을 내세워 당선 후 실천함. 이 공약실천으로 인해 교복 자켓 대신 플리스를 착용할 수 있게 되었고 처음으로 본인 학교만의 춘추 생활복을 만들.

[질문]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이고, 어떻게 극복했나?

[답변] 3학년 때 겪었던 슬럼프.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음. 하지만 친구들, 선생님 등과 대화를 통해 극복. 스스로도 슬럼프라고 자칭하며 파고들었었음을 인지하고 반성함. 슬럼프 또한 파도같이 거품처럼 금방 사라지는 것임을 깨달음.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

[답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성적이라는 수치로만 본다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시작이 미약할 수 있음. 하지만 갈고 닦은 구리가 금보다 빛나듯이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입학하여 본인을 갈고닦아 세상을 밝힐 빛을 낼 것. 면접 볼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주셔서 감사.

후배들을 위한 조언

긴장하지 말고 1차 합격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면접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활짝 웃으세요.(긴장하면 평소처럼 입이 안 올라가니 최대한 활짝!!). 인사할 때, 질문 받을 때 미소짓기!!

외운 답을 말하기보다는 대화를 나누듯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 시작할 때 면접관께서 대화하듯이 편하게 하면 된다고 알려주심.)

인 하 대 학 교

대학명	인하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2차 추가 합격
학과명	국어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예비 3번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인하미래인재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p>60주년 기념관으로 들어가서 수험표와 신분증 확인하고 체온 측정하고 엘리베이터 타러 간다. 안내해주시는 분이 수험표 보고 몇 층인지 다 확인하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다 안내해주신다. 국어교육과와 교육학과는 7층이라서 7층까지 갔다. 내리자마자 안내하시는 분이 수험번호 확인하고 대기실까지 안내해준다. 대기실 가서 수험표랑 신분증, 본인 확인하고 가번호 팔찌 받고 과 스티커 붙여진 책상에 앉아 있다. 들어가자마자 핸드폰 꺼서 가방에 넣고 1시 40분에 유의사항을 들었다. 자리에 앉아 있다가 순서가 조금씩 다가오면 문 앞에 배치된 의자로 불러나가고, 그다음은 대기실 바로 앞 의자, 그다음은 면접실 바로 앞 의자에 앉는다. 대기실 바로 앞 의자까지는 준비한 종이 볼 수 있는데 면접실 앞에서는 못 본다. 참고로 면접실 앞에 앉아 있으면 안에서 말하는 소리 다 들린다. 내용까지는 확실하게 안 들리는데 단어 단위로 조금씩 들린다. 면접은 대략 6~8분이지만, 타이머 울려도 계속 질문하시거나 마지막 말할 기회 주신다. 면접 끝나고 앞에서 짐 챙겨서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면 가번호 팔찌 가위로 끊어주신다. 그대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들어온 문으로 나오면 된다.</p>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할 때 수험표 프린트해주시니까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렸어도 괜찮다. - 차 진입 금지라고 했지만, 다들 면접 보는 건물 앞에서 내렸다. - 가번호 팔찌를 줬는데, 생각보다 길다. 영어+숫자로 6글자였다. - 대기실 가자마자 전자기기 꺼야 한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자기소개+지원동기

[답변]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키워주는 교사가 되고 싶은 (가번호)입니다. 지역간 비경쟁 독서토론에서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책을 읽고 특성화고의 생활과 특성화고 취업 실습의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문계고에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깨닫기 힘든 문제였지만, 책을 통해 특성화고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며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이 세상을 넓게 바라보도록 도와 더 큰 세상에 나아가도록 힘쓰고 싶어 인하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독서 권수가 굉장히 많은데 읽을 수 있었던 비법?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쉬는 시간, 점심 시간 틈틈이 읽는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했기에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질문] 1학년 활동에서 유음화 비음화 탐구 활동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답변] 사람들은 '신라면'의 발음을 [신나면]이라 하는지, [실라면]이라 하는지 궁금해져서 추가로 8개의 단어를 선정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교사보다 유음화를 많이 사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질문]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학생들이 교사보다 외래어를 접하는 경우가 많아 원음을 중시하게 되는 정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신라'는 [실라]로 발음하지만, 신라와 신라면은 다른데 표준 발음을 수정할 때 유음화로 [실라면]이라 해도 되나요?

[답변] '신라면'의 표준 발음이 없는 상황이니, 수정이라기보다는 제정할 때 사람들이 많이 발음하는 대로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미 정해진 문법 체계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그렇게 막 바뀌도 되나요?

[답변] '짜장면'도 원래 [자장면]이 표준 발음이었지만, 사람들이 [짜장면]으로 많이 발음하다 보니 둘 다 표준 발음으로 지정되었듯이, '신라면'도 비슷한 경우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질문] 1, 2학년 때 종교활동 많은데(동아리가 기독교 동아리였음) 어떻게 국어 교사에 관심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답변] 학교 내 동아리만이 아닌, 다른 학교와 연합한 동아리였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교사가 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적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 그럼 국어는? 국어 내용은 없나?

[답변] 동아리 활동에 국어 관련 활동인 진로 신문 제작, 맞춤법 퀴즈, 한 학기 한 권 읽기 등이 있기 때문에 국어 내용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생활기록부의 다른 기재 사항에서도 충분히 국어 관련 활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국어 교사를 늦게 희망한 편인데, 3년 내내 국어 교사를 준비한 친구들에 비하면 활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답변] 활동의 깊이를 달리했습니다. 1, 2학년 때는 선생님께서 주도하시는 독서토론을 했다면 3학년 때는 후배들을 위해 직접 독서토론을 주도하며 더 깊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1, 2, 3학년 모두 문법 탐구 활동도 꾸준히 해왔고, 고전문학 교육방안 마련 등 활동을 했으니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시간이 다 지났는데 마지막 말 하고 싶으면 하세요.

[답변] 저는 학교에서 여러 번의 독서토론을 하며, 제가 모르는 분야를 다양하게 접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다른 교과와 융합하여 융합교과 독서토론을 기획한다면, 독서 교육과 함께 더 다양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하대

학교에 입학한다면, 이러한 활동을 사범대학 다른 과 친구들과, 교수님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며 성장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 홈페이지 들어가서 교수님들 얼굴을 익히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내적 친밀감이 생겨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진다.
- 꼬리 질문이 많은 편이었다. 한 분은 공격적으로 질문하시고, 다른 한 분은 웃으면서 들어주셨다. 교수님들이 역할 분담을 하셨구나~ 생각하니 꽤 편안해졌다.
- 겉옷 면접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입고 있을 수 있으니 복도에서 추우니까 입고 있기

공 주 대 학 교

대학명	공주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영어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학생부종합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 대기실로 가면 무작위로 부여된 가번호를 받고 옷에 붙임. 본인의 가번호를 부르면 면접실 앞 복도에서 대기한 후 입실, 면접은 10분미만으로 진행. 교수님 두 분이 면접실 안에서 내 생기부를 기반으로 질문하심.		
기타 유의사항	종합은 생기부 기반 면접이고 교수님들 두 분이 노트북에 내 생기부를 띄워놓고 바로바로 질문하심. 대기할 때 면접준비 자료는 보지 말라고 안 하셨음. 너무 늦게 도착하지 않기. 생기부 기반으로만 준비하면 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학생이 특별히 공주대에 지원한 계기가 있나요?

[답변] 네 저는 어려서부터 영어교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사범대가 유명한 공주대학교를 알고 있었고, 꼭 입학하고 싶은 학생이었습니다. 공주대학교에 입학해서 다양한 학생들과 서로의 교육관, 지향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경험을 하고 싶고 학우들, 교수님들과 영어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계에 많은 공주대 선배님들이 계시다는 것도 제게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질문] 생기부를 보니까 ‘A long way to walk’ 책을 읽었던데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이 책은 대비를 안 한 책이어서 순간적으로 기억해내려고 노력했음.)

[답변] 네 저는 그 책에서 한 소년의 삶과 그가 겪는 일을 객관적으로, 제삼자의 입장에서 생동감 있게 서술한 부분이 인상 깊었고 결국 마지막에 저자가 사실 그 소년이 본인이었음을 밝힌 부분에서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교수님 한 분이 맞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호응해주셨음) 그리고 단순히 본인이 자란 마을에 기부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자 본인이 어렸을 때 겪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을에 직접 가서 우물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의도하신 답변이 안 나왔는지 한 번 더 물어보셨음)

[질문] 그러면 이 책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해요?

[답변] 저자가 현재 같은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본인이 미국에 입양되어서 있었던 일도 끌어와서 진술한 병렬식….

(교수님께서 그쵸 그거쵸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음 그래서 내가 잠시 웃고)

네, 병렬식 구성이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1학년 동아리 활동에 교사의 자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교사로서 갖춰야 하는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답변] 물론 첫 번째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전공에 대한 깊은 지식이고, 의사소통 능력, 높은 도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 교사에게는 AI 활용능력도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왜 교사에게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답변] 교사에게 의사소통이 필요한 이유는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서로 신뢰감이 형성되고, 전인격적 교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동아리 활동을 보니까 언어 사대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저는 팝업, 패스워드, 노키즈존, 노인정을 시니어 클럽이라고 표기하는 등 영어와 한글을 병기하지 않고 영어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실태를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학생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의 원인 중 하나가 학교에서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데 수단으로 영어를 배우는 것이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속해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교사로서 학생들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지 절대 영어가 우월하므로 배우는 것이 아닌 것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언어 사대주의보다 상대주의적인 시각을 갖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질문] 영어 성적이 좋네요, 그럼 학생이 한 활동 중에 교육과 관련한 활동이 있다면 그 활동을 하면서 학생이 잘 했던 점 그리고 잘못했던 점을 말해주세요.

[답변] 저는 3년간 같은 학년의 학우와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내신영어, 모의고사 영어를 차근 차근 준비해나갔습니다. 3학년 때는 언어에 자신감이 없고, 시험 불안증이 있는 멘티를 위해 켈러의 ARCS 이론 중 자신감 부분을 사용해 멘티가 본인의 수준을 자각하고 성공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 기대를 가지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장차 교사가 되어서 필요한 교수 연습을 하고, 정서적 심리적으로 불안한 학생을 돕는 것을 연습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잘 못 했던 점은 아무래도 같은 학생의 입장이다 보니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었고 교사가 되어서는 학생에게 필요할 때는 따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공주대 면접 분위기가 좋은 편. 면접을 볼 때, 대기할 때 전혀 떨 필요 없고 대기할 때 추운 자리도 있고 더운 자리도 있으니 옷을 잘 챙겨입고 가기. 목소리를 크게 하고 항상 귀를 열어놓고 있기. 모르는 게 있다면 도우미 분들께 무조건 물어보고 행동하기. 복장은 단정해 보이는 옷은 다 괜찮지만 되도록 셔츠, 검은 바지를 추천 (청바지는 색이 회색이나 검정이어도 비 추천) 정장을 입고 오는 학생들은 몇 명 없음. 내 답변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 있게 말하기. 면접 후기에 보면 교수님들께서 원하는 답변으로 유도하신다는 말이 있었는데 일부분 유도하시는 느낌도 있었음. 그럴 땐 답변의 흐름을 잘 읽기. 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계기, 하고 싶은 말, 이 대학에 꼭 입학해야 하는 이유는 반드시 준비해보기.

한국교원대학교

대학명	한국교원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총원합
학과명	영어교육과	총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14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학생부종합우수자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해당 학과 면접 대기실에 자신의 수험번호가 붙어있는 책상에 앉아서 대기. 가져온 자료는 수거해가신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져가지 않으셨음. 면접 대기실에 있다가 모든 짐을 챙겨서(대기실에서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옴) 제시문 답변 작성하는 방 앞에서 대기. 전 번호 학생 시간이 끝나면 입실해서 준비, 마음의 준비가 끝나면 7분 타이머 시작 후 뒤집혀있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펜과 종이로 내 답변을 작성. 제시문엔 긴 줄 글과 그에 딸린 문항 2개가 있고 모든 문항에 대한 답변을 작성함. 시간이 끝나면 종이를 내용이 안 보이게 반으로 접고 1층 면접실 문 앞으로 내려가서 대기. 전 번호 학생이 끝나면 도우미 분께서 내 번호를 면접관분들께 말씀드리고 학생 입실. 답변할 때 제시문과 문제는 볼 수 없음. 제시문 답변 3분 정도 하고 나머지 시간에 개방형 질문 서너 개 물어보심. 면접관 한 분이 제시문 담당 두 분이 개방형 질문 한 개씩 물어보심.

기타 유의사항

생기부 내용은 원래 안 물어보는 전형임. 교원대학교 홈페이지에 제시문 기출, 개방형 질문 예시를 꼭 준비해서 가기. 모집 요강에는 제시문 10분+면접 10분 정도로 안내되어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제시문 7분, 면접시간도 7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함. 미리 시간을 줄여서 대답하는 연습을 꼭 하기. 저의 경우에는 답변할 때 기억이 안 날까 봐 제시문 답변을 구구절절 적어갔는데 이 방법도 괜찮지만, 키워드만 적어가서 조리 있게 말하는 것도 좋을듯. 본인의 교육관이나, 특정 문제 상황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같은 것은 미리 생각해서 어떤 제시문이 나와도 준비한 내용을 녹여낼 수 있게 준비해야 함. 제시문 답변에 확신이 없어도 꼬리질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명확하게 말해야 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제시문 내용: 전례 없는 코로나 상황이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장기화하고 있다는 문제 상황을 길게 제시>
제시문 질문

1. 비대면 상황에서 본인의 교과목을 가르칠 때 생기는 문제점을 세 가지 키워드로 말해보시고, 교사로서 해결방안은?

2. 비대면 수업에서 소외되는 학생 예측하고, 해결방안 제시하기

[답변] 우선 이 제시문은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교육의 문제점과 학습이 어려운 학생을 교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비대면 상황에서 영어를 가르칠 때 생기는 문제점은 첫 번째 리스닝을 연습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스피킹을 연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어는 말을 하면서 배우는 것인데 비대면으로는 그런 연습이 잘 이루어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해결방안으로 생각해본 것은 수업시간에 수준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을 1대1 매칭시킴으로써 말하는 연습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소외될 학생들은 첫 번째, 경제적 취약계층 두 번째, 기초적인 영어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생각해 본 것은 인터넷, 온라인 기기를 지원해서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가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시간과 그 외에 방과 후 시간에도 교사와 학생의 쌍방향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해야 하고, 학생이 기초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를 상시 제공해야 합니다.

[질문] 왜 영어교사가 되고 싶은가요? 영어로 답변해보세요.

[답변] I like to meet people, get close, and get to know their culture. I like English and my dream is to be able to communicate freely with people from various culture. And I think responsibility is very important in life. So I want to become a responsible educator who teaches English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nd cultivates students as responsible humans who can do their part well in society.

[질문] 영어교사가 되기 위해서 학생이 한 노력이 뭔가요? 간단하게 말해보세요.

[답변] 저는 영어교사가 되기 위해서 3년간 영어 멘토링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멘토링 학습에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켈리의 ARCS이론 중에 자신감 부분을 사용하여 영어에 자신감이 없던 제 멘티가 본인의 수준을 자각하고 성공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 기대를 가지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교수학습과 심리적,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학생을 돕는 것을 연습해볼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면 이러한 켈리의 이론과 같은 교육학 이론뿐만 아니라 교육심리학도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차 교사가 되어서도 심리적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학생을 돕고 싶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교원대는 어떤 제시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홈페이지 제시문 기출을 여러 개 읽어보고 시간 내에 답변을 쓰고, 대답하는 연습을 꼭 하기. 목소리를 크게 하고 항상 귀를 열어놓고 있기. 모르는 게 있다면 도우미 분들께 무조건 물어보고 행동하기. 복장은 단정해 보이는 옷은 다 괜찮지만 되도록 셔츠, 검은 바지를 추천 (청바지는 색이 회색이나 검정이어도 비추천) 정장을 입고 오는 학생들은 몇 명 없음. 내 답변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 있게 말하기. 영어교육과라면 영어로 간단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듯. 면접준비를 도와주시는 선생님들께서 항상 답변을 두괄식으로 하라고 말씀하셨고 두괄식으로 본인의 생각을 말하고 그에 맞는 근거를 대기.

인 하 대 학 교

대학명	인하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영어영문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인하미래인재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접 입실 시간에 맞춰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앞에서 같은 면접 시간대의 학생들이 다같이 모임. 2. 안내관의 안내에 따라 면접이 진행되는 층에 따라 줄을 섬. (본인은 2층과 지하1층 줄에 섬.) 3. 건물에 입실 후 미리 인쇄해 온 수험표와 신분증 대조 및 코로나 증상 검진표 확인 4. 열감지 기계에서 열 측정 후 해당 면접 층으로 이동. 5. 면접 대기실에서 차례가 불릴때까지 대기. (영문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같은 대기실 사용) 		
기타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험표를 꼭 먼저 인쇄해서 챙겨가야 하며 코로나 검진표 집에서 미리 작성해서 가야 번거롭지 않음. 2. 대기실 입실 후 전자기기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간주. 		

질문 및 답변 내용

간단한 아이스브레이킹 진행.

[질문] 점심 밥 먹고 왔어요?

[답변] 아직 먹지 않았습니다.

[질문] 긴장해서 그런가.. 면접 끝나고 먹어야겠네요.

[답변] 네.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질문] 그래도 어쨌든 학생을 평가해야 하니 이제 슬슬 시작해도 될까요?

[답변] 네 !

[질문]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영어권 문화 교과를 이수했는데 가장 기억남았던 활동은 무엇이에요?

[답변] (순간 기억이 안나서) 아 혹시 2학년때 이수한 과목이 맞나요?

[질문] 네 맞아요.

[답변] 10년 후 저의 미래 모습에 대해 에세이를 작성한 후 친구들에게 발표한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활동으로 저의 꿈인 국제교류전문가를 이루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구체화 할 수 있었으며 친구들 앞에서 영어로 발표하며 영어 회화 능력 또한 기를 수 있었습니다.

[질문] 흠 에세이 작성 활동과 영어권 문화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답변] 영어권 문화와 직결적인 관련은 없던 활동이었지만 미래의 저의 모습을 상상하며 저의 꿈을 이루고 싶은 열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질문] 네 알겠습니다. 그럼 2학년때 영어스피치 동아리 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하지 않는 활동에 먼저 솔선수범 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적혀있는데, 솔선수범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답변] 제 자신을 믿는 자존감과 그 자존감을 통해 나오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을 토대로 정해진 동아리 시간에 보다 친구들과 함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모두 시작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제가 먼저 발표를 진행하며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다음으로는 3학년때 세계문화 동아리에서 다양한 영어권 나라의 문화를 비교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활동이었나요?

[답변] 다른 영어권 나라와 호주의 문화를 비교하였던 활동입니다. 미국과 영국같은 영어권 나라는 많이 조사하고 탐구했었지만 호주는 제가 알아볼 수 있었던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선정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호주는 다른 영어권 나라와 달리 회계연도를 6월로 사용하며, 마트에서 실온과 냉장고에 있는 음료의 가격을 달리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 그럼 그 활동에서 알게 된 것들과 영미문학을 연결 시킬 수 있나요?

[답변] 음.. 그러한 심층적인 활동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하대학교에 입학하여 꼭 교수님들께 더 배우고 싶습니다.

(여기서 웃어주셨음)

[질문] 꿈이 국제교류전문가라고 했는데 전 아직까지도 이 꿈이 추상적이게 들리는데 정확히 무슨 직업이며 미래의 계획이 있나요?

[답변] 국제교류전문가는 한국의 문화를 타국에게 알리는 직업으로 한국의 우호적인 이미지를 도모하는 직업입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영어영문과를 졸업한 뒤 ‘한국국제교류재단’이라는 공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 공기업에서는 현재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중입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얼마전 캐나다에서 열린 한국 영화제 사업이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인하대학교를 통해 저의 꿈을 꼭 실현하고 싶습니다.

[질문] 네 이제 시간이 다되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우선 자신의 생기부와 자소서를 완전히 파악해야 불안하지 않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인하대학교는 6분에서 8분정도 면접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진행해보니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동안 자신을 어필해야합니다. 물론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예의바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들어가자마자 간단한 목례를 하고, 의자 옆에 서서 안녕하십니까라고 하며 공손히 인사하였습니다. 나갈때도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였습니다. 또한,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도 아이스브레이킹을 진행하시면서 최대한 저의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하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과목 커리큘럼과 교수님들의 얼굴을 외워갔습니다. 실제로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면접관님들이 모두 홈페이지에서 본 교수님들이셨고 따라서 조금 편안한 분위기로 면접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교수님들께서 인상깊게 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 하 대 학 교

대학명	인하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학과명	영어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인하미래인재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시간 : 6~8분 면접절차 : 입구에서 열 체크, 손 소독 후 수험표 및 자가진단표 확인->대기실로 이동->핸드폰 전원 끄기->신분증 검사 후 손목밴드(가번호) 차기 ->호명이 되면 소지품 다 들고 대기실 맨 앞으로 이동 후 손목밴드 확인->복도에서 대기->면접장 앞으로 이동하여 소지품은 바구니에 넣은 후 대기->면접실로 입실->면접 진행		
기타 유의사항	블라인드 면접 / 5개 학과가 같은 대기실 사용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1] 영어Ⅱ 시간에 다른 나라의 교육정책에 대해 조사했다고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 한 가지를 소개해줄 수 있을까요?

[답변 1] 네, 저는 핀란드의 교육정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핀란드는 학생 중심 수업으로 유명한데, 토론수업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교사가 되었을 때 토론수업, 독서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생각을 확장시키는 수업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2] 접두사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요?

[답변 2] (대답 잘 못 했음.) (면접관님이 웃으시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심.)

[질문 3]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탐구했는데, 가장 강조되고 있는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까?

[답변 3] 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영어과를 탐구했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는 활동을 했는데, 2009년에는 내용을 정확하게 학습하는 데에서만 그치는데 비해서 2015년에는 학습을 한 후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까지 확장해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 역량이 가장 강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4] 그러면, 학생이 생각했을 때 현재 학교에서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답변 4] 네, 저는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볼 때도 말하기나 발

표를 통한 수행평가가 많아지고 있고, 수업시간에도 자신의 의견을 공유해보는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5]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이 봉사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답변 5] 외국인 근로자 분들이 영어권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영어로 한국어 어휘를 설명해드리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대한 쉽고 간단한 영어 표현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손동작이나 표정을 통해 맥락 속에서 단어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질문 6] 외국인 근로자 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까?

[답변 6] 베트남과 스리랑카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질문 7] 외국인 근로자 봉사는 얼마나 했습니까?

[답변 7] 고등학교 1학년 때 1년 정도 했고, 주말을 이용하여 일주일에 4시간 정도 봉사를 했습니다.

[질문 8] 자기소개서에서 '언어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라고 표현했는데, 무슨 뜻인지 보충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 8] 언어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견문을 넓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7분 타이머 올림) 우리는 언어를 이용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소통을 위해 언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언어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질문 9] 지역 내 수학 부스에서 수학 조장을 했다고 했는데, 조장을 하면서 무엇을 배우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 9] 수학 부스를 운영하면서 설명서 제작에 논의하며 갈등이 발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이 체험을 하러 왔는데, 연령별로 다르게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좋은 조장이 되려면 좋은 의견을 내서 잘 통솔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조원들의 의견에 경청하며 함께 소통한 결과 연령별 설명서 세 세트를 제작하여 부스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교사가 되었을 때도 학생들의 말에 경청하고 공감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10]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

[답변 10] 저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국내교육정책 탐구와 2015 개정교육과정 탐구, STEAM 교육 탐구 등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교사로서의 역량을 키웠습니다. 어떠한 과제가 주어지더라도 항상 열정을 다해 탐구하며 매순간 노력할 자신이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에 합격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열심히 배우고, 동아리와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영어교사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인하대학교 영어

교육과 교수님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꼭 캠퍼스에서 만나 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준비가 덜 되어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면접 도중에 크게 당황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답변에서 충분히 만회할 기회가 있고, 면접은 인사하고 나가는 것까지가 면접이기 때문에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 꼭 말해 주고 싶습니다.

강원대학교

대학명	강원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지리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형명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의 진행은 교직원 인성적합 면접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학생들에게 교사의 직접에 대한 질문과 교육 그리고 시사 등 다양한 질문으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지리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세부적으로 물어봅니다.		
기타 유의사항	교수님이 세분이 계시고 분위기는 적당하게 친근한 분위기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웃음 포인트를 만들어서 분위기를 적당하게 풀어주어 면접을 잘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는 저 자신을 한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꽃입니다. 꽃은 씨앗에서 새싹 그리고 각종 고난과 역경을 거쳐 자신만의 아름다운 결과물을 피워냅니다. 저도 이 꽃처럼 비록 지금은 씨앗이지만 다양한 경험과 고난을 통해 교사라는 꿈을 피워내고 싶습니다.

[꼬리 질문] 그럼 어떤 꽃이 되고 싶으신가요?

[답변] 저는 꽃 중에서 안개꽃이 되고 싶습니다. 안개꽃은 화분이나 꽃다발에 많이 사용되는 꽃이지만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른 꽃들이 눈에 띄도록 자신을 희생합니다. 저도 이 안개꽃처럼 나중에 제가 가르칠 학생들을 위한 안개꽃이 되어 학생들이 미래에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밝게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꽃이라는 것을 스스로 정했는지 누가 만들어 준건지, 꽃을 왜 좋아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질문] 바람직한 교사로서의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저는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경험을 주는 교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면에서 많은 학생들이 잘못된 정보를 얻기도 하고 간접적인 경험으로 인해 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자신만의 시선을 만들어가고 성장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방적인 강의형 수업보단

같이 체험하고 놀고 즐기며 교육과 하나가되는 놀이수업 등 직접적인 교육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리에 대해 많이 탐구하셨는데 여행지리라는 수업을 들으셨나요?

[답변] 여행지리라는 과목은 알지만 제가 선택하지 못해 수업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리를 좋아하고 잘하기 때문에 여행지리를 하는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나 부분이 있을 때 도움을 주며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친구들 도와주며 저 또한 같이 공부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리라는 과목이 여행을 통해 배우면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여행으로 떠나는 다양한 활동, 원격 탐방 등 재미난 요소로 수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행지리라는 과목에 더 큰 관심과 흥미가 있었습니다.

(이 질문의 꼬리 질문으로 제가 가본 국내 축제 중 인상 깊은 축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시간이 초과되어 끝나려고 하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답변] 저는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강원대 지리교육과과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저의 장점은 더 성장시키고 싶고 제 단점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 고치고 싶습니다. 다만 연애의 끝은 이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별이 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 후에 제가 만날 새로운 사랑인 학생들을 위해 연애하면서 배운 다양한 경험을 학생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교사로서의 역량, 미래교사, 교육관 등 교사가 꿈이라면 평소에 생각해볼 다양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꼬리 질문이 많았습니다. 중간 중간 섬세하게 포인트를 물어보니 준비를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건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야기를 계속 이어 나가고 교수님들과 소통하며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열심히 하면 면접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노력을 응원합니다! 언제나 노력하면 그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동국대학교

대학명	동국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지리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두드림 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은 생기부 기반 면접으로 교사라는 직접 특성상 교사에 대해 물어보고 교육관과 다양한 교육 지식들을 물어봅니다. 특히 지리교육과인 만큼 지리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을 물어봅니다. 생기부는 구석구석 궁금한 점들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관은 두 분이셨고 한분은 교수님 한분은 젊은 조교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제가 면접을 본 곳 중에서 최고로 편한 분위기였고 카페에서 대화를 하듯 반응과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는 저 자신을 한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꽃입니다. 꽃은 씨앗에서 새싹 그리고 각종 고난과 역경을 거쳐 자신만의 아름다운 결과물을 피워냅니다. 저도 이 꽃처럼 비록 지금은 씨앗이지만 다양한 경험과 고난을 통해 교사라는 꿈을 피워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꽃은 언젠가 집니다. 떨어진 꽃잎들은 누군가를 위한 거름이 됩니다. 저도 나중에 제가 가르칠 아이들을 위한 거름이 되고 싶습니다. 현재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과정에서 동국대 지리교육과에서 저만의 꽃을 피워내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서 면접관 두 분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자기소개는 창의력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 영어 시간에 과학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조사했는데 이를 지리랑 대입한다면 어떻게 교육하실 건가요?

[답변] 이 활동은 과학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경험을 토대로 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활동입니다. 이는 과학 분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 접목이 되고 나중에는 제 교육관인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교육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제가 유독 관심이 있는 지리라는 과목이 이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리가 암기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지리에서 지역 축제를 일방적인 강의형 수업보다는 저는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생각하고 느끼고 지역 축제를 교실에서 작게 경험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면 보다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바람직한 교사로서의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저는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경험을 주는 교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면에서 많은 학생들이 잘못된 정보를 얻기도 하고 간접적인 경험으로 인해 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자신만의 시선을 만들어가고 성장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방적인 강의형 수업보다 같이 체험하고 놀고 즐기며 교육과 하나가 되는 놀이수업 등 직접적인 교육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3학년 때 지도 만들기 활동을 하셨던데 이게 무엇인가요?

[답변] 지도 만들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에 대해 관심이 적어지고 지역사회가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지역을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만든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제가 전교회장으로서는 기획한 다양한 활동 중 하나인데요. 학생들이 지역에 더 큰 관심을 갖도록 저희 팀이 지역을 조사하고 직접 방문도하고 조사하며 학생들에게 추천할만한 맛 집, 교육장소, 문화생활 공간, 지역 대표 관광지 등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해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 홍보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리 시간에 배운 지도 만들기 방법을 통해 만드니 지리라는 과목에도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 활동은 큰 반응이 있었고 추후에 교육청에 가서 교육감님과 이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교육감님이 활동에 대해 칭찬해주시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 큰 기대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통해 값진 경험과 큰 보람은 제 노력과 열정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았고 앞으로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꼬리질문으로 추가적인 학생회장으로서의 활동을 물어보셨습니다.)

[질문] 지리교육과에 진학을 하면 어떤 분야로 나아갈 수 있나요? (교사 제외)

[답변] (생각도 못한 질문이라 매우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당황했어도 최대한 말을 해보았고 실수를 해도 자신 있게 대응했습니다.) 교사 외에는 전문적으로 더 공부를 하는 교수의 직업이 있고 특히 국토와 관련된 공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리를 이해하고 탐방하면서 국토에 대해 알아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사 등 여행을 위해 직업을 가져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 교수님이 아직은 잘 몰라도 앞으로 잘 알아가야 한다고 충고해주셨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답변] 저는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동국대 지리교육과과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저의 장점은 더 성장시키고 싶고 제 단점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 고치고 싶습니다. 다만 연애의 끝은 이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별이 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 후에 제가 만날 새로운 사랑인 학생들을 위해 연애하면서 배운 다양한 경험을 학생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바라온 사랑인 만큼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동국대는 유독 생기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궁금하니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생기부에 자신이 이 분야에 대해 큰 열정과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야하고 실제로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험이든 자신에게 언젠가 큰 도움이 되고 교사가 되었을 때도 학생들을 위한 도움이 될 태니 꿈을 위해 고등학교에서 정말 다양한 활동과 경험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감 있는 모습과 실수를 해도 포기하지 말고 극복하는 모습이 면접관분들이 정말 좋아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노력을 응원합니다! 언제나 노력하면 그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명	서울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지리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최초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지역균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시간	10분	
	인원수	면접 위원 수: 3명	조별 학생 수: 9명
	면접절차	8시 15분까지 입실(핸드폰을 비롯한 거의 모든 소지품 제출), 9시부터 시작, 앞사람 끝나기 1분정도 전에 면접실로 이동, 대면 면접,	
기타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3번부터는 추가 질문이라 질문 순서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도시재생 동기, 각 단계에서 무엇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는가, 어떤 자료를 활용하였는가
 제가 도시재생을 탐구한 이유는 우리나라 도시여행이라는 책을 읽고 한국 지리 시간에 배운 도시 재생에 대해 실제 사례를 알게 되었고 도시재생에 어떻게 진행되고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창신동과 문래동을 선정한 이유는 그 책에서 그 사례가 소개되어있어 대표적인 사례라고 선정해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탐구하였습니다. 그다음 도시 재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해 도시 해석이라는 책을 읽었고 그 책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은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복지 사업의 차원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신동 도시 재생 사업은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소리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택들이 밀집한 그 지역은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개선되기는커녕 페인트 칠로 겉치레만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그 지역은 주민들의 경제적 독립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주민 참여가 부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2. 동아리, 남중국해 배운점, 활용

저는 남중국해를 비롯한 국제적인 여러 갈등에 대해 배우며 세계의 여러 나라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는 이를 평소 제 삶에서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3학년 때 학급 부반장을 하며 우리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세한 예시도 들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암튼 이런 식이었습니다!)

3. 교사가 된다면 어떤 분야를 어떻게 가르치고 싶은가

저는 지형학에 대해 가르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과학과 세계지리를 배우며 다양한 지형과 대지형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져도 보고 경험해 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지형에 대해 가르친다면 증강현실인 AR과 가상현실인 VR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탐카르스트 같은 지형들은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AR을 이용한다면 아이들에게 직접 이러한 지형들을 보여줄 수 있고 생생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지구과학이나 다른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굳이 지리교육과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지리를 선택한 이유는 그러한 다양한 분야와 서로 연결지을 수 있는 지리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지리는 이렇게 자연환경과 관련해서는 지구과학과 그리고 인문지리와 관련해서는 정치, 세계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리라는 학문이 정제된 학문이 아닌 여러 학문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야라는 점이 제게 큰 흥미가 되어서 지리교육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5. 나의 가장 큰 장점은?

제 가장 큰 장점은 남다른 호기심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드나잇인파리 라는 영화를 보고 프랑스 미술에 빠져 지역이해 시간에 이를 조사해보았고 소득불평등에 대해 궁금해서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를 탐구해 보는 등 다양한 과목에서 여러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특히 제가 지리교육과에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리는 종교, 경제, 지형 등 아주 다양한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식을 축적한 것은 지리교육자로서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일단 무조건 일찍 가세요! 학교도 넓고 학생도 많지만 주차공간이 넓지 않아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넓어서 길을 찾는데 헤멜수도 있으니 일찍 가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친근한 사람 앞에서(ex 담임쌤) 말을 잘한다면 미리 학장님 얼굴을 익혀가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사이트를 교육과정이나 목표를 보기위해 들락날락하다고 학장님 얼굴이 눈에 익었는데 진짜 도움이 되었어요! 내적 친밀감이라고 할까요!! 처음에 중심 질문은 2개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두 질문이 진짜진짜진짜 길어요! 처음 1, 2번은 제가 요약한거지만 배경 설명을 짚하시고 설명도 엄청 길게 하세요! 질문이 뭐였는지 기억하는게 진짜 힘들었어요! 2번은 특히 다시 한 번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실 들어갔을 때 페이스셔널 랑 앞에 아크릴 판까지 있어서 소리가 정말 안들려요! 저는 몸을 좀 앞으로 숙여서 잘 듣기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심각하다면 이점 주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답변이 막히면 잠시 생각해본다고 하면 됩니다! 면접관 두분 모두 친절하게 편하게 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편하게 해주셨어요! 그니까 긴장풀고 하고 싶은 말 모두 끝까지 하고 나오길 바랍니다!! 파이팅!!!

고 려 대 학 교

대학명	고려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학과명	지리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예비3
전형유형	계열적합형	전형명	계열적합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 시간	면접 위원 수: 2명 조별 학생 수: 21분 준비, 7분 발표	
	인원 수	18명이나 그것보다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면접 절차	8시까지 입실, 30분정도 설명하고 시작(전자기기 제출, 참고자료 가능, 시작하고 30분은 화장실 제한), 3시간 대기, 고사실로 각 조마다 한 명씩(총 15명 정도) 이동, 노트북으로 21분 타임제고 앞에 감독관, 면접실로 이동해서 발표	
기타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 제시문 가 - 유토피아
- 제시문 나 - 규제사회?, 성과사회
- 제시문 다 - 칼뱅 직업소명설
- 제시문 라 - 노동의 종말, 노동없는 사회

첫 질문은 제시문은 가, 나, 다를 비교하는 내용이었는데 목적과 결과에 따라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답변: 제시문 가의 유토피아의 목적은 각자 자신의 몫의 노동을 하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시문 나의 목적은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사람들은 개인적 보람이나 다른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시문 다는 신의 은총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 검소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결과를 두 개로 묶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토피아와 칼뱅이 이야기하는 사회에서는 개인들이 목적을 갖고 노동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두 사회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제시문 나에서는 그저 사회 발전이라는 목적만 있을 뿐 개개인은 존중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라 상황을 설명하고 그것을 가와 (나 or 다)를 통해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답변: 제시문 라의 상황은 고용없는 성장을 이야기 하며 인간의 노동이 사라질 미래를 이야기 합니다. 이 때문에 직업을 갖지 못하는 잉여인구가 많아질 것입니다. 또 제시문 가의 유토피아를 살펴보면 모두가 공정하게 노동을 합니다. 이것을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개인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은 인간에게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자신이 사회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증명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 상황이 매우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시문 하나가 기억이 안나요)

세 번째 질문은 각 제시문을 가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답변: 제시문 가는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이상사회인 유토피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규율사회는 어떻게 비판했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성과사회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면 그들은 패배감을 느끼고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초과근무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회는 유토피아에 반하는 사회입니다. 그들은 평등하게 근무해야 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해야하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시문 다는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동을 행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을 위해 일을 해야합니다. 유토피아에서도 자아 실현과 자신을 위한 노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 다는 노동을 대하는 관점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라의 노동 없는 사회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사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앞 답변에서도 말했듯이 노동이란 인간에게 정말 큰 가치를 지닙니다. 따라서 일부러라도 정부에서 기업에서 인간에게 노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가번호가 좀 뒤긴 했지만 그렇게 오래 기다릴지는 몰랐는데 7시 30분쯤가서 11시까지 대기 했어요! 대기시간이 정말 길고 지루해서 저는 중간에 수학문제도 풀면서 머리를 좀 리프레쉬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복잡하면 생각이 잘 안될수 있거든요! 저같은 경우 사회문화를 듣지 않아 관련 지문이 나오면 많이 어려워 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여서 그 점이 좀 힘들었어요! 고대 인문계쪽을 준비한다면 자신이 약한 과목 분야를 파악하고 관련 지문을 접했을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습할 때 제시문에 밑줄 그으면서 연습했는데 고사장에서는 그 종이가 코팅되어있어서 좀 당황했어요! 미리 답변이나 정리할 상황은 모두 답변 종이에만 적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을 잘 했다면 21분이 엄청 다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답변을 모두 했다면 30초 정도 자신이 답변할 흐름에 대해 정리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답변할 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다들 파이팅해!!!

공 주 대 학 교

대학명	공주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특수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8번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영상 업로드(3일 주어짐, 1분 30초이내)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급금지 : 수험번호, 학교, 이름, 학과 - 교복 착용이 불가하므로 셔츠나 목티를 추천함. - 원서 접수 사이트에 들어가서 업로드를 해야 하므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업로드 해야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함으로써, 그동안 입시나 성적에 지나치게 치중했던 교육 현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고교학점제로 변화될 미래의 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어떤 자질과 역량을 갖추어야 할지 이야기해 보시오.

[답변]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사는 정보탐구능력을 바탕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해 정확한 숙지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전달하는 정보를 통해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목표를 자기주도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맞는 과목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가 안내자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의 진로, 적성에 대한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감능력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복수전공 시스템을 통해 다과목 교수학습능력을 갖추고,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개설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된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소통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교원들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는 교과목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생활지도 및 자치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학교 생활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러한 자질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 배우고,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 질문의 요점과 평가요소를 파악하고 답변을 준비해야 함.
- 답변을 쓰고 나면 여러 선생님들께 검토 받는 것이 수정에 도움이 됨.
- 모든 문장을 외우기 힘들기 때문에 자신의 말로 바꿔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함.
- 업로드를 여러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

공 주 대 학 교

대학명	공주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특수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6번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대기실에 입실→마스크를 잠깐 내려서 신분증과 얼굴 확인, 전자기기 제출, 면접 가번호 배부 후 옷에 부착→각자 자신 면접 순서 대기→옆방으로 이동 후 면접 시작(10분)→자기 면접 끝나면 바로 귀가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열체크 인증 스티커를 마스크에 부착해야 하므로 최소 10분 전에는 가야 함. - 면접대상자 공지가 뜬 후에 준비물을 잘 보고 빠트림 없이 챙겨가야 함. 		

질문 및 답변 내용

(면접관님-남자1명, 여자1명)

[질문] 3학년 때 성적이 비교적 떨어졌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암기 위주의 학습법에서 탐구형 학습 방법으로 바꾸면서 시간 계산을 완벽히 해내지 못했다는 아쉬운 부분이 성적 하락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탐구형 학습 방법은 학습한 내용에 대한 장기기억에 도움을 주었고, 학습동기와 성취감 측면에서 자존감을 높여주어 대학 공부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학급 실장과 부실장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힘들었던 점과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해주세요.

[답변] 제가 학급 실장을 맡으며 힘들었던 점은 학급 운영 과정에서 자기 의견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혹시 분위기에 휩쓸려 동의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 저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며 급우들에게 믿음과 열정을 보여주었고, 익명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소통 방법을 넓히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급우들의 속마음을 더 깊이 파악할 수 있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학급을 운영하면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질문] 2학년 1학기에 장애인식개선백일장 수상을 하였는데 어떤 내용이었고, 무엇을 느꼈는지 말해주세요.

[답변] 이 백일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영상을 보고 소감문을 작성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 영상을 온라인 수업으로 접했기 때문에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인 이 시기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비대면수업으로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실시간 화상수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학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했고, 청각장애나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맞는 자막이나 점자 학습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애 유형별로 온라인 플랫폼을 제작한다든지 세심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에게 pc사용법을 가르쳐야 하고, 발달 장애의 경우 교과중심의 수업보다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기에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대회에 참여하면서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던 저는 사고를 확장하고 더 넓은 시야로 학교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의 교육공간 혁신이나 미래 신기술(보조공학기기)과 같은 탐구 활동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해주세요

[답변] 제 장점인 공감능력과 의사사통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당당하게 나서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한 점도 많지만 공주대학교에서 교수님들과 선배님들께 많은 조언과 지식을 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교수님이랑 조교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기 때문에 긴장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 편히 하고 싶은 말이랑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고등학교 생활을 해왔는지 어필한다는 느낌으로 갔다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대학명	한국교원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특수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예비 3번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우수자	전형명	학생부종합우수자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대기실에 입실→마스크를 잠깐 내려서 신분증과 얼굴 확인, 전자기기 제출, 면접 가번호 배부 후 옷에 부착→각자 자신 면접 순서 대기→제시문 답변 작성(10분)→옆방으로 이동 후 제시문 답변(3분), 교직인적성 개방형 질문(7분)→자기 면접 끝나면 바로 귀가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시간보다 30분 일찍 와서 면접대기실 파악하기 - 개방형 질문은 시사문제라기보다는 학교생활 속 질문이 많으니 학과 관련 해서 하고 싶은 말 또는 키워드와 의미있는 학교 생활 경험을 정리해가면 도움이 될 것 같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제시문에 대한 답변 후)

[질문] iot에 대해 말했는데 그게 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해줄 수 있나요?

[답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상식선에서 말함) iot란 사물인터넷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리모컨 작동을 통해 연결된 다양한 사물들을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정용 iot가 있습니다.

(개방형 질문 시작)

[질문] 특수 교사가 가져야 할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적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답변] (서류 면접을 하며 준비했던 기반으로) 저는 특수교사가 가져야 할 많은 자질 중 '인내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공동체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크게 인내심을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어 수행평가를 위해 모둠 활동을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시험기간이라 빠르게 진행하고 시험공부를 할 시간을 확보하고 싶었지만 모든 친구들이 과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다른 만큼 그것을 고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이 느리거나 생각이 많이 필요한 친구들을 기다려주고 격려하며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함께 힘썼습니다.

[질문] 특수 교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답변] 제가 1학년 때 제 학급에는 전환교육실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전환교육실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친해지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또래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다가가고자 하여 지원 하였지만 가위바위보를 저서 안타깝게도 할 수 없었습니다.(교수님들이 웃으심) 그래도 저는 이 역할을 같은 반 친구로서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친해지기를 포기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말도 걸며 함께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같은 반 또래도우미 친구가 학교에 오지 못해서 제가 그 역할을 대신해 이동수업을 도와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그 친구의 휠체어가 미술실 방지턱에 걸린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불편했을지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지턱을 없애달라고 건의를 하였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특수교육 학습자인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더 평범하게 해낼 수 있도록 돕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이 더 질문하시려다가 타이머가 울림)

[교수님]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

후배들을 위한 조언

- 면접관님이 학과 교수님이셔서 학교 홈페이지 교수님 사진 보고 면접 연습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음.
- 제시문 면접에 크게 겁먹지 마시고, 자신의 생각을 진심으로 말하면 됨.(모르겠거나 시간상 준비하지 못한 것은 솔직하게 말하면 됨.)
- 제시문 면접보다는 개방형 질문에 더 비중을 두시고 관심있게 들으시는 것 같음.
-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질문을 교수님 세 분이서 돌아가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선을 맞추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음.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대학명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유아특수교육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나비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비대면 영상 업로드 방식 면접 당일, 지정된 시간에 발표되는 면접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날 지정 시간까지 정해진 URL에 들어가 면접 답변을 녹화하는 형식으로 진행함.		
기타 유의사항	비대면 녹화이다 보니까 실수가 더 부각 되는 면이 있음 녹화하고 확인을 반복해서 최상의 녹화본을 도출해야 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1. 우리 학과(전공)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중요시 여긴 교과목과 그 교과목의 성적 향상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2. 우리 학과(전공)를 진학하기 위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한 교내 활동과 그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말씀해 주세요.
3.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1번 문항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본래 유아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애 이해 교육 활동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친구들과 나누면서 흔히들 사용하는 욕설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캠페인에서 장애의 정의, 유형, 특성과 비하 발언 방지 등 장애인 편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저는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장애에 대한 교육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인식을 고치도록 노력한다면 장애아동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상향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사명감을 가진 유아특수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아 특수교육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유아의 의사소통과 교육에 있어서 언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저는 국어의 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과서에 일부만 발췌된 소설을 도서관에서 찾아 읽어서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하게 되었고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본문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반 친구들에게 정리하여 가르치며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을 탐구하여 발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니체의 언어관과 진리에 나오는 개념인 메타포로 인해 발생한 언어의 자의성을 적용해 유아의 언어 발달 과정을 니체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심층적으로 탐구하면서 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학교 성적뿐 아니라 모의고사 성적까지 향상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2번 문항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유아교육 및 유아특수교육에 도움이 되는 3년간의 장기적인 동아리활동 및 자율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1학년 때는 사회 전반의 여러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기자가 되어 사회 문제를 보도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아교육이나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와 사회적 인식에 대한 사고를 확장시키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2학년 때는 교육토론 동아리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교육의 문제점과 대면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훌륭한 교사상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면서 저의 교사상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3학년 때는 학급에서 이뤄지는 자율활동으로 ‘오디오북’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목소리 기부를 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영상 동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직접 소리를 녹음하고 그림을 그려 영상 동화책을 만들어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먼저 ‘교내기자단’에서 일상적으로 보도된 뉴스에서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위험성을 알아 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였으며 유아교육과 관련된 기사를 접하며 제가 기자가 되어 유아교육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법적 처벌수준을 시각화하여 보여줌으로써 다른 학생들에게 아동학대의 경각심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기사단 활동을 통해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의 원인, 처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뿐 아니라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여러문제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학년 때 동아리 ‘단송’을 통해 훌륭한 교사상에 대해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시간이 길어지자 온라인 토론을 통해서 이전에 학교생활에서의 만족감과 훌륭했던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 제가 교사가 된다면 과연 어떤 교사가 되어야할까? 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단방향 수업을 직접 경험하면서 인간관계에서 소통이 없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절실히 느꼈고 선생님과 소통하며 웃고 떠들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이에 교사로서 아이들을 대할 때 무엇보다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3학년 때는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교육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직접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에서 ‘오디오북’ 프로그램을 만들어 목소리 기부를 하면서 책을 읽어주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동화책 내용에 목소리와 그림을 그려 영상으로 제작하여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들려주었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경험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즐겁고 재밌어해서 저 역시도 무척이나 기뻐합니다. 저는 사실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이 아주 다를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서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막상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니 모든 아이들은 사랑받을 권리를 타고난 것이며 이 사랑을 통해 아이들은 행복을 추구하여야 하며 이것이 유아교육이든 유아특수교육이든 다르지 않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제가 유아특수교육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3번 문항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도서관에 들어가 매일 도서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도서대출 반납, 서가 정리정돈, 장서 관리, 독서교육 홍보, 독서 행사 진행 등의 일을 하면서 1학년 때는 도서 대출도서와 반납도서를 혼동하는 등의 실수를 하고 도서관에 대출하러 오는 선배들을 어려워하며 책을 찾는 질문에만 수동적으로 답했지만, 점차 먼저 다가가 도와주고 도서 탐색과 도서관 홍보 등에 어색함과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2학년 때는 제가 후배를 가르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후배가 어떤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어려움을 겪는 곳에서는 먼저 시범을 보이고 스스로 해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가르쳐주었습니다. 도서관 활동을 하며 독서 주간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동화구연 부스를 기획부터 홍보 1인 다역 구연까지 하면서 행사를 실현하는 것이 과정 과정마다 세세하게 신경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직접 느꼈습니다. 처음 무대 올라갔을 때 전교생이 방송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에 무섭고 떨렸지만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운 주고 싶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으면서 자신감 있게 동화구연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힘들었지만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그 모습이 무엇보다 큰 힘을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던 지금까지의 경험이 나에게 이로운 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문제가 공개되기 전 빨간색 볼펜으로 본인의 생활기록부에서 관련 활동에 밑줄을 치고, 공개 되면 빠르게 보면서 형광펜으로 면접 대본에 들어갈 문제와 관련된 활동에만 줄을 칩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대본을 내가 했던 활동과 학과의 연계성, 느낀 감정 등을 생각해 작성합니다. 만약 문제에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을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대면 면접은 시선 처리나 자세 발음 등을 매우 신경 써야 하고 촬영 때 괜챻아도 동영상 재생하면 이상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본 숙지는 필수입니다. 만약 업로드 시간이 다시 영상을 찍을 수 없을 만큼 촉박한데 영상에서 실수했다 싶으면 자연스럽게 그 문장을 이어서 가는 수밖에 없고 괜히 당황해서 시간이나 자세가 흐트러지면 뒤의 내용도 헛갈릴 수 있으니 주의 하길 바랍니다.

한국교원대학교

대학명	한국교원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독어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학생부종합우수자 일반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1. 면접순서 추첨 2. 본인 차례 전, 다른 교실로 이동해 10분 동안 제시문 분석, 의견 정리 3. 면접실에 들어가 질문에 맞게 답변		
기타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제시문, 질문 내용 요약

- ▷ 첫째.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불가피하게 진행하고 있다. 본인 전공 수업에서 중요한 요소를 키워드 3가지로 정리하고, 온라인 수업에서 적절히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말해보시오.
- ▷ 둘째. 온라인으로 본인 전공 수업을 진행할 때, 소외되는 학생들을 생각해보고 해결방안도 함께 제시하시오.

(편안하고 함께 웃는 분위기)

질문1.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해주세요.

답변. 독일어 과목은 언어뿐만 아니라 독일의 문화, 생활 모습까지 함께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첫째반복, 둘째 문화, 셋째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언어는 반복적으로 듣고 말하는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올바른 발음을 구사하지 못하고, 독일어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동영상 자료와 학습지를 제공하여 반복을 통해 학생들이 집에서도 독일어를 친숙하게 여기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메타버스나 온라인전시 등을 활용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박물관에서 온라인으로 전시를 진행하는데, 이를 활용한다면 직접 독일에 가지 않고도 학생들이 생생하게 독일의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공간적 제약, 시간적 제약 모두 없다는 부분에서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이는 충분히 활용될 것입니다.

마지막 키워드인 참여를 위해서는 학생이 직접 말할 수 있도록 발음을 녹음하고 직접 작문하는 수업을 할 것입니다. 많은 자료를 제공하더라도 이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녹음, 학습지 작성 등의 활동과 과제를 진행할 것입니다.

질문2.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해주세요.

답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외곽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학습자료를 얻으러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거나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 e북을 준비하고, 영상자료, 활동에 필요한 사전 자료들을 충분히 제공하여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질문3. 아까 첫 번째 답변에서 메타버스같은 플랫폼을 말해줬는데, 혹시 비슷한 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답변. 메타버스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플랫폼을 활용한 수업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시간에 세계문화유산을 알아보는 단원에서 유네스코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싶은 문화유산을 선택한 후, 그 문화유산을 화면으로 살펴보며 특징을 적고 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이때 스스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이 매우 재미있었고, 교과서 외의 지식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질문4. 우리 과에 왜 지원했어요?

답변. 처음엔 교육이 유명한 국가, 라는 것만으로 독일어를 수강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어 수업을 들을수록 언어 안에 숨어있는 독일의 지난 역사와 문화들을 발견하며 독일어 자체에 대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후 제가 느낀 즐거움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독일어를 배우는 기쁨을 전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질문5. 답변에서 독어에 관한 흥미를 느꼈다고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요?

답변. 독일의 유명 학자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교육자인 ‘프뤼벨’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때 이 학자가 유치원인 ‘der Kindergarten’, 유명 교육 교구를 뜻하는 ‘Gabe’ 등을 독일에서 처음 만들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서 다양한 교육 용어가 독일에서 탄생함을 통해 독일은 과거부터 교육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언어 속에 담겨있는 독일의 역사에 저는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질문6. 고교학점제에서 독일어 과목이 선택 과목이 될 텐데 어떻게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을까요?

답변. 독일은 4차혁명에 관련된 기술과 교육, 문학, 철학 등이 유명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독일어를 수강하려는 학생들은 독일어 자체에 관한 관심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로를 위한 학생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독일어를 의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독일의 유명 기술이나 교육 사상, 학자, 또 이에 관련된 단어도 균형있게 수업에서 다룰 것입니다.

질문7. 독일어로 자기소개 간단히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아 혹시 준비 해왔나요?

답변. 준비해오진 않았지만,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Guten Tag. Ich bin Neunzehn Jahre alt. Ich komme aus Korea. Ich liebe Deutsch und Deutschland. Danke. 감사합니다.

질문8. 독일어로 마지막 인사 해볼래요?

답변. 기억이 안나는데...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배웠는데 긴장해서 기억이 안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교원대 면접은 훈훈하고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말을 잘하고, 더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학생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의견, 추구하는 교사상 등을 뚜렷하게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긴장하지 말고 본인의 생각을 마음껏 펼치고 온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 대기실, 면접실에 들어가면 10분이라는 시간이 1분과도 같이 흘러갑니다.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제시문 기출을 많이 연습한다면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질문에 답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 원 대 학 교

대학명	서원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추가합격
학과명	역사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1번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형명	지역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비대면 면접방식 : 동영상 녹화 파일 제출(업로드) • 공개된 면접문제 중 수험생의 임의 선택한 2문제에 대한 지원자의 답변을 동영상으로 직접 녹화하여 제출(업로드) • 일반전형과 지역인재전형에 복수지원한 수험생은 각 전형별로 녹화 영상 업로드 제출		
기타 유의사항	• 반드시 면접 2문항에 대한 수험생의 답변을 1개의 파일에 저장하여 제출해야 함. 일시정지, 연속촬영모두 가능하며 답변을 각각 촬영 후 자연스럽게 하나의 파일로 이어붙이는 정도의 편집은 허용. • 동영상 업로드는 제출기간 내에 재 업로드가 가능하며 마지막 업로드된 영상이 평가대상임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우리 대학 역사교육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답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역사 관련된 책이나 영화를 보면서 역사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역사를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과정에 즐거움을 느끼며 역사 교사라는 꿈을 키워갔습니다. 서원대 역사교육과를 알아보던 중 정돈된 교육과정인 구체적인 역사지식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습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임용고시를 위한 많은 지원과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매년 임용고시 합격자 수가 많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범대의 오랜 전통과 중등교사 양성 시스템이 우수한 서원대학교에서 역사 교사의 꿈을 이뤄보고 싶습니다.

[질문] 학생들을 위해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 역사수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수업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졌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의 재판과 토론을 통해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재구성하여 올바른 행동이었는지, 처벌받아야 하는지 판단해봄으로써 역사에 대한 이해력과 사고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역사의 한 장면을 연극으로 표현하면서 역사 속 인물이 되어 보는 시간을 가지며 시대적 상황과 인물의 개인적 상황들을 공감할 수 있게 도와주겠습니다.
 배운 역사나 지역의 역사는 학생들과 함께 유적지 탐방을 하여 역사의 현장에서 역사의 소중함과 역사적 인물들의 숭고한 정신을 느끼며 학생들에게 많은 추억과 교훈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원 광 대 학 교

대학명	원광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역사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예비 1번
전형유형	수시	전형명	서류면접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대기->면접		
기타 유의사항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1. 타 대학 유사학과의 존재함에도 우리 대학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원광대학교 역사교육과의 교육목표 중 “역사 전반에 걸쳐 많은 역사자료를 섭렵하고 궁구하여 주체적 역사의식을 갖춘 역사교사” 라는 대목에 집중하여 평소 역사적 사건을 조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왜 그런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이 이후에 끼친 영향 등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의 성향에 잘 맞는 것 같아 지원하였다

[질문] 2. 역사교사가 되었을 때 어떤 포부를 가지고 수업에 임할 것인가.

[답변] 학생들에게 주도권을 넘길 것이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아무리 좋은 교사, 좋은 교부재를 가지고 수업에 임할지언정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업은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개인의 흥미와 적성은 다르고 역사라는 과목의 경우 그 정도가 다른 과목보다 더 강한 성향을 보인다. 학생들에게 수업의 주도권을 넘겨 학생들 스스로의 활동을 지원해준다면 각자의 흥미와 적성을 과목에 대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질문] 3. 한국사, 동아시아사, 현대사 중 가장 흥미있었던 것은 무엇이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세계사에 가장 큰 흥미를 느꼈다. 역사라는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현재 사회에 대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한국사는 아무리 가까워도 대한제국, 동아시아사도 중일전쟁시기에서 항상 진도를 더 나가지 못했다. 하지만 세계사는 유럽 각 국의 현재 동향과 2차대전 이후 근현대시기까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흥미로웠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옷 잘 입고 열심히 준비해서 원하는 학과 가시길 바랍니다! 예비 사범대생들 화이팅

고 려 대 학 교

대학명	고려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역사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
전형유형	수시(학생부종합)	전형명	학업우수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 [면접 시작 전]**
- 코로나 시국에도 서연고 중에서 유일하게 고대 선배님들께서 간식을 나눠주심.
 - 면접 건물 입실 전 수험표와 신분증 제시함.
 - 건물 내부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체온 측정하고 수험표 보여 주면 조와 번호 란에 면접 조와 면접번호를 작성해 줌.
 - 이후 안내 조교 안내에 따라 위 층으로 올라가고 면접 조에 따라 두 곳으로 나누어 면접 대기실 입실함.
 - 대강의실 같은 공간에 미리 붙여진 면접 조 및 번호에 따라 착석하여 기다림
 - 자신의 차례 오기 전까지 어느 면접 자료든 볼 수 있음.
 - 하나의 대기실 안에 3열의 대기조가 있고, 한 열의 대기조에서 앞 번호 순으로 한 명씩, 총 3명이 한번에 면접 대기실을 나가 면접실로 이동함.
 - 감독위원 외에 3~4명 정도의 조교가 따로 있고,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면접실 반입금지물품 수거하고 면접실로 이동할 학생의 면접번호를 부르면서 준비하라고 함.
 - 각 열마다 한 명의 학생씩 나와 총 3명 모이면 한 줄로 제시문 문제 푸는 장소로 이동함.
 - 화장실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조교가 화장실 희망 학생을 묻고 학생이 충분히 모이면 갈 수 있음. 단, 급한 경우에는 손을 들고 말하면 보내줌.
 - 면접 대기실에서 나가면 옆 건물의 제시문 문제 푸는 곳으로 올라감.
 - 한 방에 거의 20~30명 정도 들어가서 제시문 관련 유의사항 안내 받고, 앞에 노트북에 있는 타이머(12분)에 맞춰 제시문 분석 시간을 가짐.
 - 제시문은 파일철 안에 있어서 빼거나 필기할 수 없고, 수험표에도 필기할 수 없으며, 무조건 미리 배부된 제시문 연습지(A4규격, 위 해당란에 성명, 수험번호, 응시전형 등을 표기할 수 있음)에 분석함.
 - 12분이 지나면 어디에도 필기할 수 없고 차례대로 제시문 분석실을 퇴실하여 본격적으로 면접실로 이동함. 이동 시 제시문 분석지를 들고 가므로 그동안 잠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음. 주변에 같이 이동했던 수험생 대부분이 그 연습지 보면서 감(따로 제재 없음)
 - 수험생 한 명당 한 면접실로 들어감. 들어가면 책상 위에 노트북과 마이크 있고, 감독위원 한 분 계심.
 - 감독위원이 면접에 들어가기 전까지 QR 코드 찍기, 설정하기, 입실하기 등

	<p>모든 동작 다 해주셔서 수험생 본인이 조작하거나 할 건 없음. 단지 준비하 기만 하면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험표에 있는 QR코드 찍으면 입실하기 버튼이 나오고 면접관이 준비되면 시작한다고 알림. - 입실하기 누르면 면접위원 두 분이 보이고 본격적으로 면접 시작함. <p>[면접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위원 중 왼쪽에 계신 분이 남자 면접위원이셨고, 오른쪽은 여자 면접위 원이셨음. - 노트북 화면 중앙 가득 면접위원 두 분이 보이고 좌측 상단에 본인의 모습 작게, 우측 상단에 경과시간 표시됨. <p>[면접 이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실 앞 의자에 두었던 본인 짐 챙겨서 개별 퇴실함. - 건물 퇴실 직전에 수거되었던 본인의 전자기기가나 기타 소지품을 가지고 퇴실함.
<p>기타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기기는 물론이고 아날로그 손목시계까지도 지퍼백에 넣어 제출함. 본인의 경우 처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가 감독위원께서 안내해 준 이 후 한 번 더 확인질문 후 착용하고 갔던 아날로그 손목시계까지 제출함. 이때 손목시계 제출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부정행위 처리되니 유의 필요 - 앞에 감독위원 한 분이 계속해서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해 줌. 본인 생각이 랑 다른 유의사항 있을 수 있으니 한 번 정도는 경청하길 바람. - 방이 여러 개인데, 1~2개 방 정도에는 이미 제시문 문제를 풀고 있어서 매우 조용하기 때문에 이동 시 정숙해야 함. - 입시요강을 보면 학생부 관련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공통 질문 정도는 준비하고 가야 함. - 면접 대기실을 한 번 나가면 돌아올 수 없으므로 모든 소지품을 챙겨서 나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공통) - 연세대는 제시문 문제를 푸는 장소와 답변하는 장소가 같고, 고려대는 다름. 다만 고려대의 경우 답변하는 장소 책상에서 노트북 우측에 제시문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제시문을 보면서 답변할 수는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제시문 면접)

제시문은 3개, (가)는 칼 포퍼의 소극적 공리주의에 대한 설명과 적극적 공리주의와의 비교, (나)는 국가 행복지수에 관한 내용으로,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가 우리나라에 비해 국가 행복지수의 다각적인 세부 지표에서 더 높은 순위를 보인다는 점이 기억에 남음. (다)의 출처는 분명치 않으나 수필 형식의 문학 작품 중 일부였던 것으로 기억함. (다)는 저자가 이사를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복잡하게 얽혀 있어 스트레스를 주던 인간 관계나 환경 등을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관계와 환경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음.

문제는 3개, 1번은 제시문 (가)의 소극적 공리주의의 개념을 묻는 것으로, 제시문 해석과 요약에 관한 문

제였음. 2번은 제시문 (나), (다)를 활용해서 적극적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소극적 공리주의의 입장을 비판하는 문제였음. 3번은 소극적 공리주의 개념이 적용된 정책 하나를 사례로 들고, 그것의 장단점을 말하라는 문제였음. 본인의 경우, 2번에서 소극적 공리주의에 따르면, 고통의 제거가 진정한 행복이라고 보는 입장인데 단순히 국가에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국가 행복지수가 높은 진정으로 행복한 국가가 될 수 없다는 논조로 대답했음. 3번의 경우, 적극적 우대 조치를 사례로 들고, 그것의 장점으로 그동안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보상과 사회 정의의 실현, 단점으로는 역차별 문제를 제시했음.

왼쪽의 면접위원께서 '긴장하지 말고 차분하게 준비한 거 대답해 보세요~'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음. 그래서 긴장하지 않고 차분히 말할 수 있었음.

면접위원 두 분이 화면에 나타나고 나서 처음 인사('안녕하십니까!')하고, 면접위원이 답변 시작하라는 말 듣고, 그때부터는 본인이 준비한 거 답변하면 됨.

본인은 5분 55초 정도에 답변을 끝마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등 일체 제시문 외 질문 없었음.(하지만 입시요강에 학생부 관련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 있으면 공통 질문과 전반적인 활동 정도는 알고 갈 것)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라고 끝맺는 말을 했더니, 면접위원께서 '예~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해 주시고 면접 종료됨.

후배들을 위한 조언

- 1. 최선을 다하십시오:** 고대의 경우, 면접 있는 연대의 추천형과 달리 면접이 있는 학업우수형에 다소 높은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조금만 열심히 하고, 면접에서 아는 것, 모르는 것 다 털어 놓고 온다는 마음으로 임하면 합격,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갔을 때는 최저 때 문인지 결시자도 꽤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면접뿐만 아니라 어떤 학교 생활에서든 '이정도 까지면 되겠지'라는 마음보다 최선을 다해 끝까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하면 분명 뿌듯한 결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 2. 수능 최저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고대 학우 면접의 경우 수능 이후 실시되었는데, 자신이 최저를 못 맞춘 것 같다고 면접 준비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맞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경우 다른 대학 면접 준비에 전념할 수 있지만, 애매한 경우 최저에 대한 관심은 잠시 접어 두고 최선을 다해 면접을 준비하십시오.
- 3.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실전처럼, 꾸준히, 논리적 말하기 방법을 사용하여 연습해 보십시오.** 여기에 교과서, 시사 상식 프로그램과 영상, 뉴스 기사 등을 통해 배경지식을 늘리려는 노력까지 덧붙인다면 훌륭합니다.
- 4. 면접관을 바라보십시오:**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대방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면접관이 보기에 자신 없어보이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와 같이 비대면 녹화 제출 방식이 아닌, 면접관을 보고(대면/비대면 모두) 면접을 볼 경우 반드시 면접관을 바라보며 대답하십시오.

서울대학교

대학명	서울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역사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
전형유형	수시	전형명	지역균형선발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시에서 8시 15분 사이 입실 -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체온 측정하고 수험표 보이고 문진표 작성한 거 제출 - 대기실로 들어가면 8시 20분쯤에 수험생 안내사항 전달받고 모든 전자기기 가방에 넣어 뒤에 갖다놓기 때문에 그후에는 면접 관련된 자료 못 봄 - 면접 대기실에는 간격을 두고 개인별 책상이 놓여 있음. 가림막 있고, 장갑, 페이드실드(직접 조립해야 함. 조립하는 법 모르면 알려 줌), 핫팩 있음. - 화장실은 손 들면 감독관 동행 하에 1명씩 이용 가능 - 부여받은 가면접번호 순으로 면접 실시 - 페이스실드와 장갑, 마스크 착용한 상태로 면접 실시 - 대기실에서 불리면 감독위원 따라 면접실 바로 앞으로 이동하여 잠시 대기 하고 짐은 그 앞에 놓음 - 대기실 앞에서 인적사항 확인하고 수험생 유의사항 다시 한번 읽은 후 노크 한 후 입실 시작함 - 면접실은 작은 편. 교수님과의 거리도 멀지 않은 편.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실 내 교수님과 본인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심지어 면접자는 페이스 실드까지 착용함과 동시에 교수님과 면접자 책상 앞에는 가림막까지 있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잘 안 들림. 특히 작게 말씀하실 때는 정확히 듣지 못한 질문도 있었음(면접 질문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질문은 아니었음.) 따라서 교수님께서 질문하시거나 발언하실 때에는 정말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함. - 어느 대학 면접이든 마찬가지이지만, 반드시 본인 옷이나 가방 등에 면접실 반입금지물품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함. - 면접 대기실을 한 번 나가면 돌아올 수 없으므로 모든 소지품을 챙겨서 나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공통) 		

질문 및 답변 내용

(노크)

본인: (인사)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11번?

본인: 예, 맞습니다.

(착석)

[질문1-1] 이 전반적으로 E.H.카의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탐구를 한 것 같아요. 이 말을 탐구해서.. 그 의미를 내재화해서 역사관을 확립했다는 말도 있고...(자소서랑 세계사 세특에 있는 내용) 그래서 이 말(역사란~대화이다)이 뭘 뜻이예요?

[답변] 저는 에드워드 카의 그 말을 접하고 의미를 알기 위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어 보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명확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탐구 활동을 통해 제 나름의 결론을 얻고자 했습니다. 탐구 결과, 그 말은 과거에만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역사가 현재와, 미래에 교훈과 지혜를 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결론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후속 탐구를 전개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E.H.카가 자신의 상대주의적 역사관을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질문1-2] 그럼 그 말에서 ‘대화’라는 게 뭐예요? 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답변] 에드워드 카는 어떤 역사가가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주관과 견해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다양한 견해에 따라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과정을 나타내기 위해 대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질문2-1] 세계사 시간에 이슬람 역사랑 그 종파에 대해 탐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이슬람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가 그 아래에 많은 종파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종교마다 종파가 나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답변] (예상치 못한 질문) 아... 생각할 시간을 잠시 가져도 되겠습니까?

교수님: (끄덕끄덕)

(생각 중) - 생각 중이었고 아직 답변하기 이전이었는데 오른쪽에 계신 교수님께서 제게 힌트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때 힌트를 안 주시고 제 답변만 기다리셨다면 아마 저는 매우 추상적으로 답변했을 확률이 큼니다.

[유도질문2-2] 그럼 이슬람에서 수니파랑 시아파는 왜 나뉘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 안 남)

[답변] 아! 그러면 이슬람교에서 수니파와 시아파가 왜 나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니파는 이슬람교의 정통성보다는 현실적인 정치의 효율성을 중시하여 정통 칼리프 시대 이후에 등장하는 우마이야 왕조의 무아위야(발음을 조금 더듬었습니다.)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종파입니다. 반면 시아파는 현실적인 정치보다는 이슬람의 정통성을 중시하여 정통 칼리프 시대 4대 칼리프였던 알리와 그 후계의 정통성만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어느 부분을 더 중시하는가에 대한 견해 차이로 종파가 분열되었습니다.

[질문2-3] 그럼 결국 경전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갈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어...(사실 본인의 답변의 의도와 경전에 대한 해석 차이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보여서 아니라는 맥락으로 답변하려다가 경전에 대한 해석 차이를 어떻게 보면 종교의 교리 중 어떤 것에 초점을 두는가에 대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는 판단에 그렇다는 식으로 대답함) 예, 이슬람의 경전인 ... (이름이 기억 안 나서 잠시 멈춤) 코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네. (오른쪽에 계신 교수님께서 왼쪽에 계신 교수님께 차례를 넘기시는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질문3-1] 생기부를 보니까 과학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생활과 과학 시간에 창덕궁 인정전에 쓰인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도 조사했고... 타임라인 과학사 융합수업도 들었고... 근데 창덕궁 인정전의 박석의 매끄럽지 않은 표면이 난반사의 원리를 이용해서 눈부심을 방지했다... 이걸 누가 주장한 거예요? 어느, 어디에서 그런 주장이 나온 거예요?

[답변] 제가 기억하기로는 LG사이언스 과학 기사에서 그러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에도 내용의 출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음. 생략.)

[질문3-2] 이 인정전 박석이,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 한 게, 일부러 왕이 고귀하고 차분히 걷도록(빨리 걷지 않고 천천히 걷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거였어요.

[답변] (그런 사실은 몰랐었음) 아.... 예!

[질문4-1] 이 독서 활동을 보면... <반일 종족주의>를 읽었어요. 그쵸? 그리고 <탈진실의 시대, 역사 부정을 묻는다>라는 책도 3학년 1학기 바쁜 시기에 읽었고요. 이 책에서 말하는 <반일 종족주의>가 어떤 점에서 문제라고 했는지 한 번 말해봐요.

[답변] 네, <반일 종족주의>에서 주장하는 일본군 '위안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본군 '위안부'가 동원됨에 있어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탈진실의 시대)역사 부정을 묻다 책에서는 다양한 일제의 강제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가 징집되었다는, 조바 박치근의 사례와 같은 사료를 제시하며 그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가 일제의 강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피해자 할머니들과 같은 산증인도 계신데 그러한 역사를 왜곡하는 <반일 종족주의>의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4-2] 그 두 개 책을 동시에 읽은 이유가 뭐예요?

[답변] 저는 처음 <반일 종족주의>를 읽었을 때,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역사적 지식들과 충돌하는 내용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탈진실의 시대, 역사 부정을 묻는다>라는 책(정확히 제목까지 언급 안 했던 것도 같음.)과 함께 둘을 비교하여 읽음으로써 <반일 종족주의>의 책 내용을 교차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질문4-3] 책에 보면, 버마에서 일했던 일본군 '위안부'가 활동을 통해 많은 돈을 축적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 물론 일본군 '위안부' 중에는 많은 돈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많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제의 강제에 의해 돈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그런데 책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 당시 버마의 초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분석이고, 결국 이렇게 많은 돈을 받은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거의 남는 재산이 없었다는 반박 내용이 나오네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의도하고 하신 질문 같은데, 핀트를 조금 잘못 짚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4-4] (그래서 교수님께서 직접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답변] 아.. 예! 그러한 내용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이제 나가주시면 됩니다~

본인: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1. **지레짐작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면접에 응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결과를 예단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는 나오기 전까지 모릅니다. 자신의 생기부는 자신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해당 대학에서 판단합니다. 그러니 본인의 생기부에 대한 본인 혹은 주변의 평가에 휘둘러 미리 면접을 포기해 버린다는지, 반대로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을 대충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니다.
2. **진실된 생기부를 만드십시오:** 서울대 지균의 경우, 생기부 기반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좋

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생기부, 자소서, 그리고 그곳에서의 내용과 관련된 전공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활동(자율, 진로, 동아리, 세특 등 전 영역) 시 역지로 하거나, 대충 임하거나, 단순히 '생기부를 채우려면 해야지'하는 마음으로 임하면 그 활동을 했다는 기억과 기록만 남습니다. 반면, 본인이 진실되게, 정말 큰 흥미를 갖고 임한 활동은 머릿속 어딘가에 분명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교내 활동을 하더라도 본인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흥미와 열정을 갖고 임해 보십시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기간과 활동 기간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활동을 대충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잠을 줄여서라도 활동과 시험 모두 챙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3. 본인의 스토리를 만드십시오: 우리는 한 학문의 모든 분야에 다 통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본인이 정말 관심 있는 하나의 국한된 분야만을 심도 있게 연구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나 대상 몇 개에 대해 다각적으로, 간학문적으로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 분명 플러스 요소가 됩니다. 물론 그에 관련된 활동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교과 세특이나 교내 활동을 통해 다양한 탐구를 전개하되, 대학에서 '이 학생은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 같군.'이라는 생각이 드러나도록 활동해 보십시오.

4. 면접은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양한 서울대 지균 후기를 참고하면, 분명히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합격하거나, 면접을 잘 봤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움에도 최초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달리 말하면, '30'이라는 면접의 비율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면접에서 강한 인상과 임팩트를 줄 경우 본인보다 서류에게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은 지원자보다 분명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이라는 비율은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최선을 다해 면접을 준비하면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에 연연하지 말고, 면접에 임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 지균 면접을 준비할 때는 전공 지식도 꼼꼼하게 준비하십시오: 본인의 경우, 서울대 지균 면접에서 단순히 활동의 계기,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을 주로 물어봐 주시지 않았습니디. 오히려 책의 내용(역사적 내용), 역사적 정의의 뜻,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내용 등 실제 역사적 지식을 풍부히 갖추고 있어야 수월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지균 면접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비단 활동 자체에 대한 복기뿐만 아니라 해당 활동과 관련한 전공 지식을 풍부하게 공부하는 노력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한 남 대 학 교

대학명	한남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역사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지역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시간: 10분 - 면접위원: 2명 - 면접절차: 면접보는 고사장 건물 진입로에서 한 번, 그 건물 입구에서 한 번 두 차례 발열 체크 후 작은 홀 같은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학과명+가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받고 옷에 붙이면 고사장으로 이동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실 히터가 매우 쎄니 입고 벗기 편한 외투를 입고 가는 편이 좋음. - 면접볼 때 마스크+투명칸막이+면접관님의 작은 목소리로 인해 질문이 잘 안 들림.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1-1] 책을 평균보다 좀 많이 읽으신 편이네요. 이 많은 책 중에 한 권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답변 1-1] 저는 역사교육으로 읽는 한국현대사라는 책을 역사교육과 학우분들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일제강점기때부터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대두까지의 역사교육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역사교육이 오랜 기간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장치로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서술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역사교육적 쟁점을 시사하게 하고 “역사교육에서의 중요한 점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의문을 끝없이 던져주는 책이기에 예비 역사교육학도로서 꼭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질문 1-2] 책 목록 중에 특히 고전을 많이 읽었군요. 2학년 고전읽기 과목 독서록에 멋진 신세계랑 1984가 기록 되어있는데, 특별히 이 책을 골라 읽은 이유는 뭔가요?

[답변 1-2] 이 책들은 고전읽기 시간에 담당 선생님이 나눠주신 고전 추천 목록 리스트 중에서 뽑아서 읽은 책입니다. 이 두 책의 공통점은 누군갈 지배하고 하대하는게 정당화 된 소설 속의 디스토피아 세계관에서 진정한 의미의 정당함을 추구하고 부조리에 저항해가는 인물들을 보며 인간의 행복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대로 읽혀오는 고전이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질문 2-1] 학생은 우리과에 진학한다면 꼭 하고 싶은 활동이 있나요?

[답변 2-1] 네 저는 한남대학교 역사교육과 커리큘럼에 포함되어있는 ICT와 역사교육이라는 과목을 열심히 배워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언택트 시대가 된 이래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져 교육과 접목 시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CT를 활용한 다양한 시각 자료가 더욱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역사교육을 가능케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2-2] 오... 저희 학과 교육과정까지 꼼꼼히 찾아보신 모양이네요? 그렇다면 공부적인 것 외에도 하고 싶은게 있을까요?

[답변 2-2] 학업적인 면 이외에도 해보고 싶은게 있다면 역사교육과 소모임 중에 사물놀이 동아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팽과리나 복등 국악 악기를 배운적이 있습니다. 사물놀이 동아리에 들어가서 학우분들과의 친목도 다지고 스트레스도 날리고 싶습니다.

[질문 3-1] 2학년 동아리 때 영상영화제작 동아리에 들어가셨네요? 여기서 어떤 영화를 만들었죠?

[답변 3-1] 그것은 20세기에 한국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민족운동사들을 소재로한 <초월과의 만남>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소재로 쓴 사건들의 시대가 다르다 보니 하나의 스토리로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하는게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를 주인공은 무전기로 역사 속 민중에게는 환청의 방식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며 스토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결했습니다. 또한 당대 역사적 배경과 분위기 그리고 민족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질문 3-2] 이 <초월과의 만남> 영화 만들기 활동을 할 때 학생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나요?

[답변 3-2] 시나리오와 소품 준비를 맡았습니다. 시나리오를 쓸 때에는 소재로 쓰일 사건들의 역사적 맥락과 시대적 맥락을 고려하였고 미처 기록되지 못한 평범한 민중들의 이야기의 공백을 메꾸는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자료로 남아있는 기록과 유사한 분위기를 재현하고자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질문 3-3] 시나리오도 직접 본인이 쓴거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랑 그 이유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3-3]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어린 소년이 계엄군에게 공격받고 길거리 시체 무더기에 내던져졌을 때 주인공과 대화한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민족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두 나라를 수호하고자하는 정의감에 불탔던 것은 아닐 수도 있고 각자의 개인적인 상황들에 따라서 참여했을수도 있다는 점을 이 소년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역사기록에 남지 않은 이 소년처럼 평범한 민중의 끔찍한 최후를 연출하며 사회악과 맞서 싸우는데에는 너무나도 많은 희생과 아픔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질문 4]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자기 어필할 시간 3~40초 드리겠습니다.

[답변 4] 저는 세계와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안목을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역사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역사를 통해 자신과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적인 학생들을 키

워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곳 한남대학교 역사교육과에서 제 꿈을 그려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면접을 준비할 때에는 먼저 자신의 생기부에 나오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기부를 읽다보면 누가봐도 자신이 열심히 한 활동들 중심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유연하게 말하는 방법을 연습하면 실전에서도 덜 떨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입시 커뮤니티 등에서 자신이 면접을 볼 학교의 면접 후기들을 읽으며 그 학교가 어떤 질문을 자주 하는지 파악 할 수 있습니다. 그 문항을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실전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을 수도 있으니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하는 임기응변 훈련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 여 자 대 학 교

대학명	이화여자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격
학과명	교육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교과	전형명	고교추천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1. 면접 순은 원서 접수 순으로 진행 2.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면접으로 약 6분 동안 교수님 3분과 면접 진행 3. 학과 관련 기본 질문 및 생기부 기반 질문으로 진행		
기타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우리 학과에 지원한 동기 말씀해주세요.

[답변]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시간에 정적분을 활용해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에 대해 새롭게 배운 후, 평소 지니고 있었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이 아닌 교육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직접 구해보으로써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불평등이 심함을 증명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제 생각보다 교육 불평등이 심하고 교육현장에서 소외된 주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외된 주체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 하는 교육연구원이 되고 싶어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질문] 고교 생활 동안 슬럼프를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해주세요.

[답변] 네. 저 역시도 고교 생활을 하면서 제가 희망하는 교육연구원이라는 꿈을 위해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감을 얻으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등의 슬럼프를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슬럼프를 극복하고자 한 달에 두세 번씩 저의 취미활동을 하여 지친 마음과 정신을 힐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누군가에게 설명하듯 빈 종이에 그날 학습한 개념 및 내용을 써 내려가며 상기시키는 백지학습법과 반복학습법 등 저에게 맞는 학습법을 터득하고 그에 맞춰 공부하는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1학년 1학기보다 1학년 2학기의 성적을 많이 향상시키며 성적에 관한 슬럼프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질문] 교육학과를 전공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갖는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답변] 교육학과를 전공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갖는 강점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연구원에게 여러 장단점을 지닌 다양한 교육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수적이어야 좋은 장점들만 모은 더 나은 교육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교 생활 3년 동안 꾸준히 학급 실장 및 부실장과 동아리 부장을 하면서 다양한 성향과 특성을 지닌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을 이끄는 경험을 통해 교육연구원에게 필요한 자질을 기르고자 노력했으며, 그 결과 교육학과를 전공하는 데 있어서 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이해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본인이 고교 생활 동안 배운 교과목 중 어떤 과목이 어떤 점으로 좋았나요?

[답변] 제가 고교 생활 동안 배운 교과목 중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좋았습니다. 저는 생활과 윤리를 학습하면서 여러 사상가와 그들의 견해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견해를 활용하여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작고 큰 사건을 옹호하거나 비판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학교폭력의 방관자를 처벌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사상가의 견해를 활용해 논술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현장에서 발견해볼 수 있는 문제점을 사상가의 견해에 비추어 분석해 봄으로써 제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었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생활과 윤리가 가장 좋게 느껴졌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자신이 고교 생활 동안 한 활동 중 우리 학과에 가장 도움이 되었거나 관련이 있었던 활동을 설명해주세요.

[답변] 네. 저는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분석했던 활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경제 관련 영어 지문을 읽고 청소년의 금융 및 경제 교육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 원인을 밝히고자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분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일부 학년 경제 교육 집중과 방대한 경제 개념으로 인해 경제 교육 패싱 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발견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단순히 교과 시간에만 경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 시간에도 경제 체험 활동을 진행하여 경제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교육현장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을 발견 및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교육연구원에 적합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각 과마다 다르긴 하나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지원동기를 자주 물어보기에 다른 질문보다 더 탄탄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 면접을 잘하기 위해서는 실제 면접처럼 말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상하고 작성해보았다면 그 답변을 직접 말로 말해보는 것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답변을 달달 암기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기억나게 되고, 구상한 답변에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 바로 파악하여 수정해볼 수 있어요.

서울여자대학교

대학명	서울여대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아동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최초합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플러스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8분 정도 진행되었고 면접장에 들어가서 화상으로 진행된 면접 방식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가번호 받고 대기하면 면접자와 다음 면접자가 면접장으로 이동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두 분 계셨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건물 내부가 조금 복잡해서 미리 가 있기를 추천하고 화살표 안내 표사를 따라 이동해야 헛갈리지 않고 대가실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마이크에 덮개를 씌우고 꼭 자신의 가번호를 언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번호 8번입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지원자 자기소개와 지원동기에 대해 말해볼래요?

[답변] 저는 아동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아동심리 전문가가 되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심리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접해보며 아동 청소년의 성장시기가 한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동의 심리적 성숙과 바람직한 사회 적응을 조력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교육분야와 심리분야로 아동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는 꿈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아동심리에 대한 학문적 지식 뿐 아니라 임상심리관련 service-learning 프로그램의 현장경험 지식을 배우고 싶었고 서울여대의 나눔의 가치인 LEARN TO SHARE, SHARE TO LEARN을 실현하는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질문] 공동교육과정으로 심리학을 수강하였는데 인상깊은 활동이 많았을 것 같아요. 배우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심리학자와 그 이유를 말해볼래요?

[답변] 심리학 수업시간에 배운 심리학자 중 저는 아들러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아들러는 개인심리학의 창시자로 목적론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인간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들이며 그렇기에 변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 말합니다. 즉, 과거의 자신이 아무리 못나 보여도 현재는 행복하게 변화할 수 있으니 용기를 내보자라는 의미가 저에게는 크게 와닿았기에 아들러는 저에게 가장 인상 깊은 심리학자입니다.

[질문] 아들러의 이론을 현실이나 일상에서도 적용해 본적이 있나요?

[답변] 저는 대인관계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저는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러의 이론을 접하고 또 다른 관계의 주체인 '나'라는 존재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2학년에 또래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활동이었고 무엇을 배웠나요?

[답변] 학급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살펴 같이 해결책을 찾고 고민을 덜어보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해결책 제시를 중점으로 두고 활동을 진행하려 했으나 성적, 대인관계, 학교부적응 문제 등 함부로 속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여겨져 감격해 카드 중 격려 단계의 카드에 초점을 두고 친구들에게 공감과 위로의 말을 전하며 감정을 살폈습니다. 저는 이 활동으로 친구들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일지를 고민해보며 공감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질문] 아동학과에 진학하게 된다면 학업계획이 있나요?

[답변] 저는 1학년 때 성격심리나 발달심리의 기초과목을 수강할 것이고 2학년 때에는 아동심리의 임상과 상담분야 중 더 관심이 있고 흥미로운 분야를 선택하여 아동상담이론이나 집단상담이론을 수강하여 심화하고 싶습니다. 또한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습하기 위한 준비로서 교내 영어교육 프로그램인 SWELL에 참여하여 열정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질문] 심리에 관한 답변이 많았는데, 아동학과는 아동심리 뿐 아니라 교육관련 수업들도 많거든요. 듣고 싶은 교육관련 수업은 없나요?

[답변] 저는 아동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아동을 둘러싼 환경 중 교육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영유아 발달, 유아의 언어발달 및 지도에 관한 수업도 듣고 싶습니다. 유아들의 놀이에 대해서도 깊게 배워보고 싶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답변] 우선 3년동안 열심히 준비한 생기부로 이렇게 면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모습도 많았겠지만, 다음 기회에 더욱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에 진학하게 된다면 서울여대의 나눔의 가치인 LEARN TO SHARE, SHARE TO LEARN을 실현할 수 있는 학생이 되도록 열정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저만 그런 걸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문제들이 동아리, 자율, 진로 쪽에서 나왔으니까 준비할 때 그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모의면접에서 처음엔 어눌하게 말하더라도 선생님들의 피드백과 나의 조사 자료를 합쳐서 수정하다보면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꼬리질문도 면접 시간에 준비한 내용들로 조합해서 잘 대처할 수 있으니 너무 큰 걱정 말고 선생님의 피드백을 꼼꼼히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대전대학교

대학명	대전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격
학과명	아동교육상담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수시 일반	전형명	교과면접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p>면접 시작하기 30분 전부터 입실을 할 수 있었다. 대기실에서 핸드폰과 모든 전자기기를 제출하였다. 대기실에서는 자신이 준비해간 자료들을 볼 수 있지만, 대기실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p> <p>3명씩 한 조를 이루어 면접을 보러 들어갔다.</p> <p>수험번호가 빠른 순서대로 공통질문 대답을 했다. 그다음엔 홈페이지에 공지되어있는 면접 질문 6개 중에서 하나씩 뽑아 질문을 하셨다. 되게 친절하시고 얘기도 잘 들어주셨다. 꼬리 질문은 심하지 않았다. 면접이 끝나고 면접 도우미가 나가는 곳까지 데려다 주었다.</p>		
기타 유의사항	<p>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 교복을 입고 가는 학생이라면 대기실에서 붙이는 수험표를 주는데 그걸로 학교 마크나 학교를 상징하는 것을 가려야 한다.</p>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대전대학교 아동 교육 상담학과에 지원한 동기와 입학 후 학업 및 진로 계획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답변] 저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을 잘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먼저 정신적인 지지를 해주고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하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고민이 해결되었다는 뿌듯함과 행복을 여러 번 느낀 후 저는 상담사라는 직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펴본 대전대학교 아동 교육 상담학과의 매력은 첫째, 보육, 상담, 건강 가족 이렇게 세 가지 전공 트랙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둘째, 졸업 후 취업 분야가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놀이 심리 재활 전공을 신설하여 국가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대학에 상담학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감을 높일 수 있는 대전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전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학기 중엔 학업에 열중하여 좋은 학점을 유지하고, 임상 심리사 자격증과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놀이치료사 자격증과 같은 아동 심리 상담사가 되는 데 필요한 자격증들을 취득할 것입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자신이 면접 보는 학교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세요. 그 학교, 학과가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면 면접을 볼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많이 떨리겠지만 떨림을 최대한 숨기고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한국교통대학교

대학명	한국교통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디자인학부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예비 4번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나비(NAVI)인재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얼굴사진을 한 장 업로드 후 바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영상을 업로드 함.		
기타 유의사항	영상에 본인의 학교가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 안됨. (면접 대상자에게 면접 시 유의사항이 문자로 옴.)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우리학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중요시 여기는 교과목과 그 교과목의 성적 향상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평소에 이것저것 따라 그려보는것을 좋아하고 다양한 미술도구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디자이너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술시간에 ‘은주의 방’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주인공들의 직업이 인테리어 디자이너나 산업 디자이너 등 디자인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접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꾸며내고 보람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확신할 수 있었고 저는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환경을 관련지어 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을 디자인해보고 싶어서 여러 학교의 교육과정을 보았을 때 기초부터 잘 알려주는 교통대 디자인공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디자인이라고 하면 미술도 중요하지만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공지능과 IT, IoT, 로봇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정보라는 교과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때 정보를 배우면서 처음이라 어려웠지만 딥러닝에 대해 조사하면서 점점 흥미를 느꼈고 3d프린팅을 위한 코딩 등 디자인을 위해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조를 짜서 공부를 하고 직접 3d프린팅을 간단하게 해보면서 선생님께 질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처음엔 실수가 많았지만 갈수록 능숙해지면서 점점 상승하는 성적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우리학과를 진학하기 위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한 교내 활동과 그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말씀해주세요.

[답변] 1학년 미술시간에 초코파이를 그렸었는데 빛의 반사나 봉지의 구겨짐 정도를 파악하면서 연필하나로 많은것들을 표현했었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색연필이나 파스텔보다 연필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연필 하나로 다양한 명암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에게 의미있는 교내활동이었고 그때 칭찬도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질문]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 1학년 때 학교 내에서 주최하는 건축 축제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2인 1조로 나가게 되었는데 학교 내에서 개선하고 싶은 부분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건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도면을 그리고 우드락으로 구조를 잡고 디자인을 하고 있었는데 준비물을 다 써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쓰고 남은 모의고사 종이와 친구들이 쓰지 않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들을 이용해서 꾸며볼까라는 생각을 해서 다행히 결과물을 완성하게 되었고 좋은 결과도 얻게 되어서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친구와 서로 배려하면서 하다보니 빠르게 작업할 수 있었고 역할을 배분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디자인학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림을 엄청 잘 그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었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통대학교의 교육과정을 보고 기초부터 탄탄히 배울 수 있는 것을 보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교통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디자이너가 되어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영상을 올리는 거라 긴장이 되지는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 자기소개를 하여 유의사항을 어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시간을 재는 것이 있는데 그 시간 때문에 촉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급해 보이지 않도록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영상에서 잘 안들릴 수 있으므로 크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할 때는 해당 학교에 가고 싶다는 것을 최대한 표현해야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학교의 교육목표나 어떠한 인재를 양성하고 싶어하는지 잘 알아본 후에 답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슈가 되고있는 키워드를 포함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생기부에 환경에 대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디자인과 환경을 엮는 방식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정작 생기부에 디자인에 대한 내용은 많이 없었어도 면접을 통해 의지를 표현하고 학교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디자인에 관련된 일들을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에 예비 4번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생기부에 더 드러나 있었다면 최초합격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충 남 대 학 교

대학명	충남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학과명	국가안보융합학부 국토안보학 전공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국가안보융합전형	전형명	국토안보학 전공 (교과)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 면접 시간 : 10분 - 면접 위원 : 2명 - 면접 절차 : 1차 합격자 전원 70분간 인성검사 실시 후 면접 유의사항 안내, 점심 식사 후 2개 조에서 각각 한명씩 면접실로 이동하여 면접 실시		
기타 유의사항	- 수험표와 신분증 챙기기 -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심. 서류면접까지는 아니지만 본인이 했던 활동 중에서 학과와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활동이 있으면 간단하게 복기하고 갈 것.		

질문 및 답변 내용

Q1. 자기소개 해보세요.

A1. 안녕하세요, 지식과 체력을 겸비한 여성리더로 성장하고 싶은 (가번호)입니다.

Q2. 여러 대학에 군사학과가 있는데 특별히 충남대 국가안보융합학부에 지원한 이유가 있나요?

A2. 협약 군사학과가 설치된 대학 중 유일한 국립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우수한 지식과 실력을 지녔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하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Q3. 고등학교에서 한 활동 중에서 군인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말해보세요.

A3. 제가 1,2학년 동안에는 토론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활동에서 징병제와 모병제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모병제의 경우 군대의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는 징병제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Q4. 본인이 성취감을 느낀 경험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A4. 저는 지구과학을 매우 좋아해서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매우 컸습니다. 2학년 1학기에 2등급 1등으로 마무리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2학기에는 1등급을 받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3학년 올라와서 지구과학2 과목과 융합과학에서 과목 1등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큰 성취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Q5. 수능 영어 등급은 얼마나 되고 최저는 맞췄나요?

A5. 영어는 3등급이 나왔고 최저는 넉넉하게 맞췄습니다.(가채점으론 넉넉했는데 실제 수능 성적에서는 턱걸이로 맞춤, 일단 그냥 무조건 맞췄다고 하세요)

Q6. 이번 수능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어땠어요?

A6.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서 끝난 후에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웃음)

Q7. 군인이 되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A7. 사실 처음에는 단순히 제복을 입은 군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어 보여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니 국가를 지키면서 그 일에 자부심을 가진 모습에 한 번 더 반하면서 군인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Q8. 그럼 본인은 어떤 장교가 되고 싶어요?

A8. 저는 국가와 국민에게 안전과 평화를 약속하고 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할 용기가 있는 리더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Q9. 리더(지도자)로서의 경험이 있나요?

A9. 저는 3년 동안 실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리더의 자세를 여러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었고 이 경험들이 제가 군인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생각합니다.

Q10.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

A10. (지구과학 얘기할 때 이과 얘기가 함께 나온 상황) 아까 이과인데 군인을 희망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게 저의 메리트라고 생각해서 자신감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충남대뿐만 아니라 군사학과와 관련된 면접 후기가 정말 없어서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방황했던 기억이 남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후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서류 면접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하진 않지만 지원 동기, 가치관(국가관, 안보관 등), 학과 관련 경험, 관심 있는 시사(군 관련) 정도는 미리 정리해놓고 가는 걸 추천해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 긴장할 수도 있지만 교과 전형인 만큼 깊이 있는 질문은 하지 않으니까 침착하게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 원 대 학 교

대학명	서원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소방행정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 교과	전형명	창의면접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고사장 앞에서 지원한 학과와 자가 문진표 확인 → 대기실 입장 → 차례 되면 진행 위원이 수험표랑 신분증 확인 → 고사실 입장 → 면접		
기타 유의사항	<p>면접 시간은 5~10분, 면접 위원 수 3명, 조별 학생 수 1명, 면접 볼 때 수험표와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특히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만 가능합니다. 학생증은 가져오지 마세요. 교복은 착용하실 수 없으니 단정한 사복 입으시면 돼요. 면접은 상황에 따라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볼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된단가, 본인보다 앞번호인 사람이 늦게 오거나 면접을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일찍 가는 게 적당해요. 일찍 가면 대기 하면서 고사장 분위기 적응하고 준비한 답변 상기하면서 본인 차례 기다리시면 돼요. 참고로 대기실에서는 휴대폰을 이용하실 수 없으니 준비한 답변을 미리 출력해서 가져가세요. 면접 볼 때는 수험번호를 다 사용하지 않고 끝자리 세 자리만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끝자리가 022로 끝나면 본인 수험번호는 22번인 거예요. 고사실 안에 들어가면 아크릴로 된 가림막 뒤에서 면접을 보는데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으니 또박또박 큰소리로 말씀하셔야 해요. 만약에 면접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이 잘 안 들리셨을 때는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라고 하시면 돼요.</p>		

질문 및 답변 내용

인사: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번 ○○○입니다.

Q: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보세요.

A: 저는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3년 동안 2달에 한 번씩 헌혈을 해왔고 헌혈 표창장도 수여 받았습니다. 저의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봉사 정신으로 보았을 때 저는 봉사를 실천하는 따뜻한 인재 양성이 목표인 서원대 소방행정학과에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Q: 소방행정학과는 다른 대학에도 있는데 왜 굳이 서원대에 지원했어요?

A: 서원대 소방행정학과는 소방 간부 출신 교수님들께서 운영하시고, 소방 체력 시험에서 쓰이는 기구들과 소방시설실습실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제 진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자신의 장단점을 말해보세요.

A: 저의 장점은 책임감이 강한 것입니다. 맡은 일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은 먼저 나서서 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반장과 학생회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리더십도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단점은 평발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평발이었던 박지성 선수를 본받아 더 열심히 운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50회 밖에 하지 못했던 왕복 오래달리기를 이제는 70회까지 할 수 있게 되었고 남들보다 더 좋은 체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 소방공무원은 여러 가지의 업무가 있는데 무슨 업무를 제일 해보고 싶어요?

A: 저는 경방, 구조, 구급 모두 해보고 싶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출동하여 화재 진압을 함으로써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줄이는 일인 경방 업무를 가장 해보고 싶습니다.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늦게 나오는 경방에 큰 매력을 느꼈고, 저의 목표가 사람들을 지키는 것인데 지킨다는 표현이 경방에 가장 걸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기여 하는 경방 업무를 해보고 싶습니다.

Q: 경방 업무를 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체력을 쌓았어요?

A: 저는 하루에 1시간씩은 꼭 운동을 했습니다.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 중에 제일 효과적인 것이 달리기라고 생각하여 30분은 달리를 하였고 나머지 30분은 줄넘기를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나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집에서 윗몸일으키기나 스쿼트 등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Q: 소방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또는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A: 저는 판단력이 소방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야만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 실제 영국 소방관께서 쓰신 소방관의 선택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결정의 목표, 결정의 예측, 위험과 이득의 판단, 이 3가지를 고려해야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A: 저의 희망 진로는 소방행정학과 졸업 후 소방공무원이 되어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진로는 단순히 명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방공무원에서 끝나지 않고 소방공무원이 되어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꿈입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서원대는 사전에 면접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면접은 자신보다 성적이 높은 친구가 떨어질 수도 있고 성적이 낮은 친구가 붙을 수도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최대한 오랜 기간 준비하는 게 좋아요. 저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고 꼬리 질문, 추가 질문 대비와 소방 관련 지식을 쌓기 위해서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모든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 놓았어요.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보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수정하면 더 좋은 답변이 나올 거예요. 질문이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나오든 잘 풀어서 말할 수 있도록 답변 전체를 외우지 말고 중요한 단어를 표시하면서 연습하세요. 꼬리 질문이나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서 답변에 대한 꼬리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생각해 놓으세요. 면접에서는 눈에 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답변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뻔한 말이 아닌 나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다니면서 한 활동을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학과 홈페이지에서 교육과정, 인재상, 목표 등을 참고하여 답변을 작성하면 정말 좋아요. 선생님이랑 모의 면접은 꼭 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서 원 대 학 교

대학명	서원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격
학과명	소방행정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면접 70 + 성적 30	전형명	창의면접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자기소개 - 면접질문 5개 중 2~3개 - 꼬리질문 - 마지막으로 할 말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시간이 은근 길어서 질문에 답 쓴 종이 하나 뽑아가는 거 추천 - 단정한 복장인데 교복은 착용 불가 (교복 입고 온 학생 과잠 입힘) - 마스크 착용이기 때문에 인종을 볼 수 없어서 결국에는 눈 보고 면접 봐야함 - 코로나 때문에 면접관 앞이랑 응시자 앞에 판 있는데 그거 때문에 면접관들 소리가 잘 안 들림 - 수험번호랑 이름 적혀져 있는 스티커를 붙이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소개 할 때 이름 말해도 상과 없음 (하지만 매년 다를 수도 있으니 면접유의사항 확인 필수)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우리학교 소방행정학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

[답변]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나고 자란 곳이 청주라는 점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서원대학교만이 지닌 커리큘럼 때문입니다. 첫째 청주에 대한 애정이 커서 청주를 지키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소방관이 되고 싶습니다.

둘째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커리큘럼을 찾아보니 3학년 2학기 과정에 '재난사례분석론' 이라는 과목이 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소방관을 꿈꾸는 학생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님과 전에 발생한 화재사건과 재난사고를 분석하고 함께 토론하며 지식을 쌓고 미처 알지 못했던 사례들까지 알 수 있겠다는 사실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소방공무원이 된다면 해보고 싶은 업무와 그 이유.

[답변] 화재진압과 구조대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소방관을 꿈꾸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전에 매체에 올라온 영상 때문입니다. 그 영상은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는 것과 동시에 불길 안에서 사람을 구하고 또 자해환자를 구하시키는 꼭 끌어안으며 간절한 목소리로 '살아주세요 꼭 살아줘' 라며 우셨던 영상입니다. 그 짧은 영상이 저의 가슴을 뛰게 했고 저도 생명을 구하

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상 속 소방관의 모습을 본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곁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소방관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삶을 구하고 적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발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불이든 물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달려가고자 화재진압팀과 구조대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꼬리질문) 화재진압과 구조대는 체력이 많이 요구되는 곳이라 여성 지원자는 힘들 수도 있다 지원자는

체력증진을 위해 지금이나 앞으로 무엇을 할 건가.

[답변] 여름부터 현재까지 유도를 배우며 악력과 복근, 민첩성, 체력까지 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

[답변]When I am called to duty,God

Wherever flames may rage

Give me the strength to save someone's life

신이시여 제가 업무의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소방관의 기도 원문 첫 번째 문단입니다. 제가 소방관이 되어 화재현장에 나갈 때에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며 기도문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매 순간을 임하는 000이 되겠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 면접 연습할 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면접관 사진 하나 저장해서 앞에 두고 실전연습하면 좋음.
- 자기소개할 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걸로 본인을 소개하면 좋음. (별명 레서판다라고 소개하면서 동작을 취함. 기억에 남으라고)
- 마지막으로 할 말 저는 영어-해석-뒷말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서투러도 그냥 말하는 게 좋음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총동원하길 바람. (영어로 말하니깐 흥미로워하셨음)
- 보통 면접 3대 1로 많이 보는데 저는 면접 볼 때 교수님 한 분이 굉장히 지루하다라는 표정과 태도로 임해서 오기 생겨서 그분 눈 똑바로 쳐다보고 '이래도 지루하세요?'라는 생각으로 면접 답함. 악으로 깡으로... 임하길...
- 학교 커리큘럼 들어가서 각 대학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하나씩 있으니 그거 활용하면 좋음 (서원대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여서 이거 활용 많이 함)
- 말 버벅거리어도 '죄송합니다 이어 말하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도 됨. 버벅거렸다고 해서 불안해질 필요 없음. 저는 3번 절었음.

서울대학교

대학명	서울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소비자아동학부 (소비자학전공)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지역균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08:00 대기실 입실-08:30 본인 확인-09:00 면접 시작 10분 동안 2:1로 생기부 기반 면접 2조로 나뉘어 각각 다른 면접실에서 면접을 봄		
기타 유의사항	8:30 본인 확인을 시작할 때 가져온 자료는 가방에 넣고 전자기기는 제출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자료만 가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음, 본인 같은 경우 중간 순서였음에도 2시간 대기 후 면접을 봄, 대기 시간 동안 자거나 명을 때리기보다는 답변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자기소개

Q) 2학년 비경쟁 독서토론 때 진행했던 가짜 뉴스 찬반 토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생기부 질문).

A) ‘가짜 뉴스를 정부가 규제해야하는가’를 주제로 찬성 측을 맡음. 가짜뉴스는 무조건 규제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지만 토론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같이 규제를 반대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한 사회현상을 다각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기를 수 있었음.

Q) 토론하면서 어려웠던 점

A) 가짜뉴스를 당연히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 입장의 근거를 떠올리는 것이 어려웠음. 하지만 토론하는 동안 반대측의 입장도 이해하게 되었고 팀원들과 소통하며 헤쳐나감 (예상치 못한 질문이어서 개인적으로 부족한 답변이라고 생각함)

Q) 동아리 모의유엔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A) 각 나라의 코로나 현황과 현 대처방법 및 보완해야할 점을 발표함. 본인은 미국을 맡아 미국의 확진자 대다수가 취약계층이며 현 대처방법이 미국의 빈부, 정보 격차를 두드러지게 함을 지적함. 해결방안으로 학교, 기업에 코로나 대비 매뉴얼을 구축할 것과 인터넷 및 전자기기 구매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제시함.

Q) 나라마다 코로나 정책이 다른데 어떤 방식이 옳은지 학생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A) 모의 유엔을 진행하며 크게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됨. 서양은 자유를 중시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같은 정책에 반발하지만 동양은 공동체를 중시하여 다소 강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정책에도 순응하는 모습을 관찰함. 동양과 서양의 역사와 정서를 고려하면 각각 장단점이 있기에 어느 것이 옳다고는 단정할 수 없음. 그래도 본인은 무엇보다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는 동양의 정책이 우리나라와 더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함.

Q) 우리 학교가 왜 학생을 뽑아야하나요?

A) 본인의 장점과 학업계획을 엮어서 설명함(답변 중 10분 타이머 울림)

면접관께서 나가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문했고 된다고 하셔서 내가 이 대학에 꼭 오고싶다는 걸 어필하고 나옴.

후배들을 위한 조언

생기부의 어떤 활동을 질문할지 모르므로 생기부 꼼꼼 정독+예상질문 대본 만들기(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바로 답변이 튀어나올 만큼 연습하기!). 친구들 또는 선생님과 모의면접하면서 말하는 연습하기(동영상 녹화 추천, 두괄식으로 말하기). 특히 서울대는 학생만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므로 자신의 주관과 생각을 정리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질문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책도 소홀히 하지 않기. 자기소개나 마지막 하고 싶은 말에 영어속담이나 한자성어 등을 활용하면 더 기억에 남음. 너무 어려운 질문은 안 나오므로 자신감+큰 목소리+밝은 인상 잊지 않기! 나는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합격하니까 긴장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오세요.

서 원 대 학 교

대학명	서원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추가 합격
학과명	패션의류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14번
전형유형	학생부 교과	전형명	창의면접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1. 면접 전에 예상면접 질문지를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됨 2. 예상문제를 확인하고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함 3. 면접날 1:3 면접을 진행함		
기타 유의사항	예상 질문지 5개 안에서 벗어나는 질문은 하지 않았음. 다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시작 전에 아침에 학교오느라 힘들지는 않았냐 등 예외 질문이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우리대학 패션의류학과를 지원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답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많이 다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연을 관람하였고 그 두 공연은 날짜만 다르지 분명 같은 테마로 같은 노래와 춤, 같은 세트에서 진행하는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무대 의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무대여도 다른 느낌을 받았 습니다. 그때, 옷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고 패션의류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 좋아 하는 가수의 무대 의상을 보고 소재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어떤 브랜드인지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션관련학과의 대학을 알아보다 비실기 전형인 의류 학과를 알게 되었고, 디자인, 제작, 판매할 수 있는 패션 산업 전문가 육성하는 학과 교육목표가 저의 진로마인드와 일치하다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패션디자인의 가치는 무엇이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답변] 제가 생각하는 패션디자인의 가치는 휴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패션에서는 옷이 사람의 체형을 평가하고 구속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옷의 주인은 곧 사람인데 옷의 가치가 점점 '사람'을 소외시킨 채 매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집중한 디자인 의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입어서 편한 옷, 편하지만 예뻐서 자주 입게 되는 옷, 즉 휴머니즘이 실현된 옷을 디자인하는 것이 진정한 패션디자인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최근 떠오르는 브랜드 또는 패션디자이너 사례를 들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답변] 최근 떠오르는 브랜드의 경영전략이 대체적으로 'MZ세대'라고 불리는 세대에게 주목하 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mz세대의 트렌드인 즉 착한기업, 환경친화적인 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업사이클로 제품을 생산하는 스위스의 프라이탁이란 기업은 버려진 천막과 트럭용 방수 덮개, 폐고무튜브 등을 이용해 가방과 같은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또, '비건' 제품을 판매하는 닷아워스라는 기업은 동물성 원료는 물론 pvc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버섯가죽과 선인장가죽과 같은 비건소재로 옷을 만듭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례들이 점점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패션업계에서는 패스트패션이 주된 사업인데 패스트패션의 치명적인 문제가 환경오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가 많아진다면, 친환경적인 패션제품이 증가하면서 전세계적인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서원대학교 창의면접전형은 제시문이 있어서 어떤걸 물어보실지 아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은 일단 물어보실 질문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 좀 더 전문적이고 완벽한 답변을 제시해드릴 수 있지만, 단점은 교수님들도 이미 질문을 알고 있으니 얼마나 답변을 잘 하는지에 대해서 평가 하시기에 나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수준 높은 답변을 합니다. 그 사이에서 창의적이며 나만의 답변을 만들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모의 면접을 준비할 때는 꼬리 질문에 대한 임기응변 연습을 많이 했지만, 막상 면접에서는 제시된 질문이 아니면 질문을 하시지 않아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서원대 패션의류학과 학생부교과-창의면접전형을 지원할 생각이려면, 일단 제시문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면, 일단 출력하여 그 질문에 관한 답변을 생각해 글로 적어 생각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로는 그 글을 외우되, 외워서 대답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처럼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수님 3명에 나 혼자 면접을 보기에 더욱 긴장이 되고 교수님 3분께서 나만 바라보시는 시선이 매우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압박감 속에서도 준비해온 답을 잘 해내야하니, 모의 면접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생각보다 교수님과 나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큰소리로 연습하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서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관한 답변은 최대한 압축해서 1-2분사이로 답변할수있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면접을 시작하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한 것을 모두 보여주고 오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니, 제시문이라고 준비를 허술하게 하지말고 철저히 하여 꼭 좋은 성과를 얻기 바랍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대학명	성신여자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1차 추가 합격
학과명	의류산업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예비 5번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자기주도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9시부터 한 시간 단위로 5-6명씩 입실 한 뒤 30분부터 시작해서 10분 내외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한꺼번에 몰아넣고 오전 내내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기 시간이 길어봤자 한 시간 남짓이었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다른 면접보다는 편했어요!		
기타 유의사항	kf-94 마스크 꼭 쓰셔야 해요!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2학년 때부터 꾸준히 성적 오른 비법?

[답변] 저는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는 어려운 점부터 보지 않고 흥미로운 점과 제 관심사를 연결지어 공부 하였고, 2학년 때 제 2외국어로 새롭게 접하게 된 프랑스어를 예시로 들자면 패션 용어에 녹아있는 edt(오드뚜왈렛), edp(오드퍼퓸) 같은 단어를 직독직해 하면서 그 단어를 한국어-영어-프랑스어로 함께 정리하는 단어장을 만들어서 더욱더 그 과목에 대해 거부감 없이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질문] 가장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과목?

[답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프랑스어를 가장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어-영어-프랑스어를 연관지어 한 단어장에 공부하였고, 또한 프랑스어 멘토를 하며 멘티 친구들과 함께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사용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질문] 4차 산업이나 그런 나의 목표에 대해 이루었던 사례나 존경하는 인물이 있었냐?

[답변] 4차 산업과 관련되진 않았지만 제가 패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존경을 하게 된 인물은 잔니 베르사체입니다. ‘나는 마르코 폴로와 비슷하다.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 문화를 섞는 것을 좋아한다.’는 잔니 베르사체처럼 저도 진학 후 한국의 복식 문화와 디자인을 기반으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접목시켜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질문] 자기소개서 3번에 있던 프랑스어의 뜻?

[답변] Le cœur de la nouvelle mode, Corée du Sud. (한 번 읽었어요!) 새로운 패션의 심장, 대한민국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패션을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프랑스는 패션의 두뇌라고 생각합니다. 두뇌와 심장은 형제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 영향을 주는 뿔레야 뿔 수 없는 사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을 패션의 심장으로 만들어서 패션계에 한 획을 긋고 싶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새로운 패션의 심장으로 만들기 되기 위해 본인은 어떻게 노력할 건지?

[답변] 프랑스의 패션은 '프렌치' 마케팅으로 전세계 사람들에게 세련되고 앞선 패션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처럼 한국도 프랑스의 마케팅을 더욱 심화시켜 사람들에게 한국의 패션 하면 딱 연상되는 단어가 생길 수 있도록 더욱더 세계적인 패션 교류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질문] 본인의 장점?

[답변] 저의 장점은 새로운 것에 대해 도전하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수나 실패를 겪더라도 그것을 전부다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실패에 빠져서 우울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욱 저의 성장과 발전에 집중합니다. 이처럼, 저에게 의류산업이라는 학과가 새로운 공부임에도 저는 시작하기도 전에 두려워하거나 낮설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새로운 수업 방식과 환경을 즐기며 수업을 할 것이라고 제 자신에게 확신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저는 너무 긴장을 했던지라 준비했던 건 하나도 못 말하고 그냥 머릿속에 있던 말 막 뱉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앞에 사람이 하는 게 다 들어서 무의식적으로 살짝 쫓았던 것 같은데 후배 분들은 자신감 가지고 당당하게 하고 싶었던 말 다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백 석 대 학 교

대학명	백석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총인합
학과명	관광학부(항공서비스)	총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17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형명	농어촌학생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시간	10~15분
	인원수	면접 위원 수: 2명 / 조별 학생 수: 8명
	면접절차	대기실에서 대기하며 핸드폰 제출→신분증 검사→ 호명이 되면 도우미를 따라 대기하면서 나눠주는 부직포 슬리퍼 착용→면접실로 입실

기타 유의사항

넓은 면접실이라서 목소리가 좀 울렸다. 사람이 많아서 1, 2, 7, 8번은 면접관이 잘 안 보였다. 신분 확인하는 곳과 면접보는 곳이 각각 다른 층이었다. 미리 출력해온 수험표를 면접복에 붙이고 면접을 보는데 생각보다 거슬린다. 부직포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편한 신발을 신고 가는게 좋다. 면접복이랑 교복을 다양하게 입었다. 질문에 답을 못해도 기다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줄 만큼 친절하셨다. 두 분 모두 계속 응시하면서 미소를 지어주신다.

질문 및 답변 내용

- 학교생활 중 자신이 도전한 가장 의미있는 경험은 무엇인가
 - 고등학교 부서 중 하나인 언론활동부에서 릴레이 인터뷰 영상에 메인 MC를 맡았습니다. 이를 통해 순조롭게 의사를 전달하는 의사소통력과 선생님들의 좋은 평가를 받아 학교 행사의 MC의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용기내 도전을 한 것만으로도 제 삶을 개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항공서비스학과를 졸업 후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는 무엇인가
 - 저는 나비효과를 일으키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제 미소과 작은 서비스가 승객에게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영향을 미치고 싶습니다. 백석대학교에서 객실실습과 다양한 교육을 통해 서비스와 실무능력을 갖춘 서비스인으로 성장해 승객들에게 나비효과를 일으키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 준비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오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 백석대학교를 오래 봐온 친구처럼 많은 기간을 잡고 알아봤으면 좋겠다.
- 답변이 막히더라도 활짝 웃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 예상 질문만 믿지 말고 자기소개나 돌발 질문도 준비하면 더 좋을 것 같다.

한서대학교

대학명	한서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불합격
학과명	항공관광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지역인재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장 도착 후 대강당으로 이동 고사장 번호 확인한 후 고사장별로 집결 앉아서 부르시면 부르는 대로 맨 앞자리에 1열로 앉아서 면접장으로 이동 슬리퍼로 갈아신고 면접 들어가기		
기타 유의사항	교복이나 면접복 필수 착용 및 어피어런스 단정히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지원동기

[답변]저는 팀워크를 발휘하는 대한항공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학창시절 품새 선수단 주장을 하며 팀원들을 이끌고 같이 협력하여 대회에 나가 여러번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대회1주일전 팀원 한명이 부상을 당해 마무리 솔로 부분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밤낮으로 연습하여 그 대회에서 2위라는 값진 결과를 얻게 되었고, 리더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먼저 희생하며 팀을 이끌었던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자질과 경험이 한서대학교의 인재상인 humanist,팀워크를 발휘하는 인재와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4년간 수준높고 탄탄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에 입사하는 것이 최종 목표 입니다.

[질문]100만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쓸것인지

[답변]저축을 할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터 저축하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제 예금 통장의 이름은 '뚜벅이 탈출 프로젝트'인데 뚜벅이는 차가 없는 사람을 칭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저는 갑작스럽게 생긴 돈도 허투로 쓰지 않고 저금하여 저의 드림카를 구매할 것입니다.

[질문]동아리 활동이 항공관광학과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답변]저는 영어신문동아리의 부장을 맡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부장을 맡으며 부원들을 이끌었던 경험이 한서대학교의 인재상인 humanist,팀워크를 발휘하는 인재와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영어 토익단어 퀴즈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한서대학교 항공관광학과에서 배우는 항공토익이라는 과목에 더 친숙하게 다가갈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해외 항공사 관련 영어신문 작성을 통해 해외 항공사의 이슈까지 알아보며 국제적 감각

을 함양하는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어 ted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교생에게 영어로 항공관광학과에 대한 소개를 하며, 영어 말하기 실력과 항공관광학과에 대한 지식을 습득 할 수 있었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한서대학교는 면접장이 지하라 조금 추움

한서대학교는 예전부터 학생다움과 교복을 선호하는 학교임

한서대학교는 인성영역과 학교생활영역 이 두가지의 예상질문을 매년 올려줌

인성영역에서 1문제 학교생활영역에서 2문제가 출제 되기 때문에 꼭 숙지해야함

교수님들께서 학생부 보면서 질문하실 때도 있어서 거짓말 하면 다 티남

삼선 슬리퍼로 갈아 신는데 여러개 신어보고 꼭 사이즈 맞게 들어가야함 (스타킹과 마찰때때 미끄러워서 쉽게 벗겨짐)

인 하 공 업 전 문 대 학 교

대학명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불합격
학과명	항공운항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면접위주 (교과40%+면접60%)	전형명	일반고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시간	5분~10분	
	인원수	면접 위원 수 : 3명 / 조별 학생 수: 5명	
	면접절차	대기실에서 대기하며 핸드폰 제출→신분증 검사→호명이 되면 도우미를 따라 면접실로 입실	
기타 유의사항	<p>2년제 항공과 중 높은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인 만큼 분위기도 살벌하고 은근 자리싸움이랑 기싸움이 있었다. 들어가는 순서로 번호가 지정되기 때문에 1번과 5번을 피하려는 모습이 많았고, 모두 승무원학원을 다닌 모습이 티가 났다. 학원에서 쓰는 말투나 자세가 보였다. 나쁜만이 아니라 거의 면접복에 구두 또는 단화를 신었다. 핸드폰 전원을 꺼둬야 되기 때문에 면접 답변 노트를 챙겨가는 것이 좋다. 인하공전식 인사 법으로 인사해야하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5명이 모여서 인사를 맞춰 본 뒤 들어간다. 면접관 세 분 중 1~2명은 눈을 감고 있거나 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마 당황스럽게 만드려고 조는 척을 하시는 것 같다. 이럴수록 더 당황하지 않고 웃으면서 준비한 답변을 잘하면 된다.</p>		

질문 및 답변 내용

○ 자기소개 또는 지원동기

- 저는 화폭의 그림같은 지원자입니다. 제 그림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인터뷰 영상 촬영을 통해 순조롭게 의사를 전달하는 의사소통력과 특색 신문 기자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로 성과를 내며 창의력이라는 물감을 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의 메인 MC를 맡아 전체를 이끌어 나가며 리더십이라는 그림 또한 그렸습니다. 하지만 제 그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항공 승무원이라는 꿈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라는 그림을 인하공업전문대학교와 함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친한 친구가 시험 컨닝을 하는걸 봤을 때 어떻게 할건지

- 우선 시험이 끝난 후 친구에게 직접 물어본 후 사실을 확인한 뒤 친구의 양심에 맡기고 싶습니다. 친한 친구라서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한번 더 믿고 스스로가 직접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 승무원에게 필요한 자격증 중 어학 관련 자격증을 제외하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격증
- 호신술 관련된 자격증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행 도중 난동을 부리며 말이 통하지 않는 승객이 있다면 또다른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신술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과한 힘이 들지 않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많이 기술을 익히고 싶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불합격한 이유는 다양한 면접 질문들을 연습하지 못한 것 같다. 인하공업전문대학은 예상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과 재작년 기출 문제를 모아서 연습했어야 했는데 충분한 면접을 준비하지 못했다. 코로나 시기라서 승무원학원도 자주 가지 못하고 성실하게 준비하지 못한 게 많이 아쉽다.

- 준비하는 과정에서 돌발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활짝 웃는 모습을 보이면 더 좋을 것 같다.
- 최대한 많은 기출 문제를 모아 키워드만 정해서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극 동 대 학 교

대학명	극동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총인합
학과명	항공운항서비스학과	총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17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형명	농어촌학생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시간	5분~10분	
	인원수	면접 위원 수 : 3명 / 조별 학생 수 : 3명	
	면접절차	대기실에서 대기(핸드폰 제출 안함)→신분증 검사→호명이 되면 도우미를 따라 면접실로 입실	
기타 유의사항	타대학과 비교했을 때 분위기 엄청 좋았다. 선배님들이 긴장하지 말라고 말 걸어주시고 친근하게 해주셨다. 내가 들어간 면접실에는 면접관 모두 여성분이셨는데 엄마같이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어주셨다. 면접복을 입은 학생들이 많았고 구두나 단화 등 다양하게 신었다. 면접실 바로 앞에서 다 같이 인사를 맞춰보는 시간도 가졌고, 들어가는 방식도 알려주신다.		

질문 및 답변 내용

○ 자기소개나 지원동기

- 남들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지금의 나를 뛰어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지원자입니다. 고등학교 부서 중 하나인 언론활동부의 부원으로써 릴레이 인터뷰 영상의 메인 MC를 맡아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 앞장서 다른 부원들을 이끌었고, 대본 일부가 부족해 말이 끊기는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반응하여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는 순발력을 길렀습니다. 또한 학교 학생들을 위해 학교 특색 신문의 기사를 도맡아 창의력을 길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극동대학교에 입학하여 성실하고 창의적인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환경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닐이나 플라스틱 등 사용을 줄여 쓰레기 배출량을 '0'에 가깝게 만드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닐봉지 대신 개인 장바구니를 사용하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품을 빼고 주문하는 등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지구 환경 보존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평소에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를 소지하고 사용하며 친환경 용품인 대나무 칫솔을 사용하면서 되도록 자연을 아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가장 좋아하는 계절

-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봄입니다. 겨울이 끝나고 꽃이 다시 피면서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봄을 좋아하는 만큼 봄과 관련된 노래를 듣거나 사진으로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이 끝나고 다른 계절로 넘어가더라도 봄 노래나 사진을 보면 좋았던 기분이 다시 생각나게 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 준비하는 과정에서 긴장하지 않도록 모의면접을 많이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다.
- 답변을 통째로 외우기 보다는 키워드 위주로 외우는 것이 기억에 더 남는다.
- 답변이 막히거나 당황하더라도 최대한 티내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감있게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양여자대학교

대학명	한양여자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호텔관광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일반전형	전형명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장 도착 후 수험표 확인 대기실로 이동 수험표 스스로 부착 전형별로 3명씩 면접대기실로 이동해서 유의사항 듣고 인사 맞춰보기 면접고사실 입장과 동시에 우측에 놓여진 영어지문 랜덤 뽑기 차례대로 영어지문 읽고 면접 시작		
기타 유의사항	교복이나 면접복 필수 착용 및 어피어런스 단정히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지원동기

[답변]저는 어렸을적부터 학교 주변에 있는 라마다 호텔을 보며 등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쉽게 접근 할 수 있었고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미국 라마다 호텔에서 숙박을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던 호텔들을 외국에서도 볼 수 있다는 점이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과 한국의 다양한 호텔의 글로벌한 접근성을 보며 호텔리어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질문] 실습을 나간다면 어디로 나가고 싶은지

[답변]저는 대한항공으로 실습을 나가고 싶습니다. 한양여자대학교는 대한항공과 산학협력이 맺어진 학교라고 알고 있으며, 호텔관광과에서 항공사로 취업을 많이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나와 인수합병중인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으로 취업을 나간다면, 분명 서비스인으로서의 지성과 함양을 배우고 돌아올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질문]한양여자대학교만의 강점

[답변]한양여자대학교는 서울에 위치하여 어느곳에서든 접근성이 좋으며, 인서울 전문대학 취업률들 중 최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되어있는데, 특히 싱가포르 어학연수가 가장 인상깊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수 없는 실무 수업을 해외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아르바이트 경험

[답변]저는 맘스터치라는 패스트 푸드점에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질문]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답변]6년간 버스매표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기쁜 서비스 마인드, 13년간 꾸준히 해온 태권도로 기쁜 체력, 부회장 등 다양한 임원활동을 통해 쌓은 리더십, 이 세가지를 모두 겸비한 저를 꼭 뽑으셔야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한양여자대학교는 교복을 선호 하는 학교입니다.

자기소개, 지원동기는 추상적이지 않는 신박한 자기 경험을 토대로 작성해주세요

한양여자대학교만의 강점 꼭 숙지해가세요(홈페이지 정독 3번)

영어지문은 모의고사 지문에서 가져온다고 들었어요. 영어 발음 연습 많이!!

교수님들께서 틀려도 되니 활짝 웃으면서 당당하게 읽으라고 조언해주셨어요

중 앙 대 학 교

대학명	중앙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간호학과(인문)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다빈치형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7분 면접 1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기타 유의사항	<p>중앙대학교의 '다빈치'형 인재 전형은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전공에 적합한가를 판단하기 위한 전형이 아닌 다각도로 보았을 때 지원한 학생이 재능이 있는가를 보기 위한 전형입니다.</p> <p>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공 관련 내용을 넘어선 자신의 다양한 활동도 중요시 해야 한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p>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지원동기

[답변] 국경없는 의사회에서 간호사로서 활동하며 의료적 지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환자들을 간호하고 나아가 지역 간, 국가 간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힘쓰는 간호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년간 스페인어를 배우오며 스페인어권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중남미의 의료격차의 심각성에 많은 관심을 두어왔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중앙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참인재로서 성장하여 저의 목표를 이루고 싶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칠레와 한국의 의료에 대한 비교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분석하였는가

[답변] 간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학을 인지하는 것에서 넘어서 해당 국가에 의료변천 과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비교분석하려 노력했습니다. 두 국가의 의료보험 변천 과정을 비교해보는 과정 속에서 두 나라 모두 독재정권에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칠레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는 전두환의 영향을 받으며 두 나라의 의료보험 모두 국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질문] 70권정도의 많은 책을 읽었는데 책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는가

[답변] 책을 선정하는데 있어 단순히 교과목과 관련된 책을 넘어서 제가 꿈꾸는 진로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질 수 있는 책을 읽도록 노력했습니다. 국제 간호사가 되고자 다짐한 시기가 늦은 만큼 간호사가 가져야 하는 역량은 무엇이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쩌다 정신과 의사'를 읽게 되었고 이 책에서 나오는 의사의 마음가짐을 본받고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책 속의 의사는 단순히 환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

력하는 것에서 넘어서 집에 있는 시간에도 온전히 환자만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길을 알려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점이 매우 인상깊게 다가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질문]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아 SNS캠페인을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지금도 독자적으로 환경에 관심을 갖고 하는 행동이 있는가

[답변] 그 이후로 환경 관련 단체의 SNS를 구독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환경문제는 아무리 큰 단체가 노력한다고 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차근차근 세상의 변화를 일궈내야 하는 것이 현재 지식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의 작은 노력이 이후에는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간호사가 된 이후에도 지속해서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고자 다짐했습니다.

[질문] 전통의학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던 학생인 것처럼 보이는데 지원자가 생각하기에 해외에서 전통의학이 지금까지 등한시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답변] 서양 사람들이 전통의학에 대한 괴리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은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적으로 보았을 때 쌀 문화가 적합한 반면 서양 국가들은 기후적으로 밀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한약을 먹는데 있어 '밀가루를 자제해야함'과 같은 제약이 그들에게 괴리로 다가올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 의학을 해외에 전달하는데 있어 우리의학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일부 국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을 보면 분명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답변] 저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우리나라 내에서 간호사로서 활동하는 것을 넘어서 해외 무대에서 국제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 간호사입니다. 그렇기에 중앙대학교의 인재상인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참 간호인에 걸맞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중앙대학교 간호학과만이 가진 다문화 건강, 글로벌 리더학과 같은 학문은 제가 중앙대학교에 반드시 오고 싶다는 목표의식을 확고히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앙대학교에 합격하여 이러한 학문들을 학습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로서 성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생기부를 꼼꼼히 분석하고 자신이 했으나 어떤 활동인지 모르는 활동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지와 같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함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경 인 교 육 대 학 교

대학명	경인교육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교직적성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1. 제시문 발표 준비(2분) 2. 제시문 발표(4분) 3. 질의 응답(4분) 4. 추가 제시문 답변준비(1분) 5. 추가 제시문 답변 및 질의응답(4분)		
기타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제시문 1.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드는 디지털 교과서의 장단점 각각 3가지와 단점의 경우 개선점을 말하십시오.

장점

1.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된다

- 대한민국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주로 교사가 주도하는 강의식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은 배움의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됩니다. 하지만 교사와 학생이 함께 디지털 교과서를 제작한다면 학생이 제작과정에 있어 의견을 제시하면서 배움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2. 현실이 반영된 교과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 개념과 관련된 최근 이슈를 반영함으로써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 수업이 아닌, 현실이 반영된 수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최근 이슈와 관련해 사회를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동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교과서의 수정이 용이합니다.

단점

1. 정보를 골고루 수집하지 않는다면 편향된 정보를 습득할 우려가 있습니다.

2. 디지털로 제작하는만큼 정보 격차가 발생하여 학생의 의지와 무관하게 환경에 따라 교과서 제작의 참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기억이 나질 않네요ㅠ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1-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균형 잡힌 정보 습득 능력 향상

1-2. 학생에 따라 맞춤형 지원 (집에 전자기기가 없는 학생은 방과후에 학교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꼬리질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말하라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때 친구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고자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북에 대한 남한의 원조’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두 기사를 분석하는 활동이었는데 한 신문사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다른 신문사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친구들에게 활동 소감을 물어본 결과 “이렇게 같은 소재를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기관의 입장에 따라 기사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보며 다양한 입장의 기사를 찾아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후에 교사가 되어 하나의 소재를 다룬 양측의 기사 분석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제시문 2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장애 학생이 소리를 질러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학생의 부모는 학생을 특수반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이러한 반대에도 무릎쓰고 학생을 특수반으로 보낼것인지 아닌지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대시오.

저는 학생을 특수반으로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란 지식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회성’과 ‘인성’을 기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자신과 다른 장애학생과 함께 지내는 과정에서 ‘다름’을 포용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을 특수반으로 보내지 않는 것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애학생을 분리하는 경우, 장애학생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는 학생의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반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장애학생의 경우, 장애학생과 함께 생활하며 그동안 가졌던 편견들을 버릴 수 있으며 이는 사회에 나가서 모두가 다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꼬리질문.

학생이 수업 도중에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그 학생을 복도로 데리고 나와 그러한 행동을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 학생의 말을 듣지 않고 수업을 진행해야한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막는다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과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교실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그 학생이 그러한 행동을 한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친구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급 아이들은 장애 학생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질 것이고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명	서울교육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불합
학과명	-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
전형유형	학생부 종합	전형명	사향인재추천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오전] ① 대기실 ② 면접실(10분) ③ 퇴실 후 자유시간 [오후] ① 대기실 ② 면접준비실(30분) ③ 면접실(10분) ④ 귀가
------------------------------	--

기타 유의사항	<p>1. 오전 면접이 끝나면 식당에서 남는 시간동안 점심을 먹으며 대기합니다. 오전 면접 순서에 따라 남는 시간이 달라지며 저 같은 경우 4번째로(한 대기실에 12명) 오전 면접을 보았기 때문에 면접을 본 후 1시간 10분정도 남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이 남는시간동안 초등학교 교과서와 사회문화 문제집을 살펴보았습니다.</p> <p>1-1. 초등학교 교과서는 고등학교 교과서와 달리 여러 활동으로 구성되어져있습니다. 특히, 과학 교과서의 경우 해당 개념을 실험을 통해 어떻게 배울 것인지 나와있기 때문에 '교과 캠페인을 기획하라.'라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p> <p>1-2. 사회문화 문제집에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부분에 여러 연구 소재가 제시되어있습니다.</p> <p>2020 서울교대 사향인재 기출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궁금한 점을 탐구 주제로 정하고> 라는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 문제집을 통해 다양한 연구 소재를 살펴본다면 이러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똑같이 따라해서는 안되겠죠?)</p> <p>1-3. 제가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본인이 점심시간에 어떤 것을 가져갈지 미리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안가지고 와서 남은 시간 동안 가만히 있던 친구들이 몇몇 있었거든요.</p> <p>2. 오전 면접 대기시간 동안 따뜻하게 난방을 해준 타교대에 비해 서울 교대는 조금 추웠습니다. 롱패딩을 입으면 둔하고 벗으면 추웠기 때문에 코트를 입고가는 것을 추천합니다.</p> <p>3. 오후 면접을 보기 전 식당에서 대기하며 밥을 먹는데 식당 안은 매우 따뜻했습니다.</p>
----------------	--

질문 및 답변 내용

- 1. 본인이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네. 저는 제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그러한 경험을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2021년 대한민국 기사 논평하기 대회>에 참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회는 대한민국의 기사를 분석하고 논평문을 작성하는 대회였는데, 저는 일본의 방사능 폐기물 방류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의 기사를 논평하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학 논문도 읽고 과학 학술지를 읽으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였지만 장려상이라는 비교적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려상이라는 결과를 보고 왜 장려상을 받았을까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핵 폐기물의 어려운 용어 설명을 쉽게 풀이하지 못했다는 점과, 배경지식을 추가하지 못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결과는 아쉬웠으나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에 만약 제가 미래에 아쉬운 결과를 얻는다고 하여도 제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그러한 경험을 발전의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2. 반에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반에 장애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수업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종종 1층에 있는 학습도움실로 가야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친구와 반 친구들간에 거리감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였고 따라서 일주일에 한번 진행되는 학급회의에서 30분동안은 그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 친구가 저희와 따로 학습도움실에서 활동을 할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또 하고싶은 말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 친구와 반친구들간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반에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학생들 모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반에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3. 현재 인류가 마주한 문제가 무엇인지 말하고 지원자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하라.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류가 마주한 문제는 '공감의 결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미디어매체의 발달 및 코로나 발병으로 사람들이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서 공감의 결여라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공감'이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고 개인과 사회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과 개인' 측면에서는 공감을 통해 서로를 존중할 수 있으며 '개인과 사회'의 측면에서는 개인이 사회 문제에 공감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교사가 되어 미래 세대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공감능력을 키워주고 싶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역할극을 하고 그 역할을 서로 바꿔 다시 한번 진행함으로써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활동이라든지 또는 모둠활동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4.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하고 대학에 입학하여 그러한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하라.

- 네.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진정한 성공이란 ;제가 자아실현을 하면서도 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사'라는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면서도 미래세대를 이끌어가는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서울교육대학교에 입학하게된다면 'OOOO'교과목을 듣고 교사로서의 역량을 더 높여서 학생들에게 더 질 높은 수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4-1. 구체적인 교과목을 언급했는데, 알고있는 상담법의 종류에 대해 말하고, 지원자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상담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하라.

- (미소 지으면서) 제가 지금 너무 떨려서 상담법의 종류는 기억지나지 않지만 (정말 몰랐고 분위기상 모른다는 이유로 감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상담법은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새 출발선에 선 당신에게>에서는 ‘위로는 진정한 애정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설부른 위로는 그 사람이 자신이 위로받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저는 설부른 위로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5. 시간이 남아서 추가질문할게요. 지원자는 본인이 ‘지덕체’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면접관님께서 끄덕이며 “학생 생기부를 보니 궁금증이 드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초간 생각하고)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덕체’중에서 ‘지’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며 공동교육과정으로 ‘교육학’과 ‘심리학’을 수강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 이론에 대해 많이 알게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 교육봉사를 하며 교육학 시간에 배운 ‘동기이론’을 적용해보았습니다. 제가 교육봉사를 할 때 공부를 거부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정적 강화 방법으로 공부 목표치를 달성하면 조그만 선물을 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부적 강화 방법으로 공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항상 함께하던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은 여전히 공부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제가 그 학생이 공부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를 알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채 이론을 성급하게 적용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서울교육대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며 제 부족한 점을 보완해나가고 싶습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큰 소리로)안녕히계세요!!!!

(교수님들께서 크게 웃으심)

<오후>

테마마을을 기획하고 테마마을 안내판을 제작하여 발표하시오.

조건

1. 마을을 안내하는 지도를 반드시 추가할 것
2. 단기적인 행사가 아닌 장기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기획할 것
3. 세가지 이상의 활동을 기획할 것
4. 폐교, 호수 등을 이용할 것

5. 마을을 소개하는 한줄 키워드를 포함할 것

6. 예시: 농어촌 체험 마을, 별빛 마을

발표내용:

안녕하세요. 면접 가번호 000000입니다.

(면접관님: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테마마을로 호랑이 마을을 기획하였습니다.

이 마을을 소개하는 한 줄 키워드는 ‘어흥~떡하나 주면 안잡아 먹지~ 하던 호랑이가 사라졌다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화책에 등장해 친숙한 호랑이가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동물 보호에 관심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테마마을을 기획했습니다.

테마마을에서는 크게 세가지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먼저, 이 곳에서는 학생들이 호랑이가 등장하는 이야기책을 읽고 역할극을 진행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호랑이에 대한 친숙함을 가질 수 있고 책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도를 가리키며) 이곳으로 가면 폐교를 활용한 전시회가 나타납니다. 이 전시관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정보 및 사진과 여러 동물 모형을 전시한 곳인데 이곳에서 학생들은 멸종 위기종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인간의 환경파괴, 동물 사냥등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포토존이 있기에 학생들이 사진을 찍으며 기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은 여기입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전시회에서 배운 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동물보호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자신의 다짐을 적는 시간을 갖고 이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저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다짐을 알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다짐을 실천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발표과정을 자연스럽게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1. 호랑이 마을에 호랑이가 있으면 학생들에게 위험하지 않은가?

- 네. 저도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호랑이가 있으면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랑이 마을이지만 호랑이를 직접 볼 수는 없고 호랑이 모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생각하였습니다.

1-1. 그럼 실감이 나지 않나?

- 네. 저도 그러한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호랑이 모형으로 대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회에서 멸종위기종에 대해 설명해주시는 분께서 조금 더 실감나도록 설명해주신다면 그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동물보호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자신의 다짐을 적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는데 예시를 들어보세요.

- 네. 동물 가족으로 된 옷 구매하지 않기, 비건 제품 구매하기 등과 더불어 식료품을 구할 때 동물이 자라는 환경 고려하기등이 있습니다. 그 예로 현재 시중에서 달걀은 매우 싼 값에 판매되는데 그 이유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닭은 매우 비윤리적인 환경에서 알을 낳는 기계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와 같은 현실을 알고 닭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회사의 달걀을 구매하는 것도 동물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3. 교사가 학교에서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나?

- 수업은 학생이 객체가 되는 반면 테마마을의 체험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 역할극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시회를 통해 멸종 위기종에 대한 자료를 직접 보는 것과 교실에서 시각자료를 통해 멸종 위기종에 대해 학습하는 것은 생동감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저런 곳에 방문할까요?

- 물론, 일부 학생들은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비의 측면에서 현재 MZ세대는 미닝아웃, 즉,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나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물건을 구매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중요시 한다는 MZ세대의 특징을 바탕으로 미루어볼 때, 이러한 체험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취지를 이해한다면 충분히 방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1. 저는 시간이 남아서 <지원자는 본인이 ‘지덕체’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다른 친구들의 후기를 보니 생기부 질문을 받은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제시문 면접이라고 하더라도 **면접 보기 전, 생기부 분석을 다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2. 면접을 보다가 미리 생각해둔/ 준비한 문제가 나왔을 때 너무 준비한 티를 내거나 흥분하지 마시고 더 차분하게 답변하세요.
3. 면접 질문이 조금 추상적이기에 저는 문제를 생기부로 증명할 수 있는 제 경험과 연관시켜 답변을 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주교육대학교

대학명	청주교육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충북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제출서류를 참조하면서 면접위원이 지원자를 상대로 질의
------------------------------	---

기타 유의사항	<p>1. 생기부 분석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므로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 <p>2. 처음부터 너무 꼼꼼히 하다보면 생기부 뒷부분은 보지 못하고 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각 학년마다 투자할 시간을 미리 정해 한 학년만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다른 학년은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p> <p>3. 생기부 기반 면접은 다양한 범위에서 질문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한 활동에 대한 질문뿐만이 아니라 3학년때 동아리를 왜 옮겼는지, 고교학점제에 대해 조사했다면 고교학점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무엇인지, 또는 교육시사 ~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문제도 제시될 수 있으니 면접 준비를 하면서 교육 전반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 <p>4. ‘예체능 세특 중요하지 않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저는 주로 체육세특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p> <p>5. 생기부 기반 면접에서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책’입니다. 발췌해서 읽을 책, 다 읽을 책 미리 구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	---

질문 및 답변 내용

1. 자신이 고등학교 생활에서 자랑하고 싶은 활동이랑 가장 숨기고 싶은 활동을 말하세요.
- 네. 먼저 제가 가장 만족스러웠던 활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환경보호에 있어 수동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분리수거 도우미’를 계기로 친구들이 하루에 생각보다 많은 양의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환경보호에 수동적인 태도에서 주체적인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버린다는,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3학년때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쓰레기 양을 현저히 줄일 수 있었고 이는 제가 알게 된 내용을 실천으로 옮긴 활동이자 환경에 대해 주체적으로 임한 활동이었기에 가장 만족스러운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 다음으로 제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교학점제를 주제로 진행한 토론이 아쉬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고 친구들 역시 그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원활한 토론이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저는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는 충분한 배경지식과 조사를 해야한다는 것을 몸소 느꼈고 고등학교 3학년 토론동아리에 가입했을때는 이때 알게된 점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사전조사를 하고 토론에 임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지만 1학년 때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2.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 중에 어떤 학년을 맡고 싶으신가요?

- 혹시 초등학교 3,4학년을 선택해도되나요?

(교수님을 웃으심. 일단 답변해보세요라고 말씀하심)

- 저는 초등학교 3,4학년을 맡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학생들이 어느정도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면서도 사회 속에서의 자신을 찾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잠재성을 키워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형성하였을 때, 자신의 잠재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학생들이 사회속에서의 자신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2-1. 그럼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보육의 개념이 고학년에 비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이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무엇을 먹을 수 없는지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고, 혼자 화장실 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챙겨야하고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6학년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초등학교 6학년은 자신의 자아정체성이 어느 정도 형성된 시기이기 때문에 교사의 지나친 개입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 과 6학년은 교사가 어느정도 개입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보육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2. 그럼 지원자는 둘중에 어떤 학년을 맡고 싶은가?

-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맡고 싶습니다.

(교수님 두분께서 껄껄 웃으셨습니다)

3. 체육이 모두 A인데 딱 한학기만 B가 나왔네요. 농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세트를 보니 농구의 '마그누스 원리'에 대해 조사를 했네요?

마그누스의 원리가 농구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연관시켰나요? 일단 마그누스 원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 원리를 농구와 연관시켜 설명해보세요.

- 마그누스 원리란 공이 회전하면서 공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공기 속도차에 의해 공이 회전하는 현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음, 잘 알고 있네

- 저는 이렇게 공이 회전하는 것이 농구와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공을 던질 때 공을 이렇게(손동작) 던지는 것이 아니라 공이 회전할 때 링안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마그누스 원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1. 농구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 처음에는 공을 링에 집어넣기 위해 '링 자체'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조사의 결과 농구에 작용-반작용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따라서 링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백보드의 네모난 칸을 맞추는 연습을 해서 보다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2. 근데 실제 농구 경기를 보면 백보드를 맞추는 것보다 링을 맞춰서 골을 넣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저는 신체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구 선수의 경우 대체적으로 키가 크기 때문에 링 가까이 손을 뻗을 수 있지만 저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키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레이어 슛은 저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링자체보다 백보드의 네모난 칸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3-3. 농구 과정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비록 B라는 아쉬운 결과가 있었지만 선생님께 점심시간마다 찾아가서 여쭙보고, 잘하는 친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물어보며 노하우를 전수받고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노력하면서 처음에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스스로 저에 대해 정했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 혹시 학교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으면 말하라.

- 이걸 앞서 말씀드렸던 체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웃으심)

- 저희 체육선생님께서서는 결과만을 평가하셨기 때문에 농구 평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연습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고 준비시간에 연습을 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과는 좋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정을 반영하지 않는 평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선생님께 이러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2022학년도 대학면접 후기집

자연계열



강원대학교

대학명	강원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격
학과명	물리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미래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대기실에서 대기-> 면접 시작 5분 전부터 복도에 대기-> 면접-> 귀가		
기타 유의사항	<p>전자기기는 미리 제출하니 면접 자료나 생기부는 종이로 모두 인쇄해서 들고 오셔야 합니다. 면접확인서는 달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대기실을 나가서 면접을 본 후에는 다시 대기실에 들어갈 수 없으니 모든 짐을 다 챙겨서 나오셔야 합니다. 블라인드 면접이라 교복은 착용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 교복을 입고 왔다면 학교에서 준비한 학위복을 입고 면접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수험표는 수능 수험표가 아닌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대학 수험표입니다.</p>		

질문 및 답변 내용

면접 다녀온 지 좀 지나서.. 질문 순서나 내용이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질문]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답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는 실제 현실에서의 물체의 움직임이나 현상을 분석할 수 있을 정도의 물리학적 지식을 얻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고등학교에서 물리를 배우면 공기저항이나 마찰력이 없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교육 과정상 그 정도 난이도의 상황들은 다루지 않았고 여전히 현실보다는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내용만 다루었고 입학 당시 저의 목표는 아직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대학에서 전문적인 수준의 물리학 내용을 배우며 이러한 저의 목표에 다가가고 싶습니다.

[질문] 이상적인 상황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답변] 만약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본 것처럼 저도 사과가 떨어지는 데 얼마나 걸릴까를 계산해보면 실제로는 계산 결과보다 늦게 떨어집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에서는 공기저항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실제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상황이 아닌 실제 상황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질문] 그러면 물리학 중에서 역학에 관심이 있는 건가요?

[답변] 역학도 관심이 있고 전자기학과 파동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질문] 전자기학 하니 맥스웰 방정식에 대한 보고서를 썼는데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답변] 물리학에서 특수상대성이론을 배우면 특수 상대성이론의 가정이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두 번째가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광속 불변의 원리라는 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관측자의 속도에 관계없이 항상 초속 30만km로 빛이 보인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됐는데, 전자기파 부분을 배우면서 맥스웰이 전자기파의 존재를 예견하였고 이것이 특수상대성이론을 만드는데 영감을 주었다라는 내용을 보고 맥스웰 방정식을 조사해보면 광속 불변이라는 내용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대학교에서도 3학년에 배우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완벽하게 유도해 낼 수는 없었고 그 의미를 해설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가우스 자기장 법칙, 전기장 법칙, 페러데이법칙, 앙페르 맥스웰 법칙을 하나로 묶는 과정입니다. 맥스웰 방정식을 풀게 되면 초속 30만km라는 속도가 값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자기장과 전기장이 서로를 매질로 삼으며 전자기파로서 존재하려면 초속 30만km라는 하나의 값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속도에서 빛을 관측해도 같은 속도로 관측이 되는 것이라고 완전 납득은 안 되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었습니다.

[질문] 맥스웰 방정식은 대학원에서도 어려운 내용이라 고등학생이 다루기는 힘들긴 했을 거예요.

[질문]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 VOLUM 1을 읽었다고 써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답변]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는 리처드 파인만이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강의한 걸 그대로 책으로 옮겨놓은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완벽하게 이해해서 물리학 실력이 많이 늘었다.... 라고하면 거짓말이되겠죠..? 사실 제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의 책이었지만 파인만이 노벨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파인만씨 농담도 잘 하시네 같은 책에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이 책을 낸 것이다 라고 표현을 자주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파인만이 가장 잘한 업적이라고 평을 하였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미리 한번 확인해보는 의미에서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책을 읽으며 뒷부분은 상당히 난이도 있는 내용이 많아서 이해하기 쉽지 않았지만 앞부분의 내용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이해 가능한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힘을 이동거리에 대해서 적분하면 일이고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운동량이라거나 등속원운동같은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가 쉬워지는 미적분이라는 책에서도 다루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그래서 대학교에서 어떤 내용 배우지 감좀 잡았나요?

[답변] 조금은 잡은 것도 같습니다..하하..

[질문] 이 책 캘리포니아 공대에서도 어렵다고 욕 많이먹은 책이라서 아마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질문] 솔직히 말해서 물리학과가 그렇게 인기 있는 과는 아니잖아요, 물리학과에 오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어떤 의문점이 있을 때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지식을 주는 학문이 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진동수에서 소리가 커지는 현상에 대해서 조사해보면 공명현상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공명현상도 왜 생기는 것이냐 하면 정상파 때문에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에 대한 실험으로 기주공명실험을 진행해보고 하는 식으로 의문점들을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취업 같은 경우에도 물리학과는 공대에서 배우는 내용을 대부분 배우기 때문에 기업에서 채용 공고를 낼 때도 공대 출신을 뽑는 곳에서는 대부분 물리학과 출신도 함께 뽑기 때문에 물리학도를 졸업한 이후 기업에 취직해서 물리학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특히 강원대학교 물리학과는 4학년 과목으로 물리음향학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어있습니다. 제가 대학들을 조사하면서 여러 대학들을 본 결과 이런 음향과 관련된 과목은 강원대가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강원대학교 물리학과에서 물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질문] 거기까지 알아보고 오셨군요... 음악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음악 관련해서 하는 게 있나요?

[답변] 취미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 그래서..

[질문] 봉사활동을 보니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던데 기억에 남는 활동같은 거 있나요?

[답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2학년부터는 제대로 된 활동이 힘들었어서... 1학년 때 했던 연탄 나르기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혼자 연탄을 나르는 게 아닌 여러 명이 길게 줄을 서서 연탄을 옆으로 전달하며 더 효율적으로 연탄을 옮길 수 있었던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같은 거 있을까요?

[답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원대는 물리음향학 과목이 개설되어있고 그 외 다른 물리과목도 개설되어있어서 제가 고등학교 3년간 가장 관심을 가지고 탐구한 역학, 전자기학, 물리음향학을 모두 배울 수 있는 학교입니다. 꼭 강원대학교에서 물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예상외로 전공 관련 질문보다는 인성 관련 질문이 나와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전공 관련 질문을 안 받았다고 걱정하는 분이 있는데 저도 합격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받은 내용 중 모르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맥스웰방정식이 고등학교 수준이 아니라 답변을 준비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탐구 동기와 탐구하며 얻은 깨달음이나 의의를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지원동기로 이 대학만이 가진 특별한 무언가를 하나 정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학년에 개설된 물리음향학 과목으로 잡았습니다.

공 주 대 학 교

대학명	공주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격
학과명	데이터정보물리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일반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1층 입구에서 체온측정 및 방문등록 - 대기실 대기- 면접- 귀가 면접은 면접관 2분과 응시자의 2대1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 볼 때 수험표로 수능 수험표를 가져가는 학생이 보이는데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수험표 발급받아서 가져가야 합니다. 면접 대기 중에 휴대폰은 가방에 넣어서 뒤에 제출하고 자리에서 생기부나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출력해온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올 때 힘들었죠?

[답변] 네 조금 힘들었습니다..

[질문] 대중교통 타고 온 건가요?

[답변] 부모님 차 타고 왔습니다.

[질문] 서류기반으로 옆에 면접관님이랑 질문할 건데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요.

[답변] 넵

[질문]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답변] 네 시작해주세요.

[질문] 생기부에 물리학에 관심이 많아 교육과정 멘토단에 참여하여 자연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물리학의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고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후배들에게는 성적보다는 자신의 진로에 필요하다면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상담을 하였다고 써있는데, 물리학의 필요성이 어떤 걸까요?

[답변] 저는 평소부터 물리학이라는 과목의 유용성을 친구들에게 설명해주고는 하는데, 예를 들자면 제 친구가 에버랜드를 가기 위해 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제를 정해야 했는데 그 친구가 아무 주제나 말하다가 롤러코스터의 최고속력 구하기를 할 까라고 했었는데 그 친구는 물리를 안 배웠지만 저는 물리를 배웠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을 이용해서 위치에너지 변화량이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 외에도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스마트폰의 무선충전 또한 전자기 유도현상을 이용한 예시이고 이처럼 물리를 이용한 예시는 매우 많기 때문에 상담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질문] 교육과정 멘토단이.. 친구들끼리 조직한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로 진행한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었나요?

[답변] 학교에서 따로 진행했던 활동입니다. 1, 2학년의 경우 학년이 올라가면서 교육과정상 과목을 따로 선택해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 과목선택을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자연계열 과목에 대한 상담을 해줬습니다.

[질문] 아까 무선충전 말인데요, 생기부 내용을 보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무선충전과 자기공명을 이용한 무선충전 기술을 비교 설명하였다고 하는데 이 두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답변] 전자기유도를 이용한 무선충전의 경우 학교에서 배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예시입니다. 코일에서 변하는 전류가 변화하는 자기장을 만들게 되고 이 자기장이 스마트폰에 다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일으켜 유도 전류가 흐르게 하는 원리입니다. 자기공명을 이용한 무선충전은 공진유도 방식이라 불리는데, 저도 이 내용을 알아보면서 처음 보는 내용뿐이라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가 친구들에게 설명할 때는 방송국 안테나 FM신호 송수신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FM송수신 같은 경우에는 코일에 전류가 흐르며 전자기파를 발생시키고 발생된 전자기파는 이 전자기파의 주파수를 고유주파수로 갖는 회로와 공명하여 회로에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공진유도방식의 무선충전은 이 과정에서 전자기파가 아닌 전류가 흐르면서 생기는 자기장을 싸주어 그 자기장의 진동수와 맞는 회로를 공명시켜 전류가 흐르게 함으로써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질문] 공명현상이 어떤 현상인가요?

[답변] 공명현상은 물체의 고유진동수와 같은 진동수의 파동을 만났을 때 정상파가 만들어져 진폭이 커지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정상파란 위상이 같고 진행 방향이 반대인 두 파동이 만났을 때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을 반복하며 진폭이 더 커진 하나의 파동이 한곳에 멈춰서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파동을 말합니다.

[질문] 그럼 물체의 고유진동수와 같은 진동수에서만 공명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피아노 줄의 공명을 예로 들자면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줄 길이에 맞는 파장을 가지는 정상파가 만들어지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파장의 $\frac{1}{2}, \frac{1}{3}$ 과 같은 길이의 파장들도 함께 정상파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배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도 음을 누르게 되면 도 음뿐만 아니라 도, 솔, 도, 미, 솔, 시플렛 같은 배음들이 함께 소리가 납니다.

[질문] 그러면 도의 다음 배음은 뭐가요?

[답변] 도의 2배의 주파수를 가지는 도의 다음 옥타브 도입니다.

[질문] 평소 물리중에서 역학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정확히 기억안나지만 이런느낌) 뉴턴의 운동법칙 3가지에 대해서 말해줄래요?

[답변] 뉴턴의 운동법칙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입니다. 모든 물체는 정지하고 있으면 정지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운동하고 있으면 운동하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a = \frac{F}{m}$ 로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를 크게 하기 어렵고 물체에 힘을 크게 줄수록 물체의 가속도가 커진다는 내용입니다. 제3법칙은 작용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제가 이 앞의 책상을 밀면 책상도 저에게 제가 준 것과 같은 크기의 반대방향의 힘을 작용합니다.

[질문] 이건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대답해주세요.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업계의 문제점을 장르의 획일화, 장편 애니메이션의 부대로 보고 다양한 시도를 해결책으로 내세움이라고 나와 있는데 애니메이션 좋아하나요?

[답변] 네 좋아합니다.

[질문] 우리나라 애니메이션과 일본 애니메이션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답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은 아동용이다라는 인식이 강한 편입니다. 또 실제로도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이 아동층을 타겟으로 제작되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주로 청소년이나 성인을 타겟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주로 3D모델링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이 많은 반면 일본은 2D로 직접그린 애니메이션이 많습니다.

[질문]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어떤 거인가요?

[답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매우 많은데, 최근에는 마녀의 여행이라는 마녀가 여행하며 적은 일기를 저희가 들여다보는 형식의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질문] 일본 애니메이션의 어떤 부분이 좋은 건가요? 그림이 이쁘다거나 스토리가 좋다거나...

[답변] 일본 말고도 미국의 디즈니도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하지만 디즈니보다도 일본 특유의 그림체가 마음에 들어서 좋아합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말 있나요?

[답변] 공주대학교 물리학과가 몇 년 전에 데이터정보 물리학과로 바뀐 걸로 알고있는데 요즘 조명받고 있는 양자컴퓨터는 양자 중첩을 이용하여 더 빠른 계산을 할 수 있고 불확정성 원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외부에서 해킹하면 데이터의 상태가 랜덤하게 결정되어 외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전송하는 방법도 연구 중입니다. 또 통계역학은 수많은 입자의 움직임을 컴퓨터를 이용해 계산합니다. 때문에 공주대학교의 C언어나 파이썬같은 커리큘럼은 실제 물리학 연구를 할 때 실무환경에서 필요한 역량을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주대학교에서 물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아는 것이 힘이란 말도 있듯이 면접에서 긴장하지 않고 잘 말하는 방법은 어떤 질문이 와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생기부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생기부의 전공 관련 내용들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생기부 뿐만이 아니라 지원동기나 봉사활동 같은 기본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대학을 가고싶은지 이유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에 대한 근거나 예시를 정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차분히 생각하고 답하길 바랍니다. 저도 애니메이션에 대한 질문이 나올 줄 몰라서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강원대학교

대학명	강원대(춘천캠퍼스)	최종 합불현황	1차 총원 기준:예비3번
학과명	지질. 지구물리학부	총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예비4번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미래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 생기부 기반 면접, 면접시간: 7분~10분, - 면접위원수: 2명, 블라인드 면접		
기타 유의사항	자신의 신분이나 부모님의 신분을 밝히는 말을 해서는 안 됨. (ex, 이름, 수험번호, 학교, 부모님 직장)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내가 이 지원자들 중에 이거 하난 강점이다 하는 것이 있나요?

[답변] 저에게 주어진 문제나 숙제에 대해선 누구보다 진심으로 열정을 다해 소화해 내는 것과 제가 알고 있는 지질 구조를 통해 반감기를 구하고 그 시대에 변성했던 화석을 알아내는 퇴적학은 자신이 있습니다.

[질문] 지질도 순서나 종류에 대해 탐구하셨는데 지질도의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순서는 노선지질도, 지질평면도, 지질단면도, 지질주상도 순이고 지형도 위에 기호로 표시한 것이 노선지질도이고 여러 곳의 노선지질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것이 지질평면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지구온난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기온이 높아지면 모기, 파리와 같은 질병을 옮기는 곤충이 증가하고 휴면중이던 바이러스를 다시 활동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형성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원동기 말해주세요

[답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타 툰베리라는 친구가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랑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지구 환경 개선을 위해 혼자 시위를 벌이는 모습에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의 연설을 찾아보면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지구온난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지구과학1, 2를 배우고 지구과학 동아리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퇴적학을 기반으로 하는 지질학에 재미를 느꼈고, 지질도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탐구하기도 했습니다. 지질과 환경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배워서 균형 있는 국토개발 및 지구 환경 보존에 힘쓰고 싶다고 생각해서 이 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할 말

[답변] 저를 강원대학교에 합격시켜주신다면 평생 지구과학이라는 학문에 파묻혀 사는 것이 꿈인 저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강원대학교에서 최고의 인재가 될 자신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자기가 준비해 간 답변 내용에 관한 필수 지식이나 활동들은 완전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대답한 것에 대해 꼬리질문이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긴장 안 하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자신의 생기부와 면접에 대한 자신감을 꼭 가지세요.

공 주 대 학 교

대학명	공주대학교 (공주캠퍼스)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지질환경과학과	총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종합전형	전형명	일반전형(종합)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 생기부 기반 면접, 면접시간: 7분~10분, - 면접위원수: 2명, 블라인드 면접		
기타 유의사항	자신의 신분이나 부모님의 신분을 밝히는 말을 해서는 안 됨 (ex, 이름, 수험번호, 학교, 부모님 직장)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자기소개랑 지원동기 말해주세요

[답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레타 툰베리라는 친구가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랑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지구 환경 개선을 위해 혼자 시위를 벌이는 모습에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의 연설을 찾아보면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지구온난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지구과학1, 2를 배우고 지구과학 동아리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퇴적학을 기반으로 하는 지질학에 재미를 느꼈고, 지질도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탐구하기도 했습니다. 지질과 환경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서 균형 있는 국토개발 및 지구 환경 보존에 힘쓰고 싶다고 생각해서 이 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암석과 광물의 차이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답변] 암석은 혼합물이고 광물은 화합물로 알고 있습니다. 광물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단위입니다.

[질문] 점토광물이 녹조 제거에 쓰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녹조는 일사량이 높아질 때 해수면에 녹조류들이 많아져 녹색을 띠는 것을 말합니다. 녹조류들이 많아지면 햇빛이 물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해양 생물들이 다양한 유기물 만드는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녹조류를 제거해야 하는데 저도 논문을 참고한 거라서 자세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토 광물에 녹조류들을 제거하는 성분이 있어서 지구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압니다

[질문] 2학년 때 동아리 때 했던 화성암 만들기 실험은 어떤 실험인가요?

[답변] 화성암 함량에 포함되는 7대 조암광물 중 유색광물은 흑운모, 감람석, 각섬석, 휘석이 있고 무색광물은 석영 사장석, 정장석 이렇게 있는데 이 중 만들고자 하는 화성암에 표시되어

있는 함량만큼 개수를 세서 그것들을 뭉치는 실험이었습니다.

[질문] 우리 학과에서 알아본 전공과목이나 공부하고 싶은 게 있나요?

[답변] 구조지질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질문] 구조지질학에서 무엇을 배우는 줄 알고 뭐가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나요?

[답변] 제가 지진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지진은 예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P파가 도착하기 전의 전조증상을 조사하고 싶었는데 구조지질학을 배우면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질문] 마지막 할 말

[답변] 저를 공주대학교에 합격시켜주신다면 평생 지구과학이라는 학문에 파묻혀서 사는 게 꿈인 저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공주대학교에서 최고의 인재가 될 자신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한 답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답변한 내용에서 꼬리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원동기, 자기 소개, 마지막 할 말은 무조건 준비해가세요.

국 민 대 학 교

대학명	국민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추가합격
학과명	기계공학부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6번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농어촌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교수님으로 보이시는 3분이 앞에 앉아계시고 처음에 긴장을 풀어주시면서 면접이 시작된다.		
기타 유의사항	옆에 친구들과 떠들면 안 되고 가져온 자료를 일체 볼 수가 없다.		

질문 및 답변 내용

1. 점심 드시고 오셨어요?

- 제가 긴장을 하면 장 트러블이 생겨서 밥은 못 먹었습니다.

1-1. 얼른 그럼 면접 끝내고 밥 먹으러 가야겠네.

- 아닙니다. 최대한 오래 있고 싶습니다!

2. 자기소개 30초 정도로 간단하게 해주세요.

- 저는 친구들이 거북이라고 부릅니다. 시작할 때는 뒤에 있지만 어느새 남들보다 앞서 있는 모습을 보고 거북이라고 부릅니다. 2학년 체육 시간 때 저글링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장 못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들보다 느린 것을 알았기에 친구들이 설 때, 집에서 연습한 결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에 포기하지 않는 끈기는 저의 최대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 국민대학교에 지원한 이유에 설명해주세요.

- 저는 1학년 로봇기술마을에 가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 개발하고 코딩했던 경험은 저를 로봇 기계 연구원이라는 명확한 꿈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사 시간에 전태일 분실 자살 사건을 보고 근로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근로환경에 대해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여러 근로환경 문제를 보면서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 국민대학교 기계공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4. 4대 역학이 무엇인지

- 열역학, 동역학, 재료역학... 죄송합니다. 제가紧张해서 그런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4-1. 여기 유체역학 가장 좋아한다고 생기부랑 자소서에도 다 적혀있는데?

- 맞습니다. 제가 많이紧张한 것 같습니다!

5. 방송부에선 주로 어떤 활동을 진행했나요?

- 방송부에선 학교 행사일 때 방송 장비를 켜고 각 반에 들어가서 티비 채널을 맞추거나, 먼저 행사장에 가서 행사 준비를 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6. 방송부에서 기억에 남는 활동 혹은 의미 있던 것이 있다면 의미 있는 이유까지 말해주세요.

- 저는 방송부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배운 것입니다. 방송부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실수도 많았고 학교생활도 어려움을 겪으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송부 선배들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방법을 배우며 후배들에게도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7. 가볍게 읽는 유체역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

-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유체논리소자에 대해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유체논리소자란 유체를 공급해... (갑자기 기억 안 나서 어병병함) 유체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8. 학교에 입학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 저는 근로자를 위한 기계를 개발하는 로봇 기계 연구원이 되기 위해 공부할 것입니다. 학부생 때는 일반 물리, 일반 물리 실험 등을 4대 역학을 학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쿠도스라는 로봇 동아리에 가입해 로봇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로봇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후 융합기계전공을 선택해 휴먼테크놀로지 디자인, 기계설계 수업을 배워 로봇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9. 기계 요소 설계 수업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학교 정규과정에 있던 것가요?

- 학교 외에 수업이고 공동교육과정으로 제가 직접 선택해서 들은 것입니다.

10. 기계 요소 설계 수업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

- 설계도를 분석해 기계 부품인 기계의 동력축, 동력 전달 장치, 톱니바퀴 모형 등을 3D 모형으로 제작해보는 수업이었습니다.

11.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했는지

- 인벤터를 활용해서 제작했습니다.

12. 고급 수학1도 들었는데 고급 수학1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는지 설명해주세요.

- 고급 수학에선 벡터, 행렬, 선형 변환, 복소평면, 동형그래프 등을 배웠습니다.

13. 본인이 비교적 영어를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 고등학교 입학할 땐 영어를 못하는 것이 맞았다고 하고 영어 성적이 상승했던 때인 2학년 2학기 때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지만 3학년 때 학교도 못 갈 정도로 많이

아팠고 수업도 못 들었다. 그렇게 시험에 들어가서 omr 마킹 실수를 해서 성적이 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14. 1학년 때 휴머노이드 로봇 제작해봤다고 했는데 어디서 한 것인지
 - 학교 체험학습으로 로봇기술마을이라는 곳을 방문해서 제작해보았습니다.

15. 휴머노이드 로봇이 무엇이고, 어떻게 조립했는지
 - 휴머노이드 로봇이란 인간의 모습을 유사하게 갖춘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팔, 다리, 몸통, 관절 등을 레고 키트를 활용해서 직접 조립해보았습니다.

16. 휴머노이드 로봇 코딩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용했나요?
 -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블록 같은 것을 활용해서 큰 블록 안에 정확한 입력 값의 블록을 넣어서 하는 코딩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7. 마지막으로 준비한 말 있으시면 해주세요. (밖에서 푹푹 소리가 남)
 - 제가 국민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기계설계, 테크놀로지 디자인 수업 등을 수강해 듣고 로봇 동아리인 쿠도스에 들어가 로봇을 조립해보고 로봇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싶습니다. 이 이후 대학원에 들어가 로봇에 대해서 더욱 배워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생기부에 모든 내용을 읽어보면서 한글파일로 이 활동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궁금해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예측해보고 활동을 정리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승 실 대 학 교

대학명	승실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격
학과명	기계공학부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고른기회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ZOOM 프로그램을 활용해 면접을 진행하고 면접을 볼 땐 교수님 2분과 면접을 시작한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 대기실에선 ZOOM 화면에서 나갈 때는 허락을 받아야 하고 면접 자료를 볼 수 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1-1. 자동차 스포일러의 원리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자동차 스포일러의 원리는 비행기에 베르누이 원리가 적용되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비행기 날개 위쪽에선 곡선 모양, 아래쪽은 평평한 모양으로 되어있어 위쪽은 비교적 아래쪽보다 속도가 빠르며 베르누이 방정식에 의해 압력은 낮아지고 아래쪽은 속도가 낮아지면 압력은 높아지게 되는 원리를 자동차에 적용시키면 자동차도 비행기가 뜨는 것처럼 붕 뜨게 되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자동차 스포일러의 역할입니다.

1-2. 자동차 스포일러는 보통 뒤에 있는데 차체의 앞부분이 뜨는 것은 어떻게 막나요?

-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제가 면접이 끝나고 다시 한번 공부해오겠습니다.

2-1. 머신 러닝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표준화와 정규화가 어떻게 사용되나요?

- 표준화는 모든 데이터의 값을 평균을 0 표준편차를 1로 만들어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고 정규화를 통해 데이터들이 얼마나 값에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2-2. 머신 러닝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꼭 설명해주세요.

- 제가 머신 러닝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본 적은 있지만 저에게 많이 어렵게 다가와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승실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교수님들께 꼭 제대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3. 나중에 지능형 로봇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왜 머신 러닝 말고 딥 러닝을 적용시키고 싶은 건가요?

- 머신 러닝은 딥 러닝의 하위 개념입니다. 머신 러닝은 노래를 사용자에게 맞게 추천하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딥 러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고 적용되는 인공지능입니다. 저는 지능형 로봇에 더 발전된 인공지능을 적용시키고 싶어 딥 러닝을 적용시키고 싶었습니다.

4. 인공지능 관련 학과가 아닌 기계공학부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저는 1학년 로봇기술마을에 가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 개발하고 코딩했던 경험은 저를 로봇 기계 연구원이라는 명확한 꿈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사 시간에 전태일 분실

자살 사건을 보고 근로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근로환경에 대해 관심을 꾸준히 갖고 여러 근로환경 문제를 보면서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부전공으로도 배울 수 있지만 4대 역학은 부전공으로 배우기 매우 힘들 것이라 생각하고 기계의 관절 부분 등에 들어가는 역학을 배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4-1. 지원동기에 있던 근로자를 위한 기계를 만들게 되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저의 목표는 근로자와 로봇이 조화를 이루면 안전 근로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로봇이 발전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뉴딜정책 중 하나인 테네시 계곡 개관 정책을 보면 댐을 지으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댐을 관리하는 인원 곧 또 다시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것처럼 로봇을 관리하는 사람이 생겨야 할 것이므로 일자리는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5-1. 지능형로봇시스템 연구실에서 경험을 쌓고 싶다고 했는데 여기 교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연구하는지 알고 있나요?

- 제가 기계공학부 홈페이지를 찾아봤지만 이러한 연구실이 있다고만 있다고 봤지 어떠한 연구를 주로 하는지 교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2.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적어두신 건가요?

- 아닙니다. 저는 대학원에 진학할 것이기 때문에 지능형로봇시스템 연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가 배우고 싶은 학문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6.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 고등학교 3년은 저에게 “나도 노력하면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준 시간이었습니다. 송실대학교 기계공학부에서 기계, 로봇, 인공지능에 대한 학문들을 배우고 로봇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 되겠지만 고등학교 때에 경험은 빛을 바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송실대학교에서 저의 목표를 이뤄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생기부에 모든 내용을 읽어보면서 한글파일로 이 활동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궁금해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예측해보고 활동을 정리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내신이 낮아도 끝까지 생활기록부를 채웠으면 좋겠다.

중 앙 대 학 교

대학명	중앙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격
학과명	기계공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다빈치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층 다목적실에서 기계공학과 1차 합격을 한 학생들이 모여 대기함 2. 진행 요원이 다음 사람이 시작한 후 1분 후, 2명씩 불러냄 3. 진행요원이 면접 시 유의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함 4. 면접은 코로나로 인해 6~7분으로 축소됨 5. 칸막이가 있는 의자에 착석 및 면접 시작 		
기타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1] 자기소개서 1번에 있는 분필 흡입기에 대해 설명하시오

[답변1] (1) 활동 동기 (2) 만든 과정 -> 자소서에서 녹아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함

[꼬리] 아두이노 모터를 이용했다는데, 어떻게 사용한 것인가?

[답변] 분필가루의 양에 따라 모터의 강도를 단계화할 수 있도록 모터의 세기를 다단계화하는 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꼬리] 아두이노로 분필가루의 양을 측정하는 것인가?

[답변] 아니요. 분필가루는 육안으로 판단하고 스위치를 눌러 모터를 원하는 단계로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질문2] 비행기의 브레이크 중 유압 브레이크가 있다는데,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인가?

[답변2] 유압 브레이크는 파스칼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리 설명). 비행기의 유압 브레이크도 이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질문3] 다양한 멘토 멘티 활동을 했는데,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있나?

[답변3] 저는 주로 영어 과목을 친구들에게 알려주면서, 가르치는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순한 해석이 아닌 예시를 떠올리며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시를 멘티에게 알려주면서 이해 능력을 증진시켰습니다.

[꼬리] 그러면 수학, 과학보다 영어 능력이 더 뛰어난 것인가?

[답변] 그렇기보다는 어릴 적부터 영화나 팝송을 접하면서 영어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 기억을 살려 영어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자신 없게 함)

[질문4]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나요?

[답변4]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유능한 항공 기계공학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좋은 인연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1. 다른 사람의 면접 후기에 의존하지 마라.
ex) 중앙대 면접관들 긴장 잘 풀어준다고 했는데, 기계공학과 면접관들은 살벌했음
다른 사람들이 세세한 것까지 안 물었다고 해서, 준비 안하면 망하는 길임
2.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자신감! 목소리 작아지면 안 됨!
3. 면접관의 말을 끊지 말기, 질문을 다 했다 싶었을 때 답변해라!
4. 눈을 똑바로 보라! 졸아서 다른 곳을 보면 면접관에게 매우 거슬리는 행위임.
5. 혹시라도 긴장해서 답변을 못 한다면,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라고 말하기.
어차피 학생들 긴장한 건 면접관도 충분히 알고 있음.
6. 자신의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은 당연히 모두 알고 있어야 함. 거기서 추가적인 지식들을 공부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됨.
7. 생활기록부에 거짓말로 넣은 활동은 나중에 설명하기 힘들어짐. 진행한 활동만 생활기록부에 넣는 것이 결국 유리함.
8. 면접을 보고 싶다면 1차 합격을 해야 함. 그렇기 위해선 등급을 올리는 것이 우선임.

- (1) 중앙대학교는 생기부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생기부 이외의 꼬리 질문은 잘 안 하는 편임.
그래도 대비하는 것이 마음은 편함.
- (2) 자신이 배운 교과목에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음.
ex) “확통을 배우셨는데, 독립 사건이 무엇인가요?” 혹은 “물2를 이수하셨는데, 케플러 법칙이 무엇인가요?”

이 화 여 자 대 학 교

대학명	이화여자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예비 5번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형명	고교추천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강의실에서 면접인원이 대기합니다. 휴대폰과 모든 소지품을 제출한 후에 면접 준비 자료를 읽으면서 기다리면 현장에서 가번호를 배부하고, 가번호 순서로 스태프분께서 데리러 오십니다. 3개의 방에서 진행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면접은 6분 내외였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비대면이었기 때문에 빈 강의실에서 책상에 노트북을 올려둔 채 진행되었습니다. 전날 면접 본 분들께서 소리가 잘 안 들리신다고 하셔서 걱정했지만 저는 큰 문제 없이 면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1] 지원동기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답변] 제 꿈은 제가 가진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생명공학 분야의 발달에 기여하고 사람들을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재학기간, 스마트워치로 수집된 심장박동데이터를 이용하여 머신러닝 모델로 학습시키는 방법을 고안해낸 후,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값을 파이선으로 실습해 보았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헬스케어에 관심을 가졌고, 이를 전공하고자 다짐했습니다.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는 국내 유일하게 이화여대에 설치되어있는 만큼 매년 꾸준히 대학 내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화여자대학교가 훌륭한 배움의 터가 되어 저에게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첨단 바이오 헬스 산업을 기획 및 선도’한다는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의 슬로건 아래 의생명 공학 및 바이오데이터 분야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질문2] 성적이 1학년때에 비해 하락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변] 생활기록부의 출석란에 보이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 많이 빠졌지만 학업에서만만큼은 절대 뒤쳐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어진 시간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했고, 운동과 건강관리에 힘쓰며 스스로 보살피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이 되었든 포기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질문3] 1학년 때에는 교사를 희망하는 것 같은데, 휴먼기계바이오공학과에 진학한 후 다시 교사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답변] (진로 변경 계기만 준비해가서 약간 당황했었어요.) 막연히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기에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코로나 19사태로 고통받는 아이들과 이외의 현대만성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본 후, 기존 진로에서 확장하여 의료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싶었기에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를 졸업한 후에는 나노바이오 랩실에서 다양한 유전병 구분을 위해 분자생물학적인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에 남아 연구할 것입니다.

[질문4] 특이하게 고급화학을 수강했는데 그 이유와 가장 기억에 남는 개념을 설명해주세요.

[답변] 2학년 때 생명과학1을 수강하며 생명과학에 관심을 가졌고, 생명과학의 이해에 기본이 되는 화학을 깊게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화학2와 고급화학을 수강했습니다. 고급화학시간에 배운 헨더슨 하셀바흐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화학 시간에 배운 이 식을 직접 유도해보았고, 생명과학2와 화학2의 융합수업시간에서는 직접 완충용액 실험을 진행하고 이 식에 값을 대입해 R기의 짝산 짝염기의 형태의 비율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화학과 생명과학의 관련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질문5] 리더십 관련 활동이 많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이야기해주세요

[답변] 우산대여제의 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학생회 부장으로서 학생회 회의에서 책임 우산제를 제안했고, 학생회 친구들과 우산제의 정착에 힘썼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반을 돌아다니며 미반납된 우산을 수거했고, 학교sns를 이용하여 우산반납시간을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책임우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고, 다음 학생회에게 우산들을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등을 마주할 때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진학 후에도 갈등을 마주하면 공동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끊임 없이 고민할 것입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저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진로를 교사에서 생명과학 연구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그로 인해 2학년까지 문과였고, 3학년 때 이과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자연계열에 지원할 때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진로 변경 계기와 늦게 진로를 찾은 만큼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과학의 기반이 되는 화학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서 고급화학을 수강했다'와 같은 맥락입니다.

기본적인 질문(ex.지원동기, 자기소개, 마무리인사)것들은 40초 안에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암기했습니다. 그 후에는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진학 후 계획, 갈등극복사례,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 진정한 봉사활동을 했던 경험과 같은 빈출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 후 외웠습니다.

생기부 기반의 교과 면접이었기 때문에 생기부를 거의 외울 정도로 많이 봤었고, 그 내용만을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생기부에 적혀 있는 모든 활동에 대해 탐구동기와 활동 과정, 그리고 느낀 점을 40초 이내에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말을 황설수설하게 하고, 목소리가 떨리는 편이라 면접을 굉장히 걱정했었지만, 단기간 집중해서 준비하고, 교과면접이다보니 4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장기간 준비하는 것이 좋겠지만, 생기부 기반의 교과 면접이라면 수능 공부하다가 면접 전 5일 정도만 집중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질문4번 같은 경우, 모의면접에서 받았던 질문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빈약하다고 생각했던 화학 과목에 대해 답변할 각오를 하고 있었고, 그 개념들도 설명할 정도로 익숙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준비해갔습니다. 친구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예상질문을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과정이고, 큰 도움이 되었지만, 자신만의 단점과 장점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본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충 남 대 학 교

대학명	충남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격
학과명	메카트로닉스공학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농어촌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교수님 두 명이 앞에 앉아계시고 대화하듯 면접이 시작된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 대기실에서 가져온 자료 볼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떠들면 안 된다.		

질문 및 답변 내용

1. 메카트로닉스공학과에 지원한 이유와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말해주세요.
 - 저는 1학년 로봇기술마을에 가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 개발하고 코딩했던 경험은 저를 로봇 기계 연구원이라는 명확한 꿈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사 시간에 전태일 분실 자살 사건을 보고 근로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씨의 사고 등을 보고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중 극한직업이란 프로그램을 보며 많은 근로자들이 손을 다치는 것을 보며 지능형 시스템이 탑재된 로봇 팔을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해 메카트로닉스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메카트로닉스공학과에 들어와 정역학, 고체역학, 프로그래밍 언어 등을 배우며 대학원에 진학해 학업적인 능력과 실습적인 능력을 향상시켜 한국기계연구원에 들어가 근로자들을 위한 로봇 팔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2. $\cos x$ 미분, e^{2x} 미분, e^{x^2} 미분해보세요.
 - $-\sin x$, $2e^{2x}$, $2xe^{x^2}$ 입니다.
3. 물리1, 2 배웠나요?
 - 네 물리1, 2 둘 다 배웠습니다.
4. 운동량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 운동량이란 $p=mv$ 라는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질량 m 이라는 물체가 속도 v 로 움직이고 있을 때 운동량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기계 요소 설계라는 수업은 학교 정규 수업인가요?
 - 학교 정규 수업은 아니고 공동교육과정으로 제가 직접 신청해서 들었습니다.
- 5-1. 어떤 걸 배우는 수업인지
 -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설계도를 분석해 기계 부품인 기계의 동력축, 동력 전달 장치, 톱니바퀴 모형 등을 제작해보는 수업이었습니다.

6. 효행상은 선생님이 뽑아서 주는 건가요? 학생들이 뽑아서 주는 건가요?

- 친구들의 투표로 뽑고 선생님께서 의견에 동의하시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1. 효행상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소외받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잘 챙겨준 덕분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7. 부실장을 했는데 왜 뽑혔다고 생각하는지

-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외받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고 모든 친구들한테 먼저 다가가 준 것이 부실장이 된 것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 회전 관성에 대한 설명을 꼭 하셨습니다.

- 혹시 회전 관성인가요?

8-1. 네 맞아요! 회전 관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주세요.

- 회전 관성이란 회전하는 성질을 유지하려는 정도입니다. 회전 관성은 고등교육 과정에 없는 내용이지만 도르래 실험을 한 뒤 질량을 무시하는 도르래를 공부하던 중 회전 관성에 대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회전 관성을 대학교 미적분으로 유도하는 식이 많아서 공부하기 조금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꼭 충남대학교에 진학해 교수님들께 회전 관성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8-1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할 때 손을 펼쳤다가 다시 감는데 그때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 더 빠르게 많이 돌기 위해서 회전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8-2 왜 속도가 빨라진다고 생각하나요?

-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충남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꼭 알아서 오겠습니다.

9. 2-2학기까지 성적이 쑥 오르다가 3-1학기 때 떨어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저는 처음부터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면서 성적이 오르는 것을 보고 더욱더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하지만 3학년에 들어서 성적에 대한 부담감과 컨디션 관리를 잘 하지 못해 학교를 빠질 정도로 많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컨디션으로 학교 시험을 보고 omr 카드 작성을 실수해 성적이 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10.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시면 하고 없다면 나가셔도 됩니다.

- 저의 고등학교 3년은 “나도 노력한다면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충남대학교에 입학해 로봇과 지능형 시스템에 대해 공부해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 되겠지만 고등학교 때 겪었던 경험, 느꼈던 생각들은 빛을 바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생기부에 모든 내용을 읽어보면서 한글파일로 이 활동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궁금해 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예측해보고 활동을 정리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서울대학교

대학명	서울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종합
학과명	전기정보공학부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실 제시문 풀이(45분) - 면접실 앞 대기 및 안내사항 전달(5분) - 면접(15분) 		
기타 유의사항	이름 말하지 않기		

질문 및 답변 내용

[답변]

-일단 저는 이 문제들은 답을 구했고 이 문제들은 풀이만 생각해봤고 이 문제는 못 풀었습니다

[질문]

-풀은 문제 정답부터 말해봐

[답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질문]

-이 답 딱 두배 나왔는데?

[답변]

-아 도함수의 적분법을 사용했는데 긴장해서 2를 두 번 곱했네요

[질문]

-풀이만 생각한 문제들은 어떻게 풀 거야?

[답변]

-이렇게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질문]

-그래 맞아 맞아

[답변]

-이게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식이 엄청 복잡하게 나오더라고요

[질문]

-원래 그 문제가 계산이 복잡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네가 말한 방법대로 계산하면 답이 이거야 그러면 그다음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답변]

-위에 문제 답을 써서 이렇게 하면 될것같아요

[질문]

-맞아 그럼 못 풀은 문제는 답이 뭐같아?

[답변]

-포물선인가요?(포물선이라고 답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음)

[질문]

-아니야

[답변]

-쌍곡선인가요?

-아니야 이게 위에 문제를 풀이과정만 찾으면 풀기 어렵지 시간 끝났으니까 나가도 돼
(중간에 빼먹은 교수님과 대화 내용도 많은데 잘 기억이 안 남)

후배들을 위한 조언

문제 많이 못 풀었는데 시간이 5분 남으면 답을 구하기보단 풀이 방법을 생각해보기, 생기부 물어볼 시간 없음 문제 풀이하기도 바쁨, 칠판 판서 여부는 과마다 다름 나는 종이 위에 연필로 풀이하고 웹캠으로 보여드리는 방식이었음, 교수님들께 발표하는 느낌보단 수학 문제 토론하는 느낌으로 하니까 분위기가 편해짐, 아침에 무조건 무조건 일찍 가기. 길이 좁아서 차 명절 만큼 밀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전기정보공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수시	전형명	학교생활우수자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8:30분까지 지정된 학교 건물 강의실로 입실한 후 전자기기를 모두 수거하였습니다. 그 후 면접 번호를 스티커 형식으로 왼쪽 가슴에 붙인 후 3명씩 면접장 밖 의자에서 대기하다 자신 차례에 면접을 보고 나왔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p>학생 같은 복장을 입으시고 면접에 임하는 자세를 연습하고 가세요. 면접도 준비해야 합니다. 꼭 친구들이나 부모님, 선생님과 연습 많이 해보고 가세요! 모의질문도 많이 만들어 보세요.</p> <p>”이건 안 나오겠지“는 없습니다.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 꼭 ”이건 안 물어보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 생각하고 모의질문을 만드시길 바랍니다.</p>		

질문 및 답변 내용

면접실 입장 후 ”앉으세요“ 말한 후 바로 질문

[질문]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를 말해주세요

[답변] 저는 감전이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전기제품을 사용할 때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없을까?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리학 1 수업에서 물질과 전자기장 단원을 배우면서 전기전자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전기전자 배우면서 전기제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전기공학 기술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어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기정보공학과에 커리큘럼을 통해 전기공학기술자로서 지녀야 할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발명개발연구회동아리에서 전기장비들을 더 안전하고 성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전기공학 기술자로 성장하고 싶어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기정보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꼬리 질문) 몇 살 때 감전되어 봤어요?

[답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꼬리 질문) 그럼 감전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설명해보세요.

[답변] 세상에는 도체와 부도체로 나뉩니다.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고 부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도체에다가 부도체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면 감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자소서에 키르히호프 법칙을 실험했다고 했는데 키르히호프 법칙이 뭔가요?

[답변] 1 법칙과 2 법칙이 있습니다. 먼저 1 법칙은 접합점 법칙이라고 하는데 회로 내의 어느 점을 취해도 그곳에 흘러들어오거나 흘러나가는 전류는 같다 입니다. 2 법칙은 폐회로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임의의 닫힌 회로(폐회로)에서 기전력의 합은 전압강하의 합과 같다 입니다.

[질문] 자소서에서 맥스웰 4 방정식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 맥스웰 4 방정식이 뭐죠?

[답변] 맥스웰 4 방정식에 대해 설명하는 책이었는데 고등학교 범위에서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제1 법칙 전기장의 가우스 법칙은 +전하와 -전하는 분리할 수 있다. 제2 법칙 자기장의 가우스 법칙은 N극과 S극을 쪼갤 수 없다. 제3 법칙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은 자기장의 변화는 전류를 만든다. 제4 법칙 앙페르의 법칙은 전류 또는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만든다.입니다.

이 내용은 맥스웰 4 방정식의 표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방정식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입학하여 대학 물리학인 전자기학을 배워 수학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꼬리 질문) 그럼 4 방정식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방정식은 뭐예요?

[답변] 저는 맥스웰 4 방정식 중 제3 법칙인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입니다. 그 이유는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을 통해 많은 발명품으로 사람들에게 더욱 편리한 삶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저도 전기공학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확률과 통계를 잘 하셨네요. 조건부 확률을 설명해보세요

[답변] 조건부 확률이란 주어진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 다른 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뜻합니다.

(꼬리 질문) 그럼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코로나 감염자의 비율이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꼬리질문) 그럼 그 이유를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여 설명해보세요

[답변]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는 코로나 발생 확률부터 다릅니다. 그러기에 조건부 확률에서 조건부터 다릅니다. 애초에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자 비율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오징어 게임 봤나요?

[답변] 네 봤습니다.

(꼬리 질문) 그럼 오징어 게임에서 줄다리기를 할 때 왜 덩치 큰 사람들이랑 하려고 하는지 설명해보세요.
 [답변] 덩치 큰 사람들은 무게도 많이 나가고 덩치가 작은 사람보다 힘도 더 썰 것이라고 생각해 덩치 큰 사람들과 같이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꼬리 질문) 작용 반작용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답변] 작용 반작용이란 힘을 한쪽 방향으로 주면 그 힘과 똑같은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물리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벽을 치면 그것이 작용 벽을 침으로써 벽이 나를 미는 힘 그것이 반작용입니다.

(꼬리 질문) 그럼 작용 반작용을 줄다리기와 연관 지어 설명해보세요.
 [답변] 줄다리를 할 때 줄이 가만히 있는 상황에선 우리 팀이 당기는 힘과 상대방 팀이 당기는 힘이 같아서 작용 반작용에 의해 줄이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
 [답변] 유웨이 유튜브에서 입학처 사정관님과 면접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입학처 사정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현재보다 미래를 설계하기에 딱이다” 이 말은 저를 보고 하는 말 인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현재 전기 관련 지식이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기공학기술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기제품을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저의 열정과 의지는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이론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시스템, 규격 등 실무적인 내용도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면접을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긴장해서 제 모습을 다 못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교수님들께 제 모습을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깐 이것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하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시고 자세도 중요합니다. 꼭 친구,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 연습 많이 많이 해보세요! 앞으로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금 오 공 과 대 학 교

대학명	금오공과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화학소재공학부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KIT인재 II 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신분증 및 수험표 검사→대기실에서 대기하며 본인 얼굴 확인 →호명되면 도우미를 따라 면접실로 입실 등 면접 절차 진행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드폰은 전원을 끄고 따로 제출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놓는다. - 신분증 수험표 가지고 가기 - 예상시간보다 늦어도 10분 전에는 꼭 입실하기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본격적으로 면접 시작하기 전에 긴장하지 말라고 간단한 질문을 먼저 해주신다.) 우리 학교에 와보니 어때요?

[답변] 맨날 인터넷으로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훨씬 크고 너무 이뻐요

[질문] 이제까지 한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이 무엇입니까?

[답변] '나도 교사다' 활동이 기억에 남았다. '나도 교사다'에서 계면활성제가 우리 생활에서 대부분 쓰이고 있다. 그리고 계면활성제에 대한 개념이나 특징 등을 설명하였다.

[질문] 아스피린 실험에서 수득률을 구하는 방법은?

[답변] 아스피린 실험과정과 원리에 대해 짧게 설명을 하고 물을 사용하여 구했다는 것을 설명 그리고 이론상 수득률과 우리가 구한 수득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도 설명하였다.

[질문] 독후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책 이야기하고 그 이유도 설명하였다.

[질문] 봉사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은?

[답변] 마스크 만들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이유 설명하였다.

[질문] 우리 학교에 오고 싶은 이유는?

[답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이나 전공과목을 나의 진로와 관련이 있어 꼭 배우고 싶다는 것을 어필하였다.

[질문] 수상 내역에서 기억에 남았던 대회나 활동(수상 활동)

[답변] 대회에서 했던 실험과정과 보고서 작성 등 활동 설명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답변] 학창시절 화학에 대해 관심이 많고 흥미가 생겨 이를 주도적으로 탐구하였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교에 입학하여 더 많은 활동을 할 것이다 하고 미래계획 이야기 내가 이 대학교에 정말 오고 싶어 하는 것을 어필하였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이라 생활기록부를 확실하게 익히기(따로 예상 질문이나 제시문이 없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만 열심히 분석하기)
- 생활기록부에 나오는 실험과정이나 개념, 원리만 알아가지 말고 봉사활동, 독후활동, 수상내역 등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예상질문 만들어서 연습하고 가기
- 면접분위기는 교수님들이 면접 시작 전에 긴장하지 말라고 분위기를 풀어주셔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진행할 수 있다.
- 목소리는 항상 크게 자신 있게 말하기(면접 보기 전 말하는 연습 꾸준히 하기)
- 들어올 때 나갈 때 인사 크게 하기
- 타이머가 울려도 끝까지 자신 있게 할 말 다 하고 나오기

인하대학교

대학명	인하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화학공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4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인하미래인재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관 세 분과 면접대상자 한 명으로 구성되어있었습니다. 안내에 따라 대기실에 들어가 있다가 호명이 되면 면접실에 들어가 차분히 대답한 뒤 나오면 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블라인드 면접에 따른 수험번호, 부모님 직업이나 성함, 출신 지역과 고교명 언급 금지 유의하기		

질문 및 답변 내용

Q.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세요.

A. 저는 지식의 습득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얻은 배움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상상하며 꿈을 키웠습니다. 3년 동안 환경에 유해한 물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했고 천연재료를 가지고 과일포장재를 만드는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제 구체적인 목표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신소재를 개발하는 연구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꿈을 인하대학교의 화학공학과에서 이루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화학2 과목에서 X선 회절에 대해 탐구를 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어요?

A. 우리가 모르는 결정의 구조를 알고 싶을 때 그 분자에 X선을 쬐어 주어 나오는 회절무늬를 연구하고 그 결정의 구조를 알아내는 해석학이 결정구조해석학입니다.

Q. 그 안에서 어떤 법칙같은 것을 발견하지는 않으셨나요?

A. 반파장의 짝수배인 곳에서는 보강간섭이 일어난다 라는 물리법칙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Q. 자신의 꿈과 화학공학과와의 연관성을 말해줄 수 있나요?

A. 제 꿈은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소재공학과가 아닌 화학공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소재의 공정설계나 그 물질을 사용하고 폐기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친환경성을 고려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재를 보다 넓은 산업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때문에 제품의 공정설계를 넘어 반도체나 산업용 신소재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해 배우는 화학공학과에 지원했습니다.

Q. 본인이 특별하게 공부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나요?

A. 저는 고분자 물성을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생분해 플라스틱이 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물성에 못 미친다는 점을 배우게 되었고, 고분자의 물성을 연구하면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습니다.

Q. 가이드북을 만들었다고 하던데 설명 좀 해주세요.

A. 사람들이 화장품을 살 때 예쁘다는 기준으로만 구매하지 않고, 우리 몸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피해서 살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가이드북이었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것?

A. 립밤에 있는 미네랄오일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정보를 담았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후배들을 위한 조언

면접 순서는 수험번호 순이 아니고, 당일 날 랜덤으로 가번호가 주어집니다. 때문에 가자마자 자신이 첫 번째 순서로 갑자기 면접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서 몇 분 동안 자료 좀 보다 들어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부족하게 준비해가지 마시고, 지금 당장 면접을 본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연습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인하대에서 했던 전공 질문은 상당히 높은 난이도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했던 활동의 과학적인 개념들을 기초적인 수준에서라도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크게 나아가 심화적인 질문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법칙을 발견하지는 않았는지?’처럼, **본인이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 자율적으로 발견하고 얻게 된 지식이 있는지를** 많이 보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면접준비를 할 때 각 활동(전공과 관련된 활동 위주)마다 동기/과정/느낀 점을 정리할 때 인성적인 면으로 느낀 점 말고도 전공지식적으로 배우게 된 점들을 꼼꼼히 정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대학교

대학명	국민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응용화학부-나노소재 전공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최초합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국민프런티어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관 세 분과 면접대상자 한 명으로 구성되어있었습니다. 안내에 따라 대기실에 들어가 있다가 호명이 되면 면접실에 들어가 차분히 대답한 뒤 나오면 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블라인드 면접에 따른 수험번호, 부모님 직업이나 성함, 출신 지역과 고교명 언급 금지 유의하기		

질문 및 답변 내용

Q. 국민대 처음 와보셨나요?

A. 네, 처음 왔습니다!

Q. 처음 와보니까 어땠어요?

A. 낯설지만..설렘니다.

Q. (웃으면서) 아 그래요~?

Q. 먼저 자기소개랑 지원동기 합쳐서 30초 정도 해주세요.

A. 저는 지식의 습득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얻은 배움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상상하며 꿈을 키웠습니다. 3년 동안 환경에 유해한 물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했고 천연재료를 가지고 과일포장재를 만드는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제 구체적인 목표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신소재를 개발하는 연구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꿈을 서울 과학기술대학교의 신소재공학과에서 이루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환경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 생명과학2를 수강 안 했네요?

A. 네, 환경에 관심이 많긴 했지만, 저는 제가 직접 탐구하고 실험하는 경험을 쌓고 싶어 과학 과제연구라는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그 안에서 천연재료를 과일 포장재를 제작하는 실험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친환경 소재 개발이라는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Q. 그럼 그런 과목들로 더 실험 같은 걸 많이 했겠네요.

A. 맞습니다.

Q. 나일론을 비롯한 고분자에 관심이 많다고 되어있는데 중합반응 알고 있는 거 설명 좀 해줄래요?

A. 제가 대표적으로 탐구했던 중합반응은 첨가중합, 그리고 축합중합이었습니다. 첨가중합은 다중결합을 가진 단위체의 결합 일부가 끊어지면서 새로 다른 단위체와 결합하는 반응이고, 축합중합은 단위체에 있는 작용기들의 반응에 의해 간단한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결합을 이루는 반응입니다.

Q. 열역학 관련해서 많이 탐구했는데 엔탈피랑 엔트로피 개념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엔탈피는 반응이 일어날 때, 혹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이동하거나 발생하는 열의 양이고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을 때 무질서도, 즉 엔트로피가 증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Q. 그럼 물이 증발할 때 엔탈피와 엔트로피 변화를 양과 음으로 설명해볼래요?

A. 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되면서 무질서도가 증가했으므로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양수입니다. 또한 증발은 흡열 반응이므로 엔탈피 변화량은 0보다 큽니다.

Q. 혜음 동아리를 2년 동안 활동했는데 어떤 동아리인지, 자신이 세운 성과같은게 있다면?

A. 저는 제가 직접 해 보고 싶었던 활동이 생겨서 2학년에도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최초로 저희 학교에서 수학 골든벨과 팀매쓰라는 수학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재미있게 수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Q. 정말 수학을 학생들이 즐겼나요? 재미만 느낀 게 아니고? (웃으면서)

A. 학생들이 대회가 모두 끝난 뒤 저에게 달려와서 대회 정말 재미있었다, 잘 짠 것 같다고 이야기해주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수학을 정말 즐겼다고 생각합니다.

Q. 저한테 어필 좀해주세요. 여기 들어오고 싶다는걸.

A. 저는 개인적으로 뚜렷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 더 행동력 있게 그것을 실천하기 때문에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과일포장재를 친환경 소재로 제작해보고 생분해성 라스틱에 대해 탐구했던 경험들을 기반 삼아 쌓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대체할 친환경 신소재를 개발해내겠다는 저의 포부를 높이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다른데 수시 몇개 넣었어요?

A. 여기를 포함해서 6개 넣었습니다.

Q. (웃으면서) 6개 학교 가서 다 이렇게 말했겠네?

A. (굳이 아니라고 반박하지는 않고 그냥 같이 웃음)하하

Q. 학생 국민대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거 맞죠?!

A. 넵. 저 국민대 꼭 오고 싶습니다.

Q. 믿습니다.

Q. 아직 시간이 1분 정도 더 남은 것 같은데 혹시 대학 들어와서 학업계획 같은 거 말해줄 수 있어요?

A. 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현재 문제점들이 물성저하임을 알고 있었고, 이를 위한 다양한 탐구를 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소재의 물성과 관련된 과목들을 이수하여 이런 산업적인 문제들을 제가 직접 해결해나가고 싶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면접 순서는 수험번호 순이 아니고, 당일 날 랜덤으로 가번호가 주어집니다. 때문에 가자마자 자신이 첫 번째 순서로 갑자기 면접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서 몇 분 동안 자료 좀 보다 들어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부족하게 준비해가지 마시고, 지금 당장 면접을 본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연습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대 면접의 가장 큰 주의점은.. 대기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준비해간 자료를 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정말 확실하게 준비해가셔야 합니다.

비교적 다른 곳보다 과학적인 질문을 매우 심화적으로 물어본 곳이 국민대학교였습니다. 엔탈피 관련 질문의 경우에도, 제 생기부에는 열역학과 관련해 엔탈피와 엔트로피에 대해 탐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면접관님은 이걸 보시고 ‘물이 증발할 때 엔탈피와 엔트로피 변화량을 말해보아라’라는 **응용 문제를 즉석**에서 만든 다음 물어보셨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신이 한 활동에 쓰인 과학개념과 용어가 무엇인지 간단히 외우는 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이를 응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개념정리를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 하 대 학 교

대학명	인하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항공우주공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인하미래인재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한 명씩 들어가 질문을 받고 나옴. 면접관은 총 2명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면접으로 긴장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최대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조리 있게 말하기. - 질문이 조금 많은 편이고 자신이 조사했다고 한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가기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세요

[답변] 저는 1학년 때 항공우주 박물관에 다녀온 이후로 항공기의 여러 원리를 체험해보고 많은 종류의 비행기를 직접 보면서 비행기를 직접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화학 주제 탐구를 하며 친환경 비행기를 직접 조사해보았습니다. 직접 만든 비행기로 전 세계 환경오염의 피해를 줄이고 싶었으며 직접 만든 비행기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질문] 이계도함수가 그래프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다항식을 그래프로 나타낼 때 순간순간의 기울기를 말합니다.

[질문] 베르누이 원리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답변] 이상기체는 유체의 속도가 빠르면 압력은 낮아지고 반대로 속도가 느리면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것을 베르누이 정리라고 하며 대표적으로 비행기의 날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날개 위아래의 압력 차이로 날개에 양력이 발생하는데 이 힘으로 비행기가 날 수 있습니다.

[질문] 생기부 보니까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되어있는데 왜 저희 학과에 지원하였나요?

[답변]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도 저의 오랜 꿈이었지만 하늘을 나는 다양한 비행기를 직접 만드는 것 또한 저의 오랜 꿈이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답변] '쓰레기 책'을 읽고 개발도상국들이 입고 있는 피해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에 다니며 환경오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비행기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면접관과 본인의 거리가 조금 있는 편이라 또렷한 발음과 큰 목소리가 필요해요!

한국항공대학교

대학명	한국항공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충원 합격
학과명	항공운항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1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미래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영상 촬영하여 제출 (비대면 면접)		
기타 유의사항	모두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 만큼 질 높은 답변이 중요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과 교내활동에 기울인 노력, 진로와 관련한 활동 등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말해보세요.

[답변] 저는 영어 말하기 축제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며 영어 회화를 하는 일이 잦은 직업인만큼 스스로 영어 공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진로와 관련된 주제를 영어로 발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 2년간 참여하였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라는 직업과 비행기의 원리를 탐구하고 영어로 발표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고, 비행기와 관련된 다른 주제로도 탐구를 해보며 배운 것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 학교생활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 과정에서 느낀 점을 말해보세요

[답변] 저는 SFP라는 동아리를 개설하여 저와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항공과 관련된 직업을 원하는 친구들이 적어 소수의 친구들의 폭넓은 경험이 어려웠습니다. 동아리를 개설하여 항공과 관련된 봉사과 견학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며 같이 참여함으로써 함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듣고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질문] 본교 모집단위 지원동기와 향후 학업계획, 장래희망을 말해보세요.

[답변] 저는 졸업 이후 울산비행 훈련원에서 조교로 일을 하며 저와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경험이 많은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것이 오랜 장래희망입니다. 저의 장점 중 하나인 성실함으로 학업 공부와 자격증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거나 SNS 등을 통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의 꿈을 키워 줄 수 있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1차 합격 결과와 동시에 질문이 공지되어서 긴 시간이 주어졌어요! 재촬영도 가능해서 질 높은 답변이 중요한 거 같아요.

한서대학교

대학명	한서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항공운항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형명	한서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 4명이 한 팀으로 들어가 수험번호 순서대로 질문을 받음 - 면접관 3명, 질문도 3개		
기타 유의사항	다른 사람들의 답변에도 경청하는 자세 보이기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갑질이란 어떤 의미이며, 이것이 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말해보시오

[답변] 지위나 직급을 남용하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갑질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항공운항학과에 지원동기를 자신의 적성과 연계해서 설명해보세요

[답변] 저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가며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 비행기 조종사라는 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배우고 비행기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탐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직접 속도시간 그래프를 만들고 정적분해 가며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 체험활동 중 본인의 전공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답변] 항공우주박물관과 KAI 견학 이후로 비행기가 나는 원리를 배우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비행기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원리들을 배우며 흥미를 느끼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면접관은 총 세 명으로 각자 다른 영역을 질문해 주세요

그룹 면접일 경우 다른 사람들 답변에 경청하는 자세도 중요한 거 같아요!

면접 예상 질문 그대로 나오니까 모든 질문에 한 번씩 답 다 달아보고 당일에 당황하지 않기!

한 발 대 학교

대학명	한발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불합격
학과명	신소재공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12
전형유형	학생부 종합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발열체크>손목띠>대기실 입장>면접장 입실 마감 시간 전까지 대기>면 접장 입실 마감 시간 후 전자기기 제출 및 가번호 배정(전자기기 제외 소지품은 제출 안함)>면접장에서 대기(대기 중에 가져온 서류 볼 수 있고 이름순으로 면접 보는 것 같음)>5분전 복도 대기>면접장 입실(도 우미분들께서 다 도와줌)>면접 시작		
기타 유의사항	공통주제(2분)/학생부종합 확인 및 기타(8분)		

질문 및 답변 내용

면접 시작 전에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그런지 간단하게 얘기를 나눔.

[질문] 그럼 지금부터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공통주제인 이 학과에 지원한 동기와 미래에 희망하는 자신의 모습을 설명해주세요.

[답변] 저는 교내에서 열린 진로캠프를 통해 처음 이 학과에 ~~~

오 준비를 되게 잘해오셨네요.~

[질문] 2학년 1학기때 수학 성적과 과학 성적이 많이 떨어져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 있다보니 분위기를 많이 탔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과가 수학과 과학이 많이 중요한데 ~~~

[질문] 태양전지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물리학1에서 배우길 광전효과가 이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질문] 봉사 활동 시간을 보니 교외 봉사 활동 시간이 굉장히 적은 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겠죠?

[답변] 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교외로 나가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봉사 동아리를 운영해왔는데 ~~~

[질문] 봉사 동아리에서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활동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한 건가요?

[답변] 저희 동아리가 홍보 봉사 동아리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슈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끔 유도하는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끔 하기 위해 ~~~

[질문] 그럼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일이 있을까요?

[답변] 저희 동아리가 시민분들께 직접 홍보하면서 ~~~ 그런 과정에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는 분들도 계셨고 ~~~

[질문] 동일고교에 속한 학생들의 독서활동 평균이 25권이라 하는데 학생은 평균보다 더 많이 읽었다고 하네요. 학생의 독서활동을 보니 <세상을 뒤집은 재료세상>을 읽었던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 제가 읽은 책이 다 비슷한 내용의 책들이라 헷갈리네요..ㅠㅠ

[질문] 그러면 읽은 책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답변] <세계사를 바꾼 12가지 신소재>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행특에 야자도우미로 열심히 참여했다고 하는데 질문은 아니고 학교 가면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리세요.~~

[질문] 이제 마지막을 30초 남았는데 준비해온 말 있으면 해보세요^^

후배들을 위한 조언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해가 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떨지 않고 잘 말한 것 같아요.. 떨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면 면접관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목소리도 크게!! 그리고 저는 자기소개서 말고 학생부에 대해서만 질문하셨어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불합격
학과명	에너지신소재화학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40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창의인재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대기순서에 맞는 자리에 착석한 후 소지하고 있는 전자기기를 모두 회수 후 번호 순서대로 면접장 안으로 들어감. 면접은 전공적합성면접, 인성면접이 있는데 각 면접실이 다르다. 면접장 안으로 들어가 1대1로 각 면접을 진행함		
기타 유의사항	- 스마트기기는 모두 소지 금지이므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료는 모두 종이로 프린트해 갈 것. - 화장실을 갈 때는 진행요원과 함께 가야 함. (이동이 자유롭지 못함)		

질문 및 답변 내용

< 전공 적합성 면접장에서 받은 질문 / 나의 답변 >

Q1. 동아리에서 3년 동안 활동한 것 중에 자신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이끌거나 의미 있다고 생각한 활동은?

A1. 1학년 때 동아리에서 토론 활동을 한 것이 가장 기억이 난다. 토론장이 과학에 관한 주제를 하나 발표하면 찬성측과 반대측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다른 사람과 의견을 공유하여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았다.

Q2. 1학년 때 성적에 비해 2학년 때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A2. 슬프고도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 2학년 때 안면마비가 재발해서 각종 병원을 전전공공하느라 고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처음 발병했을 때보다 완치가 늦어 정서적으로도 많이 불안했고, MRI와 같은 검사를 자주해서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 것 같다.

< 인성검사 면접장에서 받은 질문 / 나의 대답 >

Q1. 우리 학교에 올 때 무엇을 타고 왔나?

A1. 부모님 차를 타고 왔다.

Q2. 학교가 너무 외진 곳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A2. 살짝 외진 곳에 있다는 느낌이 있긴 했지만 나는 시끄러운 도심보다 조용한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Q3. 3년 동안 어떤 봉사활동이 기억에 남는가?

A3. 2년 동안 휴대폰 관리 수거 봉사를 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스마트폰이 공부에도 도움을 주지만 방해할 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활동으로 친구들의 공부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었고, 전자기기가 아무래도 값비싼 물건이다 보니 파손하지 않게 잘 보관하겠다는 책임감도 들었던 활동이었다.

Q4. 진로가 무엇이기에 우리 학교에 지원하였나?

A4. 화장품 개발 연구원이 꿈이다. 그래서 고교 활동 중에 파라벤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는데, 파라벤이 발암물질로 유명한 성분이어서 조사하였는데,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파라벤은 미생물과 세균을 억제하는 기능이 뛰어나 피부 속에 살지 못하도록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화학의 양면성이라는 매력에 반하게 되어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다.

- 꼬리질문 Q4-1 : 취업은 어디로 생각하나?

- A4-1 : LG생활건강이나 한국콜마 등 이런 화장품 관련 업종으로 생각하고 있다.

Q5. 어학연수를 생각해본 적이 있나?

A5. 어학연수는 중학교 때부터 내가 꿈꿔왔던 목표 중 하나였다. 그래서 기회만 있다면 무조건 떠날 예정이다.

- 꼬리질문 Q5-1 : 어디(나라)로 생각해봤나? 그러한 이유는?

- A5-1 : 중국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다. 중학교 때는 단순히 중국어가 성조가 있어서 말하는데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었고, 그 이후에는 중국의 화장품에 관심이 생겨서 더 더욱 생각하게 되었다.

- 꼬리질문 Q5-2 : 미국은 생각해본 적 없나? 그러면 영어수업을 잘 듣고 잘해야 할 텐데?

- A5-2 : 물론 미국도 희망나라 중 하나이다. 또한 영어는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할 자신이 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생기부 기반 면접인 학교는 무조건 자신의 생기부 활동을 모두 외워 갈 것. 또한 학교 정보나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 대한 정보를 얻어 갈 것. 대학에서 중요시하는 자세나 마인드에 대한 답변을 철저히 준비할 것.

중 앙 대 학 교

대학명	중앙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격
학과명	화학신소재공학부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다빈치형인재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시간	10분 (실제로는 8분)	
	인원수	면접 위원 수: 2, 조별 학생 수: 1	
	면접절차	수험표, 신분증 검사-가번호 부여-대기실에서 대기(전자기기 전원 끄)-호명되면 도우미를 따라 면접실로 입실	
기타 유의사항	- 3.5배수 내외, 서류 70%, 면접 30% - KF94마스크 착용, 온라인 문진표 작성, 수험표·신분증 필수 지참		

질문 및 답변 내용

(간단한 안부인사)

-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PET에 관심이 많던데, PET의 제조방법에 대해 설명해볼까요?
- 네, PET는 에스테르화 결합을 통해 제조됩니다.
- 그럼 PET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 제가 동아리시간, 비누를 제조하며 비누화반응이 에스테르화 반응의 역반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누화반응을 이용한다면 PET를 분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분자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 앞서 말한 비누를 제조한 경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줄래요?(자소서 3번 내용이었음)
- 네! 제가 환경에 관심이 많은 만큼 친구들과 여러 기사를 자주 접했습니다. 그중 하수구 속 기름과 물티슈가 만나 팻버그 현상이 발생함을 알고, 친구들과 함께 폐기름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 후, 직접 급식소에 연락해 폐기름을 받고, 비누를 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고, 그 원인을 찾아 비누화값을 측정해 정확한 수산화나트륨의 양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용한 수산화나트륨의 양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 다음은 수상실적에 관해 질문하고 싶은데요, 발명 관련 상을 두번이나 받았는데 무엇을 발명했는지 설명해줄 수 있나요?
- 네! 1학년 때 발명한 제품은 도로의 방향지시등(?)을 이용해 인공비를 뿌려 미세먼지 절감을 도와주는 것이었고, 2학년 때는.. 혹시 히포콜러라고 아시나요? (모른다고 하심)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물을 운반하기 쉽게 만든 적정기술 중 하나인데, 전자기유도와 접목하여 프로펠러를 작동시켜 좀 더 시원하게 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 정말 참신하네요..!! 어떻게 하면 그런 발명을 생각해낼 수 있나요~??
 - 아 ㅎㅎ 감사합니다. 우선 뭐든지 불편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주하지 않고 이게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라는 식으로요..!
- 각 제품의 한계점은 없을까요?
 - 1학년 때 고안한 발명은 아무래도 과학적 지식이나 경험이 많이 부족해 현실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2학년 때의 발명품은 .. 한계점은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 프로펠러가 돌아갈 만한 전력이 만들어질 것 같나요? (한계점이 될 수 있는 부분)
 - 전자기유도 자체가 자석과 코일의 상호작용으로 자기력선속이 변하고 유도전류가 형성되기 때문에 잘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 전자기유도를 이용하면 돌아가긴 할 겁니다. 근데 그만큼의 전력을 만들 수 있냐는 거죠.
 - (이전에 질문을 잘못 이해했음을 깨달음) 아.. 그 부분은 일사량이 높은 지역이니 태양열을 이용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하고 싶은 말해주세요.
 - 사전에 준비한 멘트 후 퇴장

후배들을 위한 조언

면접보다 서류의 비율이 높다 보니,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시간이 엄청 짧아서 그 시간 안에 서류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생각나지 않아도, 충분히 순발력을 발휘해 대답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면접관분들과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네!와 같은 대답을 한다든지, 계속해서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면접이 6번째 면접이었어서..ㅎ, 그렇게 긴장하진 않았습디다. 면접은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떻게 질문이 나올지 몰라서 생기부를 나노단위로 분석했었는데, 중앙대학교 면접은 시간이 짧기도 하고, 비율이 낮아서 자기소개서, 수상기록에서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만약 시간이 없다면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준비하길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면접 분위기가 무섭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교수님들이랑 대화하고 온다. 생각하면 별거 아닐 거예요! 중앙대학교 자기소개서 3번이 다른 학교들과 조금 달라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겠지만, 본인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경험 하나를 생각해 끄적이다보면 800자 금방 채울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스토리가 있는 활동이면 좋을 것 같아요!

+ 중앙대학교는 학부모 차량 출입이 전면 금지되어있습니다. 주차할 곳도 없어요! 면접장이 정문과 멀지 않아서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거예요. 대기시간이 적당히 짧아서 1시간 동안 볼 것을 챙겨가는 걸 추천합니다. 생활기록부 요약본이나, 자소서에서 나올만한 예상질문들을 준비하세요.

건국대학교

대학명	건국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융합생명공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KU자기추천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 감염 및 전파 방지를 위한 방문 비대면 면접. - 오전 1, 2, 오후 1, 2 ... 타임으로 나누어 면접 진행. - 본인 차례까지 큰 대기실에서 대기하며, 순서가 가까워지면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면접실 앞 복도에 마련된 책상+의자에 앉아 대기함. - 면접실 입장 시 면접생 의자와 카메라, 그 앞에 화상통화를 위한 노트북이 켜져 있음. 		
기타 유의사항	<p>본인 면접 타임이었던 10:20분 (오전 2타임)이 되기 전까지는 면접을 진행하는 건물 자체 출입이 불가능했다. 그 전까지 그 앞 실외에서 대기함. 코로나19로 인해 입장 시 문진표를 작성한다. 자신의 수험번호(대학 수험번호), 지원유형, 학과 등을 써야 하므로 준비해야 한다.</p> <p>실내에서 휴대폰 사용 금지, 면접 관련 자료 보는 것 금지이기 때문에 휴대폰은 미리 전원을 꺼 가방 안 혹은 대학에서 준비한 보관백에 넣고 절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면접 관련 자료는 입장 전 야외에서 충분히 보고 들어갈 것.</p> <p>물을 챙겨가면 좋다. 정수기 사용이 어렵고 대기시간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본인 2시간 대기) 물을 챙겨가 마시는 것이 좋다. 화장실 이용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며, 따로 진행요원에게 말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갈 수 있다.</p> <p>면접관은 2명이었으며(과마다 다를 수 있음.) 비대면 화상통화가 이루어지는 면접실이 생각보다 넓어 소리가 많이 울린다. 제대로 듣지 않으면 면접관이 무엇에 대해 질문하는지 놓칠 수 있다.</p>		

질문 및 답변 내용

인사: 안녕하십니까.

[질문] 네, 앉으세요.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하면 편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네, 알겠습니다.

[질문] 텔로미어와 암 유발과 관련한 탐구를 진행했는데, 텔로미어가 어떻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지 설명해보세요.

[답변] 먼저 텔로미어는 DNA를 복제할 때, 복제에서 제외되는 양 끝을 말하는데, 인간이 점점 늙어가면서 텔로미어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유전자 발현에 오류가 생겨 암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3학년 때 LINE-1 트랜스포존과 sirtuin유전자에 대해 탐구했는데, L1트랜스포존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답변] 네, L1트랜스 포존은 레트로 트랜스포존의 일종으로 고대에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바이러스라는 추측이 유력합니다. 원래 레트로 트랜스포존은 활동하지 않는데 L1트랜스 포존은 활동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노화가 진행될수록 이 L1트랜스포존에 대한 면역체계가 붕괴되어 L1트랜스포존의 활동이 활발해져 필요하지 않은 유전자를 발현시켜 암과 같은 노화질환을 유발합니다.

[질문] 음, 우리 과에 지원하게 된 지원동기가 있을까요?

[답변] 네, 저는 평소 공상과학 영화를 보며 영화 속 기술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과 실현시킬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유전자 편집이나 늙지 않는 능력 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생명공학에 관심을 갖게 한 계기 중 하나가 되어주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진행한 유전자가위와 DNA손상에 관한 탐구를 통해 상상 속 기술이 이제 더 이상 판타지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더 선진적이고 발전된 기술을 개발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과 기술적인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글로벌 융합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이곳 건국대학교에서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연구원이 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고 싶습니다.

[질문] 네, 감사합니다.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아까 불필요한 유전자의 발현을 막는다고 했는데, 혹시 그 불필요한 유전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할 수 있나요?

[답변] 음.. NK-kB, FOXO(말 더듬었음)...이외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질문] 아,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변할 필요는 없어요~ 아는 선에서 얘기해도 괜찮아요. 1학년 수상실적에 과학 사고창의력 한마당에서 수상했네요. 이 대회는 어떤 활동을 진행했나요?

[답변]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 과목에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과 관련된 심화적인 문제를 풀어 우수한 성적순으로 상을 주는 대회였습니다.

[질문] 그렇군요. 2학년 때 모범상을 탔네요? 이 모범상은 어떻게 받게 된 건가요?

[답변] 모범상은 선생님과 학급 친구들의 투표로 뽑혀 받게 되었는데요, 평소 제가 친구들이 머뭇거릴 때나, 어려워할 때 먼저 나서서 활동 같은 걸 진행하고, 복장이나 평소 행실을 모범적으로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저를 뽑아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질문] 학급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고 먼저 나설 수 있었다는 거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책 읽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있을까요?

[답변]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김홍표의 크리스퍼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인간의 유전과 유전자에 대한 설명, 유전자 가위의 기본적 개념과 원리를 쉽게 설명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 책을 보고 제가 유전자 편집과 유전자 가위에 대해 알고 이를 연구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질문] 생기부를 보면 학생이 공부하고 싶은 쪽이 유전자 치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노화 연구를 하고 싶은 거 같은데. 유전자 가위나 유전자 치료에 대한 탐구를 많이 해왔는데, 학생이 생각하기에 이런 유전자 편집 기술이 더 발전하려면 또 어떤 기술이 필요할 것 같나요?

[답변] 음, 구체적인 기술을 알지는 못하지만, 편집하고자 하는 유전자를 정확하게 표적할 수 있도록 유전자 표적기술이 필요하고, 더 많은 유전자에 대해 알기 위해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네, 알겠습니다. (옆 면접관과 조금 상의) 네. 오늘 면접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후배들을 위한 조언

학생부종합전형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뿐만 아니라 그 분야 내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더 공부해보고 싶은지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평소 유전자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터라 유전자 기술 관련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생기부, 자소서, 면접 준비 전에 꼭 그 대학의 인재상과 학과 인재상, 학과에서 배우는 커리큘럼과 그리고 그 학과에서 어떤 인재를 배출하고 싶은지, 학과 목표를 잘 보고 자기소개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시간에 이를 잘 녹여 답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볼 때 당황하지 않고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나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적어도 한 번씩은 신청해 실제 면접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면접(생기부 면접)을 준비할 때, 자신의 생기부를 꼭 몇 번씩 정독하며 자신이 한 활동에 표시해놓고 그 활동에 대한 내용, 과정, 원리 등을 답변 식으로 정리해놓고 계속 읽어보며 숙지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 앙 대 학 교

대학명	중앙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융합공학부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다빈치형인재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시간	8분	
	인원수	면접 위원 수: 2, 조별 학생 수: 1	
	면접절차	신분 확인 및 가번호 부여 → 대기실에서 대기 → 소지품 반납 → 호명 → 소지품 들고 교사장 앞에서 대기 → 면접 진행	
기타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 질문

1. 자소서에 적정기술 얘기가 나오는데 적정기술이 뭔가요?
 - 답변 : 적정기술이란 그 기술이 사용되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면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기술임.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을 고려해야 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자원으로 삼는다는 것이 큰 특징임.
2. 적정기술이 저개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사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나요?
 - 답변 : 적정기술이 저개발국에 도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진국에서도 활발하게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선진국에서는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친환경적인 방법도 적정기술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임.
3. 종이원심분리기...를 직접 제작해본 건가요?
 - 답변 : 네 직접 했습니다!
4. 종이원심분리기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 답변 : 먼저 장점은 원심분리기 한 대의 가격이 만만치 않다보니 종이원심분리기는 저개발국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임. 저개발국에서도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을 진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음. 단점은... (잘 모르겠어서 좀 뜬 뜬 이야기 면접관이 단점은 없는 거 같아요? ㅎㅎ 하심. 그래서 네 ㅎㅎ.. 생각해본 적 없는데 단점은 없는 것 같다고 함)
5. 의공학 응용과정에 수학적 사고력이 중요함을 느꼈다고 써있는데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 답변 :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나요? 하고 20초 정도 생각함. 베이스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질병 진단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정확성이 높아진다고 알고 있음. 데이터를 수집하고 파악하는 데에 수학적 사고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6. 베イズ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주실래요?

- 답변 : 베이스 이론은 사전 확률과 가능성을 이용해 사후 확률을 구하는 것임. 사전 확률은 기존의 데이터로 구한 확률을 말하고, 사후 확률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수정해나가는 확률을 의미함.

7. 생기부에 1유전자 1효소설이 1유전자 1펩타이드설로 발전되는 과정을 이해했다고 되어있는데 기억이 난다면 그 과정을 설명해주실래요?

- 답변 : 1유전자 1효소설은 먼저 효소가 아니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1유전자 1단백질설로 발전됨. 그 이후로 전기영동이나 크로마토그래피와 같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단백질이 폴리펩타이드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 또한 서로 다른 폴리펩타이드는 서로 다른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1유전자 1폴리펩타이드설로 다시 발전하게 되었음.

8.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과 느낀 점을 간단히 말해주세요.

- 답변 : 헌혈이 가장 기억에 남음. 코로나 바이러스로 헌혈층의 참여가 줄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됨. 맨 처음에는 헌혈버스에 참여했지만 그 이후로는 직접 헌혈기관에 찾아가 봉사함. 물론 다른 봉사활동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만 헌혈은 직접적으로 피를 줌으로써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음.

9.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짧게)

- 답변 : 로망이었던 학교에 와서 면접을 보게 되어 너무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함. 면접을 준비하면서 3년간의 학업 과정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함. 입학한다면 미래 의료 산업 분야를 이끌어나가는 인재로 거듭나고 싶음. (꾸벅 감사)

후배들을 위한 조언

1차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은지 알 수가 없어서 면접을 무조건 잘 봐야 한다고 생각했음. 질문한 내용이 이미 준비했던 것이라서 착실하게 답변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함.

면접관분들이 생각보다 따뜻하게 쳐다봐주셨고 8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감. 자소서를 잘 파악해놓는 것이 중요하고 생기부 세특란도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음. 전공 관련 지식도 어느 정도 파악해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음. 잘 모르고 기억이 안 나도 자신감 있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함.

건국대학교

대학명	건국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 종합	전형명	KU 자기추천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소강당 같은 대기실에서 자기 서류 보면서 대기하다가 순서가 되면 안내자분들이 면접실 앞까지 안내해 주십니다. 2-3명 정도 대기 후 면접실에 들어가 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모든 질문과 답변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흐름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왜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나요?

[답변] 저는 고등학교에서 IT 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해 사회에 나타난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IT기술과 사람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고 건국대학교의 ICT 학과에서 이를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질문] 자소서에서 보면 셀프 밸런싱 기술을 사용해 쓰러지지 않는 우산꽃이를 구현했다고 했는데 어떤 과정으로 탐구가 진행되었는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답변] 우선 저희는 학교에서 우산꽃이가 쓰러짐으로 인해 우산꽃이 주변이 물바다가 된다는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셀프 밸런싱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PID제어를 채택해 PID제어에 대해 탐구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팀을 나누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질문] 프로젝트는 몇 명에서 진행했나요?

[답변] 하드웨어 2명 소프트웨어 2명으로 진행했습니다.

[질문] PID 제어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PID 제어는 목표값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오차 비례 조작을 진행하는 것을 P제어, 적분을 통해 남은 비례 오차를 합쳐 오차값을 더욱 줄이는 I제어, 변환 값을 다시 원래 수치로 돌려주는 D제어의 과정을 거치는 제어 방법입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PID제어에 퍼지이론을 적용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적용했다는 말인가요?

[답변] 처음 PID제어를 그대로 입력했을 때는 입력값의 작은 변화에 따라 모터가 각기 다른 출력값을 내야 해서 모터가 그 출력값을 모두 따라잡지 못해 빈번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퍼지 규칙을 만들어 출력값의 변화를 줄여보았습니다.

[질문] 퍼지 규칙을 어떻게 설정했나요?

[답변] 입력값의 통계치에 따라 나눈 범위를 퍼지 규칙의 전건으로 두고 각 범위에 따른 일정한 출력값을 후건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질문] 생활기록부에 보면 BUS STOP이라는 어플에 대해 발표했다고 했는데 어떤 어플인지 소개해 주세요

[답변] BUS STOP은 버스 정거장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기획된 어플로 어플을 통해 버스의 내부 혼잡도를 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버스를 예약하여 탑승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버스 정거장에서 대기할 필요성을 줄여 정거장의 혼잡도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해당 어플을 모두 구현한 것인가요?

[답변] 모든 분야를 다 구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 부분, 센서를 통해 공간의 내부 혼잡도를 인식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버스의 예약 최대인원을 정하고 예약을 진행했을 때 예약인원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서비스까지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해당 어플을 통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면 어플을 사용하기 힘든 사람들의 경우 버스에 탑승하지 못하는 건가요?

[답변] 그것은 아닙니다.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탑승자들을 위해 버스별 정해진 수용인원의 10~15%는 예약할 수 없도록 하고 수용인원이 각 버스별 권장 탑승 무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인 만큼 그를 초과하더라도 충분히 탑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더 질문하고 싶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답변] 저는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IT기술의 혜택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에 진학하여 융합전공이라는 학과의 장점을 살려 커뮤니케이션과 인터렉션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며 인문학적 지식을 쌓아 HCI 기술과 융합하는 것에 대해 연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자신이 고등학교에서 보낸 3년을 바탕으로 정직한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다면 질문의 난이도에 있어서 특별히 걱정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도 자소서와 면접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제가 활동했던 내용의 진위여부와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을 주로 확인하셨지 제가 작성하지 않은 심화과정의 내용을 질문하신 부분은 없었습니다.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고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국대학교

대학명	단국대학교 (죽전)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모바일시스템공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예비 1번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SW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p>지정된 대기실과 자리에 앉아서 대기합니다. 이때 자리는 가번호가 랜덤으로 주어지고 가번호 순서대로 면접이 진행됩니다.</p> <p>면접은 비대면 면접으로 다른 교실에 들어가 배치되어 있는 기기를 통해 화면을 보고 진행했습니다.</p> <p>면접은 총 7분 동안 진행됐으며 타이머를 이용하여 시간을 재고 뒤에서 시간을 알려주시는 분께서 1분 남았을 때와 30초 남았을 때 모두 공지해주셨습니다.</p>		
기타 유의사항	<p>비대면 면접인 만큼 화면 안에서도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크고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p> <p>또한 가번호가 주어지고 본인의 성명을 밝힐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p>		

질문 및 답변 내용

Q. 반갑습니다. 지원동기 말해주세요.

A. 네 안녕하세요. 저는 IT 소외계층을 위한 강연과 IT 기술 개발 분야의 공동체적 성장과 발전에 앞장서고 싶은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 가번호 ()번입니다.

저는 책과 기사등을 통하여 평소에 IT 기술이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뿐만 아니라 교육,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저는 평소에 IT 기술을 모두가 안전하게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 개발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IT 기술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해야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관련 자율동아리를 만드록 대회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쌓아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공부에 그치지 않고 저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단국대학교의 모바일시스템공학과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영어 실력을 동시에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졸업이후 관련 분야에 종사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통신과 컴퓨터에 대한 과목들을 모두 접해볼 수 있다는 게 제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단국대의 모바일 시스템 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모바일시스템공학과가 뭐 하는 곳 같나요?

A. 모바일은 움직일 수 있는, 이라는 뜻으로 정보통신에서 이동성을 가진 것의 총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화 된 전자기기를 뜻하는 만큼 관련 통신 기기에 사용되는 기술을 배우는 학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Q. 혹시 학과 커리큘럼 보고 오셨나요?

A. 네. 미리 보고 왔습니다.

Q. 배워보고 싶은 교과목이 있을까요?

A. 저는 꼭 모바일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 기술, 브라우저 기술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면 저의 진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Q. 침착하게 잘 대답하시네요. 하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자신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A. 저는 침착함과 함께 섬세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간혹 다른 사람들보다 일처리가 느려진다는 단점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플래너와 타이머 등을 사용하여 단점을 메꾸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오히려 시간을 엄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았네요. 빠르게 본인의 장단점 얘기해주세요.

A. 저는 일을 처리할 때 무언가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고 굉장히 일을 꼼꼼하게 처리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은 아까 답변했듯이 일처리가 늦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꾸준하게 저의 단점을 메꾸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저는 여러 가지 면접 후기들을 찾아보고 준비할 수 있는 질문들은 모두 준비해왔습니다. 이를 여러 번 외우고 혼자서 답해보는 시간을 갖고 면접에 들어가니 대부분 준비해왔던 질문이라서 수월하게 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면접 후기를 보고 준비할 수 있는 한 여러 질문에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대기시간에는 면접 자료를 볼 수 없으니 미리 준비해가시길 바랍니다.

인 하 대 학 교

대학명	인하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 합격
학과명	정보통신공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X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인하미래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앞에 면접을 보는 층별로 줄서기 2. 줄별로 체온, 신분증 확인하며 건물 입장 3. 대기실에 들어가 거리두기 하며 착석 4. 휴대폰 수거 및 마스크 벗어서 얼굴 확인 5. 호명 시 모든 짐을 가지고 복도의자로 이동 6. 짐을 바구니에 두고 앞사람이 방에서 나오면 노크 후 입실 7. 7분 타이머를 맞추고 시작하며 시간이 지나면 알람이 울림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F94마스크가 아닌 경우 입장이 제한됨. - 휴대전화를 수거하지는 않으나 전원을 끈 상태로 지퍼백에 보관함. - 대기실에서 면접 공부를 허용해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이동통신세대의 변천사를 조사했다고 했는데 어떤 특징이 있나요?

[답변] 이동통신세대는 전송 속도를 기준으로 1G부터 현재는 5G까지로 나누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꼬리질문] 또 다른 특징은 없나요?

[답변]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양과 전송방식의 차이도 조금씩 존재합니다.

[질문]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하는데 트랜지스터가 뭔지 설명해주세요.

[답변] 트랜지스터는 p-n-p형과 n-p-n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미터와 베이스, 컬렉터인 3개의 단자로 이루어져 증폭작용과 스위칭작용을 하며 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이용됩니다.

[꼬리질문] 그 외에도 요즘 많이 사용되는 종류가 있는데 알고 있나요? 아직 안 배웠나?

[답변] 고등과정에서 배운 건 제가 답한 부분이 전부이지만 대학에 입학하고 더욱 배워보고 싶습니다.

[질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보고서를 깊이 있게 작성했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정확히 무슨 기술인가요?

[답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입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기에 보안성의 측면에서 탁월합니다.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정보는 다양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매우 광범위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상통화와 전자 결제, 디지털 인증뿐만 아니라 화물 추적 시스템, P2P 대출, 원산지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거나 예술품의 진품 감정, 위조화폐 방지, 전자투표, 전자시민권 발급, 차량 공유, 부동산 등기부, 병원 간 공유되는 의료기록 관리 등 신뢰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자기소개서에서 암호에 대해서 적었는데 폴리비오스 암호는 무엇인가요?

[답변] 네? 자기소개서에 적혀있지 않나요?

[꼬리질문] 아니 적혀있는데 잘 모르겠네 그러면 암호의 순서를 바꿔서 사용하는 암호 같은 것도 알고 있나요?

[답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라이파이가 뭐가요?

[답변] 빛으로 신호를 입력하면, LED 램프가 깜빡거리며 빛을 전송하고 그 깜빡인 빛을 다시 광검출기가 받아 디지털기기를 작동시키는 신호로 사용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라이파이의 가장 큰 장점은 가시광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와이파이보다 최고 100배이상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시광선이 도달하는 곳까지만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 역시 반드시 빛이 있는 곳에서만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라이파이의 가진 장점들이 결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다문화 가정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느꼈나요?

[답변]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아이와 함께 공부하며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가 만났던 아이의 부모님 두 분 모두가 베트남 분이셨습니다. 가장 큰 소통방법인 언어적 소통이라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통해 저 역시 베트남의 언어와 문화를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아이 역시 한국어를 사용하여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국어능력 뿐만 아니라 수학과목에서의 성적 역시 상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때 상대방을 이해하는 소통능력을 활용해 연극동아리활동과 학급임원 활동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를 융통성 있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면접 대기시간이 길면 몇 시간이 걸릴 정도로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공부할 것을 가져가면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질문에 대답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질문이 남아있기에 차분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준비했던 질문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을 넘는 질문을 여럿 받았기 때문에 모든 질문을 준비해가려는 자세가 아니라 후회 없이 답하고 오겠다는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7번
전형유형	학생부 종합	전형명	지역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대기실에서 배정된 순서대로 기다리다 3명씩 면접실 앞으로 이동합니다. 면접실은 총 두 개로 전공관련면접 10분, 인성면접 10분 총 두 번 합쳐서 20분 진행되며 각 방당 교수님과 1대1 면접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전자기기는 모두 제출해야 하는데 다른 학교와 달리 작은 편지봉투만 제공해주어 노트북이나 패드 등은 따로 맡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되도록 큰 전자기기는 소지하지 않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전공관련

Q. 전기 전자 통신 쪽에서 어디로 나가고 싶은 건가요?

A. 저는 통신 쪽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IoT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Q. IoT가 왜 통신이야? IoT를 통신이라고 하나?

A. 저는 IoT 분야 중에서도 IoT 통신 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Q. 그래 그럼 질문 시작할게. 최대한 대답해봐

A. 넵

(여기서부터는 대답을 못 한 게 많고 전공 지식 관련이라 몇 개는 대답을 생략하겠습니다.)

Q. 반도체가 뭐야?

Q. 트랜지스터가 뭔지 말해봐

Q. 다이오드가 뭔지 말해봐

Q. 이중슬릿에 대해서 설명해봐

Q. 암페어 법칙에 대해서 말해봐

Q.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말해봐

Q. 미분과 적분의 차이점에 뭘까?

Q. 플레밍의 왼손법칙에 대해서 말해봐

Q. 발전소에서 100W의 전력을 받는다고 해보자. 너네 집으로 전력을 보냈어. 너는 100W 모두 쓸 수 있을 것 같아?

물리질문만 받다가 전공적합은 끝났습니다.

물리 관련 질문이 몇 개 더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인성면접

Q. 자기소개 한 번 해볼까?

Q. 우리 학교에서 말하는 인재상 봤어?

(네)

Q. 그럼 한번 말해봐

Q. 그럼 그 인재상과 잘 맞는다고 생각해?

Q. 언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 설명해줄 수 있니?

Q. 팀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니?

Q. 그 모습에 내가 적합했던 활동을 말해줘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세요

후배들을 위한 조언

저는 전공 적합 면접 때 질문을 정말 2/3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물리를 배우지 않아도 물리 질문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물리 관련 공부를 철저하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대답을 하지 못해도 최대한 아는 것은 설명하려고 했고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대답하고 넘어가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초적인 물리 지식과 화학 지식을 꼭 공부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면접 질문 예시를 꼼꼼하게 공부하면 그 안에서 인성면접이 비슷하게 출제되는 것 같으니 인성면접과 전공면접 따로따로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총원 합격
학과명	전자정보통신공학부	총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예비 16번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지역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은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순서대로 면접실에 입실하면서 시작됩니다. 면접실은 두 개로 첫 번째 면접실에서는 전공에 대한 면접 10분, 이후에 두 번째 면접실에서 인성에 대한 면접 10분을 진행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대기실에서는 전자기기 사용이 안 되니 유의하세요.		

질문 및 답변 내용

1. 전공

Q: 대학에 입학해서 하고 싶은 일은?

A: 대학에 입학하여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전자와 전자회로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Q: 수1에서 무엇을 배웠나?

A: 지수, 로그, 삼각함수, 미분, 적분을 배웠다.

Q: 미분과 적분은 무엇인가?

A: 수학적으로의 미분과 적분은 기울기 즉, 함수의 변화율이 미분이고,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미분을 역함수로 고치는 것이 적분이다. 물리학적으로의 미분과 적분은 이동거리에서 속도를 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미분, 속도에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적분이다.

Q: 과학논문읽기대회에서 어떤 논문을 읽었고 어떤 주제였나?

A: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전자와 관련된 논문이었고, 전자를 이용한 신체내부, 외부 치료가 주제였다.

Q: 자유탐구대회에서 어떤 실험을 하였나?

A: 약을 먹을 때 어떤 액체와 함께 먹어야 가장 좋은지 알아보는 실험이었고, 물, 우유, 콜라를 이용해 가열하면서 약을 녹였고 어떤 것과 함께 먹었을 때 가장 좋은지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물에서 가장 빨리 녹았기 때문에 물과 먹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Q: 고급물리시간에 무엇을 배웠나?

A: 고급물리시간에는 교과서의 이론보다 실험실에서 실습을 하면서 경험을 쌓았다. 실험실에서 LED를 이용하여 별자리판을 제작하였고,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 위상차를 계산해보는 탐구를 하였다.

Q: 전자회로와 관련된 도서는 어떤 책을 읽었나?

A: 패러데이&맥스웰, 기초전자실험을 읽었다.

Q: 패러데이&맥스웰은 전자회로와 관련된 책이 아니지 않나?

A: 그렇지만 전자의 기초적인 지식을 알 수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이지 않지만 관련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Q: 대학 입학 이후 하고 싶은 전공?

A: 전자회로를 전공하고 싶다.

2. 인성

Q: 입학 이후에 하고 싶은 진로는?

A: 명확한 진로는 정하지 못했지만 전자회로와 관련된 진로로 정하고 싶다.

Q: 공부 외에 하고 싶은 활동?

A: 운동을 하고 싶은데 테니스, 축구 등의 운동을 하고 싶다.

Q: 학교의 첫인상은 어떠한가?

A: 넓고 건물들도 예쁘고 무엇에 집중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장소도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다.

Q: 조별과제에서 조원 평가를 동등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 아님 차등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

A: 동등하게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주제가 어렵거나 같은 이유가 아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면 과제를 하지 않으면 다른 조원들은 하지 않는 조원의 몫까지 해결해야 하고 더 힘들기 때문에 같은 동등하게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Q: 현재 사회적인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A: 성차별이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현재 계속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많이 개선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존재한다. 여성들과 남성들은 조금씩 다른 재능이 있지만 같은 재능을 가진 경우도 많고 오히려 여성의 재능이 더 뛰어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별적이지 않은 동등한 기회가 필요하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내신이 낮더라도 잘 찾아보면 자신이 원하는 과가 있는 대학을 찾을 수 있고, 비슷한 과이고 더 높은 대학을 찾을 수도 있으니 어디가, 썬진학 같은 사이트 등을 잘 이용하세요. 면접을 준비할 때 같이 준비하는 친구가 있다면 서로 면접을 진행해보면서 단점과 고칠 부분을 찾아주고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준비하면 더 쉽게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지원한 대학 중에서 가장 합격하고 싶은 대학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대학명	건국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종합
학과명	컴퓨터공학부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KU자기추천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대기(받은 순번까지)-면접(10분)		
기타 유의사항	교복 금지, 개인정보 말하면 안 됨, 대기실에서 자료 보면 안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지원자는 궁금한 게 많았어요. 일단 8비트 컴퓨터 만든 이야기가 자소서엔 있는데 여기에 메모리나 이런 거 다 있는 거예요?

[답변]

-네 메모리 있고..

[질문]

-그러면 거기서 명령어 패치 해서?

[답변]

-네 램에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인스트럭션 패치 해서 alu에서 처리하고 다시 패치하고 반복해요.

[질문]

-이게 진짜 브레드보드 위에서 만들 수 있어요?

[답변]

-네 됩니다.

[질문]

-오 신기하네요. 이런 거 하는 학생 많이 없는데

[답변]

-네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질문]

-이거 그러면 그냥 인터넷 보고 따라 만들어 본 거라고 봐도 되나요?

[답변]

-따라 만들어 봤다고 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그 과정에서 컴퓨터의 내부 동작 원리를 전자회로 수준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만드는 과정 자체보다는 제가 컴퓨터를 전자회로 수준에서 공부했다는 것이 더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8비트 컴퓨터 관련 질문이 많았는데 대화가 너무 빠르게 흘러서 잘 기억이 안 남)

[질문]

-그리고 튜링 머신에 대해서 활동했던 것 같은데 이 내용 어디서 처음 접했어요?

[답변]

-책에서 처음 봤는데 그 책 제목이..

[질문]

-컴퓨터과학이 여는 세계 이 책이에요?

[답변]

-네네 그 책이요

[질문]

-그러면 튜링머신이 만능 보편기계가 되는 조건을 말해볼래요?

[답변]

-튜링머신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면 보편만능기계라고 합니다.

[질문]

-2학년 때 학교 주변 친구 한 명이 혈액암에 걸려서 헌혈증 모으기 활동을 했었는데 시험기간이었지만 전날과 당일 시험공부를 포기하면서 태어나서 처음 헌혈을 하고 그 친구에게 헌혈증을 줬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답변]

-지스트와 동일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답변]

-제가 지금까지 컴퓨터를 거의 독학으로 배워왔는데, 학교의 정규 수업과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공부하면 지금까지 제가 한 것들 이상의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대기실에서 보니까 막 긴장해서 발표할 내용 달달 외우는 친구들이 많던데 그런 것보단 교수님과 내가 한 활동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마음으로 면접보는 게 좋을듯. 공대라 그런진 모르겠는데 인성면접보단 생기부나 자소서 활동 위주 질문이 다였음. 학교 안에 주차하지 말래서 주변을 1시간 동안 헤매다가 건대 병원에 주차함. 건대 주차장에 주차 공간 많음.

경희대학교

대학명	경희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종합
학과명	컴퓨터공학부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네오르네상스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대기(대기번호까지)-면접(5분)		
기타 유의사항	교복 금지, 개인정보 말하면 안 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자소서에 ar 기기 관련 내용을 썼는데 설명해줄래요?

[답변]

-요즘 휴대폰을 보니까 폰을 접어서 디스플레이의 크기를 키우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디스플레이가 안경에 있으면 시야 전체가 디스플레이니까 안경에 화면을 띄워서 AR기기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 글래스 같은 AR기기를 보면 안경 옆에 터치를 통해 기기를 조작해야 되는데 스티브잡스가 아이폰을 직접 터치하여 조작하게 만든 혁신처럼 인공지능과 카메라를 통해 기기를 손동작만으로 조작해야 사용자에게 좋은 UX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니까 손 하나를 인식하여 모델로 만드는 작업에 슈퍼컴퓨터로 20분인가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슈퍼컴퓨터로 그렇게 무거운 작업을 돌려 손을 인식하는데 스마트폰보다 가벼워야 하는 안경 위에 그 정도 성능의 컴퓨터를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사용하는 5G 기술이나 개발 중인 6G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손의 모습을 슈퍼컴퓨터가 연결된 서버에 전송하고 서버에서 모델을 전송받아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20분이라는 시간도 즉각적으로 화면을 업데이트할 수 없어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어떤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도 생각 중이에요

[질문]

-동아리 활동에서 양자컴퓨터와 인공지능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답변]

-큐비트를 이용하면 병렬처리를 엄청난 속도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발표했어요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답변]

-제가 지금까지 컴퓨터를 거의 독학으로 배워왔는데, 학교의 정규 수업과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공부하면 지금까지 제가 한 것들 이상의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면접 짧게 하고 형식적으로 애들 어떻게 생겼나 구경하는 느낌으로 면접 보는 느낌.
가볍게 봐도 될 듯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컴퓨터공학부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창의인재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대기실 - 전공적합성 면접(10분) - 인성 면접(10분)		
기타 유의사항	- 신분증, 수험표 지참 - 교복 착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1. 지원동기

2. 다루어 본 프로그래밍 언어는 무엇이 있나요?

c언어와 파이썬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3. 프로그래밍 언어로 어떤 것을 해보았나요?

개인적으로 머신러닝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간단한 게임을 학습하는 인공지능을 파이썬을 통해서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봤습니다.

4. 의도대로 잘 작동되던가요?

네

5. 영어성적이 다소 낮던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떠한 계획이 있나요?

비록 내신성적에서는 영어등급에 눈에 띄는 상향점이 없지만, 대학에서 영어로 된 원서를 읽기 위한 독해를 꾸준히 연습하고 있고, 독해가 중요한 모의고사 성적도 4등급 하위권에서 3등급 상위권까지 실제로 점수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그런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6. 한기대에서 당신을 뽑을 이유?

비록 영어성적은 다소 낮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수학 같은 분야에는 항상 열중하고 노력합니다. 컴퓨터 또한 제가 매우 좋아하는 분야인 만큼, 컴퓨터에 영어가 필수적이라면 열심히 노력하며 꾸준히 향상시켜 나갈 겁니다. 그런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저는 다짐했고, 또 그런 모습을 한기대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7. 어느 대학교에 지원했나요?

8. 지금 생각 중인 대학교에 붙으면 어디에 가실 건가요?

전 한기대를 가겠습니다. 한기대는 각종 장학금제도가 잘 개설되어있고, 등록금도 매우 저렴해서 제가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줍니다. 또한 언제나 이용이 가능한 랩실 등의 시설과 취업 제도들도 제가 한기대를 고른 이유입니다.

9.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가요?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의 영향력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네트워크가 광역적으로 보급되는 등의 영향력을 몸소 체감하고 그의 혁신가적인 면모를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0. 기억에 남는 자원봉사 활동이 있나요?

학교에서 기자재 활동을 통해 선생님들의 수업에 필요한 자료나 노트북 등의 준비를 돕는 봉사활동을 했었다. 선생님들과 더욱 친밀감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봉사를 하며 얻는 뿌듯함 이외에도 공부하다 생기는 질문을 거리낌 없이 선생님들께 하는 등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봉사활동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학업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예상 밖으로 생기부에 나온 활동에 관련된 질문은 일절 나오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학생에게 비전이 보이는지를 본다.

본교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진심인지도 보니 본교에 대해 공부해 갈 필요성이 있다.

질문들이 생각보다 열린 질문들이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다 하고 나올 수 있으니, 자신이 어필하고 싶은 부분, 보완하고 싶은 부분을 충분히 준비해두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컴퓨터공학부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최초합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지역인재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 대기실-진로적합성면접(10분) - 인성면접(10분) - 각면접당 1명		
기타 유의사항	- 수험표 챙겨가기 - 교복 착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진로적합성면접

질문1)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서 물어 봄.

-> 아는 기본적인 지식 선에서 얘기함.

질문2) 머신러닝, 딥러닝에 관련해서 한 학교활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약간의 지적을 함.

-> 나의 탐구활동의 목적을 자세히 설명하며 면접관을 설득시킴

질문3) 컴퓨터와 관련하여 또 무슨 활동을 하였는지 물어봄.

-> 아두이노와 센서를 이용하여 만든 작품을 설명함.

질문4) 도서활동에 있는 책 중에서 파이썬 관련 책으로 무엇을 배웠는지 물어봄.

-> 파이썬을 처음 입문할 때 기본이 되는 개념과 응용문제를 풀 때 용이했다고 대답함.

인성면접

질문1) 지원동기를 물어봄.

-> 컴퓨터를 좋아하는 친구와 친해지면서 처음 접하게 되어 크게 흥미를 느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진로로 정하게 되었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공부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발 맞춰서 고객들이 부담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다고 함.

질문2)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가? 무슨 봉사를 했는가?

-> 개인적인 해결방법을 설명함.

후배들을 위한 조언

크게 부담 안 가지고 준비 안 하고 가도 될 것 같음.

면접 때 어리버리한 모습만 안 보이면 쉽게 붙을 것 같음.

경희대학교

대학명	경희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 종합	전형명	네오르네상스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관분들이 되게 친절하셨습니다. 면접 보기에 앞서 '더듬어도 괜찮다. 그 내용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 안 나면 다시 처음부터 하면 된다. 더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면접 시간은 8분 내외였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최대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서 머리 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1]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답변1]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이라는 큰 틀에서 학습하는 원리. 크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은 결과가 확실히 존재하는 명제에 대한 학습법입니다. 둘의 큰 차이는 명제에 대한 정답을 제공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화학습은 뚜렷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으나 개발자의 의도에 맞는 학습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보상을 주는 형식의 학습입니다. 인간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데, 인공지능은 보상에 따라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보면 인간의 본능이 인공지능에게는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2] 딥러닝에 대해서도 설명 가능한지?

[답변2] 딥러닝은 머신러닝과의 차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층을 가지고 탐구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오토 인코더라는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계층에는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분되어 있어 층을 거듭할수록 심화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오토 인코더는 입력받은 정보를 그대로 데이터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자면 손글씨 3이 사람에 따라 여러 형태로 존재하더라도 그 숫자가 3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신 러닝은 계층에 대한 학습은 아니며, 입력받은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저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3] 수학에 관한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 특히 3학년 때 미적분과 AP 미적분을 수강했는데, 미적분이 인공지능에 어떻게 활용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3] 수학 교과목 시간에 정보량과 정보 속도 처리 시간에 관한 관계를 탐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보량이 늘어남에 따라 시간이 정비례하여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늘어날수록 시간은 더 많이 늘어나 지수함수의 형태 꼴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 도함수를 구해 정보량에 따른 시간의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4] 봉사 시간이 192시간이다.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들과 달리 많은 봉사 시간을 갖고 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봉사에 대한 가치관과 이 가치관이 드러났던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줄 수 있는지?

[답변4] 봉사활동을 하며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소통입니다. 봉사 활동을 하는 공간에서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똑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평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평성을 지향하려면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봉사에 대한 가치관을 3학년 교육 봉사를 통해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은 흥미가 수반해야 깊은 탐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마다의 관심분야를 조사해 그에 맞는 과목을 풀 수 있도록 바꾸었고,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가 올라가 굉장히 뿌듯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질문5] 봉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활동이 지금 있는지?

[답변5] 교육 봉사 활동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 전까지는 계속할 예정입니다.

[질문6] 이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답변6] 인공지능 전문가로서 융, 복합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경희대학교 인재상 중 하나) 경희대학교에는 전공 수업으로 '오픈소스 SW개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목은 저의 꿈을 실현시키기에 매우 적합한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희대학교에 진학하여 꿈을 이루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희대학교를 빛낼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입시 관련된 웹사이트에서 면접 후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같은 학교여도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서 면접의 형태가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면접 후기를 보고 면접의 난이도, 질문을 예측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100을 준비하면 50을 보여주는 게 면접이기에 200을 준비해서 100을 보여줄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 화 여 자 대 학 교

대학명	이화여자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컴퓨터공학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
전형유형	고교추천전형	전형명	학생부교과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대학 강의실에서 줌으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3분의 면접관분이 계셨고 돌아가시면서 균등하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교과점수와 면접의 비율이 8대 2이었기 때문에 다른 대학의 면접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약 6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합격의 이유 중 하나는 구체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간단한 질문이라도 학교활동의 사례를 들면서 구체화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1. 지원동기 말씀해주세요.

저는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습니다.

1학년 국어시간 책을 읽고 장애인 인권 문제를 탐구하면서 편견이 미고용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3학년 사회문제탐구시간에 AI채팅으로 선입견을 제외하고 구인구직 매칭과 이력서 작성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프로그래밍라는 것이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고교시절 배운 과목 중 컴퓨터공학과에 진학 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은?

수학입니다. 미적분시간 시그모이드 함수와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프로그래밍에 수학에서 배운 내용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느꼈고 수학이라는 과목이 컴퓨터공학과 진학 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이러한 탐구과정을 거치면서 얻어낸 좋은 성과가 있나요?

미적분 시간 시그모이드 함수와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미분에 대해서 더 깊이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3학년 수학경시대회에 참가하며 미분을 적극적으로, 정확한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최우수상이라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가장 인상깊게 읽은 책이 있을까요?

인공지능, 아직 쓰지 않은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책은 독서 시간 발표를 준비하며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어디까지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읽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인간의 발자취를 담고 있는 책으로, 인공지능 진화의 100년 역사를 2030년 대학생 마리의 목소리로 배우게 됩니다. 이 책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일을 인공지능과 로봇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은 저자의 말에 동의하나 이 일은 몇 세대에 걸쳐서 서서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저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저의 생각을 더 하면서 이 책을 읽었기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5. 자율시간이나 진로시간에 컴퓨터공학과 관련된 활동을 한 것이 있나요?

2학년 프로그래밍 시간에 온라인으로만 구현한 자율주행 자동차 기초 시스템을 실제로도 구현할 수 있을까하는 질문을 던지고 해결하기 위해 직접 실험을 계획하고 300cm 이하 앞에 있는 장애물을 초음파센서가 인식해 모터가 멈추고 그 외에는 움직이는 방식으로 제작하여 실제로도 구현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성공적으로 질문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저는 항상 궁금증을 통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6. 자율주행을 구현할 때 사용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인가요?

스케치입니다.

7. 컴퓨터공학과와 관련해 자신이 가진 자질이 있을까요?

학생회 활동 중 3대 100행사에서 눈이 좋지 않은 친구와 다리를 다친 친구들의 불편함을 알아차리고 다음 행사 때는 보완된 방식으로 진행했던 일과 영어시간 우유봉사를 하며 우유가 남아 악취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우유 확인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활동을 통해 불편함을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직업인 프로그래머에 가장 필요한 능력으로, 이 능력을 배경으로 끊임없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전 마지막 순서로 면접을 진행하여서 꽤 많은 시간 동안 대기하였습니다. 안에서는 전자기기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꼭 면접 자료를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분위기도 압박면접이 아니었으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기다려주시는 분위기이었기에 긴장은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지원동기가 항상 나오는 단골질문이기 때문에 꼭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명	서울시립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컴퓨터과학부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p>코로나 상황이었지만 대면으로 면접을 진행하였고 마스크는 안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써야만 했습니다.</p> <p>면접관은 2분이 계셨고 한 분은 전공 관련 지식과 교과 시간에 배운 수학내용, 다른 한분은 전공 관련 지식과 인성관련 질문을 번갈아가며 해주셨습니다.</p>		
기타 유의사항	<p>약 13분여간 진행되었고, 시작 전 면접 시 유의사항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p> <p>저는 합격의 이유 중 하나가 자신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면접관분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솔직하게 모른다고 답변하고 이 학교에 와서 공부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p>		

질문 및 답변 내용

1. 자기소개서에 적혀있는 자율주행 실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2학년 프로그래밍 시간에 온라인으로만 구현한 자율주행 자동차 기초 시스템을 실제로도 구현할 수 있을까하는 질문을 던지고 해결하기 위해 직접 실험을 계획하고 300cm 이하 앞에 있는 장애물을 초음파센서가 인식해 모터가 멈추고 그 외에는 움직이는 방식으로 제작하여 실제로도 구현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며 성공적으로 질문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접한 아두이노를 활용한 개발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담당교과 선생님께 꾸준히 자문을 얻었고 보충이 필요한 부분들은 '쉽게 따라하는 아두이노 배우기', '모두의 아두이노'와 같은 책을 읽으며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항상 궁금증을 통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2. 미적분 시간에 탐구한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그모이드 함수란 입력된 데이터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출력하는 비선형함수로 미분가능한 연속성을 가진 함수입니다. 또한 인공지능망의 활성화 함수로 사용됩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시그모이드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며, 변곡점은 $(0, 1/2)$ 지점에서 가지고, 점근선은 $y=1$ 과 x 축에서 가진다는 내용을 미적분 시간에 탐구했습니다.

3. 합성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f(g(x))$ 와 같은 형태의 함수일 때 미분을 하게 된다면 $f'(g(x)) \times g'(x)$ 로 바깥에 있는 함수뿐만이 아닌 안에 있는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하여 곱해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4. 변수가 다를 때 미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x 에 대한 함수를 미분하는 식인데, 식 안에 t 와 같은 또 다른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면 t 를 x 로 치환해서 미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롤모델이 있나요?

저의 롤모델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남들과 소통하며 원활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중요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노력 덕분에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도 학생회 활동과 같은 단체 활동 속에서 어려움에 부딪치더라도 극복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6. 위 답변에 대한 학교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주시겠어요?

3대 100행사는 제가 학생회 임원으로서 처음으로 기획부터 진행까지 담당했던 행사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퀴즈 대결을 하며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눈이 좋지 않은 친구와 다리를 다친 친구들의 불편함을 알아차렸고 학생회 부원들과 수많은 회의를 진행하며 다음 행사에 대해 수많은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에 다음 행사 때는 글자크기를 늘리고 틀린 학생들이 이동하는 대신 빨간 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음을 느끼며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7. 좋아하지 않는 과목이 있나요?

좋아하지 않는 과목은 딱히 없지만 프로그래머를 희망하게 되면서 수학과 과학에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다 보니 영어의 성적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학년 때 원어민 선생님과 프리토킹활동과 3학년 영어 시간의 에세이 작성활동을 본다면 성적은 모르겠으나 남들과 비교했을 때 말하기 능력이나 글쓰기 능력은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8. 타원 곡선 알고리즘에 대해서 탐구했던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타원곡선 알고리즘은 타원곡선이라고 불리는 수식 즉 $y^2 = x^3 + ax + b$ 을 기반으로 하여 암호화, 복호화를 하는 방식으로 강력한 보안성을 자랑합니다.

암호화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공개키로 암호화하고, 복호화는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개인키로 대칭키가 가지고 있는 키의 공유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비대칭키 알고리즘 중 짧은 키를 사용하면서도 비슷한 수준의 기밀성을 제공하고 암호화와 복호화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며 스마트 카드나 무선통신단말기 등과 같은 분야에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9. 타원 곡선 알고리즘이 왜 강력한 보안성을 자랑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탐구하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립대학교에 입학한다면 꼭 더 깊이 공부하고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으면서 장애인분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과 컴퓨터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으면서 수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분들께서 마스크를 쓰게 되며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저는 음성비서 시스템을 활용해 단 몇 가지 단어만 써도 원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는 일반인전용이 아닌 장애인분들 전용으로 따로 제작하여 위와 같은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2학년 때 프로그래머를 희망하게 되면서 1학년 1학기에만 진행했던 정보시간만을 통해 컴퓨터에 관한 전공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이 아쉬웠고 이에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래밍을 신청하며 주도적으로 배움의 기회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런 저의 주도적인 자세가 서울시립대학교의 인재상과 딱 맞는 학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꼭 서울시립대학교에 입학해 아쉬웠던 지식을 쌓고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다른 학교에 비해 또한 전형 특성상 대기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전자기기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꼭 마지막으로 볼 면접 자료를 챙겨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투명 마스크를 쓰고 진행했기 때문에 대면 면접임에도 표정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완전히 놓지 말고 '감사합니다'와 같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이 태도 점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인공지능응용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학교생활우수자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 시간은 10분 내외 예정이었으며 1분 남았을 때 밖에서 면접 도우미 분께서 노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면접 먼저 보신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노크 소리를 들은 이후 적어도 3분 정도는 더 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이 학생이 얼마나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은지를 우선적으로 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은 학교생활의 진위여부를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건 학교에 따라 다르다. 최대한 다양한 상황을 생각해보며 준비하는 것이 매우 도움된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1] 걸어 들어오는 것부터 되게 자신감이 넘치네요. 오늘 컨디션 어때요?

[답변1] 오는 길에 아무런 탈 없이 잘 도착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2] 지원동기 말씀해 주세요.

[답변2] 1학년 과학융합탐구대회에서 얻은 인공지능 전문가로서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2학년 빅데이터 동아리에서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의 분석, 활용 방법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이후 3학년이 되어 코딩 동아리에 들어가 인공지능 기초 개발 역량을 길렀습니다. 이제 서울과기대에 진학하여 인공지능 전문가로서의 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질문3] 자기소개서 첫 줄에 인공지능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3] 홍콩 휴머노이드에서의 인공지능 소피아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정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언론, 매체를 통해 퍼져나가며 사람들에게 더 큰 공포를 확산시켰다고 봅니다. 하지만 소피아도 인공지능이 인류를 정복하지 않을까라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답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인공지능의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와 도움되는 측면에 대해 더 널리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4] 사회적으로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답변4] 직업의 종류와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인공지능의 증가로 인해 인공지능과 관련된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며, 인공지능응용학과를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이러한 때를 대비해 인공지능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인공지능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으로서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5]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는데, 어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싶은지?

[답변5] AI 교육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개발하고 싶습니다.

[질문5-(1)] 굳이 인공지능으로 교육 소프트웨어를 만드려는 이유는?

[답변5-(1)] 사람들이 클라우드에 접근하면서 더 많은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인간이 지시하지 않더라도 쉬지 않고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개선해 나갈수록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5-(2)] 클라우드에 악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넣을 경우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5-(2)] 데이터가 너무 완벽하면 인공지능은 예외적 상황에 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데이터에 오류를 첨가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도 학습하여 더 올바른 학습 방법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통해 학습하면 오개념에 대해 구별할 수 있을 것이며, AI 소프트웨어를 통해 학습하는 학생들이 오개념에 대해서도 추가로 더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답변6] 고급 딥러닝 실습과 인공지능의 법과 윤리라는 전공과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기대에서 추구하는 창의성과 윤리, 도덕을 갖춘 인재로서 단순히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과기대를 빛낼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자신의 희망 전공에 대한 지식은 '독서'가 최고입니다. 면접 두 달 남은 시점부터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남은 시간은 무조건 인공지능과 관련된 책을 읽었습니다.

지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문제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전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 관련된 웹사이트에서 면접 후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같은 학교여도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서 면접의 형태가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면접 후기를 보고 면접의 난이도, 질문을 예측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100을 준비하면 50을 보여주는 게 면접이기에 200을 준비해서 100을 보여줄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대학명	경희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충원합격
학과명	생물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9번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네오르네상스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1. 열체크와 신분증을 체크하고 대기실에 들어간다. 2. 무작위로 앉고 조교분들이 들어오셔서 다시 자리를 배치해준다. 3. 3명씩 그룹을 이루어 면접실 앞에서 대기하고 들어간다.		
기타 유의사항	상향으로 쓴 대학교이므로 얼마나 내가 이 대학교에 간절한지를 어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많은 면접 준비를 하셨을 텐데 어떤 질문을 첫 번째로 할거 같으세요?

[답변] 지원동기인 것 같습니다.

[질문] 지원동기 말해보세요

[대답] 경희대학교의 SDGs 사회적 가치창출 교육과정, PBL 자기주도형 학업역량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대답

[질문] 경희대학교에 오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하나 말해주세요

{대답} 마스크의 장시간 착용으로 인한 피부트러블을 유발하는 입 속 세균이 무엇인지를 동정하는 창체동아리 때 했던 실험에 대한 설명과 바이오파이썬을 활용한 코로나 19 염기서열 분석 실험에 대해 설명

[질문] 가장 의미있는 봉사 활동은 무엇인가요?

[대답] 1학년 때 개인봉사로 했던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의 보조 봉사활동에 대한 설명

후배들을 위한 조언

제시문 면접이 없어졌으므로 좀 더 간단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화공생명공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농어촌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시간	10분	
	인원수	면접 위원 수: 2, 조별 학생 수: 3명	
	면접절차	대기실에서 대기하며 핸드폰 제출→신분증 검사 →호명되면 도우미를 따라 면접실로 입실→ 면접 진행	
기타 유의사항	- 면접실 분위기 : 엄청 조용함, 다들 자기 할 일만 함,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어도 말을 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님, 그래도 말 걸면 잘 받아줬음 - 교복 착용 여부 : 불가능		

질문 및 답변 내용

- 지원동기
 - 저는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생명공학 기술 개발에 힘쓰고 싶은 학생입니다. 세상에는 아직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등 치료하기 힘든 질병들이 많이 있고, 그런 질병들은 대다수가 유전질환입니다. 또한 이런 질병들을 치료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돈,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값싸게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공학인증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많은 경험을 통해 제 목표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했습니다.

- 기체 1mol의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 풍선을 물에 넣어 늘어난 부피를 측정했습니다.~~

- 용질의 종류에 따라 증기압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라울의 법칙 이용해서 설명함. (학교에서는 비휘발성 용질만을 가지고 공부하지만 나는 휘발성 용질까지 더 탐구했다. 비휘발성 용질은 용질의 증발을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으나 휘발성 용질의 경우 증발을 생각해야 해서 증기압력이 달라진다.)

-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는 어떻게 될지?

- 부피가 정해진 공간이면 온도가 올라가도 부피의 변화는 없지만, 부피가 정해지지 않은 공간이라면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부피가 증가할 것이다.

○ 이상기체가 무엇인지?

- 이상기체에 대한 설명(교과서에 있는 대로 설명함.)

○ 가역반응이란 비가역 반응이 무엇인지?

- 가역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비가역 반응은 정반응이나 역반응 둘 중 하나밖에 일어나지 않는 반응

○ 화학 평형이 무엇인지?

- 자연계는 평형을 좋아해서 변화가 있으면 그에 따라 평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정확한 기억이 나질 않아서 얼추 맞게만 설명하려고 노력했음)

○ 반응물이 반응하여 생성물이 생성되는 반응에서 만약 반응물은 굉장히 소량만 남고, 생성물은 굉장히 과량이 생성됐다면 이 반응은 가역반응인지 아니면 비가역 반응인지?

(내 생각을 말해보라고 함.)

-제 생각에 이 반응은 가역반응일 수도 있고, 비가역 반응일 수도 있다고 함. ~~(내 생각 말하고)

○ 마지막 할 말

- ~~ 강의실에서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 화공생명공학과는 생명공학보다는 화학공학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학교기 때문에 생기부에 생명 관련 세특이 많아도 화학 위주로 질문받음. 화학 세특 잘 읽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생각보다 전문 지식에 관한 질문이 없었음. 그렇다고 인성 질문도 없었음

- 생명공학이랑 화학공학에 연관점을 알면 좋을 것 같음.

인 하 대 학 교

대학명	인하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생명공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인하미래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차 합격자 발표 때 공지받은 건물 앞에 가면 조교분들이 층에 따라 줄을 세운다. 2. 조교분들의 안내에 따라 들어가면서 발열체크, 신분증 확인 등등을 한다. 3. 대기실에 가서 면접 안내 사항을 안내받는다. 4. 가번호를 받고 휴대폰을 끄고 제출한다.(가방 있으면 가방에 넣어도 된다.) 5. 자신의 가번호가 불리면 가서 면접을 본다. 		
기타 유의사항	<p>꼭 KF94마스크를 써야 하고 층마다 대기하는 줄이 다르므로 꼭 주의해야 한다.</p>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긴장되세요?

[답변] 아니요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질문] 먼저 자소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 텔로머레이스 과발현을 시키지 않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셨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답변] 노화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연장시키기 위해 텔로머레이스를 과발현할 시 암세포로 변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텔로미어의 길이 감소의 속도를 줄이는 방안으로 사고를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산화적 스트레스가 텔로미어의 감소를 촉진시킨다는 논문을 보고 항산화제를 활용하는 방법과 모체의 운동이 자손의 텔로미어의 길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운동에 대한 방안, 아직 많이 연구된 것은 없지만 TRF1과 TERRA의 작용이 텔로미어의 길이에 영향을 준다는 논문을 보고 이를 활용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질문] 자기소개서에 있는 자료의 객관성과 관련된거 설명해주세요

[대답] 논리학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고, 논문을 보면서 메타분석한 내용에 대한 설명

[질문] 자기소개서에 있는 자료의 구조화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대답] 본론 열개를 활용한 자료의 구조화에 대해 설명

[질문] 생기부 질문하겠습니다.

실장으로서 자리를 배치할 때 친구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자리를 배치하였다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했나요?

[대답]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와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시친구들은 뒷자리에 앉도록 배치를 하고 수시친구들은 앞자리에 배치했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

[질문] 고급 생명과학에서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문제로 평가 받았다는데 어떤 문제였나요?

[대답] 유전자 재조합 시 가장 중요한 재조합된 세포를 선별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수능 문제와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가장 합당한 문제를 그림자료까지 제시하며 7L2 보기를 활용한 문제를 만들었다는 설명

[질문] 화학에서 르샤틀리에의 원리를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설명했다는데 어떻게 설명했나요?

[대답] 과학중심사회와 이공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공계 친구들의 기피현상과 관련하여 설명

[질문]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서울대학교

대학명	서울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수능최저기준 미충족
학과명	식품/동물생명공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 종합	전형명	지역균형선발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시간	10분	
	인원수	면접 위원 수: 2명, 조별 학생 수: 2조 / 16명	
	면접절차	입실 마감 전까지 대기실에 들어가 대기 → 신분증 및 수험표 확인 → 자료 한 개 빼고는 모두 큰 비닐봉투 안에 넣어 제출 (휴대폰, 가방 등/ 휴대폰의 경우 전원은 꺼서 제출) → 본인 면접 차례 5분 전에 도우미를 따라 면접실로 이동 및 대기 → 면접실 입실	
기타 유의사항	수험표와 신분증은 필수 (수험표의 경우 없다면 고사본부에서 뽑아주심), 외투는 입어도 됨 (대신 가번호 스티커는 외투에 잘 보이도록 붙여야 함), 자기 차례 전까지 준비한 자료 하나 정도는 볼 수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 3학년 동아리 시간에 CRISPR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멸종동물복원에 대해 탐구했는데, 어떻게 탐구하게 되었고 무엇을 배웠는지 설명해주세요.

-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늑대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우리나라에서 늑대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상위 포식자의 부재로 불균형해진 생태계를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늑대와 같은 육식동물을 복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멸종동물복원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현재까지 멸종동물의 복원 방법으로는 주로 역교배, 핵 치환법이 쓰였지만, CRISPR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다면 보다 정교한 복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였고, 실제로 매머드의 경우 아시아코끼리의 유전자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매머드 유전자와 비슷해지도록 편집하는 방식으로 복원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여러 동물의 유전자에서 일부분을 잘라와 합성하는 방식으로 복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말씀드린 매머드처럼 실제로는 복원하고자 하는 동물과 가장 비슷한 동물의 유전자를 잘라가며 진행한다는 점을 새롭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 (꼬리1)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는 다른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 유전자 치료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꼬리2) 그렇다면 이 학과에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는 방안은?

- 최근의 상황과 연결시켜보자면, 현재 코로나 19가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타파하려면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이 필수적일 텐데, 이들은 모두 동물실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본 학과에서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과정에 유전자 가위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동아리 활동 중에 자신이 리더가 되어 한 활동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 저는 2학년 동아리 때 차장이었습니다. 부장에 비해 하는 일은 적어 보인다 할 수 있겠지만 부장을 도와 부원들의 의견을 모아 이를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하고 모두가 좋아 할만한 실험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저희 동아리에서는 2학년 부원 모두가 하나씩 실험을 선정하여 진행했었는데, 저는 지구과학 실험을 담당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지구과학은 많은 친구들이 그다지 흥미를 느끼는 과목이 아니였기에 실험을 진행하는데 있어 부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나 지구과학 선생님의 전공 서적 등을 참고하여 실험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세특에 보면 과학융합 시간에 ‘약이 되는 우유’를 주제로 글쓰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약이 되는 우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시는거죠? 기존의 약은 어린 아이들이나 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섭취하기에 불편한 감이 있지만, 약을 대신할 수 있는 우유라면 이런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꼬리1) 네, 그렇지만 이 ‘약이 되는 우유’ 역시 일종의 GMO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아, 그 부분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 우유도 일종의 GMO네요. 그렇지만 약이 되는 우유는 그만큼 충분한 장점이 있고, 또 긴 시간동안 충분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사람들도 이를 신뢰하고 마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20년 뒤에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 저는 20년 뒤 아까 말씀드린 멸종동물복원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원을 잘 할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복원을 진행하고 복원한 동물을 관리해야 하는지 연구하며 제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 자소서에 입력한 도서, ‘연구 윤리란 무엇인가’를 왜 읽게 되었고 뭘 배웠나요?

- 저는 연구를 하기 앞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야 하는지, 연구할 때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지 알아보고 싶어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독서한 결과 올바른 연구를 위해서는 진실성 있는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진실성 있는 연구란 도덕적인 연구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진실성 있는 연구를 해치는 행위로는 논문에 실제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를 기입하는 것,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논문 저자명에 기재하는 것, 연구에 참여한 사람과 연구를 주도하는 사람 간의 불합리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에 연구를 진행할

때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시간이 거의 다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얘기해주세요.

- 저는 고등학교 기간 동안 형질전환실험이나 전기영동실험을 해보는 등, 이 학과에 있어 기초적인 소양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멸종동물복원이라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사례와 자료를 조사하며 이 목표를 점점 구체화해왔습니다. 이에 저는 본교의 이 학과에 진학하여 제 목표를 이루고 싶습니다.

○ 그런데 왜 수의학과를 지망하였어요? 이 일들은 이 학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수의학과를 희망한 이유가 뭔가요?

- 제가 수의학과를 지망한 이유는 여기서 배우는 지식이 제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 학과의 교과과정을 살펴보니 동물형질전환학이나 유전공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뒤에는 이러한 학문들이 목표를 이루는데 훨씬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이려 했으나 시간이 다 되어 끄김)

후배들을 위한 조언

저의 경우 세특, 자소서, 독서 등 다양한 곳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활동을 왜 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도 함께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 전 여러 떠도는 소문에 휘둘리지 마세요. 본인의 몫을 열심히 준비해가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10분 동안 본인이 가진 역량을 모두 보여주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 화 여 자 대 학 교

대학명	이화여자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불합
학과명	화학생명분자과학부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형명	고교추천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대기실에서 입실 마감되면 가방 앞으로 제출함. -> 신분증 검사, 각자 면접 준비, 엄청 조용함 -> 호명 되면 가방 다 챙기고 면접실 앞에서 대기 하다가 앞 번호 끝나면 들어감 -> 면접 보고 끝		
기타 유의사항	가방 제출할 때, 필통 모두 가방에 넣고 뽑아온 자료와 펜 하나 소지할 수 있음. 개인 물 못 마심. 물 따로 줌. 화장실도 조교님이랑 같이 가야 함. 조교님, 선배분들 다 엄청 친절하심.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지원동기 말해보세요

[제가 들어간 방은 질문을 엄청 길게 하시는 편,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말할 거 말하면 됩니다.)

[답변] 식물과 육종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자가 되고자 이 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함 + 그러한 분야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생명과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전문 지식을 쌓고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함.

[질문] 가장 좋아하는 과목 + 이유 + 그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답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생명과학입니다. 저는 생명과학이 생물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상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진화하고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 배우는 것이 신기했고 재밌어서 생명과학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저는 생명과학이라는 학문이 암기가 필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단어를 만들어서 재밌게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생명과학II 수업을 들으며 생명과학I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배웠던 광합성과 세포 호흡에 대해서 자세한 작용기전에 대해 알고 이를 암기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공부방식대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면서 공부해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보통 분자생물학이나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는데 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답변] (실제로 책 읽고 식물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매혹하는 식물의

뇌'라는 책을 읽고 식물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됨. 이 책을 읽고 식물을 무감각한 생물이라고 여기던 편견이 깨지고 식물의 새로운 모습에 매력을 느껴 식물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

[질문] 아까 광합성에 대해 공부했다고 하던데 무슨 내용 공부했는지 말해보세요.

[답변] 명반응과 암반응에 대해 말씀 드려도 될까요? (교수님 : 네.)

명반응은 ~ 이고, 암반응은 ~입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준비한 활동 있는데 말 못 한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교수님이 질문하시고 종 울렸는데 말하고 가라고 해서 말씀 드리고 나왔습니당)

[답변] 버섯 균사체를 이용해 스티로폼 대체재를 제작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버섯의 자기조립 성질을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었고, 제가 직접 계획해서 한 실험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험 요인을 바꾸어 가며 성공이라는 결과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 화학생명분자과학부 같은 경우 인기가 많은 학과여서 1점대 후반이면 지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화여대 유튜브에서 입학사정관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면접 퍼센트 비율이 작지만 그 차이가 크다고 하는데 그건 1점대 초중반 친구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방마다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간 방은 기본적인 질문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 보면 전공질문 위주더라고요. 방마다 다르니까 다 골고루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대학명	한국교통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생명공학전공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나비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비대면 면접(10분 이내)으로 개인 링크를 통해 주어진 질문에 답변하는 면접 영상을 업로드 해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신분증을 들고 사진을 찍어 본인인증을 하고 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질문 및 답변 내용

- [질문] 1. 지원 동기 및 중요하게 여긴 교과목과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요?
 2.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한 교내 활동과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3.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나요?

[답변] 1. 제약 연구원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교통대학교 식품생명학부의 생명공학 전공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임상병리사를 희망하였지만, 임상병리사에 대해 알아보던 중 제약회사 연구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여러 약품의 주성분과 작용 부작용을 주제로 하여 교내 학술제에 참여하는 등 약품에도 관심이 있었기에 제약 연구원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통대는 생명공학 관련 우수한 교수진이 구성되어 있고 학생 취업 연계 활동과 실습실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교통대학교 식품생명학부의 생명공학전공에서 제 꿈인 제약 연구원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교과목은 생명과학입니다. 2학년 때 생명과학 I을 배우면서 큰 계획 없이 공부했더니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생명과학 II를 공부할 땐 개념 문제집과 스터디 플래너를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 하는 등 단원별로 저의 학습 상황에 맞춰 계획을 세운 후 계획에 맞게 문제집을 풀고 교과서를 읽어보며 공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록 진로선택과목이라 등급은 나오지 않았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스터디 플래너를 활용한 과목별 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학습을 하여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 여러 가지 교내 활동을 하였지만 그중에서도 밀웜의 플라스틱 분해 속도 변화를 탐구했던 과학 과제탐구 발표회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연히 밀웜의 몸속 박테리아가 플라스틱을 분해해 유기폐기물로 배출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고 이 점을 잘 활용하면 환경오염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밀웜이 가장 효율적으로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과학 과제탐구 발표회에 참여하여 실험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실험은 온도, 습도, 빛의 양과 성장속도 총 4가지 조건을 다르게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실험을 하면서 밀웜의 성장 속도와 번식이 너무 빨라 정해진 밀웜 양을 맞추기 위해 거의 매일 밀웜들을 꺼내 주어야 했고 실험 기간에 비가 많이 와 습도를 조절이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습기 제거제를 사육장 안에 부착하여 습도를 조절하였습니다. 6개월 정도 이 실험을 수행하면서 25~30도의 온도, 80% 이상의 습도, 일정량 햇빛, 성충이 아닌 밀웜일 때 가장 스티로폼을 잘 분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험을 하면서 처음에는 밀웜이 조금 징그러웠지만 매일 보다보니 나중에는 귀여워졌습니다. 실험에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실험을 하다 보니 결과가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여 뿌듯했습니다. 실험의 규모가 더 컸다면 실험 결과도 더 명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아쉽습니다. 밀웜의 플라스틱 분해와 관련있는 밀웜 장 속의 박테리아가 무엇인지 밝혀낸다면 정말 친환경적인 플라스틱 처리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빨리 그 박테리아가 무엇인지 밝혀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대학에 진학하여서 생화학 실험, 미생물학 실험 등 여러 전공 관련 실험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1학년 때 했던 합창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연습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고 저를 비롯한 반 친구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대화를 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니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지 않고 조금씩 양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후렴구에 약간의 안무를 곁들인 아름다운 나라를 부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습을 해 보다 짧은 기간 동안 노래와 안무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하였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무대를 완성해보자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표가 생기니 평소 연습을 대충 하던 친구들도 연습에 더 열심히 참여해주어 생각보다 빠르게 연습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참가에 의의를 뒀던 합창대회에서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갈등도 있었지만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단합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미루어보아 협력한다면 원래 목표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앞으로 대학교에서 조별과제등 단체 활동을 할 때 갈등이 생기더라도 대화를 통해 갈등을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영상을 찍을 때 단정한 옷을 입고 밝은 공간에서 찍는 것이 좋다. 소리가 잘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강원대학교

대학명	강원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
학과명	산림과학부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예비 8번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미래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유형 : 대면 면접 - 입실 시간 : 오전반(8시~8시 30분까지 입실) - 면접관 : 교수님 두 분(한 분은 딱딱하시고, 한 분은 유머스러우셨음) - 면접 시간 : 9분(면접 진행 시간은 모두 동일) <p>산림환경과학대학 건물에 들어가서 손소독을 하고, 면접 대기실에 입장함. 면접 대기실에 들어가면 가번호 스티커를 가슴팍에 붙이고, 나눠주는 지퍼백에 소지한 전자기기를 모두 제출함. 면접 순서는 랜덤이었고, 대기 시간 동안 대본을 봐도 됨.</p> <p>수험번호가 불리면 학부 재학생이 길을 안내하며 면접실 앞까지 데려다주고, 면접을 완료하면 전자기기를 다시 나눠주고 집으로 귀가.</p>		
기타 유의사항	없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1학년 때는 성적이 올랐는데, 2,3학년 때는 점차 성적이 하락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선택과목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3학년 때 선택한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적어 등급이 상대적으로 나오기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질문] 독서를 많이 했네요? 추천할 책이 있나요?

[답변] 책 제목과 함께 인상 깊었던 이유와 나를 변하게 해준 것 등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대학교 입학하고 학업계획을 생각해봤나요?

[답변] 1학년 때는 '숲사모'라는 숲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동아리에 들어가 선후배사이를 돈독하게 다지며 학교에 적응하고, 2학년 때는 전공 공부와 함께 토익시험을 보고, 해외인턴쉽과 같이 다양한 산림프로그램에 지원할 것입니다. 3학년 때는, 자격증 준비반에 들어가서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본격적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것입니다.

[질문] 대학교 와서 공부 말고~ 진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요?

[답변] 저는 대학교 와서 새롭게 사귀 친구들과 춘천의 맛집을 탐방해보고 싶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며 친구들과의 우정을 쌓고 싶습니다.

[질문] 무슨 과목을 제일 좋아하나요?

[답변] 지구과학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지구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다룬 과학인 지구 과목을 가장 좋아합니다.

[질문] 우리 학교가 학생을 꼭 뽑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저는 국내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해외까지 뻗어 나가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1학년 때 읽었던, 일곱 가지 상품으로 읽는 종횡무진 세계지리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햄버거 패티의 재료가 되는 소고기를 얻기 위해 조성되는 목장이 열대우림을 파괴해서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들을 뼈저리게 느껴,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산림은 전 세계와 얽혀있기 때문에 저는 세계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답변] 사람들은 말 못 하는 생물로 강아지나 고양이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꽃과 나무는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생물이기에 관심을 더욱더!!! 가져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강원대학교에 입학해 이어나가 성장하여 강원대학교를 빛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선생님과 함께하는 모의면접을 많이 해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또한, 유튜브에 면접관 영상이라고 치고 눈을 마주치며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길 바란다. 근데 나는 막상 모의면접이 더 떨렸고, 처음 보는 면접관 앞에서 말하는 것이 더 수월했다. 하지만 연습은 많이 해야 한다. 대본을 그대로 읽으며 로봇처럼 말하기보단, 편안하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더 높은 점수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웃는 모습과 제스처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건국대학교

대학명	건국대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화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자기추천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세미나실에서 대기 -> 면접실 앞에서 대기 -> 면접 진행		
기타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건국대학교 처음 와 보나요? 캠퍼스는 어때요? 부모님이랑 같이 왔나요?

[답변] 네 처음 와 봅니다. 캠퍼스가 크고 예뻐요.

[질문] 오비탈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오비탈이란 전자 분포의 확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질문] 오비탈에 대해 어디까지 배웠는지 설명해주세요.

[답변] 화학1 수업 시간에 s, p, d, f 오비탈이 있다는 것과 s, p 오비탈에 대해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 고급 화학 시간에 d, f 오비탈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질문] 공유 결합은 어떻게 형성을 하나요?

[답변] 원자가 결합 이론에 따르면 핵 사이에 전자 분포의 확률이 증가함으로써 공유 결합이 형성됩니다. 분자 오비탈 이론에 따르면 두 오비탈이 겹쳐져서 새로운 결합성과 반결합성 오비탈을 형성해 공유 결합이 형성됩니다.

[질문] 흑시 ~에 대해서도 배웠나요? (어떤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남)

[답변] 아니요.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국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질문] 수소는 원자 상태가 안정한가요 아니면 분자 상태가 안정한가요?

[답변] 수소는 원자 상태일 때 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분자를 이뤄 안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질문] 그렇다면 헬륨은 원자 상태가 안정한가요 아니면 분자 상태가 안정한가요?

[답변] 헬륨은 원자 상태가 안정합니다. 헬륨은 수소와 다르게 비활성기체이기 때문에 원자 상태로도 안정하기 때문에 분자를 이루지 않습니다.

[질문] 르샤틀리에 원리란 무엇인가요?

[답변] 르샤틀리에 원리란 평형상태에서 온도, 압력 등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문] 온도가 증가하면 반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온도가 증가하면 온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됩니다.

[질문] 압력이 증가하면 반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압력이 증가하면 반응은 압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생성물의 양이 적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질문] 압력이 증가하면 평형상수는 바뀌나요?

[답변] 아니요. 바뀌지 않습니다.

(평형상수는 온도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대답해야 하는데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음)

[질문] '세상을 바꾼 화학'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답변] 옛날 화학자들이 물의 화학식을 알아내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 한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이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몰랐었던 옛날에는 물의 무게와 분해시켰을 때 발생 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이 같다는 것을 통해 물의 화학식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배우는 화학 지식은 많은 화학자의 노력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기억에 남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요?

[답변] 고등학교 시절 화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화학 연구원으로서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앞으로 건국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하여 과학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 모든 질문이 다 자소서 1번 질문과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 대부분 입학 사정관 한 분, 학과 교수님 한 분 계시는데 두 분 다 화학과 교수님인 것 같았습니다.
- 학교에 가서 줌으로 면접 봤는데 소리가 울려서 잘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 대기 시간에 자소서나 생기부 포함해서 아무것도 못 봅니다.
- 자소서에 쓴 부분은 꼼꼼하게 공부하고 관련 교과 지식도 공부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 하 대 학 교

대학명	인하대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화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미래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세미나실에서 대기 -> 면접실 앞에서 대기 -> 면접 진행		
기타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담임선생님께서 자기주도성이 뛰어난 학생이라고 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답변] 저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플래너에 계획을 세우고 야간 자율학습을 통해 꾸준히 공부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동아리 부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온라인 활동도 병행한 것 같은데 온라인 활동으로는 무엇을 하셨나요?

[답변] 온라인 활동으로는 영화 속 과학적 오류 찾기, 실험 진행 후 활동 소감 발표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질문] 잘 따라오지 않은 학생도 있었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였나요?

[답변] 따로 이야기를 하여 같이 하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또한 실험 전에 해야 할 역할을 주었습니다.

[질문] 화학과에서는 실험을 많이 진행할 텐데 잘 따라오지 않은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답변] 저는 실험을 진행할 때 보다 실험하기 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역할을 나눠서 같이 하도록 할 것입니다.

[질문] 원자가 결합 이론과 분자 오비탈 이론의 차이점에 대해 말해 보세요.

[답변] 원자가 결합 이론은 핵과 핵 사이에 전자 분포의 확률이 증가함으로써 공유결합을 하는 것이고 분자 오비탈은 원자가 결합 이론과는 다르게 새로운 결합성과 반결합성 오비탈이 생겨 전자들이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차곡차곡 쌓여 결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질문] 동핵 이원자 오비탈과 이핵 이원자 오비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핵 이원자 오비탈은 두 원자의 에너지가 같은 반면에 이핵 이원자 오비탈은 두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다릅니다. 또한 동핵 이원자 오비탈은 결합차수가 정수인 반면에 이핵 이원자 오비탈은 소수점이 생겨 정수가 아닙니다.

[질문] 수학 세특에 보면 물의 최소가 되는 부피를 확인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답변] 방정식을 지오지브라라는 앱을 이용하여 최소가 되는 부분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수소 결합과 관련해서 설명해야 하는데 잘못 대답한 것 같음)

[질문] 마지막으로 할 말 해보세요.

[답변] 고등학교 시절 화학 연구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 화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인하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하여 화학 기기들을 이용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자소서 관련 질문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 인하대학교는 특히 다른 학교에 비해 면접 시간이 짧습니다.
- 진로 과목이 아닐지라도 진로 관련 활동은 모두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인성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 면접 끝나기 2분 전에 노크해서 알려줍니다.

국 민 대 학 교

대학명	국민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응용화학부 바이오의약전공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명	국민 프런티어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 입실 시간 약 5분 후에 가번호 부여함. - 가번호 순서대로 자리 앉은 후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직전에 밖에서 대기. - 3대 1 면접		
기타 유의사항	수험표 확인을 많이 진행함. 대기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볼 수 없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국민대 실제로 보니 어떨까요?

[답변] 1차 합격하고 국민대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대 소개 영상을 봤는데, 실제로 보니 영상에서 본 것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질문]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에피소드 한 가지 얘기해보세요.

[답변] 저는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항산화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던 것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항산화효과에 대한 실험을 많이 진행했는데, 커피 같은 식품을 이용해서 실험을 해보고, 식품의 색소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의 항산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도 진행해 이것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질문] 왜 학과 이름이 바이오의약일까요?

[답변] 생명과 관련한 약품을 제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질문] 3학년 동아리 활동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 얘기해보세요.

[답변] 구리 이온의 항균효과 실험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2학년 때 동일한 실험을 진행했었는데, 그 당시에 구리 이온이 항균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구리 이온이 들어간 황화구리 수용액을 사용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실험을 진행해 황화구리 수용액이 증류수에 녹지 않는다는 것을 실험 도중에 알게 되었고, 이를 사용하게 되면, 수용액의 다른 성분이 세균 생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이 실험에 대해 다시 조사해 구리판을 이용해 실험을 진행하였고, 실험에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실험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질문] 구리이온이 인체의 세포는 죽이지 않나요?

[답변] 네. 인체의 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학년 때 요양원 봉사를 계속했는데 요양원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요양원 봉사에서 노인분들께서 복용해야 하시는 약을 분류하고, 이를 식사보조 후에 복용 확인까지 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노인분들이 많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복용하시는 약의 종류가 많다는 것을 느꼈고, 죽과 같은 음식도 넘기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약을 복용하시는 것에 많이 힘들어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성질환을 완치할 수 있는 약이나, 여러 질병에 효과가 있는 약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 생2에서 이기적 유전자를 읽었는데, 이를 통해 바뀐 점과 진로와 관련해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우리 몸을 통제하는 유전자에 대해 더 연구가 진행되고,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생명학적으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모성애가 유전자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입양가정에서 생기는 애정은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가졌습니다.

[질문] 본인이 바이오의약전공과 관련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답변] 네. 저는 끈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생활 동안 여러 실험을 진행했는데, 한 번에 성공한 실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험을 성공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나 선생님께 질문함으로써 전 실험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고, 보완해 재실험을 진행하는 것을 실험이 성공할 때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끈기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학과가 학생을 뽑아야 하는 이유 10초 안으로 말해보세요.

[답변] 어... 수학 성적에서 보셨듯이 저는 제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 번 마음 먹으면 이루어내는 점이 있습니다. 신약개발도 이렇게 마음먹고 진행해 이뤄내겠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 생기부뿐만 아니라 학과에 대한 정보도 숙지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면접 10초 남기고, 밖에서 문 두드리시는데 당황하지 않고 자기가 할 말을 끝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 민 대 학 교

대학명	국민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전자공학부 전자시스템공학전공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수시(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국민프런티어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국민대학교에 직접 방문하였고 대면으로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10시 30분에 면접 시작이었는데 10시 10분에 문이 열려서 미리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민대학교는 화장실은 자유롭게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면접 번호를 부여받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국민대학교는 기다리는 동안 면접과 관련한 서류들은 일체 하나도 못 보게 하기 때문에 가기 전에 연습해놔야 합니다. 그리고 면접관님들이 3명으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면접관님을 면1, 면2, 면3로서 표현하겠습니다.)

면1: (면접 관련 수칙 사항을 먼저 말해주셨습니다.) 면접 떨지 말고 잘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나: 안녕하세요. 저는 신체적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첨단 웨어러블 장치를 만들어 희망을 전달하고
싶은 가번호48입니다. 저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1,2학년 때 아두이노를 공부하며 다양한
센서를 다뤄보았고, 3학년 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자의수를 만드는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옮겨주는 기능 밖에 없어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웨어러블 장치를
만들기 위해선 전자공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껴 전자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면1: (자소서, 생기부) 자동문을 제작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나: 이 활동은 누군가에게는 쉬울 수 있지만 저는 처음으로 두 개 이상의 아두이노를 사용하여
제작한 의미 있던 활동이었습니다. 2학년 교육학 시간에 친구들에게 아두이노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초음파센서와 서보모터를 이용하여 축소판 자동문을 제작하였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아두이노가 작동하지 않아 선생님께 양해를 구해 기간을 늘렸고, 저는 문제점을
찾기 위해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보았습니다. 아두이노 바이블이라는 책을 통해 전압의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면2: (자소서, 생기부) 전자 의수를 제작했다고 되어 있는데 직접 만든 것인가요?

나: 네, 저는 두 가지 소재를 이용하여 전자의수를 제작하였습니다. 제가 손 모양을 만드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는 스티로폼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구성이 약할 뿐만 아니라 물체를 잡는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두 번째로는 3d프린터를 이용하여 손 모양을 제작하여 보완성과 물체를 잡는 데 있어서도 보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면2: 물체를 어떻게 잡도록 만들었나요?

나: 저는 아두이노 서보모터를 다섯 손가락에 연결하여 각도를 달리하면서 물체를 잡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면2: 그럼 대학에 진학해서 전자의수를 만들고 싶은 것인가요?

나: 저는 전자의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웨어러블 장치를 만들어 신체적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자의수가 아니어도 다른 것들도 만들고 싶습니다.

면3: (생기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학급 실장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말해주세요.

나: 저는 2학년 때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친구들이 지각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 학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지각비 1000원을 걷자와 남아서 청소를 하자 두 가지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의견의 절충안인 지각비 500원을 걷고 남아서 청소하는 것은 친구들의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청소하는 해결 방안을 내놓으면서 학급 회의를 좋게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면2: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나요?

나: 3학년 때 동아리 시간에 전동킥보드를 제작했었는데 이 활동을 통해서 공학적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성인용 킥보드에 스로틀, 배터리, 모터, 컨트롤러를 연결하여 전동킥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저는 컨트롤러와 다른 부품들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부품들끼리 호환성이 맞지 않아 직접 납땜을 통해 연결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뒷바퀴를 모터로 바꿀 때 구멍 크기가 맞지 않아 친구들과 돌아가며 직접 갈아내면서 구멍크기를 맞춰던 경험이 있습니다.

면1: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해주세요.

나: 저는 웨어러블 기술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증명하고자 저는 고등학교 시절 심전도, 근전도 센서등 여러 가지 웨어러블 센서들을 연구해왔습니다. 저는 공과대학의 역사가 특히나 깊은 국민대학교 전자시스템공학에서 이러한 꿈의 열정을 지속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생기부를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소서에 쓴 것은 무조건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면접관은 몇 명인지, 그 학교 준비시간에 자료는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숙지해가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 항상 물어보는 단골 질문들도 있으니깐 한 번씩 생각해보고 가는 게 좋아요! 면접보다가 시간이 다 돼가면 밖에 푹푹해줄 텐데 당황하지 말고 말하던 거 끝까지 말하고 나오면 됩니다!

충 남 대 학 교

대학명	충남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격
학과명	전자공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1 PRISM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 대기실 입실 - 본인 확인 - 대기 - 면접 - 퇴장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대기 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 금지 - 사용 시 부정행위로 간주 면접 응시 불가 - 면접 대기 시간 동안 학생생활 기록부 볼 수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자기소개와 지원동기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답변] 저는 창작을 좋아합니다. 그중에서도 시를 쓰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시를 쓰기 위해 소재를 찾다 보면 주변 사물과 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저의 최대 장점인 관찰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관찰력을 활용하여 사물의 객관적인 사실을 넘어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저의 이런 능력은 기존의 것에서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전자 공학에 필요한 능력이라 생각해 전자공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지원 동기는요?

{답변} 저는 반도체 분야의 협력과 경쟁에 참여하고 싶어 이학과에 지원했습니다. 2021년 반도체 부족 현상이 발생했을 때 여러 반도체 회사들이 차량회사들과 협력하는 것을 뉴스로 봤습니다. 또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기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저는 이런 협력과 경쟁에 큰 감명을 받았고 저도 동참하고 싶어서 전자 공학에 지원했습니다.

[질문] 그럼 왜 충남대학교입니까?

[답변] 충남대가 좋아서 왔습니다.

[질문]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장을 했었네요? 반장을 2,3학년 때도 반장을 했나요?

[답변] 네 1, 2, 3학년 때 모두 반장을 했습니다.

[질문] 반장을 하면서 공부하는데 시간은 없지 않았나요?

[답변] 반장을 하면서 친구들을 챙기고 소통하는 동안 공부하는 시간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 외에 자투리 시간 동안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공부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3년 동안 반장을 했는데 왜 전교 회장은 하지 않았나요?

[답변]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리더로써 중요한 것이 구성원들과의 소통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학생회장을 하게 된다면 학교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빈도수보다 학생회 임원들과 소통하는 빈도수가 더 많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학생들과 직접 만나 실제로 원하는 것들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학생 회장보다는 반장을 했습니다.

[질문] 편미분이 뭔가요?

[답변] 편미분이란 다변수 함수나 미분 방정식에서 하나의 변수만 미분하고 다른 변수들은 상수 취급을 하는 미분 방법을 말합니다.

[질문] 미분과 적분이 뭐라 생각하세요?

[답변] 미분은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서 한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분은 도함수를 적분해서 원래 함수를 추론하는 것을 말하고 넓이를 구하는데도 적분이 사용됩니다.

[질문]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 말해보세요.

[답변] 패러데이 법칙이란 코일과 자석을 활용해 전류를 만들어내는 법칙을 말합니다. 코일과 자석이 상대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선속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때 코일의 감은 수와 단위 시간당 자기선속의 변화량을 곱하여 정리한 것이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질문] 앙페르 법칙과 가우스법칙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답변] 앙페르 법칙이란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우스 법칙은 자석의 자기력선을 나타내고 그 주위에 동심원을 그렸을 때 자기력선이 동심원 빠져나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 반도체가 뭐라 생각하나요?

[답변] 저는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 성질의 중간정도를 가진 물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인간의 뇌를 하드웨어로 구현한 것이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럼 그 중간 정도가 뭡니까?

[답변]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답변하겠습니다. 도체와 부도체 반도체는 에너지 띠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중 최외각 전자 띠와 전도띠로 물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체의 경우 최외각 전자띠와 전도띠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아 거의 붙어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전자가 약간의 에너지만 받아도 쉽게 전도띠로 올라가 자유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체의 경우 전자의 수를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효율에서 떨어집니다. 반면에 부도체는 전도띠와 최외각 전자띠의 간격이 넓어 많은 에너지를 줘야 자유전자가 생기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에 반해 반도체의 경우는 최외각 전자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부도체보단 좁고 도체보단

넓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할 때 전자를 전도띠로 이동시킬 수 있어서 반도체라 불리고 훨씬 효율적입니다.

[질문] n형과 p형 반도체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답변] 반도체는 먼저 n형과 p형을 만들기 전 실리콘을 사용해 반도체를 만듭니다. 하지만 실리콘으로만 만든 반도체는 전기전도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핑을 하는데요. 15족 원소를 도핑해서 잉여전자를 하나 만드는 것이 n형 반도체이고 13족 원소를 도핑해 잉여 양공을 생성해 p형 반도체를 만들게 됩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세요. 30초 동안

충남대로 3행시를 하고 싶습니다. 운 띄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충:충남대학교에 들어와서 충실히 공부하겠습니다.

남:남들과 협력하며 남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대: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자공학자가 되겠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생기부의 전반적으로 예상 문제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자신의 전공과 연관된 생기부 내용은 특히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 꼬리 질문에 잘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전공이 전자공학이면 물리학 1,2 전기 파트랑 파동파트는 자세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책도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결국 교과서의 내용도 유명한 서적들에서 따온 정의들이니까요. 책들은 그런 개념들에 대해 매우 자세히 설명해주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눅 들지 마세요. 면접관들은 당당하고 또박또박 말하는 학생을 좋아합니다. 만약 생각이 나지 않으면 면접관님께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격
학과명	전자IT미디어공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학교생활우수자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p>지정된 고사실에 들어가서 지정된 자리를 찾아 앉고 시간이 되면 담당자분이 들어오셔서 본인확인과 전자기기 수거를 도와준다. 모두 마친 뒤 2명씩 나가 밖에 있는 의자에 앉아 대기한다. 한 명씩 교수님들이 부르면 들어가고 담당자분이 10분 시간을 재기 시작한다. (면접 내용은 후 질문 및 답변 내용에서 서술) 면접이 끝나면 담당자님이 이름을 물어 보시고 걸었던 전자기기를 돌려주고 귀가한다.</p>		
기타 유의사항	<p>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앉아계시는 책상에 투명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고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말소리를 크게 해야 된다. 교수님도 당연히 마스크를 쓰셨기 때문에 질문이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부탁을 하면 된다.</p>		

질문 및 답변 내용

Q1. 오래 기다리셨죠?

A1.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면접이 기대가 되고 긴장도 돼서 오래 기다렸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Q2. 간단하게 1분 정도 자기소개와 지원동기가 무엇인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A2. 저는 1학년 때부터 진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진로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싶었고 다방면으로 활동을 해본 결과 이과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수학과 과학 그중에서도 물리학이 재밌다고 느껴져서 전자공학에 흥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학년이 늘어감에 따라 전자공학과로 진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처럼 이과들을 훌륭한 공학도로 양성하는 학교에 진학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3. 수학을 잘하시는데 수학공부하다가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A3. 모두가 그렇겠지만 보통 어려운 문제를 보게 되면 무서움을 느끼고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를 보게 되면 흥미를 느끼고 계산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생각을 하면서 극복을 하기도 했고 실제로 공식을 그냥 외우기보다 직접 증명을 해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면 유용할지 까지 고민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Q4. 세 자연수를 더했을 때 10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인지 설명해주세요.

A4. 자연수일 경우에는 중복조합을 바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임의의 세 자연수를 xyz 라고 두고 계산을 하면 원래 식은 $x+y+z=10$ 인데 xyz 를 0을 포함하는 양의 정수로 바꾸기 위해 $x=x'+1$ 과 같은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x'+y'+z'=7$ 이 되므로 중복조합을 사용하여 3H_7 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Q5. 벡터 배우셨죠?

A5. 네 배웠습니다

Q6. 벡터의 내적 성질을 설명해주세요

A6. 벡터의 내적이란 벡터는 원래 방향과 크기 모두를 가져 물리학에서 속도와 같은 개념을 가지게 되는데 두 가지 이상의 벡터를 곱하여 연산하기 위해 임의로 정사영을 내려 스칼라와 같이 크기만을 고려하게 만든 후 곱해주는 방식입니다.

Q7. 벡터의 내적이 0이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7. 벡터의 내적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정사영을 내려 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사영이 0이 나오도록 즉 두 벡터의 사이 각이 90도가 되면 벡터의 내적이 0이 나오게 됩니다.

Q8. 물리학에서의 벡터의 내적은 어떤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8. 잘 모르겠습니다.

Q9. 마찰력이 무엇인지 아시죠? 마찰력에서의 벡터의 내적을 설명한다면?

A9. 잘 모르겠습니다.

Q10. 확률과 통계도 공부하셨죠?

A10. 네 2학년 때 배웠습니다.

Q11. 정규분포와 표준정규분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11. 정규분포는 기본적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성을 가지고 적분을 해서 밑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확률이기 때문에 1이 나오게 됩니다. 표준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정규분포의 부분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정규분포로 아주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Q12. 특징은 무엇인가요?

A12. 자연 상수 e 를 사용하여 함수식을 표현할 수 있고 정의역이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가 존재합니다.

Q13. 정규분포를 표준정규분포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13. 제각각인 정규분포의 평균을 0으로 표준편차를 1로 바꿔주면 됩니다.

Q14. 식으로 표현해주시길 바랍니다.

A14. 임의의 정규분포를 $N(m, \theta^2)$ 으로 표현한다면 임의의 평균 m 이 0이 되도록 함수를 평행 이동 시키고 θ 가 1이 되도록 식을 변형시켜주면 됩니다.

Q15. 시간이 남지 않아서 마지막 짧게 각오 부탁드립니다.

A15. 제 롤모델은 가우스입니다. 가우스는 글보다 숫자를 먼저 깨우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우스가 독일의 대표적인 수학자인 것처럼 저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어 업적을 남기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대표적인 학생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한 몸 바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긴장만 안 해도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다른 대학은 몰라도 과기대는 기출이 많이 나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기출을 전부 연습했는데 실제로 기출 질문이 3개 정도 나온 거 같습니다. 과가 다르다면 추가적으로 자신의 과와 맞는 기출 질문을 찾아보고 대답을 미리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후배님들의 대학 합격을 기원합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환경공학과 환경공학전공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종합	전형명	학교생활우수자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 서류기반 면접. - 2대1로 진행. 강의실에서 대기하다가 세명씩 복도에 나가서 대기. - 면접 후 바로 귀가		
기타 유의사항	1층에서 수험표를 뽑게 해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1. 오는 길 편했는지 건물 잘 찾아왔는지 물어봄.

2. 지원동기

답) 저는 우리나라의 수질을 책임지는 수질 전문가가 되기 위해 환경공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1학년 때 사회과학융합 프로젝트에서 거북이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게 되어 이후 환경을 제 손으로 지켜보고자 환경을 진로로 정하고 환경과 관련된 과를 찾아보는 도중 환경공학과라는 과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환경공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책임감, 탐구능력 등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고등학교 3년 동안 화학실험, 수질 탐구 프로젝트 등 많은 활동을 하며 책임감, 협동능력, 탐구 능력을 키우며 준비해왔습니다.

↳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활동 있으신가요?

답) 특별히 기억나는 활동은 수질 탐구 프로젝트 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해빙기에 강의 유속이 느려져 오염도가 증가한다는 기사를 보고 유속이 느려짐에 오염도가 증가하는 것에 의문이 들어 계획하게 되었는데, COD, DO, BOD 등의 수질지표를 정하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진행하고 결과를 정리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스스로 진행하여 팀원들과 협동하며 진행함에 있어서 매우 기억에 남았습니다.

3. 자율동아리로 기계 전자전기 환경 동아리를 하셨는데 환경에 있어서 기계 전자전기 등 분야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답) 우선 수질 탐구 프로젝트에서 저희는 미처 사용하지 못했지만 DO측정기, 부유물질 측정기 등 수질을 측정하는 기계에 있어서 전기 전자공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질뿐만 아니라 대기에서도 미세먼지 농도 측정 기기 등 다양한 측정 기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4. (생기부에 있는 내용) 유속이 느리면 왜 오염도가 증가하는지 설명해주세요.

답) 유속이 느려지면 강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로 온도에 의해 층으로 분리되며 이 환경이 조류가 번식하기 매우 좋은 환경이라 조류가 번식하면서 오염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5. 환경 정화를 할 때 정화 효과에서 효율성이 더 중요한가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더 중요한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답) 저는 정화 효과의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저렴해도 말끔하게 제거가 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생각하여 저는 경제적 측면보다 정화적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화학 좋아하시나요? 그럼 두 컵에 각각 두 물질을 넣었는데 한쪽은 반응이 일어났고 한쪽은 안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극성분자 무극성분자 원리를 이용한 실험이 생기부에 있었음)
물과 소금처럼 같은 극성의 분자들끼리 결합이 잘되기 때문에 한쪽은 같은 극성분자들끼리 있어서 반응이 잘 일어났고 한쪽은 무극성과 극성분자로 다른 극성분자들끼리 있어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니다.

↳ 그럼 반응을 잘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온도를 높이면 됩니다.

↳ 온도가 일정하다면?

답) 압력을 높이면 됩니다.

↳ 압력도 일정하다면?

답) 촉매를 사용하면 됩니다.

↳ 촉매를 사용하면 왜 잘 일어나죠?

촉매가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기 때문에 반응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7. 물 전문가는 어떤 물을 마실까라는 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답) 우리나라의 수도 시스템과 수도나 물의 역사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우리나라의 수도 시스템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정교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8. 국어 점수가 특별히 높는데 잘하는 원인이 있나요?

답)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책을 강조하셔서 책을 많이 읽었던 것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9.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답) 저는 환경공학과를 지원하기 위해 책임감 탐구능력 등을 기르기 위해 많은 실험과 탐구를 해왔습니다. 또한 환경뿐 아니라 코딩 등 여러 분야도 접하면서 학문적 견해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활용해 여러 주제를 합쳐보는 융합적 사고를 갖기 위해 다양한 시선으로 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앞으로 환경공학과에 진학하여 수질을 책임지는 환경공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두 분 다 친절하셨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법칙 등을 물어보기보다는 생기부 내용과 연관된 교육과정 내 교과 내용을 물어보신 듯 함. 하지만 생기부 내용이라면 다 숙지해서 가는 게 맞다고 봄. 의외로 내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봄. 자신의 가치관을 하나 정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봄.

책을 하나 꼭 집어서 물어봤던 게 충격이었음. 책은 무조건 온라인 서점에서 목차만이라도 보면서라도 내용만은 꼭 알아가야 하고 각각의 책에 대한 느낀 점을 간략하게라도 생각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충 남 대 학 교

대학명	충남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생물환경화학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1
전형유형	학생부 종합	전형명	PRISM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시간 : 10분-15분 ▶ 면접위원 : 2명 ▶ 면접절차 :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면접실로 이동. 		
기타 유의사항	<p>면접 중 면접관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면접관과 면접자 사이에 책상과 가림막이 하나 있는 정도의 거리) 평소에 모의 면접할 때도 가까이에서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p>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점심 먹었나요 [답변] 아니요 아직 못 먹었습니다.

[질문] 오늘 저녁으로 뭐 먹을 건가요 [답변] 떡볶이 먹고 싶습니다.

[질문] 떡볶이 평소에 좋아하시나요 [답변] 네 평소에 좋아합니다.

[질문] 충남대학교에 와본 적 있나요 [답변] 아니요 처음 와봤습니다.

[질문] 충남대학교 처음 보니 어떤가요 [답변] 굉장히 넓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질문] 자기소개해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와 환경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가면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농업 환경이 변화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물환경화학학과에 진학하여 직접 재배작물에 대하여 알아보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 우리 학과가 뭐 하는 학과인지 알고 있나요

[답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농업 환경의 변화, 식량 안보의 위협, 환경 오염 등 농산업 주변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맞추어 농업의 미래자원 개발,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 안전 농산물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환경과 생명 과학 분야의 지식을 교육하고 연구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우리 학과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프로젝트나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변] 1학년 때 학교 내부 공원의 토양상태, 수질 상태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메틸렌 블루는 물의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푸른색이 짙어진다는 이론을

통해 학교 연못의 물과 연꽃이 없는 공원의 물, 수돗물, 식수의 용존 산소 농도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꽃이 있는 물이 연꽃이 없는 물보다 산소 농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현재의 학교 공원의 물의 산소 농도는 보통의 생물이 사는 물보다 산소 농도가 낮다는 것을 확인하여 생물이 살기 위해서는 산소 농도를 더 올려야 한다는 점을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질문] 3학년 때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있나요

[답변] 100시간 프로젝트를 통해 스스로에게 설명을 하는 과정을 배우면서 꾸준히 성적이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수학'과목을 설명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수학의 개념 부분을 스스로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머릿속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잘 정리하여 적용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배우게 되어 다른 과목에도 적용하면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만약 전교 1등이라면 어디 학교에 지원할 것인가요

[답변] 저는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서울 몇 개 대학을 넣겠습니다.

[질문] 무슨 학과를 넣을 것인가요

[답변] 모두 환경 관련된 학과를 지원하겠습니다.

[질문] 진로가 바뀐 이유가 있나요

[답변] 저의 꿈은 원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의료인이 매력적으로 느껴져 그러한 꿈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환경 수업 시간에 코로나19가 환경 오염으로 인해 생긴 질병인 것을 접하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더욱 폭넓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훗날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내어 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지켜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질문] 전자현미경과 광학현미경의 차이점을 친구들에게 설명했다고 하는데, 설명해보세요

[답변] 전자현미경은 전자선을 이용하고, 광학현미경은 광을 이용합니다.

[질문] 논문 활용 특강을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답변] 논문을 쓰는 기본적인 방법을 배웠습니다.

[질문] 논문 활용 특강에서 배운 방법을 활용하여 어떤 활동의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였나요

[답변] 말씀드렸던 환경 실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논문 활용 특강에서 배운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질문] 봉사활동 시간이 많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 하나 말씀해보세요

[답변] 1학년 요양원 봉사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르신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봉사였는데 갑자기 어르신분께서 쓰러지셨던 일이 충격적이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졸업 후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경 공단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질문] 농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답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있는 다른 알고 있는 학과 있나요

[답변] 식품공학과와 환경소재공학과 등이 있습니다.

[질문] 우리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 본 적 있나요 [답변] 네.

[질문] 우리 과에 6개의 실험실이 있는데 어디가 가장 가보고 싶은가요

[답변] 토양과 관련된 학과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 생활 중 토양 상태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서 이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답변] 제가 충남대학교 생물환경화학학과에 진학한다면 누구보다 큰 열정을 가지고 환경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자신 있습니다. CNU makes the future! 100년 대학을 향한 충남대학교의 여정에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처음 질문하실 때는 질문이 아니라 대화처럼 편하게 말하도록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는 진로가 중간에 변해서 학과에 대한 이해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서 학과에 대하여 많이 알아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들어가기 전에 홈페이지 교수 소개 들어가서 교수님 사진을 확인하니 교수님을 한결 편안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긴장도 풀어주시고, 생각보다 분위기도 굉장히 좋으니 생기부 설명해드리고 온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면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후회 없도록 하고 싶은 말 모두 다 하고 오세요.

고 려 대 학 교

대학명	고려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학과명	지구환경과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2
전형유형	기회균등	전형명	고른기회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 시간/면접 시간 : 12분 / 6분 (제시문 면접) - 면접 위원 : 2명 - 면접 절차 : 대강당에서 전원 대기 후 각 조에서 한 명씩 준비실로 이동. 준비실에 비치된 제시문을 보고 12분간 답변을 나눠준 메모지에 작성 및 정리. 면접실에 들어가서 화상으로 면접 진행 - 면접장 입구에서 부여하는 가번호로 진행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강당에서 있는 대기 시간 동안 자신이 가져온 기출 자료나 생활기록부를 볼 수 있음 (긴장이 된다면 참고할 것) - 전자 기기는 당연히 소지해서는 안 되고 손목시계도 준비실과 면접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음 (각 고사실 내에 시계 및 타이머 비치되어 있음) - 수험표와 신분증은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확인하므로 필수 지참 + 꺼내기 편한 곳에 보관할 것 - 준비실에 비치된 제시문은 면접실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지만 면접실에도 같은 제시문이 비치되어 있음. 메모한 내용으로 답변하기 어려우면 참고할 수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제시문>

가 : 원자는 축구장, 원자핵은 축구장에 놓인 구슬

나 : 스라소니와 눈신토끼의 피식-포식 관계

다 : 힘과 속력의 관계 - 구슬을 빨대로 부는 시간과 그 힘의 상관관계

라 : 포유류의 환경 적응 - 사막여우와 북극여우

1. 제시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설명 방법과 이유
2. 과학 현상이나 이론을 위 방법으로 사용하여 설명할 때 고려할 점
3. '에너지의 보존'을 위 1번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설명하기

Q1. 1번 질문에 대한 답변해주세요.

A1. 네 가지 제시문에서 '예시를 들어 설명하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 지문에서는 원자와 원자핵의 크기를 축구장과 구슬의 크기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고 나 지문에서는 동물 간의 피식-포식 관계를 스라소니와 문신토끼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지문에서는 구슬을 빨대로 부는 현상을 예로 들어 힘과 속력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라 지문에서는 포유류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사막여우와 북극여우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Q2. 2번 질문에 대한 답변해주세요.

A2. 예시를 들어 설명할 때에는 예시의 원리와 실제 현상의 원리가 일치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예시를 들어 과학 현상을 설명하면 이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 3번 질문에 대한 답변해주세요.

A3. 위 현상을 에너지 보존현상인데요, 이것은 에너지의 종류가 달라져도 그 총합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지우개의 경우, 지우개를 사용하고 나면 생기는 지우개 가루는 지우개의 본체와는 분리되어 본체의 크기는 변하지만 그 가루를 모으고 보면 지우개의 총량에는 차이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물을 끓일 때 시간이 지나면 끓는 물의 양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공기 중으로 날아간 수증기를 고려하면 처음 물의 양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Q4. 아까 잘못된 예시를 들면 오류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예시로 설명하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A4.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약 30초 후), 어린 아이들에게 낮과 밤이 생기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구의 낮과 밤은 지구의 자전활동으로 생기는 것이지 태양의 활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에 낮과 밤은 방의 전등을 켜다 켜다 하는 것처럼 태양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와 같이 설명하게 되면 이는 오류를 낳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면접이 끝난 직후에는 제 답변에 만족했었는데 복기하면서 다시 보니 정말 두서없이 말하고 온 것 같아 꽤 오랫동안 후회했어요. 다른 학생들의 답변을 보면서 '저렇게 말할걸' 생각하기도 했지만 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이미 지나간 일에 묶여있지 말고 다음 해야 할 일에 집중하세요.

제시문 면접은 서류 면접처럼 내용을 외워가거나 답변을 미리 준비할 수 없어서 더욱 긴장될 거예요. 그래도 많이 연습할수록 문제에서 나에게 어떤 답을 요구하는지 빨리 파악할 수 있으니 많은 기출을 풀어보면서 같은 기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비문학 지문을 푼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읽은 후 제시문을 읽는 방법도 추천해요)

그리고 면접이 시작되면 면접관분들은 최대한 여러분의 얘기를 끊지 않고 들으려고 하세요. 중간의 답변을 끊는 일은 거의 없으니 본인 생각한 답변을 침착하고 여유 있게 답변하면 됩니다.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하고 싶은 말 모두 후회 없이 하고 오세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명	서울시립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환경원예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대기실로 입실 -> 입실하면 거의 바로 모든 전자기기 꺼서 가방 안에 보관하도록 안내하심. -> 입실 시간이 되면 한 명씩 나와서 본인 확인 (저희는 투명마스크 끼고 면접 봤기 때문에 투명 마스크를 나눠주십니다.) -> 순서 되면 선배분들 따라서 면접실 앞에서 앉아 있다가 들어갑니다.		
기타 유의사항	입실시간 안 돼도 전자기기를 꺼서 가방에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면접 자료 보다 보면 검색할 게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밖에서 준비하다가 시간 맞춰서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1. 많은 대학 중에서 시립대학교를 선택한 이유와 우리 학과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 2분 정도 말씀해주세요.

[답변] 저는 시립대학교가 이 분야의 학과를 처음으로 설립한 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만큼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훌륭한 교수님들께 교육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는 시립대학교에 환경원예학과 식물농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더 많은 식물에 대해 다루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는 2학년 때 생명과학 수업을 들으면서 식물이 외부자극에 반응한다는 문장에 흥미를 느껴 '매혹하는 식물의 뇌'라는 책을 읽고 식물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식물이 무감각하고 정적인 생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책을 읽고 그러한 편견과 오해가 깨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분야의 생산이 위기를 겪고 있고, 사람들의 식품에 대한 기호가 다양해지면서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팜과 이에 대한 식물 자원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분야에 대한 인재로 성장하고 싶어 시립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2. 그럼 제가 전공 지식에 관한 질문을 할게요. 광합성이 이루어지면 무엇이 합성되죠?

[답변] 광합성이 합성됩니다.

[질문] 3. 광합성 말고도 여러 당이 합성이 되죠? 그럼 이 당이 합성되는 과정에 대해 말해볼까요?

[답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4. 그럼 광합성에 대해 아는 만큼 설명해주세요.

[답변] 네. 그럼 광합성의 명반응과 암반응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명반응은 빛을 필요로 하는 반응으로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납니다. 이때 물이 분해되면서 산소가 방출되고 함께 방출된 전자를 광계가 흡수하여 광인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또한 CO_2 가 환원되어 포도당을 합성하기 위해 NADPH와 ATP가 합성됩니다. 암반응은 이러한 명반응의 산물을 이용하여 CO_2 를 환원하여 포도당을 합성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질문] 5. 그럼 지금부터 제가 키워드 4개를 드릴 거예요. 이 키워드를 연결해서 말씀해주세요.

(키워드: GMO, 한 개가 기억이 안 나요. 생태계 파괴, 세계 식량 문제)

[답변] 가장 먼저, GMO는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여 유전자를 변형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특정 영양소만을 강화하거나 병충해 저항성과 같은 특징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식량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GMO가 외래종과 같이 기존의 생태계에 위협을 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한국은 GMO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GMO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이러한 과정을 시민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한다면 GMO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종자 은행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기존 생태계의 종자를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질문] 6. '왜 식량이 문제일까'라는 책에서 세계 식량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보세요. (교수님이 이 책을 읽어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저는 이 책을 통해 세계 식량의 부족 문제는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녹색혁명이 진행되면서 식량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업의 기업화로 다수확 종자가 보급되면서 계속 농업과 제조제를 사용하게 되는 악순환의 알고리즘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국적 농기업이 성장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하며 식량분배의 문제로 세계가 식량난 문제를 겪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7. 그럼 녹색혁명이 뭐죠?

[답변] 개발도상국과 같은 나라들이 새로운 종자를 들여오면서 식량 생산량이 급증하고 그로 인해 경제가 성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 8. 마지막으로 열심히 준비해온 활동이 있을 거 같은데 그 활동으로 한 번 저한테 어필해보세요.

네. 저는 2학년 때 반년 동안 버섯 균사체를 활용하여 스티로폼 대체재를 제작해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책들과 강연을 들으며 버섯 균사체가 자기조립의 성질을 지니고 키틴 고분자 복합물을 생성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직접 실험을 계획하여 진행하였고, 수차례 실험 요인을 바꾸어 가며 결국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분석력을 기를 수 있었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도전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런 경험을 통해 얻은 탐구 능력과 자세를 바탕으로 시립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대답을 너무 잘해줘서 우리가 더 고마웠어요. 추운데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 첫 번째, 전공에 관한 질문은 자소서 1번 내용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광합성에 대해 썼던 건 맞지만 당 합성에 대해서 쓰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소서에 적은 내용은 II과목까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다 학습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 키워드를 제시하시고 질문하시는 건 신선했습니다. 제 생기부에 GMO라는 키워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GMO 질문이 나올 걸 예상하긴 했지만 저런 식의 질문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다수의 모의면접이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은 모의면접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 꼬리질문은 조금 있는 편인 것 같아요.
- 책 모든 걸 다 읽을 순 없겠지만 포인트 정도, 시간이 없다면 전공 관련된 책은 꼭 한 번씩 검색하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학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저희 때는 면접 시간이 12분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시간을 다 채우시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 안 됐는데 끝나더라도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연 세 대 학 교

대학명	연세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격
학과명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 교과	전형명	학생부교과 - 추천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시간	제시문 읽기 8분 + 답변 5분	
	인원수	면접 위원 수: X, 조별 학생 수: 1	
	면접절차	대기실 입실(자가문진표 제출, 수험표, 신분증 확인) - 대기 - 10명씩 중간 대기실 입실 - 1명씩 면접장 입실	
기타 유의사항	비대면 면접 녹화		

질문 및 답변 내용

저는 면접장소가 호텔처럼 구성된 곳이었습니다. 면접실(호텔방)으로 들어가면 책상위에 태블릿과 파일이 주어져 있어요.
 파일은 면접 시작 전 절대 넘겨보면 안 됩니다. 답변 녹화를 진행할 때 제시문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도우미분이 연습종이를 주시고, 카메라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카메라 위치 조정이 끝나고 준비 되었다고 하면 타이머가 시작됩니다.
 파일을 넘긴 후, 제시문을 읽고 연습종이에 적어가며 답변을 준비합니다. (8분동안 제시문 파악, 답변 준비를 모두 마쳐야 함)
 제한시간 8분이 끝나면 5초 뒤에 자동으로 녹화가 시작됩니다. 그때 준비했던 답변들을 차분하게 말하고, 5분 이내로 답변이 끝났다면, 도우미분께 꺼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저의 강점은 생기부와 자소서였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는 자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과보다 대학입학이 더 중요하다면, 가능성 있는 과로 낮춰서 지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합격할 확률을 좀 더 높이려면!)
 연세대는 내신 산출 기준이 다른 대학과 다르기 때문에 아마 특목고 낮은 내신도 일반고 높은 내신이랑 비슷할 거예요. (=교과 성적은 다들 비슷해서 면접이 합불을 좌우합니다.)
 제시문 면접이라 인성 면접은 없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인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답변 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후, 지금까지 저의 답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도 합격에 영향이 조금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길고 어려운 제시문을 8분 동안 파악하고 푸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 긴장될 거예요.

저는 답변할 때 출제의도를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답변도 '먼저 문제 1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시문 (가)와 (나)에 따르면 ~~이기 때문에 정답은 ~~입니다.'라는 식으로 이 문제의 답변을 어떤 제시문에서 찾을 수 있는지 파악했습니다. 연습종이에 써놓는 것도 중요해요!

수능 전 면접

연세대 추천형 면접은 수능 한 달 전입니다. 저는 10월 말에 봤습니다. 만약 최저를 준비해야 한다면 지원하지 마세요. 너무 벅차고 힘들 거예요. 저는 종합 면접으로 가기로 다짐하고 최저를 없애고 면접 6개를 선택했습니다.. 수능준비와 면접준비를 같이하면 체력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하길 추천합니다..

• 제시문 면접 준비1

공과대학 기출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물리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물리 교과서 pdf와 물리1, 물리2 수능특강을 같이 보며 개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빠듯하게 준비하다 보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면접 내용에 물리는 안 나왔더라구요.. 그래도 학원을 안 다니면 막막해서 뭐라도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과학적인 기초를 다진다고 생각하세요! 면접 문제는 과학 2과목을 넘어서 나오진 않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과학과목들을 열심히 했다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거예요!

• 제시문 면접 준비2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 수시 - 기출문제에 들어가면 기출문제가 나와있어요! 모의면접 기출과 최근 3~4년 정도 기출문제를 다운받아서 직접 집에서 8분 시간 맞추고 풀어보고, 태블릿으로 5분 이내로 녹화까지 해보면서 연습하세요. 저는 너무 떨려서 당일 새벽까지 연습하고 잤습니다. 화면을 보고 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시간이 된다면 연세대학교 기출 뿐만 아니라 다른학교 기출들도 함께 보세요. 처음에 보면 너무 어려워서 괜히 지원했다 싶겠지만, 보다보면 나오는 패턴이 비슷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열심히만 준비하세요.!!

• 면접 대기시간

대기시간이 짧게는 30분, 길게는 4시간까지 있습니다. 면접이 오후라면 아침 점심을 많이 먹고 가세요.. 저는 떨려서 아무것도 못먹었는데 너무 배고팠습니다. 면접장소에 도착하면 벽에 수험번호와 끝나는 시간이 적혀있어요. 대기가 길기 때문에 공부할 거리를 가져가는 걸 추천합니다. 잘 들어오진 않지만 다들 공부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다 유명한 고등학교에서 온 것 같고, 면접학원에서 준 자료집으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자기 자신이 많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똑같은 고3 수험생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학원 하나 안 다니고 합격했습니다 !!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건국대학교

대학명	건국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 합격
학과명	식량자원과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 종합	전형명	KU자기 추천 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신에게 부여된 순서에 따라 입실 시간에 맞춰 대기실 입실 2. 대기실에 입실해서 수험번호 및 학과 확인 및 개인 스티커 배부 호명하면 면접실 앞으로 이동 3. 면접실 앞에서 5분 정도 대기, 준비가 완료되면 면접실 입실 4.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면접이기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사 후 면접 시작 (10분 면접) 5. 면접 종료 (면접실 퇴실 후에 간단한 설문조사를 거치고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p>컴퓨터를 이용해 줌으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중간중간 나의 목소리와 면접관의 목소리가 끊어지곤 합니다. 최대한 집중하는 것이 좋으나 중간에 놓쳐도 다시 물어보는 것은 큰 불이익이 없으니 못 들었다면 꼭 다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스크로 인해 내 목소리가 묻히기 때문에 떨리더라도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실 입성 이후 면접자료를 보는 것은 적발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p>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왜 건국대학교 식량자원과학과에 지원하셨나요?

[답변] 제 꿈은 종자 연구가입니다. 1학년 역사 시간을 통해 종자의 중요성을 깨닫고 종자 연구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3년 동안 종자와 식물에 관한 지식을 쌓아가며 변화하는 기후에 맞춰 벼를 연구해보고 싶다는 목표 또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서 육종학과 유전학을 배우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싶어져서 대학을 찾아보던 도중 건국대학교의 모내기 실습을 보며 단지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닌 직접 벼를 심고 기르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농민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과학기술을 이익을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닌 사회를 위한 기여 수단으로 생각하는 과학자로 성장하고 싶어 건국대학교 식량자원과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질문] 생기부를 보면 토종종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토종종자가 중요하며 우리가 토종종자를 중점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우선 토종종자의 정의는 그 나라에서 자라나는 자생종과 농민들이 대를 걸쳐 길러온 전통 농작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토종종자는 지리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그 나라의 풍토에 적응한 종이기 때문에 종자 개량을 할 때 좀 더 우월한 형질을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강점이 있으며 이 외에도 종자주권이 우선시 되는 현재의 사회에서 유전형질의 다양화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토종종자는 매우 중요하며 외국으로 반출된 한국의 토종종자 또한 되찾아 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질문] 종자의 무기화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다국적 종자 기업의 행태를 비판하셨습니다. 종자의 무기화가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답변]

인도의 농민 집단 자살사례와 한국의 곡물자급률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원래 키우던 목화보다 생산량과 병충해의 피해도 적은 BT 목화와 BT 목화 전용 농약을 이용해 목화를 생산하는 것이 주가 되었고 이로 인해 인도의 토종 목화 종자를 가진 농가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값싼 미국산 목화가 수입되었고 기존의 목화 종자보다 4배 이상 비싼 BT 목화를 기르던 인도 농민들은 부채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곡물자급률이 20% 아래를 웃돌며 곡물자급률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곡물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고 주 수입원은 카길이라는 회사가 90%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회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면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며 이번 요소수 사태처럼 식량의 공급이 자국이 아닌 다른 외국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 종자 연구를 한다면 어떤 식물을 연구해보고 싶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대한민국의 기후는 점차 온대기후에서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 해에 두 번 수확하는 이모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빠르미라는 품종이 개발되어 벼의 생육기간이 70일 정도로 단축된 벼가 나왔지만, 생산량이 기존의 벼보다 10% 정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벼를 연구하여 생육기간도 짧으면서 수확량도 기존의 벼와 같고 맛 또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찰기 있고 통통한 벼를 만들어 생산량 증대를 통한 벼의 가격 완화를 이용해 곡물자급률을 높여보고 싶습니다.

[질문] 3년간 학교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일과 뿌듯하게 느꼈던 일이 있었다면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저는 학교 분리수거장에서 일했던 것이 가장 힘들었으며 친구와의 동반 학습을 통해 저와 그 친구의 수학 성적이 모두 의미 있게 성장했던 일이 가장 뿌듯했습니다. 분리수거장의 경우 학교의 모든 쓰레기를 관리하는 일을 맡아 그중에서도 종이를 주로 맡아 관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우유곽을 재활용 종이에 버리는 등 미숙한 분리수거로 올바른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동반 스터디는 친구와 수학 공부를 주로 했고 서로 잘하는 과목을 알려주며 공부의 못함과 잘함 없이 서로를 통해 배워나가며 함께하는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질문] 앞서 말한 어려움을 겪으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답변] 저는 분리수거장 담당을 함과 동시에 학생회에서 환경미화부 부장을 맡아 활동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회 사업의 일환으로 분리수거와 관련한 2/2 캠페인을 기획 및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과 종이의 사용을 촉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해주신 2/2 캠페인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답변] 학생들에게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과 이면지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종이의 한 면 1/2이 아닌 양면 2/2를 모두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기획한 캠페인으로 분리수거 방법 이외에도 낭비되고 있는 종이의 실태를 알리며 각 반에 이면지 함을 설치해 버려지는 이면지를 수집하고 홍보지 또한 직접 만들며 학생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질문] 생기부를 보면 em균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실험이었는지 말해주십시오.

[답변] em이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된 실험으로 좋은 균 나쁜 균 이상한 균이라는 책을 읽고 식물의 면역 체계가 유용 미생물균을 이용해 면역반응을 촉진하고 성장 또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정말 의미미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했던 실험입니다. 실험군은 em을 1,000분의 1로 희석하여 발효시킨 발효액을 시비하였고 대조군은 아무것도 시비하지 않은 채로 길러 추후 수확시기에 성장 정도와 수확량을 측정하여 차이점을 확인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큰 차이점을 찾을 수 없어 실패했다고 결론지었고 추후 선행연구 논문 조사를 통해 em 발효액의 농도가 너무 낮았으며 시비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해주지 않은 것이 실험의 실패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질문] 혹시 em 균의 효과 중 식물의 성장 및 면역반응 촉진 이외의 다른 효과는 없나요?

(이 질문은 생기부를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

식물의 성장 촉진과 면역반응 촉진 이외에도 우리가 em 발효액을 이용해 과일을 씻듯이 잔여 농약을 제거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으며 이 또한 염두에 두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질문] 지금까지 면접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그 말을 끝으로 면접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으신 말이 있나요?

[답변] 부족하지만 3년간 제가 준비해온 모든 것을 면접관님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일 제가 앞으로 건국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고등학교 3년간의 경험과 앞으로 대학교에서 배울 여러 지식을 이용해 이익만을 추구하는 과학자가 아닌 우리 사회의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학자로서 성장해 대한민국의 종자주권 확보에 확실한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비록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 대한 답변을 미리 생각해두지 않아 즉흥적으로 하였지만 만일 면접 준비를 하신다면 자신의 포부나 장점 등을 담은 면접관에게 자신을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준비해 가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건국대학교의 경우 생활기록부와 자소서 기반의 압박 질문으로 매우 유명하다고 합니다. 실제 면접을 보면 두 분의 면접관 중 한 분이 압박 질문을 도맡아 하시고 나머지 한 분은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가벼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압박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기록부와 자소서의 완벽한 숙지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수월하게 면접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아직 생활기록부의 기재가 완벽히 끝나지 않은 고3 1학기 학생과 고2 학생들은 실험을 진행하고 실험이 실패하더라도 단지 실패 원인을 찾고 끝나는 것이 아닌 찾은 실패 원인을 바탕으로 한 번 더 실험하여 그 과정과 결과를 생활기록부, 자소서, 면접에서 녹여낸다면 체계적인 실험 설계 능력과 변인 통제 능력을 갖춘 학생으로 면접관에게 자신을 각인시키기 좋을 것 같습니다.

건국대학교는 면접에서 학생의 발전 가능성을 최우선 항목으로 두고 채점을 진행합니다. 비록 전공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접을 응시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그 과에 대한 전공지식을 일정 수준은 겸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기에 건국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관련학과의 커리큘럼을 보며 앞으로의 진로 목표나 학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내가 구체화한 목표를 바탕으로 전공 관련 지식을 엮어내어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면접관에게 보여준다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 종자 연구가 × / 온대기후에서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기후에 맞춰 이모작이 가능하면서도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벼 종자를 연구하고 싶은 종자 연구가 ○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한 최신 정보들은 다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뜨거운 키워드로는 지구의 환경문제 코로나 등이 있으며 식물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팜, 유전자 가위, 종자, GMO 등이 많은 주목을 받곤 했습니다. 최근에는 잎채소류의 재배로만 한정되어 있던 스마트 팜에서 과실류의 재배까지 가능한 스마트 팜으로 발전했고 뉴욕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사용되는 채소 대부분이 스마트 팜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의 경우 3세대의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뿐만 아니라 4세대인 프라임 에디터가 발명되었으며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인간의 유전형질 변형이 생명 윤리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곤 했습니다. GMO는 최근 많은 누명을 벗고 미래의 식량 산업을 이끌어갈 열쇠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GMO를 생산하는 다국적 종자 기업에 관한 관심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정보를 어디에 써먹냐고 하실 수 있지만 면접은 말 그대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유형으로든 써먹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학과와 관련된 정보들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고등학생 여러분이 학교의 모든 시스템을 이용해 가능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미래 목표를 설정하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대학에 진학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로는 항상 달라질 수 있고 관심 분야는 언제든 변하기 때문에 확실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라면 가능한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단지 관심 밖의 영역이라고 멀리하는 것이 아닌 내 미래를 위한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하고 학교의 모든 시스템을 이용해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거나 여러 가지 체험활동 및 실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대학명	생명과학대학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식량자원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예비 1번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사회통합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정해진 시간에 입장할 수 있다. 입장해서 정해진 좌석에 앉아 대기한 후 이름이 호명되면 면접실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조금 대기한 후 방에 들어가 면접을 본다. 대기실에서는 자료를 볼 수 없었다. 대기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따르면 된다.		
기타 유의사항	비대면 면접은 면접관분들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다. 사투리를 쓰시는 분 같은 경우 못 알아듣는다. 자신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 하듯이 하면 될 것 같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 발음 연습도 중요할 것 같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통해 해결할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끊임없이 모색하였나요?

[답변] 화학적 관행 농법으로 인한 토양 오염을 줄여 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하고자 화학물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생물학적 방제 방식인 SIT와 친환경 살충제에 대한 탐구활동을 통해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고 병충해 피해를 막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질문] 친환경 농업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변] 토양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토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화학자재의 사용을 줄이고 무경운을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질문] 경운을 추구하는 현재 농부들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답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현재 비용과 효율을 따져 경운을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무경운의 실행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밭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토양을 부드럽게 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동시에 잡초를 제거하고, 사용한 유기물을 토양에

혼합하여 잘 섞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질문] 기아 문제는 기후 위기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하나요?

[답변] 기아 문제는 분배, 자연재해, 나라 내에서 발생하는 전쟁 등 복잡한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초에 발생한 메뚜기 재앙 사건처럼 기후 위기로 발생하는 악조건들이 굶주림과 식량 불안에 가장 취약한 많은 나라를 더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기아 문제는 분배의 문제 아닙니까?

[답변] 물론 분배의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기후 위기에 집중해, 힘든 나라가 기후 위기로 더 힘들어지는 것을 막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질문] 바이오차가 무엇입니까?

[답변]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질문] 식물병 중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 1가지 말해보세요.

[답변] 콩황화모자이크병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

[답변] “물고기를 주어라, 한 끼를 먹을 것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어라, 평생을 먹을 것이다.”라는 탈무드의 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그저 식량을 공급함으로써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식량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을 알려주거나, 새로운 종을 공급함으로써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건국대 식량자원과학과에서의 배움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선도적인 인재가 되겠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건국대 면접은 자소서에서 80%가 나오고 생기부에서 20%가 나왔어요. 특히 학과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물어보셔서 생기부에 학과와 관련된 소재는 꼼꼼히 자료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성질인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등이요. 면접은 보통 2명의 면접관 분들이 계셔요, 한 분은 멘탈을 흔드시는 역할을 맡으시고, 한 분은 반응을 잘해주시고 다정하신 역할을 맡고 계셔요. 멘탈을 흔드시는 역할에 당황하지 말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활동을 대표하는 이름을 잘 알고 그것을 질문받았을 때 그 이름 안에 한 활동들을 정리하는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명	한국교원대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생물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학생부종합우수자 일반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한국교원대의 면접은 제시문과 개방형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시문 면접은 따로 준비된 교실에서 교육과 관련된 주어진 제시문을 보고 10분 동안 발표를 구상하고 면접실로 이동하여 3분 동안 제시문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한 후 이에 대한 꼬리 질문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면접 시간 10분 중 제시문 발표 3분과 꼬리 질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 교과 지식, 교직원 질문 등 개방형질문을 진행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제시문을 보고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A4용지에 발표할 내용을 작성하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과마다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생물교육과는 제시문 준비시간과 면접 시간은 정확히 지켜서 진행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제시문:코로나 19로 인해 바뀐 교육의 모습과 관련된 지문(교원대 홈페이지에 기출 있음)
 질문1: 코로나 19로 인한 수업에서 자신의 담당 과목에서 겪게 될 어려움을 과목의 특성 또는 교육과 연결지어 키워드를 3가지 제시하고 각각의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질문2: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학생들에 대해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답변] 질문 1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다양한 활동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이라는 과목 특성상 다양한 실험활동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는 이러한 실험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선 온라인 기간에는 학생들에게 실험에 대한 이론학습이나 실험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구의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면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면 온라인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훨씬 효율적으로 실험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간의 의견교환도 적어지고 일부 수업에서는 수업을 녹화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질문을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ZOOM 또는 MEET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실시간 화상채팅으로 통해 토론, 토의와 즉각적인 궁금증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메타버스 수업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에서의 어려움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을 자주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교사가 학생들을 평가하는 과정이 어려울 것이고 평가 과정도 원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기존의 평가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평가방법을 계획하여 공정한 과정에서의 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수급자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태블릿PC부족, 인터넷 연결 어려움과 같은 원활한 온라인 수업 환경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로서 교육 지원금 제도, 태블릿 PC지원 제도와 같은 방식을 찾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동기가 부족한 중하위권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온라인 기간이지만 대면 상담을 진행하여 1대1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상황을 이해하고 학습동기를 가질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끊김)

[질문] 이미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꼬리질문 진행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평가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답변] 지필 평가와 같은 방식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과제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질문] 그런데 온라인을 통한 평가에서 꼭 어려움이 존재할까?

[답변] 네. 교사가 학생들을 수업안에서 자주 만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이 부족하게 될 것이고 온라인을 통해 학생들이 집에서 각각 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정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런데 이미 ~~기관, ~~시험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평가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음... 온라인을 통해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만약 온라인에 적합한 평가 방식과 제도가 있다면 면접관님의 말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학교에서 실험활동 많이 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럼 제일 기억에 남는 실험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답변] 저는 3학년 때 창의연합실험 동아리라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비슷한 분야의 학생들과 조를 이루어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한 뒤 실험을 계획하여 진행하는 동아리였습니다. 저희 조는 페니실린 추출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페니실린의 살균작용을 효과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방법으로 증류수와 페니실린을 통한 대조실험 방법을 제시하여 실험을 진행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푸른곰팡이를 직접 배양하여 정제과정을 통해 페니실린을 추출하고 세균을 배양한 뒤 살균작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페니실린을 이용한 살균 결과가 증류수와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졌

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페니실린의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에 따른 살균작용의 차이점에 대해 파악하게 되었고 실험 중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멸균 상태가 실험의 결과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질문] 실험 진행을 하면서 어떤 세균을 사용하였나?

[답변] 실험에서는 대장균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페니실린은 대장균을 효율적으로 살균작용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험을 다시 진행된다면 대장균보다는 포도상구균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질문] 이번에는 쉬운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자신이 생명과학교사라는 꿈을 가지는 데 영향을 준 도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책의 저자와 출판사도 함께 말하면 더 좋고요.

[답변] 음... 우선 저는 생물학 이야기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얼마 안 되서 읽은 책입니다. 제가 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확한 과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는 무릎반사나 동공확장과 같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생명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평소 가지고 있던 호기심이 생명과학을 통해서 해소되는 과정을 느끼면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에 흥미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저는 인간은 유전자를 어떻게 조종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후성유전학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제 1의 암호라 하고 후성유전을 제 2의 암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후성유전이란 유전자의 염기서열 변화 없이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과정인데요. 후성유전이라는 개념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과정이라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DNA메틸화, 히스톤 단백질의 변화에 따라...(종울림)

후배들을 위한 조언

면접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자면 우선 저는 학원은 따로 다니지 않고 교원대 홈페이지에 있는 2015~2021년 수시, 정시 오전 오후 제시문 기출문제를 모두 뽑아서 실제 면접처럼 시간 맞추어서 준비하고 학교 선생님 앞에서 발표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의견과 피드백 정리해서 다시 읽어보는 방법으로 제시문을 준비했어요. 기출문제도 워낙 많아서 충분하다고 느껴졌어요. 기출문제는 면접 연습을 하면서 주장과 생각을 외워야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지문 읽는 데 몇 분 걸리는지, 요약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어느 정도 분량이 3분을 채우는지, 어떤 느낌으로 제시문이 주어지는지 파악 그리고 주제에 관한 생각의 폭을 넓히는 용도로 진행하였고 검색을 통해서 올해 교육/사회적 이슈 여러 가지 뽑아서 핵심 키워드, 주장 등을 정리해보면서 연습했어요. 교원대 면접이라고 하면 괜히 더 무섭고 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면접은 자신감입니다. 특히 교원대 면접은 제시문에 대한 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답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면접관에게 논리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면접 준비하는 과정이 물론 힘들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3년간의 노력을 입증해 줄 커다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화이팅!!

제 주 대 학 교

대학명	제주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불합격
학과명	컴퓨터교육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예비 1번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소프트웨어 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체육관 집결 및 안내 -> 단과대별 이동 -> 가번호 안내 (학과별 지정좌석) -> 대기 후 가번호 순서에 따라 면접 이동 -> 면접		
기타 유의사항	코로나로 인해 면접 후 즉시 귀가, 삼다수 제공, 오전 8시까지 집결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지원동기는? (너무 긴장해서 긴장 풀어주는 질문) 취미 있나요?

[답변] 컴퓨터 분야의 동향 살펴보는 것이 취미입니다.

[질문] 최근의 본 걸 말해주세요.

[답변] 플의 맥북 프로와 m1 신형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질문] 인텔과 애플 모두 칩을 만드는데 애플의 폐쇄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저는 리눅스 토르발스의 오픈소스를 지지하기 때문에 애플의 정책에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픈소스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플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독점하면서 더 효율이 좋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이제 긴장 풀렸으면 지원동기 말해주세요.

[답변] 저를 대표하는 한 단어는 우주선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선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시도하는 저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로 정보수업과 프로그래밍 공동교육과정을 들었습니다. 컴퓨터 분야 또한 우주와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분야도 무구한 발전 가능성과 핵심적인 원리는 그대로 있으면서,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로 정보수업과 프로그래밍 공동교육과정을 들었습니다. 정보 수업에서 친구에게 답이 아닌 과정을 함께 논의해 나가는 과정으로 알려주며 같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려주며 함께 배우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나요?

[답변] 선배와 동아리에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과 아직 배우지 않았던

이진법에 관한 문제 등을 도움을 받아 풀어냈습니다.(질문)친구 말고 후배들에게도 알려준 경험이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 후배들과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2학년 영화 속 미래기술탐구에서는 프로그래밍에 관한 얘기를 하기 힘들었고, 3학년 동아리에서는 1, 2학년과 3학년이 따로 수업하는 바람에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질문] 중학교, 고등학교 포함해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으신가요?

[답변] 지금 담임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을 준비하면서 좌절하고 우울할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과 그 이유에 대해 논의해보고, 지지해주셔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질문] 컴퓨터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많이 생겨나는 분야입니다. 컴퓨터교사가 된다면 어떻게 이런 기술에 따라갈 생각입니까?

[답변] 저는 컴퓨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동향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원리를 배우면 새로운 기술을 더 빨리 배울 수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런 지식을 쌓고, Spring이나 웹앱, 운영체제 등의 동향에 관심갖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저희가 뽑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답변] 제가 재미있게 배웠던 정보교과서에 제주대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하셨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2022 교육과정에 대한 영상에서도 제주대 교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제주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사범대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어서 답변 시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는데 컴퓨터교육과여서 그런지 교육에 관한 질문이 생각보다 많았음. 평소에 교육 문제를 교과와 연결하여 생각해보고, 컴퓨터 분야에 관심을 가진 것이 도움이 됨.

사범대 교수님들이라서 그런지 답변하는 학생을 배려하여 주시는 교수님들이 인상적이었음. 교수님들이 잠은 잘 잤는지, 아침은 먹었는지 물어봐 주셔서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었음.

종합대여서 그런지 면접이 단과대별로 이루어짐.

한 남 대 학 교

대학명	한남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총원합
학과명	수학교육과	총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4번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학생부종합 (한남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시간	15분	
	인원수	면접 위원 수: 2, 조별 학생 수: 1	
	면접절차	핸드폰 제출→대기실에서 대기하며 신분증 검사→호명이 되면 도우미를 따라 면접실로 이동→지정 대기실에서 대기→면접실 입실	
기타 유의사항	블라인드 면접, 정숙한 분위기,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지원 동기 (교육적 목적 포함)

[답변] 저는 수학을 공부할 때에 누군가에게 이 문제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듯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수학을 단일적인 과목이 아닌 여러 과목과 융합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수학을 하나의 과목이 아닌 여러 과목과 융합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수학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학교의 인재상인 실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 지식을 창의 융합적으로 승화하는 인재가 저의 가치관과 잘 맞을 것 같아 이 학교의 수학교육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자기소개서에 여러 과목과 융합할 수 있는 과목이 수학이라고 했는데 자소서 외에 융합한 사례가 있는가?

[답변] 생명과학의 유전에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질문] 수학과 실생활에 사용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답변] 무인단속카메라에 사용된 원리 설명

[질문] 수학과 가장 연관이 깊은 과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변] 물리학이라고 생각한다. 물리학에서도 수학을 이용한 계산이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1단원의 속도와 가속도라는 것도 미적분과 수학2의 소단원에 속할 정도로 수학과 많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 자신은 어떤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답변] 카멜레온 같은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느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를 바탕으로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교사가 될 것이다. 수학 수업을 단순히 교과서로만 하지 않고 공식을 노래나 랩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소서나 생기부는 최대한 외워서 가면 더 좋을 것 같다.
 - 질문할 수 있을 법한 내용은 추가 자료를 더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다.
-

서원대학교

대학명	서원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총원합
학과명	수학교육과	총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1번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형명	지역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시간	2분 이내	
	면접절차	제시되어있는 면접 질문 5개 중에 2가지의 질문을 골라서 2분 이내로 답변한 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기타 유의사항	교복 착용 불가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수학 교사에게 필요한 능력 중 자신에게 부족한 것과 자신이 갖추고 있는 것은?

[답변] 저는 관찰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학에 관심이 없던 친구들을 흥미로 다가가게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저에게 부족한 것은 성급함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육 봉사에서 수학 수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는 수업을 빠르게 진행해서 아이들이 부담스러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찰력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소통하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관찰했더니 게임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수학 보드게임을 창작하였습니다. 이후, 수학에 흥미가 없던 아이들이 집중하고 흥미를 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저의 성급함을 제가 갖춘 관찰력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찰력은 수학 교사에게 관찰력은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까지 수학을 공부하면서 인상적이었거나 기억에 남는 수학 내용이나 수학적 경험이 있다면?

[답변] 저는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를 풀다가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옳게 풀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다른 답이 나왔고, 한참을 고민하다 수학 선생님께 찾아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다른 답을 얻은 원인이 문제에서 주어진 근사값을 이용하지 않은데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저만의 풀이로 문제를 해결하였고, 근사값을 이용하지 않은 저의 풀이가 사실은 더 정확한 값이라는 것을 말씀해주시며 저의 열린 사고방식을 칭찬해주셨습니다.

저는 이후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의 생각을 따라가며 끝까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흥미로 느껴졌고, 수학을 다양한 방면에서 바라보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 질문이 미리 공개되어 있었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면접이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질문 하나하나에 명확하게 나의 얘기를 할 수 있어서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자신의 경험 등을 면접을 통해서 다 어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면접’이라는 단어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꼭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북전문대학교

대학명	경북전문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불합
학과명	간호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수능 최저 미달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시간	10~15분(대면 면접)	
	인원수	면접 위원 수: 2명, 조별 학생 수: 5명	
	면접절차	대기화면에서 대기→신분증 검사→호명이 되면 도우미를 따라 면접실로 이동→면접 진행	
기타 유의사항	교복 착용 가능		

질문 및 답변 내용

○ 질문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답변한 내용 :

저는 배려와 존중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평소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해 저의 일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여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가 다방면으로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간호사는 병원의 시스템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하면서도 환자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점이 저에게는 큰 존재로 다가왔고 그 이후로 간호사의 꿈을 키우게 되어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순서였는데 교수님과의 의도와는 다르게 말한 거 같음.)

○ 질문 : 본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 답변한 내용 :

저의 가장 큰 장점은 꼼꼼한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일을 실수 없이 완벽히 해내고자 노력합니다. 이러한 성격 덕에 조 활동을 하거나 수행평가를 할 때면 주위에서 저에게 조장을 맡기는 편입니다. 또한, 저도 조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단점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완벽함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준비를 미리 준비하거나 주변에 조언을 구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간호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세심하고 꼼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장점으로 이용될 거라 생각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 교수님들이 다 친절하셔서 편하게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말하면 될 거 같다. 질문도 예상질문 안에서 다 나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 꼭 생각해서 부끄러워도 말하고 오기.
 - 면접이 끝나면 학교에 있는 간호관을 구경시켜줌.
-

안 동 과 학 대 학 교

대학명	안동과학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총원합
학과명	간호학과	총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16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형명	일반 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시간	10~20분 (비대면 면접/ZOOM)	
	인원수	면접 위원 수: 2명, 조별 학생 수: 1명	
	면접절차	대기화면에서 대기→신분증 검사→호명이 되면 도우미를 따라 면접실로 이동→면접 진행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 착용이 가능하며 면접실에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이 밝게 인사해줌. - 학생이 이야기할 때 꼬리 질문을 많이 함. 예상질문 외 질문도 준비하면 좋음. 		

질문 및 답변 내용

○ 질문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답변한 내용 : 저는 배려와 존중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평소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해 저의 일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여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가 다방면으로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간호사는 병원의 시스템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하면서도 환자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점이 저에게는 큰 존재로 다가왔고 그 이후로 간호사의 꿈을 키우게 되어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질문 : 현재 봉사활동 참여 유무 및 그 봉사에서의 보람(의미)

- 답변한 내용 : 저에게 봉사는 밑그림과 같습니다. 연탄 봉사, 현충일 봉사활동 등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와 봉사단체에 들어가 한 달에 한 번 꾸준한 봉사를 해왔습니다. 많은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힘들었던 점도 있었지만, 봉사 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고 앞에서 느낀 힘들을 보람으로 바꾸어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오면서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봉사에 한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봉사를 하기 위해 고민을 하였고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관광객을 상대로

예방수칙 안내 및 체온 측정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봉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실 의료진분들이 생각나게 되는 봉사였습니다. 미래에 간호사가 되었을 때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더 많은 봉사를 할 것입니다.

○ 질문 : 10년 후 본인의 미래상에 대한 모습 제시

- 답변한 내용 : 10년 후의 저는 간호학과를 졸업 후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는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을 위해 봉사하고 인정받는 간호사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할 때 약간 더듬거림)

후배들을 위한 조언

- 간호학과와 같은 보건의료분야는 다양한 봉사활동이 중요하고 그 봉사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자신의 뚜렷한 목표 면접에서 잘 전달하였기 때문에 합격하였다고 생각한다.
 -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질문 준비도 하고 그 외의 질문도 따로 준비하면 더 좋을 것 같다.
 - 교수님이 질문에 빠르게 외운 걸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 같다.
-

중 원 대 학 교

대학명	중원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불합
학과명	간호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20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형명	지역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시간	10~15분 (대면 면접)	
	인원수	면접 위원 수: 3명, 조별 학생 수: 3명	
	면접절차	대기화면에서 대기→신분증 검사→호명이 되면 도우미를 따라 면접실로 이동→면접 진행	
기타 유의사항	- 교복 착용이 불가능하며 면접실에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이 밝게 인사해줌. - 학생이 이야기할 때 꼬리 질문을 많이 함. 예상질문 외 질문도 준비하면 좋음.		

질문 및 답변 내용

○ 질문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답변한 내용 : 저는 배려와 존중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평소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해 저의 일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여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가 다방면으로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간호사는 병원의 시스템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하면서도 환자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점이 저에게는 큰 존재로 다가왔고 그 이후로 간호사의 꿈을 키우게 되어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질문 : 시험 중 가장 친한 친구의 부정행위를 목격한다면 당신은 어떠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시오.

- 답변한 내용 : 먼저 저는 친구에게 왜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물어보며 친구의 상황을 파악하여 친구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는 이유가 무엇이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하며 밝힐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꼬리 질문)

○ 질문 : 코로나19 상황인 현시점에, 지하철 내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만난다면 당신은 어떠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변한 내용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예방수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그 승객에게 다가가 공손하게 마스크를 써주시면 좋겠다고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마스크 써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며 코로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코로나 확진자라면 나머지 승객들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승객이 부정적인 행동을 하거나 욕설을 할 경우에는 누군가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을 부르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꼬리 질문)

(영어지문 해석함)

후배들을 위한 조언

- 면접 질문을 잘 대답했어도 영어지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마이너스가 되었던 거 같다. 또, 대답하는 과정에서 교수님께서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꼬리 질문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약간 당황해 대답을 잘 하지 못한 거 같다.
- 중원대학교는 면접 질문 외에도 영어지문 해석이 있으니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학생이 넣으면 좋을 거 같다.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영어지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어를 한다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문 경 대 학 교

대학명	문경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격
학과명	간호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전형명	대학자체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실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미리 복사하고 작성한 문진표 제출 후 온도체크를 하고 난 후에 면접대기실에서 대기합니다. - 면접대기실의 인원이 5명씩 채워졌으면 바로 면접실로 이동합니다. - 선착순이라 랜덤으로 들어간다. 간호학과 면접실만 총 3개입니다. - 면접실 자리에 앉기 전에 인사드리고 자리에 착석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p>면접실이 많아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지 않아서 준비한 면접자료들을 볼 시간이 없어요. 준비를 미리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p>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1]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경대학교 간호학과에 지원한 ○○○ 학생입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과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따뜻한 눈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바라보고 냉철한 눈으로 상황을 파악해 가장 적합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질을 문경대학교 간호학과에서 키워나가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들의 건강 회복을 돕는 전문적인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질문2] 우리 학교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저는 늘 주변에 아픈 사람이나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늘 도와주고 챙겨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문경대학교의 교육목표 중에 인류사회에 헌신하는 열린 간호사를 양성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 또한 간호사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질문3]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봉사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장애인분들을 도와드리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장애인분들도 어디가 편찮으신지에 따라 도와드려야 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시각장애인을 돕는 방법을 봉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맹학교가 있는데 어느 날 하교를 할 때 시각장애를 갖고 계셨던 분이 신호가 빨간불인데 건너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막기 위해 봉사하면서 배웠던 방식대로 갑작스럽게 붙잡지 않고 큰소리로 “아직 건너시면 안

돼요!”라고 외치고 혹시 도와드려도 되는지 여쭙봐서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와드리고 나서 엄청나게 뿌듯함을 느꼈고 저도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질문4] 전공 관련 질문을 여기 다섯 분께 다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학생은 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답변] 심장은 우리의 몸에서 펌프와 같은 작용을 하는 기관으로 끊임없이 혈액을 받아드리고 내보내면서 혈액을 온몸으로 이동시킵니다. 심장 내부에는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방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으로, 정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실은 혈액을 내보내는 곳으로, 동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저는 면접을 준비하면서 담임 선생님과 모의면접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준비를 많이 안 해도 되겠지?’ 이 마음으로 했다가 말도 못하고 스스로에게 절망했습니다. 모의면접을 처음하고 나서 다음에는 더 많이 준비해서 실전처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또다시 모의면접을 하게 되었는데 전보다 훨씬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칭찬받았습니다. 대학교가 우리들의 기준에서 좋은 대학이 아니라고 해서 면접 대충 준비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어딜 가든 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면접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은 진짜 자신감! 저도 말을 잘 못 해서 걱정했는데 걱정할 시간에 더 많이 연습하자! 이 생각으로 연습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가 면접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본 같은 반 친구들이 면접 왕이라고도 불러 줄 정도로. 3학년 때 이제 원서 넣고 하면 자습시간 많을 텐데 이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실이 시끄러울 때나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면 복도 계단에 앉아서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간호학과는 경쟁률이 정말 싸서 면접에서라도 이겨야 됩니당! 면접에서 빛을 발하기를 응원합니다!!

순천향대학교

대학명	순천향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간호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3
전형유형	학생부 종합	전형명	지역인재 종합 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분 정도 면접 방식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 대기하는 동안 종이 자료만 읽을 수 있습니다. - 학생부 기반 면접이었고 면접 시간은 8분 내외, 면접관님 두 분이 계십니다.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셔틀 버스를 타야 하기 때문에 입실 시간보다 최소 30분 일찍 와서 셔틀 버스를 대기해야 합니다. - 서문(정문)이 아닌 동문(후문)으로 출입해야 합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긴장 많이 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답변] 긴장을 살짝 하긴 했지만,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면접관님과 친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설레는 마음이 큼니다. (이후 대화는 생략)

[질문] 영어 성적이 좋던데 어떻게 공부했나요?

[답변] 1학년 때 영어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과목이었습니다. 영어 성적이 좋은 친구들과 비교하며 '나는 해도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어 공부에 소홀히 했습니다. 이후,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 나 자신과 비교하여 과거의 나보다 발전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 성적이 좋으면 다음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고, 영어 성적이 안 좋으면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등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높은 영어 성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간호학과에 오기 위해 한 활동 한 가지 말해 보세요.

[답변] 3학년 태평천학 동아리에서 sandwich ELISA 기술을 이용하여 코로나 모의 진단 실험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sandwich ELISA 기술은 효소 면역 측정법으로 생명과학 교과 시간에 배운 항원-항체 반응과 효소-기질 반응을 이용합니다. (생략)

[질문] 봉사 활동 중에 간호와 관련된 봉사 활동을 말해보세요.

[답변] 1학년 봉사 동아리 세르비스에서 정신요양시설로 봉사 활동을 하여 사랑과 공감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에서 한 활동은 원생분들께 손 마사지를 해드리며 친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 장기자랑과 게임을 하는 레크레이션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질문] 다문화센터에서 봉사 했던데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말해보세요.

[답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국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활동을 하고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후, 한글을 잘 몰라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 그 아이의 전담 한글 선생님을 맡아 아이에게 한글 쓰는 법을 가르치고 단어의 뜻을 알려줬습니다.

[꼬리 질문] 이 봉사 활동이 간호학과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생각하나요?

[답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는 다양한 사람들을 병원에서 마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국가로 향하는 국제 정세에 발맞춰 적응해야 합니다.

[질문] <역삼투압 정수기를 고발합니다>라는 책을 읽었던데 무슨 내용인가요?

[답변] 역삼투란 삼투압보다 높은 압력을 가했을 때 용액에서 반투과성 막을 통해 순수한 용매가 빠져나오는 현상입니다. 역삼투압 정수기도 역삼투 현상을 이용하여 나쁜 성분을 제거해서 좋을 것 같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 성분까지 모조리 제거해 버립니다. 미네랄이 부족한 물은 미네랄을 얻기 위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산성을 나타내고, 체내에 들어가면 주변의 미네랄을 흡수하여 몸을 산성화시킵니다. 몸이 산성화되면 장기 기능이 저하되고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역삼투압 정수기의 물을 마시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답변] 순천향대학교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환자의 신체적 아픔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의 심리적 고통에 공감하는 진정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간호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암으로 고생하셔서 병을 치료하는 의료인이 되고 싶었고,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금방 회복할 것이라고 위로해 주신 간호사분으로 인해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순천향대학교에서 간호 전문 지식을 배워 순천향 정신인 인간 사랑의 윤리관을 지닌 간호사로 성장하고 싶어 지원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순천향대학교 면접 들어가기 전까지 매우 떨렸는데, 교수님들이 긴장하지 말라고 간단한 질문 몇 개 하십니다. (오는데 힘들지 않았나요?, 순천향대학교 캠퍼스 어떤가요? 등) 그리고 면접 분위기는 매우 좋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잘 들어 주시고 잘 웃어 주십니다. 아마 제가 최초합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긴장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 분위기 정말 좋으니 여러분들은 저처럼 긴장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순천향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인재상, 교육 목표, 캠퍼스 등을 조사하고 면접 답변에 녹여냈더니 교수님들이 좋아하셨습니다. 실제로 면접에서 교수님께서 “우리 학교에 대해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정말 오고 싶은가 봐요~”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순천향대학교에 대해 많이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면접 답변에 녹여냈으면 좋겠습니다.

충남대학교

대학명	충남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간호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 종합	전형명	농어촌 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p>면접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뉘어져 있고, 저는 오전에 면접을 봤습니다. 9시까지 면접장에 가야 하고, 면접은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p> <p>학과마다 다른데 어떤 학과는 30분 동안만 자료를 볼 수 있고 첫 번째 학생이 면접을 보러 갈 때 자료를 못 보게 했다고 합니다. 저희 학과는 계속 볼 수 있게 해 줬습니다.</p> <p>면접관님 두 분이 계시고, 학생부 기반으로 15분 내외로 진행합니다.</p>		
기타 유의사항	<p>전자기기 제출할 때 따로 보관해 주시지 않고 복도에 있는 책상 위에 펼쳐 놓은 후, 면접이 끝나면 가져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분실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p>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환자의 신체적 아픔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의 심리적 고통에 공감하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간호학과에 지원했습니다. 과학 시간에 배운 지식을 생명과학 실험 동아리에서 응용, 실험하면서 생명과 관련된 직업을 진로로 잡았고, 제 장점인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직업이 간호사라고 생각하여 간호사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충남대학교의 상징물인 백마처럼 지성과 야망을 갖고 제 꿈을 실현시키고 싶습니다.

[꼬리질문] 직접적인 지원 동기 없나요? (관련 영상 시청 등)

[답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암으로 고생하셔서 병을 치료하는 의료인이 되고 싶었고, 제 손을 잡아주며 금방 회복할 것이라고 제 심리적 불안감을 떨쳐 주신 간호사분으로 인해 닮고 싶어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꼬리질문] 자신의 장점이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했는데 간호사가 이 역량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답변] 첫째,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환자의 상황을 잘 공감할 수 있어 환자의 심리적 고통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간호사와 간호사, 간호사와 의사의 의사소통을 통해 환자의 질병에 대한 이해도와 업무의 원활한 진행성에 도움이 됩니다. 또, 서로 공감하는 협력 관계를 통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꼬리질문] 자신의 장점인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드러낸 사례를 말해주세요.

[답변] 3학년 화법과 작문 시간에서 모둠 활동을 했을 때 조장을 맡아 모둠을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모둠원 한 명이 제대로 협력을 안 했었는데, 그때 저는 마냥 그 친구에게 협력을 왜 안 했는지 묻는 것보다 제가 조장으로서 팀을 이끄는 면에서 미흡한 면이 있는지, 제가 그 친구를 서운하게 한 것이 있는지 등 고심하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후, 그 친구와 공감할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고 해결책을 찾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모둠원끼리 의견을 말할 때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그 친구에게 틀릴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고 이를 숨기는 것보다 당당하게 드러내고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조언해 줬습니다. 그 결과 친구는 모둠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질문] 다문화 지원? 그게 무슨 봉사 활동인가요?

[답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국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교육 봉사입니다.

[꼬리질문] 그 봉사 활동에서 지원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봉사 활동을 했나요?

[답변]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한글을 몰라서 수업에 집중을 못 하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수업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후, 저는 국어 시간에는 한글 선생님을 맡아 아이에게 한글을 쓰는 법과 발음하는 법, 단어의 뜻을 알려줬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됐고 수업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질문] 지원자분이 2학년 원격 수업을 했을 때부터 성적이 계속 올랐는데 원격 수업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답변] 원격 수업의 장점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수업 영상을 여러 번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한 자리에서 연달아 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정해진 기간 안에만 보면 되기 때문에 미룰 수 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바로 여쭙 볼 수 없습니다.

[꼬리질문]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어떻게 올렸나요?

[답변] 수업을 들으며 모르는 것이 있으면 메모지에 적은 후, 대면 수업 기간에 선생님께 여쭙 봤습니다. 또, 포스트잇에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적고 볼 수 있도록 책상에 붙여 나태해질 때마다 포스트잇을 보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질문]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간호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근거와 함께 말해주세요.

[답변] 코로나 상황에서 간호사에게 기대하는 바는

[질문]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답변]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라는 책을 가장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책에서 뇌졸중의 걸린 저자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지만 자신을 돌본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을 자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심한 손길로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준 의사와 간호사를 통해 삶의 의지를 느끼게 되는 반면, 관심이 없는 손길은 자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환자의 상태에 공감하고 따뜻한 손길로 세심하게 간호하는 간호사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답변] 충남대학교의 어학인재양성프로그램, 해외파견장학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여 지역사회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건강과 안녕에 힘쓰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 충남대학교의 교화인 철쭉꽃처럼 사랑의 기쁨을 느낄 줄 아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면접에서 이 학교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육목표, 교육과정, 인재상, 가치 등을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자기소개, 동기, 학업계획,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자기소개, 동기를 둘 다 물어보는 경우는 적지만, 만일을 위해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은 이 학생이 생활기록부에 명시된 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전에 생활기록부 분석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한 활동에 밑줄을 그어 계기, 무엇을 했는지, 자신의 역할, 느낀 점 및 깨달은 점 등을 정리하고 예상 질문, 답변을 달아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해 주시는 모의면접을 꼭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면접과 질문이 다를 지라도 선생님께서 목소리, 자세 등을 피드백 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면접 준비를 하면서 내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답변을 못 할 것 같고 떨어질 것 같다 생각에 면접을 보기 싫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 말을 하며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대학명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간호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 종합	전형명	cogito 자기추천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시간	7~10분	
	인원수	면접 위원 수: 2명, 조별 학생 수: 1명	
	면접절차	대기실에서 전자기기 끈 후 각자 가방에 넣음 (가방 없는 경우 면접관이 수거 후 대기실 퇴장할 때 다시 줌) -> 순서 기다렸다가 복도에서 짧게 대기 후 면접 본 후 귀가	
기타 유의사항	수험표는 필요 없었고 신분증 검사하니까 신분증 필수		
질문 및 답변 내용			

- 질문
 - 답변한 내용

- 본인 확인을 위해 3학년 동아리 이름 말해주세요.
 - MD입니다.

- MD는 약어일 것 같아요. 뜻이 무엇이고 동아리에서 했던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 메디컬 드림의 약어로 의학 계열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입니다. 1학기 동안 하나의 장기 프로젝트를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손소독제는 바이러스의 외피를 녹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외피를 보유한 바이러스에만 효과적임을 언급하며 손세정제로 손의 세균과 바이러스를 모두 없애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안임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끈으로 머리카락을 만드는 업사이클링도 했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셔서 당황...)

- 1학년 때 발명 아이디어 대회에서 상을 받았는데, 어떤 발명을 했나요?
 - 저는 음성인식 혈체어를 발명해 제출했습니다. 현재 시중에 있는 혈체어는 대부분 손가락으로 작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신마비 환자에게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음성신호를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변환해 음소단위로 인식하는 음성인식의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 3학년 때 병결이 3번 있네요?
 - 코로나 시국에 저도 모르게 코로나가 걸린 상태에서 친구들과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가 코로나를

옳기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해 조금의 감기기운이라도 있으면 바로 조퇴후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 우리 학교 간호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이죠?

-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희귀병을 알리기 위해 교내 캠페인을 주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희귀병이 소아청소년기에 발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아 청소년기에는 같은 질병이더라도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접하며 후에 간호학과를 졸업한 후 소아청소년과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아동 간호학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를 하며 미숙아와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를 돕는 건국대학교의 동아리인 도담도담에 들어가 제 꿈에 더 가까워지고자 건국대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생명과학 시간에 시상하부와 티록신이 체온조절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설명했다고 했는데 우리한테도 설명해줄래요?

- 고온자극이 주어졌을 때 시상하부에서 갑상선에 신호를 보내게 되면 티록신과 에피네프린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신진대사가 감소하며 열발생량이 감소하고 피부근처의 혈관이 확장되며 열방출량이 증가해 체온이 조절됩니다.

○ 그럼 저온자극일때는?

- 저온자극이 주어지면 고온자극과 반대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시상하부에서 갑상선에 신호를 보내 티록신과 에피네프린이 증가하고 열발생량이 증가합니다. 또한 피부근처의 혈관이 수축되어 열방출량이 감소해 체온이 조절됩니다. (고온자극만 복습해갔는데 저온자극도 물어보셔서 아차함... 하지만 당황한 티 안 내고 반대로 잘 말함.)

○ 과학 4과목을 다했네요? 이유랑 공부하며 힘들었던 점 어떻게 극복했는지 설명해주세요.

- 네, 저희는 과학중점학교였기 때문에 평소 과학과목에 흥미를 느껴 과학 4과목을 모두 하는 과학 중점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흥미를 가지고 공부했던 생명, 화학과 달리 많이 학생들이 그렇듯 물리를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 문제집을 풀어보며 교과서 외의 물리 개념들까지 공부하며 넓은 시각으로 물리를 탐구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 어필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질문하지 않아서 얘기 못 한 부분 있나요?

- 2학년 때 전자기 유도의 원리를 이용해 CPR 전자기유도 장치를 발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손잡이에 코일을 연결해 손잡이를 돌리면 자석 주변의 코일이 돌아가며 유도전류가 발생해 CPR 펌프가 일정한 속도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원리인데요, 평소 심폐소생술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심정지 환자를 눈앞에서 보게 되면 당황해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발명한 CPR 전자기유도 장치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병행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약간 실수한 것 같음...앞에서 이미 음성인식 휠체어 말하면서 창의력을 부각했으니 다른 요소를 드러낼 수 있는 사례를 말했어야 하는데 빨리 답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떠오르는 걸 말해버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 준비한 말 하고 나옴.

(마지막이라고 긴장 풀지 말고 각자 준비한 거 자신감 있게 말하면 될 것 같음.)

후배들을 위한 조언

준비한 걸 모두 침착하게 말했고 모의면접 하면서도 말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은 필수예요. 자신감 없이 말하면 그게 면접관 입장에서는 다 보일 거기 때문에 평소 말을 우물쭈물하는 스타일이더라도 강단있고 깔끔한 말투를 위해 노력하기!! 그리고 대학의 동아리를 찾아보고 말한 것도 합격에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학에선 대학교에 와서 열심히 공부할 학생을 뽑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이 대학에 얼마나 애정이 있는지 등을 어필하기 위해서 대학교의 교육과정 같은 요소들을 지원동기에서 말한 게 도움이 된 것 같음.)

일단 다들 말하듯 면접은 많이 말해봐야 익숙해지기 때문에 모의면접이랑 말하는 연습 많이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면접 여러번 봤는데 보면서도 점점 자연스럽게 잘하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연습은 필수고 기간도 길게 잡고 여유 있게 연습하는 걸 추천합니다.

중 앙 대 학 교

대학명	중앙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간호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 종합	전형명	다빈치인재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대기실에서 전자기기 외에 면접 준비자료는 볼 수 있었다. 한 시간 전부터 면접대기실 입실이 가능했다. 면접대기실에서 배정받은 번호대로 면접 진행하므로 순서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음. 면접 시간은 7분 정도로 1분 전에 밖에서 노크로 알려줌. 면접관이 많이 긴장되나 같은 질문으로 긴장을 풀 후 바로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내용에 대한 질문 들어감.		
기타 유의사항	- 정문 바로 앞에 있는 102관에서 면접 실시. - 남자 교수님 2분이 들어오셨음. 생각보다 7분이라는 시간이 짧으므로 차분하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1] PCR 원리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답변1] PCR의 원리는 고온에서도 활성을 잃지 않는 DNA 중합효소를 이용해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증폭하는 것입니다. 중합효소연쇄반응을 통해 증폭한 DNA를 전기영동을 이용해서 증폭하려는 유전자의 증폭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전기영동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답변2] 전기영동은 DNA의 크기가 클수록 이동속도가 느려진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질문3] 전기영동 시 DNA의 이동속도가 다른가요?

[답변3] 전기영동은 DNA가 아가로스 겔을 통과하면서 진행되는데 크기가 크면 구멍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과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질문4] dNTP의 N이 우리 몸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4] N은 뉴클레오사이드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핵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5] dNTP와 ddNTP의 구조적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답변5] 3번 탄소의 하이드록시기의 유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dNTP는 5탄당의 3번 탄소의 하이드록시기(OH기)가 있지만 ddNTP는 dNTP와 달리 3번 탄소에 하이드록시기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5'-인산기와 반응 불가하기 때문에 DNA합성 연쇄 반응이 중단되어 염기서열분석 시 이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질문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답변6] 고등학교 때 물리, 화학, 생명, 지구 4과목을 모두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중앙대학교에 진학한다면 융합적인 시각으로 간호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면접장 분위기는 교수님들께서 긴장을 풀어주시고 조금은 따뜻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핵심 키워드와 생활기록부 전공 관련해서 심화 탐구해냈던 것들은 물어보기 좋으므로 무조건 대비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 위주로 물어본 것 같고 어려워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의도에서 설명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진로와 관련 없는 것은 거의 안 물어보시므로 진로와 관련된 탐구, 개념 숙지해두면 막힐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지원동기는 물어보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준비해두고 마지막으로 할 말은 무조건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께 부탁드려서 면접 연습이나 모의면접 많이 해본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수능 끝나고 면접일까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므로 수능 전에도 조금씩 시간 내셔서 준비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남 대 학 교

대학명	한남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학과명	간호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지역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면접 순서대로 시간이 되면 한 조의 한 명씩 이동. 이동 후 면접실 앞에서 5~10분 정도 대기. 생활기록부 기반 블라인드 면접 형식으로 진행됨. 면접관과 학생의 비율은 2:1로 진행됨.		
기타 유의사항	학과마다 인원이 많아 두 조로 나뉘어 한 조당 4명 정도로 묶이는데 조마다 면접관이 다 다름. 우리 조의 면접관과 다른 조의 면접관의 질문이 조금 다르게 나옴.		

질문 및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 (착석 전) 감사합니다!

- 한남대학교 와보니까 어떤가요? 많이 떨려요?
- 아니요, 굉장히 설렙니다!

-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해주시네요. (두분 다 웃으면서 봐주심) 면접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묻는 질문에는 답이 없으니 편하게 자신의 생각 말해주시면 됩니다. 면접 시작할까요?
- 네!

- 먼저 우리 한남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말해줄래요?
- 네, 제가 한남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환자들과 소통하는 간호사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생략) 또한 한남대학교에는 훌륭한 교수님들과 높은 취업률, 그리고 장학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략) 그래서 한남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네, 혹시 나중에 간호사가 된다면 하고 싶은 게 있나요? (어느 분야 희망하는지)
- 저는 병동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가 많은 병동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성 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노령의 환자분들께는 더욱 세심한 관찰과 배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의 세심한 관찰력과 배려라는 장점을 이용해 노인 환자들을 간호해드림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의 건강을 챙기고 사회에 기여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간호사로 일할 때 어떤 게 가장 재미있고 어떤 게 가장 힘들까요?

-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라 당황함) 저는 재미있는 일, 힘든 일이 모두 환자와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생략) (영망으로 대답)

○ 네, 알겠습니다. 생기부를 검토하던 중에 영어 성적을 봤는데 1학년 때와 2학년 때 성적에 매우 큰 변화가 보였는데 혹시 설명해줄 수 있나요?

(영어 성적이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월등히 높았음)

-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암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영단어 암기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흔들리는 버스에서도, 수업 시간의 남은 자투리 시간에도 틈만 나면 영단어 암기장을 꺼내 달달 외웠습니다. 9000개가 넘는 영단어를 20회독은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고된 일이었지만 (한숨 쉬는 척하며 힘든 척함. 면접관 두 분이 큰 반응을 해주셨음) 점점 저의 모의고사와 내신 성적에서 상승하는 저의 성적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고 점점 영어 공부에 흥미를 느껴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 오 그렇군요, 아쉽지만 벌써 시간이 다 되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 제 주변에서 제가 간호사가 된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신 분이 많이 계시진 않았지만 보살핌을 받아만 왔던 저도 간호사가 되어 여러 환자를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입증해내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략)

후배들을 위한 조언

긴장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정말 친절하게 우리를 배려해주시고 내가 적극적으로 자신감 넘치게 답할수록 정말 좋아해 주신다. 반응을 굉장히 잘해주시니 자신감 넘치는 모습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또한 면접 질문을 만들어 연습하는 것과 많은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생기부 꼼꼼히 분석해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대학명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학과명	간호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150
전형유형	수시1차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입구에 도착해서 위로 쪽 올라가서 안내분께서 열체크 건물로 안내를 하심 그리고 열체크를 하고 손목에 띠를 돌려주셨다 그 후에 건물 들어가기 전 간호학과 학생 안내분을 따라서 강당 같은 데서 1차 대기하고 영어시험을 보러 2차 대기실에 가서 좀 기다리다가 15분 동안 10문제 영어시험을 본 후에 또 다른 대기실에 가서 교수님과 면접 보기를 기다리다가 5명씩 면접 실로 이동해 면접을 보고 건물을 나와서 집으로 가면 된다.		
기타 유의사항	영어시험 볼 때 볼펜 안 가져가도 됨. 대기실에서 나눠주심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1). 지원동기

[답변] 1).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을 올라오면서 코로나로 인해 혈액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는 소식을 듣고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며 헌혈의 집 간호사분들을 마주 볼 기회가 많았는데요.

간호사분들께서 웃는 얼굴로 모두에게 친절하고 배려심 있게 헌혈을 도와주시는 모습과 순조롭게 채혈을 하시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보고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간호사란 직업을 더 알아보고 싶어 서울대학교에서 주최 한 비대면 간호 캠프에 지원서를 넣어 간호 캠프에 참여하고 공동 교육과정 보건수업을 신청하여 보건수업을 이수하는 등 간호사로서의 이론과 실전 능력을 겸비하기 위해 간호와 관련된 여러 활동과 경험을 하고 탐구해 보니 간호사란 직업이 제 성격과 적성에 부합하다고 생각되어 충북보건과학대학교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2). 왜 우리 학교에 지원한 이유는?

[답변] 2). 제가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학과를 지원한 이유는 간호사란 직업을 희망하면서 공동교육과정 보건수업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보건수업 때 의학, 수의학, 약학 및 보건계열 교수님들과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학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학과 특성 및 세부전공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님에게 질문할 기회가 주어져 제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해소한 기억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교수님께서 열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모습과 간호사란 꿈을 가진 것에 대해 응원을 해주시며 희망을 주시는 간호학과 교수님을 보고 충북보건과학대학교에서는 제가 이루고 싶은 좋은 간호사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거 같은 믿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질문] 3).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답변] 3). 저에게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학과에 합격의 기회를 주신다면 대학생활 열심히 할 자신이 있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거 같다 준비한 거 전부 말하고 내가 이 학과에 오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게 당당하게 하면 좋다.

극 동 대 학 교

대학명	극동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불합격
학과명	간호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201번
전형유형	일반전형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p>대면 면접이었습니다. 시간에 맞춰 입장하고 대기실에 자기 신분을 증명한 후, 대기하면서 외우고 있었습니다. 15분 정도 대기한 후 면접실 앞에서 선배님께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10분 후에 들어갔습니다. 3명의 교수님과 저 포함하여 2명의 학생이 면접을 봤습니다.</p>		
기타 유의사항	<p>대학교에 나온 예상 질문이 거의 나왔고 몇개 정도는 예상하지 않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15분 만에 끝났습니다.</p>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sns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답변] 저는 sns에 관한 소셜딜레마라는 다큐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 다큐를 보기 전엔 sns는 사람들과 만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거나 연락을 하면서 좀 더 사람들과 소통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큐 속 sns 기업들이 말하는 sns는 개인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모든 행동을 데이터화하고 슈퍼컴퓨터로 분석하여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를 잘 아는 모형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큐를 보고 난 후 sns속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이미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이는 수동적인 꼭두가시 인형처럼 타락해버린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sns는 너무나 잘 아는 알고리즘이 권유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행동하다 보니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 무비판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문] 본인이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채널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유튜브를 즐겨보지 않는다면 그 이유 무엇인가?

[답변] 저는 의사 부부가 운영하는 '닥터언니'라는 유튜브 채널을 추천드립니다. 제 장래희망이 간호사가 된 이후로 의료에 관한 드라마나 다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중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병원 속에 있는 의료진분들의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마음에 '닥터언니' 채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채널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를 리뷰해 주면서 자신들이 겪었던 병원 생활이나 수술 이야기, 의학에 대해 더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채널이기에 실제 병원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간호사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 지원동기

[답변] 저는 '소통의 힘은 강하다'라는 생활신조를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 아래, 1학년 때 환자의 기억력 회복을 위해서 장기 치매 봉사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치매 봉사를 하면서 어르신들과 손주의 근황, 고향에 대한 소식까지 일상을 소재로 다양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어르신들은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대상을 만나서 기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한평생 종사하고 싶었습니다. 의료 관련 직업을 알아보던 중 간호사라는 직업은 사람들을 상대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직업보다 전문가다운 지식과 의사소통 능력이 필수적인 것이 제 가치관에도 부합해서 간호사가 꼭 되고 싶었습니다. 극동대학교에서 전문, 실무, 공감, 혁신역량을 갖춰 미래에 환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최선을 대하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긴장하지 말고 모의 면접으로 자기 실력을 쌓아가면 좋습니다.
예상 못 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조금의 생각 할 시간을 달라고 양해를 구한 후 당황하지 않고 대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학교의 인재상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안 동 과 학 대 학 교

대학명	안동과학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격자
학과명	간호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최초합격
전형유형	일반전형	전형명	수시 2차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지역이 멀어서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했습니다. 비대면 면접은 시간에 맞춰 핸드폰으로 대기실에 들어가 신분증과 수험표를 확인 후 교수님 두 분이 있는 대기실에 들어갑니다. 두 분이 질문 3개씩 하시고 조연들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면접이 끝났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저도 비대면이라서 더 떨릴 줄 알았는데 훨씬 마음이 편했고 자신감과 자기의 포부를 가지고 있으면 면접은 잘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이 대학교 간호학과에 선택하게 된 이유

[답변] 대학교를 알아보기 전에 기사로 안동과학대학교의 간호학과는 50여 년간 넘게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명문 간호대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동과학대학교 홍보자료를 통해 높은 합격률뿐만 아니라 임상현장과 같은 구조설비를 갖추고 있어 충실한 실습실 등 교육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이유는 바로 최고의 교수진분들과 학생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지원해주시는 대학교여서 안동과학대학교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본인의 장점과 단점

[답변] 사람들에게 스스로없이 다가갈 수 있고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것이 제 장점입니다. 제가 학급의 실장을 오랫동안 맡아와서 실장으로서 또한 그냥 반의 학생으로서 모르는 친구에게 시험범위를 알려주었고 모르는 수학문제를 알려주었습니다. 소외되는 친구들이나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친구들을 챙겨주면서 보람을 느꼈고 다시 고등학교 생활을 돌아보니 제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단점은 완벽함을 가진 꼼꼼한 성격입니다.여유가 있을때 무슨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장점이 되지만 제가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에 크게 치우칠 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너무나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순간 시간은 더욱 촉박하게 흘러갔고 이는 결국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잘못됨을 느낄 때쯤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매달리는 것과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감수하고 유동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완벽함이 아니라 꼼꼼한 성격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지 정도

[답변] 저는 1학년 때 환자분들의 기억력 회복을 위해 장기 치매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환자분들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하고 말동무가 되어드렸습니다. 제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결손 된 환자분에게 특별한 치료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환자의 마음이 치유됨을 알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눈과 눈을 맞추고 마음을 나누는 일에 가장 근접한 일을 하는 것은 '간호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간호사는 환자분들을 위해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마음과 위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간호사 그리고 그 전에 전문적인 지식과 실력 있는 기술을 갖춰 환자분들과 소통하며 간호하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저는 예상 답변을 많이 준비하고 네이버 카페에 부족한 것들을 물어보는 등 면접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후배님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혼자 연습하면 실전에 면접에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면접을 많이 할수록 실력이 늙니다! 최대한 많이 하세요!!

백 석 대 학 교

대학명	백석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불합
학과명	치위생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71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형명	백석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시간	5분	
	인원수	면접 위원 수: 2, 조별 학생 수:1	
	면접절차	대기실에서 대기하며 핸드폰 제출→신분증 검사→호명이 되면 도우미를 따라 면접실로 입실→ 면접 진행	
기타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 질문: 자신이 경험했던 일 중에서 가장 화가 났던 상황에 대해 말해보십시오.
 -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 시험날 반에 있는 친구가 시험를 보고 있는 여러 친구들을 방해한 적이 있었는데 시험은 대학 갈 때에 중요하고 다들 예민해져 있어 피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 화를 잘 내지 않는 성격으로 쉬는 시간에 친구에게 다가가 기분 나쁘지 않게 잘 타일러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저와 다른 친구들이 화를 냄으로써 자칫하면 서로의 기분이 상해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며 말을 전달하면서 서로 좋게 넘겨 분위기가 험악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하며 대화하는 것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 질문 : 치위생학과 지원 동기는 무엇입니까?
 - 치아 교정을 시작한 후 치과에 다니며 치위생사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진로시간에 치위생사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며 환자들의 구강 상태 관리와 구강보건교육을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평생 직업으로 안정적인 전문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또한, 교정을 하면서 자주 접하던 직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치위생사를 알아갈 수 있는 경험이 많았다고 생각했으며 꼼꼼한 성격을 가진 저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치위생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석대학교 치위생학과에 진학하여 전문적인 치위생 활동 및 치과교정학 교과에 대해 배워 사람들의 구강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교정과 치위생사가 되고 싶습니다.

- 질문: 코로나19로 인해 본인이 지원한 학부의 변화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 실습을 하게 되는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치과에서 의사와 치위생사

등 환자를 상대하는 직업의 경우 구강 질환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데 실습을 하게 되면 치과와 같이 밀접한 거리에서 진료 실습이 이루어져 코로나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습과정 중 타액으로 인한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페이스실드 등 감염을 막기 위한 장구를 착용해 감염 우려를 막는다면 조금 더 광범위한 실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 모의면접은 최대한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 면접 분위기도 좋고 교수님들이 긴장 풀어주려고 많이 도와주시고 긴장할 필요 없다!



신한대학교

대학명	신한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불합
학과명	치위생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31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형명	농어촌 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시간	5분	
	인원수	면접 위원 수: 2, 조별 학생 수: 1	
	면접절차	대기실에서 대기하며 핸드폰 제출→신분증 검사→호명이 되면 도우미를 따라 면접실로 입실→ 면접 진행	
기타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 질문 : 신한대 치위생학과에 지원한 동기와 포부를 말해보세요.

- 중학교 때 치아 교정을 시작한 후 치과에 다니며 치위생사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진로시간에 치위생사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며 환자들의 구강 상태 관리와 구강보건교육을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평생 직업으로 안정적인 전문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또한, 교정을 하면서 자주 접하던 직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치위생사를 알아갈 수 있는 경험이 많았다고 생각했으며 꼼꼼한 성격을 가진 저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치위생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에 진학하여 전문적인 치위생 활동 및 치과교정학 교과에 대해 배워 사람들의 구강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교정과 치위생사가 되고 싶습니다.

○ 질문 :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많은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코로나 이후에 일어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 저는 코로나 이후에 환경오염 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19의 감염 위험으로 포장과 배달이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과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되어 지구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 방법은 일회용 포장 용기가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 용기를 사용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포장 용기를 들고 와 방문포장을 하시는 손님에게는 스타벅스와 같이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등 특별한 혜택 제도를 실시하면 앞으로의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 긴장을 너무 한 탓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함.
- 모의면접은 최대한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학명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불합격
학과명	물리치료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예비 90번
전형유형	학생부+면접	전형명	일반고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하는 순서대로 5명씩 바로 면접 진행. - 예상질문이 미리 주어지는데 그중에 3가지를 - 질문할 거라고 사전에 예고함. - 5명 전부 면접 보는데 15분도 안 걸림. 		
기타 유의사항	없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간단한 자기소개와 물리치료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해보세요.

[답변] (사실이지만 본인이 물리치료를 받아봐서 관심이 생겼다는 동기가 저보다 먼저 답변한 분들이 모두 얘기를 해서 뻘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아봤다는 얘기는 빼고 요즘 고령화로 인해 물리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운동을 즐겨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부상자들도 늘고 있으므로 물리치료가 흔해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질문]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물리치료 관련 기초과목의 학습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보세요.

[답변] (교수님께 질문도 많이 하고 고등학교 생활 중 멘토멘티학습을 한 경험을 떠올려서 친구들과 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질문] 본인만의 공부방법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답변] (저는 동생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처럼 가르치면서 공부할 때도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답변] (이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예상질문들 중에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대할 때 어떤 지식과 사고가 필요한지 말해보라는 문항이 있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과 경험한 내용을 더해 답변하였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5명이 들어갔을 때 저는 맨 마지막 순번이었습니다. 먼저 답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듣고 답변할 수 있어서 긴장은 별로 안 했지만 혹여나 저와 비슷한 답변이라면 따라한 것 같이 보일까 봐 겁치지 않도록 답변하였습니다. 면접을 보는 곳이 엄청 따뜻해서 긴장은 싹 풀리고 면접관분들이 친절하셔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관은 여성 1분 남성 1분 계셨는데 답변할 때 두 분을 잘 번갈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꿈이 있어 생기부에는 물리치료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90번을 받은 걸 보면 평소 물리치료학과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생기부를 잘 챙긴 사람들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을 보러 갈 때는 교복보다 깔끔한 학생다운 옷을 입고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면접관분들이 답변할 때 잘 기다려주시므로 최대한 떨지 않고 얘기한다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천 대 학 교

대학명	김천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물리치료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60+면접30 +출석10	전형명	일반면접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 면접절차 : 비대면. 10분 전까지 줌 대기		
기타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신분증 + 수험표, 화면 소리와 각도 확인하기		

질문 및 답변 내용

Q.1. 김천대의 장점 + 지원동기 말해볼까요?

A. 김천대학교는 44년 전통, 보건계열 명문 대학이며 현재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글로벌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물리치료학과의 관심의 시작은 사회문제 탐구 시간에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를 조사하던 중 점점 지속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직접 주기적으로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무료 도시락 배달 봉사를 다니면서 고령화 분들을 직접 관찰했습니다. 그중 전 허리와 다리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으며 이분들을 위한 제도를 알아보던 중 보건전용 의료서비스에 대해 조사하다 아직 정의만 나와 있지, 실현은 미비하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유로 인구 고령화 시대를 대비에 가장 중요한 제도이자 직업은 물리치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치료학을 배워 인구 고령화 시대에 대해 도움과 대비를 하는 역할을 배우고 싶어 물리치료 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물리치료학과의 3년제와 4년제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은?

A. 저는 시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제는 4년제와 달리 같은 정규과정을 배우다 한들 1년이 축소된 상태에 배워야 하니 4년제보단 시간이 축소라는 점과 4년제는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있어 더 현장 학습 과정이나 실험 과정에 있어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3. 자신이 ‘이런 사람만큼은 나랑 안 맞는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A. 저는 가끔 시도조차해보지 않고, 생각만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사람은 조금은 저랑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 처음부터 안 하고 후회할 바엔, 차라리 해보고 후회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인생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 뭔가 실행하고자 할 때 실패할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기 보단 내가 이 일 이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더 중심을 뒤편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처음부터 걱정부터 하고 포기하자는 사람과는 저와 조금은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Q4. 만약 안 친한 사람(몇 번 인사만 나눈 사이)가 당신에게 ‘너 필기 잘한다며? 너 필기노트만 보면 시험 잘 본다는데, 나 보여주라’라고 한다면 당신은 필기노트를 보여줄 건가?

A. 저는 원래 필기를 좋아하여 이 질문처럼 저에게 필기노트를 요구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같이 공부하자는 마음으로 빌려주었지만 가면 갈수록 빌리는 게 당연해지듯이 태도가 변하여 전 상대가 노트를 빌려 달라 하면 ‘어느 부분이 약해? 내가 그 부분은 보여줄 수 있어’라고 말했다. 이처럼 나는 다 보여주지 않을 것이며 정말 자신이 공부하고 모르는 부분이나 놓친 부분에 대해 말할 수 있다면 난 빌려줄 의향이 있다.

Q5. 물리치료학과의 질문 있거나, 아님 김천대의 질문 있는 사람 (선택)

A. 물리치료사는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분야를 선택할 때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김천대학교는 예상 질문이 아주 많아서 가장 긴장했던 면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딱딱한 질문보다는 오히려 상담하는 것처럼 면접을 진행해 주셔서 편안한 분위기로 면접을 봤던 것 같음. 아쉬웠던 점은 예상 질문에서 거의 나오지 않아서 답변을 드릴 때 약간 버벅거렸던 점이 있었던 것 같지만 빠르게 답변을 생각해야 함. 꼭 준비해야 할 내용은 김천대학교 학교 홈페이지 이념 또는 김천대의 장점 알아가는 것은 필수! 면접 진행할 때 아무리 좋은 분위기라 해도 최대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전 예상 질문에서 거의 나오지 않아 모든 질문에 정말 내 솔직한 성격과 이념을 말씀드렸음. 만약 답변이 생각나지 않으면 솔직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유 원 대 학 교

대학명	유원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예비
학과명	물리치료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111
전형유형	학생부60 + 면접40	전형명	일반학생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 면접 절차 : 면접 대기실에 가 앞에 계신 분에게 신분 확인 후, 면접실에서 대기		
기타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신분증 + 수험표 잘 챙겨 가세요 !		

질문 및 답변 내용

Q1. 지원동기 말해볼까요?

저의 물리치료학과의 관심의 시작은 사회문제 탐구 시간에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를 조사하던 중 점점 지속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직접 주기적으로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무료 도시락 배달 봉사를 다니면서 고령화 분들을 직접 관찰했습니다. 그중 전 허리와 다리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으며 이분들을 위한 제도를 알아보던 중 보건전용 의료서비스에 대해 조사하다 아직 정의만 나와 있지, 실현은 미비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유로 인구 고령화 시대를 대비에 가장 중요한 제도이자 직업은 물리치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치료학을 배워 인구 고령화 시대에 대해 도움과 대비를 하는 역할을 배우고 싶어 물리치료 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또는 영화 또는 드라마가 있다면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2.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 노년 부부의 동반자로서의 끝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참 애뜻하고 예쁜 모습이었던 둘은 몇십 년이 지나도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영화를 추천해주고 싶은 이유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앞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이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영화이며, 이 부부의 삶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시선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을 아끼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지속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잘 보지 않습니다. 전 이 영화를 통해 고령화 사회의 그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Q3. 학교 생활 중 가장 재미있었던 일 하나만 말해볼까요?

A3. 저는 1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축제에 나가 신나게 춤을 춘 것과 관객과 함께 추는 깜짝 이벤트를 열어 더 신나게 즐겼던 경험이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Q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또는 교수님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해보세요.

A4. 저는 저의 장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는 첫 번째도 열정, 두 번째도 열정, 세 번째도 열정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모인 저는 열정을 빼면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전 이 유원대학교의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어려운 일을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울 열정을 가지며 학교생활에 임할 것입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내가 마지막 팀이라서 교수님들이 분위기를 더 띄우어주셨음.
 긴장하지 않게 계속 농담해주시고 웃어주셔서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음. 일단 면접 들어가기 전 학교의 장점 또는 학과 홈페이지가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함.
 저는 이게 면접 4번째라 긴장 하나도 안 했는데 분위기가 좋아도 긴장될 수 있으니 꼭 선생님이랑 모의 면접해 봐야 함.
 그리고 면접 질문에 '영화 또는 책, 드라마 추천' 질문은 흔한 영화보단 당신의 지원 동기와 연관된 걸 찾는 게 좋음. 전 면접 볼 때 저 제외 3명 중 2명이 같은 영화와 내용도 비슷했음. 저도 사실 상대 분들이랑 같은 영화 하려다가 나중에 다시 바꾼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음. 전 예상 질문을 하나하나 다 외운다기보단 키워드 위주로 생각했음. 꼭 모의 면접 자주 해서 선생님께 피드백 받아 가며 면접 준비해야 함. 난 그게 제일 도움 많이 됨.

원 광 대 학 교

대학명	원광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불합
학과명	의예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12번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농어촌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시간	6분 + 6분	
	인원수	면접 위원 수: 방 2개 방마다 2명	
	면접절차	대기실에서 대기하며 핸드폰 제출→신분증 검사→호명이 되면 도우미를 따라 면접실로 입실→ 면접 진행	
기타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 질문: 많은 대학 중 왜 우리 대학을 골랐나 (방 두 곳 모두 처음 질문)
 - 답변한 내용: 원광대의 설립취지인 제생의세 개념과 제가 바라는 의사의 모습이 비슷했고 의 치 한 약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의료분야가 탄탄하다고 생각함
(면접위원이 그게 다예요? 라고 물어보심. 학교만의 특별한 연구주제나 탐구 방향의 언급을 원하는 듯)

- 질문: 수술실 cctv상용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답변한 내용: 수술실의 모습을 촬영하는 제3의 눈을 cctv가 수행하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행동하기 전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며 진중하게 생각할 기회를 줘 올바른 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함

- 질문: 인공지능의 정의, 향후 의료계에서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라 (+ 인공지능 의사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 답변한 내용: 사람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어진 값의 계산과 판단을 스스로 하는 알고리즘, 하나의 실수가 치명적인 의료계에서는 아직 도입되는 것은 무리이다 의사의 활동을 돕는 식으로 활용될 것 같다 (+ 왓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질문: 생기부 내용이 치매에 초점이 되어있는데 치매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 답변한 내용: 치매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되지만 가장 보편적인 경우는 노화에 따른 알츠하이머치매입니다. 노화가 되며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플라크를 형성해 뇌신경에 악영향을

초래해 기억력과 사고력 저해능력이 발생합니다. 현재 치매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지만 치매의 진행을 더디게 하는 약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신경전달물질을 억제하는 성분을 막는 약인 도네페질이 있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 생기부에 있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활동에 관한 주제에 대해 배경지식을 쌓아야 하고 최근 유행했던 의료 뉴스 또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기부에 있는 모든 활동과 주제에 대해 미리 자신의 입장과 관점을 생각해보고 그에 따른 근거나 다른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가톨릭대학교

대학명	가톨릭대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격
학과명	의예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
전형유형	학교장추천	전형명	학교장추천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1. 서류면접방 (6분 40초) 2. 제시문 숙지 (2분) 3. 제시문방 (6분 40초) 순으로 진행		
기타 유의사항	제시문은 mmi 형식으로 진행함		

질문 및 답변 내용

<제시문 내용>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있음.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입는 경제적인 피해가 엄청남.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위드코로나 정책'이 제시되고 있음.

(+ 여러 질병의 사망률/ 전파율이 그래프로 참고식으로 제시되어 있음)

문제1. 위드코로나와 같은 정책을 정할 때 고려해야할 점은?

답변- 저는 코로나 관련 정책을 정할 때 질병의 전파율과 사망률, 경제적 문제,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정도,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전파율과 사망률은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문제2. 위드코로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위드코로나를 실시해야 할까 아니면 방역수칙을 강화해야 할까?)

답변- 코로나19의 대책으로 방역수칙만 무작정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드코로나를 주장하며, 방역을 소홀히 한다면, 이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치가 침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치는 다른 가치들과 비교해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방역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역수칙을 강화하되, 인권이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방역만 강화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선택적 방역 정책' 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나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적기 때문에 바람직하고,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의 경우에는 기저질환자 판정의 불명확성, 개인의 자율성 침해와 같은 요소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3. 문제2에서 자신이 정한 의견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은?

답변- 저는 이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들에게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 국민들의 불편함, 의료진들의 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환자를 위해 희생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는 피해가 아니라 희생에서 파생되는 필수적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국가 차원에서 경제적인 보상을 해 줄 수 있겠고, 국민들에게는 거리두기로 인한 코로나 블루 치유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이나 재난지원금 등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저의 경우에는 면접 준비는 수능 끝나고 1단계 합격 발표 받은 후부터 하긴 했는데, 이왕이면 수능 끝나고 바로 시작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전에는 수능 공부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생기부 면접을 준비하려면 동기/장단점/활동 등 큰 틀로 먼저 하고 시간이 나면 그때 세부적인 걸 준비하세요.

건 양 대 학 교

대학명	건양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의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교과	전형명	지역인재전형(면접)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p>총 30분이 걸리는 과정으로 매 7분씩 4번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제시문 읽기-1번 문항 답하기-2번 문항 답하기-3번 문항 답하기) 모든 전자기기를 제출한 뒤 대강당에 모여 준비해온 자료를 보며 대기합니다. 면접 대기실에 10명씩 들어가 2명씩 면접장으로 불려서 각자 다른 방으로 들어가 면접을 보았습니다.</p> <p>제시문을 읽는 7분동안은 빈 종이에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면접장에 들어가 마스크를 벗고 화면으로 교수님들과 면접을 보는 형식이었습니다. 매 질문마다 교수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총 2분씩 6분을 만나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p>		
기타 유의사항	<p>과정이 시작되면 쉬는 시간 없이 연속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처음 제시문을 읽는 7분동안 앞에 있는 빈 종이에 신속하게 자기 주장과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p>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1]

1. 주어진 자료를 보고 이 질병이 중추신경계 질병인지 말초신경계 질병인지 말하고 이유를 말하세요.
2. 이 질병의 발병기원을 설명하세요.
3. 이 질병의 치료방법을 생각해서 말하세요.

[답변]

1. 중추신경계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시문에서 뇌에 관련해서 이상이 생겼는데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 신경계이기 때문입니다. 제시문에서 뇌신경이 죽어간다고 했고 환자가 기억 관련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추신경계 질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 제시문 속 그림을 참고해서 그대로 말했습니다
3. 뉴런이 잘못된 신경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약물을 주입하고, 신경세포체가 자극에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약물을 만들어 주입합니다. (이외에도 그림을 보고 생각나는 생명과학적 지식을 활용해 방법들을 3가지 정도 더 얘기했어요)

[추가질문]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답변]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2]

1. 의대를 졸업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하세요.
2. 자신이 의사와 잘 맞는 적성 세 개를 말하고 이유를 말하세요.
3. 자신의 적성이 앞서 말한 목표와 잘 맞는 사례를 말하세요.

[답변]

1. 통증의학과 의사가 되기 위해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 통증의학과 의사가 되고 싶은 동기와 열정을 보여드렸습니다.)
2. 정의, 공감, 의사소통입니다.(키워드를 말하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 정신의학과 통증의학을 융합해서 긴장성통증증후군 관련 실험을 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을 설명하고 실험의 한계와 이에 따른 대학교에서 연결하여 보완을 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이 실험에 정의, 공감, 의사소통능력을 연결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3]

당신은 동네 외과의사이다. 어느 날 80대 노인이 진찰을 받으러 왔는데 암이 의심이 되어 당신이 검사할 것을 설득하였지만 노인이 거부하였다. 검사를 하지 않으면 환자의 건강이 위독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환자를 설득하겠는가?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이유를 말하세요.

[답변]

저는 환자를 설득하겠습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가 위독해질 수 있다고 제시문에 나와 있었고 환자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의사로서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저는 설득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지원자의 의견의 반대 입장에서 두 가지 정도 말해보세요.

[답변]

1. 환자의 의사 존중
2. 개인의 생각이니 여러 의사와 상의를 해봐야 한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건양대학교 의학과 면접은 단순 면접이 아닌 심층적인 면접이기 때문에 의학 지식과 시사, 생명과학과 화학에 대한 기본적이면서도 깊은 지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년도 면접에서는 영어 제시문이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뉴욕타임즈나 CNN, BBC와 같은 신문에 코로나와 의학 관련 기사를 주로 읽었고 해석하는 연습과 해석을 토대로 기사를 설명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생명과학1, 생명과학2, 고급생명과학 교재를 구해 개념 공부를 했고 생명과학 선생님께 임용고시 준비하실 때 보신 교재를 구해 생명과학에 대한 지식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또한 건양대 의학과에 대한 지식과 생기부 기반 질문 준비, 인성 관련 질문 준비, 마지막으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상황 문제 준비까지 하였습니다. 차근 차근 연습하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테니 포기하지 마세요! 응원합니다:)

대전대학교

대학명	대전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불
학과명	한의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예비 40번
전형유형	교과	전형명	교과면접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3인 1조로 면접대기실에 들어가서 기본소양문항 하나를 뽑습니다 (셋이서 A,B,C 중 하나를 가져갑니다) 15분 동안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고 셋이 동시에 면접실로 들어갑니다. 먼저 기본소양문항을 답하고, 준비한 지원동기에 대해 답하였습니다. 기본소양문항은 인문사회과학 이슈가 출제되고, MMI문제와 대단히 유사합니다. 세 명 모두 꼬리질문 한두 개씩을 받았습니니다.		
기타 유의사항	교복 입고 온 사람이 꽤 보였습니다. 대기순번을 기다리는 시간이 꽤 지루할 수 있으니 책이나 단어장을 챙기길 추천드립니다 (수능 전 면접이었기에 저는 단어장을 챙겨갔습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누리호 등의 거대과학기술연구와 사회복지정책에서,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훨씬 길었는데 이정도 핵심만 기억합니다)

[답변] 우선 거대과학기술연구와 사회복지정책정비는 모두 양립해야 할 가치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고 부족한 상황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좀 더 비중을 두고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에 소외계층이나 사각지대가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겨울, 연탄봉사를 간 경험이 있습니다. 연탄 전달이 끝나고 어르신들과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에 매 해 겨울을 나는 것이 힘에 부치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복지정책이나 분배에 있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였고, 현재의 사회복지정책을 조금 더 재정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 안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어느 정도 복지가 안정된 후 거대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꼬리질문] 거대과학기술의 발전시키면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사회복지정책을 개선하여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것 또한 대내외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대전대학교 한의학과에 지원한 동기와 입학 후 학업 및 진로계획에 대해 말해보세요

[답변] 저는 소통을 바탕으로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이 되기 위하여 한의예과에 지원했습니다.

이번 펜데믹 사태를 계기로, 같은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증상과 중증도는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의 체질에 맞지 않는 획일적인 치료나 약물투여 등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고, 그 심각성을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람이 아닌 바이러스나 감염원에 집중한 치료법에서 기인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결국 인간의 자연 치유력과 항체 생성을 돕는 한의학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질환 치료에 있어 개체의 속성과 경향을 존중하며 맞춤형 진료를 제공해왔던 한의학의 특성이 소통을 중시하는 저의 가치관과도 잘 부합한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점들에 점점 매력을 느껴 한의예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전대학교 한의예과에 입학하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교환학생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국가들은 감염병 관리에 있어 전통의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우고 싶고, 그중 특히 중의학의 역할과 기법 등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종바이러스나 감염병유행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체질 맞춤형 치료 방법을 꾸준히 연구하여 민족 의학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데 힘쓰고 싶습니다.

[꼬리질문] 연구분야 쪽으로 가고 싶은 건가요?

[답변] 임상을 전공하면서 동시에 연구도 하고 싶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교과 1차에서 거의 턱걸이로 통과했던 것을 감안하고(21명모집, 6배수), 최저 통과율이 50~60%인 것을 고려하면, 면접에서 그렇게 잘 보지도, 또 못 보지도 않게 무난하게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이과 문과 구분 없이 동시에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최저도 똑같음) 이과가 비교적 불리한 편입니다. 기본소양문항은 한의학적 전공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니 오히려 문과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원동기는 자다가 툭 건들면 튀어나올 수 있게 달달 외워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현역이 거의 없고, 군인분이나 꽤 연세가 있으신 분도 보였습니다. 본인이 가장 젊고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원 광 대 학 교

대학명	원광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약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예비4번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서류면접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강의실 같은 곳에서 약학과를 포함한 4개의 학과와 같이 대기를 합니다. 면접 순서에 맞게 각 학과에서 한 명씩 나와 줄을 선 다음에 다 같이 면접장으로 이동합니다. 각자의 면접장으로 안내받은 후, 앞 지원자의 면접이 끝나기까지 의자에 앉아 대기합니다. - 교수님 2명, 학생 1명 2:1 면접입니다. 교수님 두 분이 교대로 질문하십니다. - 면접시간은 6분입니다. 5분일 때 종소리가 울리고, 시간이 다 되면 조교분들이 밖에서 문 두드립니다. 		
기타 유의사항	<p>면접 대기 시, 전자기기 사용 불가입니다. 준비해온 종이자료만 볼 수 있습니다.</p>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1학년 동아리 때나 여러 활동에서 의료인의 가치관, 인성을 고민한 흔적이 있는데, 약사가 겪을 수 있는 딜레마는 무엇이 있고, 약사는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까요?

[답변] 약사가 겪을 수 있는 딜레마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조제 가능한 약을 환자가 처방전도 없이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약사의 기본윤리강령에 따라 행동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자신의 원칙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직업마인드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봉사활동을 보니까 어르신 말벗 도우미 활동을 했는데, 어르신과 잘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저 같은 경우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어르신께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언을 받고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과 잘 소통하려면 먼저 공통점과 같은 관심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어르신께 다가가기 위해 선택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변화하고 있는 세상을 잘 설명 드리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대화를 실천하는 것이 어르신과의 소통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2학년 동아리 때, 천연 살균제 만들기 활동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답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앞으로는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 자극적인 살균제가 나오게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런 살균제가 바이러스 및 세균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과학 동아리에서 천연살균제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실험과정 설명)

[질문] 1학년 2학기 때는 조금 고난을 겪고, 2학년 1학기 때 모두가 선망하는 올 1등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했나요?

[답변] 말씀해 주신 것처럼 1학년 2학기에 고난을 만나고, 방향을 겪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러한 학업능력을 가지고 메디컬 학도로서의 자질을 갖추 수가 있는가?, 이런 성적을 가지고 감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가? 등과 같은 질문을 하면서 내적으로 고민하고 반성한 결과 슬럼프는 금방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원광대학교 약학과 졸업 후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말해주세요.

[답변] 1학년 때부터 항암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위해 항암제 제조 및 투여하는 역할을 하거나 연구소에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항암제에 대해 연구해보고도 싶습니다.

[질문] 살리도마이드에 대해 아는 것을 약학과와 관련해서 말해보세요.

[답변] 지금은 긴장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 봉사는 딱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봉사내용까지 읽어보시고 질문하셔서 놀랐습니다. 또한, 자율진로활동 열심히 준비해갔는데 동아리에서만 질문하셨습니다. 은근 생활기록부 자잘 자잘한 데서 질문하시니 꼼꼼히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아무래도 면접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기소개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같은 기본적인 질문들은 패스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본질문 준비도 중요하지만 모든 질문은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했는데, 저처럼 질문을 아예 넘기는 것보다 어떤 말이라도 일단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이 학교에 입학한 후 다양한 약 성분에 대하여 공부한 후 교수님께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같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면접장 나오면서 이 부분이 제일 아쉽고 후회스러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대학명	가톨릭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약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최초 예비 5번
전형유형	학교장추천전형	전형명	학교장추천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휴게실에서 대기하다가 30분 간격으로 정해진 면접 시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대기실로 올라가서 면접을 대기했습니다. 면접은 7분간 진행되고, 교수님 두 분이 생기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수험표랑 자가문진표 필참, 면접시간 확인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안녕하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질문에 잘 답변하시면 됩니다.

[답변] 네.

[질문] ‘화학, 인문과 첨단을 품다’라는 책에서 과학이 양면성을 띠는 사례들이 나오는데, 이 사례에 대해 한 가지만 얘기해주세요.

[답변] 네. 과학이 양면성을 띠는 예시로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물질은 협심증 치료제로 사용되어 심장 발작을 막는 순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다이너마이트의 성분으로 사용되어 인류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신약개발연구원을 진로로 꿈꾸고 있는데, 신약개발연구원이 갖춰야 할 자질이 무엇일까요?

[답변] 신약개발연구원에게 연구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윤리 의식 또한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 임상 시험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들의 자율성, 인권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상시험 동의 과정에서 부족한 시간과 정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자율성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카이랄성에 대해서도 탐구했다고 하는데, 카이랄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카이랄의약품이 왜 우리 몸에서 다르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답변] 카이랄성은 분자식은 같지만 거울면처럼 서로 대칭을 이루는 분자들을 카이랄성을 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복용했을 때 우리 몸의 수용체와 결합하는데, 카이랄 의약품은 서로 결합하는 수용체가 다르기 때문에 작용하는 것도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학생이 화학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화학과 약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답변] 화학은 물질의 성질, 구조에 관한 학문이지만, 약학은 화학, 생명과학 등을 포함하는 학문으로 약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화학을 바탕으로 약을 어떻게 만드는지 연구할 뿐만 아니라, 약품의 사회성과 경제성까지 포함하는 학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SN1, SN2 반응에 대해서도 학습했다고 했는데, 대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내용인데 이 두 반응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답변] SN1 반응은 화합물에서 이탈기와의 결합이 끊어지는 것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친핵체와 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속도결정단계에 관여하는 분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SN1 반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SN2 반응은 친핵체와의 결합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이탈기와의 결합이 끊어지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속도결정단계에 관여하는 분자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SN2 반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인가요?

[답변] 수업시간 카보닐 화합물의 친핵성 치환반응에 대해 학습한 다음, 다른 치환반응에 대해서도 호기심이 생겨 SN1 반응, SN2 반응, 알킬화 반응 등에 대해 탐구를 했습니다.

[질문]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같이 지내는 학생들과 즐거운 일, 힘들었던 일, 힘든 것을 극복한 일들이 있을 텐데, 기억나는 일에 대해 얘기해보세요.

[답변] 저는 2학년 때 학급에서 학습환경부로 활동해 친구들의 학업과 꾸준한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멘토가 되어 친구들의 학습계획, 습관을 같이 고민해보며 계획을 세우고 지속된 독려를 통해 학업 계획 실천을 유도했습니다. 또한 친구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같이 고민하며 답을 하고, 저 또한 잘 모르는 부분을 선생님께 직접 여쭙보는 등 친구들과 함께 궁금증을 풀어나가며 협력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질문]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다른 합격자들에 비해 낮은 내신 성적으로, 수시로 약대에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하지만 약학 분야에서도 저의 관심 분야를 찾아 3년 동안 꾸준히 그와 관련해 탐구를 이어나가서 관심 분야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었고 이것이 저의 입시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신이 낮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해서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대학명	서울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수의예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면접 포함 학생부 종합 전형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오전 조와 오후 조로 나눠서 면접이 진행됨. MMI 면접이고 한 방당 8분씩 5개의 방을 지원자가 오가며 면접이 진행됨. 한 조당 5명씩 4개의 조로 편성이 되는데, 중간 대기 시간과 방 정리 시간을 포함하면 한 조당 보통 50분 정도 걸림.		
기타 유의사항	8시에 입장해서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본인은 2시간 30분가량 대기하고 면접 이후에도 1시간가량 대기했던 것이 기억남. 대기 시간이 길어서 자는 친구도 있었는데,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자던 친구는 보통 학교에서 볼 수 없었다고 함.		
질문 및 답변 내용			

제시문방- 면접 제시문 상황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기출문제에서 확인하세요

■질문1 :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영역 c, d에 대해 해석하시오

- 각각 질병에 걸렸지만, 기준에 의해 음성으로 판단되는 영역이고, 질병에 걸리지 않았으나 판단 기준에 의해 양성으로 판단되는 영역이라고 답변함.

■질문2 : 이 질환이 아주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때 기준을 1ml, 4ml, 6ml 중에 어느 기준을 택하겠습니까?

- 기준이 변화해도 동일하게 4ml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c, d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한 오차가 존재하지만 건강한 개체와 질병에 걸린 개체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장 분명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c, d에 대한 추가적인 통제 필요.

■질문3 : 아주 치명적인데 그럼 1ml로 바꿔서 통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 안 남, 뉘앙스가 이렇)

- 가축방역이 목적이기에,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ml로 기준을 교체하게 되는 경우 대다수의 건강한 개체가 양성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격리의 목적이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4 : 동물 질환 중에 치명적이진 않지만 널리 퍼지는 질병이 무엇이 있을까요

- 잠시 생각해보겠다고 한 이후에, 기억이 안 나서 인수공통질환에 대해서 준비한 바를 설명하다가 시간 끝남.

(답변이 생각 안 나더라도, 모르겠다는 말하며 질문이 끊어지는 건 최악이라고 생각함,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준비한 관련된 거라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함)

생명과학 제시문 방

□질문1 : 비특이적 면역반응과 특이적 면역 반응에 차이점을 들고 설명하시오

- 잘 기억 안 남, 기본적인 생명과학1 수준 질문이니 관련 교과 정도는 준비해서 들어가길 바람

□질문2 : 백신의 원리에 대해 설명해보시오

- mRNA백신과 사백신, 생백신 등 종류를 나누고 mRNA 백신이 특정 스파이크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그 부분을 신체로 주입하여 작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함.

□질문3 : 그렇다면 백신의 원리는 주로 메모리의 기능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메모리의 기능은 주로 기억세포에서 한다고 생각하는 것 맞나요?

- 솔직히 다른 대답을 바라신다는 뉘앙스를 풍기셨음 (아마 보조 T세포의 역할이었던 듯싶음) 그런데 현장에서 기억이 나지 않아서, 고등학교 교과수준에서 배운 바론 주로 기억세포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함.

인적성 상황 제시 방

□질문1 : 이런 상황에서 주택 관리자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 우선 공동주택이라는 점에서, 그런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학생회장 경험을 하며 이런 문제를 논의를 통해 해결한 경험이 있다. 자모회(?)라던지 아파트 관리회를 소집하여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주말만 먹을 수 있게끔 배려한다 던지 이런 조율책이 있을 것 같다.

□질문2: 그렇다면 리더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경청, 양보, 배려라고 생각한다.

□질문3: 경청은 알겠는데 양보와 배려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 모든 의사 결정 과정에선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회장을 했던 경험을 돌이켜보면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에 각각 직접 만나고 서로가 양보하여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과정은 모두의 의견을 배려하는 자세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질문4 :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과정을 거칠 수 있겠는가

- 위의 상황에 맞춰 생각해본다면, 먼저 논의를 하기 위해 관리회 등을 소집하여 의견을 나누고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 맞춰 타협점을 맞춰야 한다.

□질문5 :그렇다면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지원자는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백신의 대한 개인의 두려움, 공포 등을 공감하고 이해한다. 그렇지만 백신을 맞음으로써, 공동체,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며 그런 공포나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질문이 왜 나왔는지 고민해야 함. 같은 결로 대답하길 바람. 이 부분에서 교수님이 아 그럼 모두 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고 있네요 이런 식의 긍정적인 반응 보여주심)

(리더로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향이 짙었음, 추가 질문으로 문제 해결 상황 더 여쭙보셨던 결로 기억함)

윤리관 관련 제시문 방

동물 실험 사진 올리기

(수의학과 학생이 중성화 수술에 대한 사진을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사진을 찍어 올림)

□질문1 : 본인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방치한다, 내리도록 설득한다..)

- 친구에게 사진을 내리라고 할 것이다. 이걸 사람과 동물의 생명의 가치를 동등하게 생각하지 못한 가치관에 있다고 생각한다. 수술의 대상이 사람이었다면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며 즉 동물과 사람의 삶의 가치를 동등하게 바라보지 못한 그릇된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함.

□질문2 : 이 학생도 수의학과 학생인데 과연 그런 윤리적 가치관이 없을까요?, 수의학과 학생인데 제대로 모를까요?

- 수의학과 학생이기에 아직 배우는 과정이기에 충분히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3 : 이 학생은 좋은 의도로 사진을 올리고 공유한 것인데 그래도 문제가 될까요?

- 학생이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을지언정, 아직 수의사가 아닌 학생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책임소지도 모호함. 또한 수의학과 학생이라는 신분 역시 문제가 됨. 일반인들이 보기엔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면허가 없는 학생이기에 더욱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함.

□질문4 :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질 텐데 그럼에도 강경하게 해야 할까요?

-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역시 마음 불편한 일이며 사진을 올린 친구의 심정과 상황을 공감한다. 그렇지만 수의사는 그 이전에 과학자이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질문 2개가 3개 더 했지만 세부사항이 기억나지 않음)

생기부 기반 면접 방

□질문1: 수의사의 미래 혹은 역할? 매력이었나(잘 기억 안 남 확인하길 바람)

- 수의학의 매력은 폭넓은 학문의 범위에 있다고 생각함. 이후 수의학은 미래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사회변화에 적응해야 함 또한 인수공통질환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공중보건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질문2 : 서류를 보니 의대를 준비했던 걸로 보인다. 왜 수의대를 지원하게 되었나

- 의대를 준비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꿈은 과학자였고 의사가 아니었다. 1학년때부터 진행한 세포주기조절 등의 연구는 이후 줄기세포 방향으로 연구하고 싶게 되었고 독서활동과 추후 연구 활동을 통해 수학을 통해 꿈을 이루고 싶다는 요지로 답변함

□질문3 : 생기부 개별 질문) 본인의 경우 1학년 수학 세특 물어봄

- 절댓값을 씌운 2차함수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2차함수 설명하고 문제 발표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변함.

□질문4 : 생기부 개별 질문) 본인의 경우 2학년 물리학 세특과 수의학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음

- 고주파 치료기 등에 대한 조사를 했었고 고주파 치료의 원리를 간단하게 파동의 성질로 설명하고 그 부분을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고 동물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밝힘.

□질문5 : 독서활동이 많은데 이 중에 의미 있게 읽은 독서가 있다면 소개해봐라

- '의사와 수의사가 만나다'라는 독서가 기억에 남음. 의대에서 수의대로 꿈을 바꿀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책임. 의학과 수의학은 비교의학이란 학문으로 연결되고 상호 보완의 관계에서 발전한다고 생각함. 수의학은 의학의 기초, 토대가 되며 생명과학 분야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함.

후배들을 위한 조언

수의대에 국한되지 않고 메디컬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공통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의대, 수의대, 약대, 치대 등 어느 한 분야에 특화하여 준비하였지만 원서를 쓰기 직전에 성적에 맞춰 대학을 높이면서 학과가 틀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는 그런 부분을 자기소개서 분야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3년간의 학교생활에서 학업 능력 및 리더십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줘야 합니다. 실제로 자기소개서에서도 3년간의 학교 생활을 하나의 테마로 엮어 진로 희망으로 만들어냈고, 의대에서 수의대로 바꾼 계기만 따로 준비하면 됐습니다. 제가 느낀 바론 서울대가 생기부 활동 등을 의미 있게 잘 봐준다 정도였습니다. 다들 남은 기간 활동 마무리 잘 하셔서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성과로 보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주대학교

대학명	청주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격
학과명	작업치료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창의면접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대기실에서 면접 순서대로 착석 후 자신의 앞번호가 면접실에 들어가면 면접실 밖 의자에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면접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줍니다. 면접실에 들어가면 면접관님 3분이 계시고 한 분당 2개 정도의 질문을 골고루 하십니다.		
기타 유의사항	면접관님들이 친절하시니 실수하더라도 천천히 제대로 해내려는 모습을 보여 드리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자기소개에서 30초 정도 말을 하지 않고 준비한 것과 다르다 말씀드렸음에도 최초 합격을 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1. 우리 학교에 지원하게 된 이유를 말해주세요.
2. 작업치료사가 되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말해주세요.
3. 작업치료사가 된다면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나요?
4.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을 일상 속에서 찾아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나요?
5. 작업치료사가 된다면 어떤 목표를 어떻게 이루고 싶나요?
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답변]

1. (원래 생각하던 것과 달라 당황해 30초 정도 생각한 뒤 준비한 거와 다르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니 천천히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요양원에서 봉사를 하며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 보조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과정에서 기능이 저하된 사람의 일상을 책임질 수 있는 작업치료사가 되기 위해 청주대학교에서 더욱 노력하고 싶습니다.

2. 꼼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업치료사는 개개인에게 필요한 재활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시행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고,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업무에 있어 꼼꼼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저는 노인분들을 다루는 노인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1학년 당시 요양원에서 노인분들을 도우며 저에겐 아동을 다루는 것보다 노인분들을 다루는 노인 요양병원이 저에게 잘 맞는 거 같아 일하고 싶습니다.

4. 저는 원래 사회복지사라는 진로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로가 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사회복지사와 비슷한 직업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다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을 찾게 되었습니다.

작업치료사에 자세히 알아보니 하는 일이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잘 맞는 거 같아 작업치료사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변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치료사 지인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말을 들으니 아동들을 치료해 주는 과정이 보람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작업치료사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5. 저는 환자분들의 일상을 원래의 삶으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어떤 점이 불편한지 알아낸 뒤 치료해 드리고, 정신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상담과 치료를 병행해 원래의 삶으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6. 작업치료사란 목표를 청주대학교를 진학해 꼭 이루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 고민하기보단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관님들은 포장된 모습보단 면접자님들의 본연의 모습을 더 좋아하실 겁니다. 준비하신 걸 한없이 다 말씀하시고, 만약 말하다 말문이 막힌다면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는지 여쭙보고 차분하게 생각해 말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대학명	순천향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불합격
학과명	임상병리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예비 1번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지역인재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지정장소에 모여 교내 버스를 타고 면접 장소로 이동 - 발열체크 및 본인확인 - 대기실에서 면접번호 공지 - 대기 후 번호순으로 면접 진행 (8분 이내)		
기타 유의사항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도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1. 자기소개 해주세요.

2. 사진 동아리를 한 이유가 있나요?

3. 보건 동아리는 임상병리사를 꿈꾸는 친구들만 있었던 것인가요? 무슨 활동을 했나요?

[답변]

1. 평소에 생명과학에 흥미가 있었던 저는 진로를 찾기 위해 직업에 대해 조사하다가 임상병리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상병리사라는 직업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저는 임상병리사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건강검진을 할 때 채혈해주시던 분과 소변검사 등 검체를 가지고 분석하는 분들이 간호사가 아니라 임상병리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유튜브 브이로그 등을 찾아보다가 검체를 채취하고 여러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병의 원인을 알아내는 모습을 보고 임상병리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보고 나도 저런 사명감을 가지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관련 학교를 찾아보다 취업률이 높고 자대 병원도 있는 순천향대학교 임상병리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1학년 때는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해 평소 사진 찍는 것에 관심이 있어 사진 동아리에 가입하였습니다. 2학년 때 동아리를 바꾸려고 하였지만 임상병리 관련 동아리가 없어 계속 사진 동아리에서 활동하였고 3학년 때 보건 동아리가 개설되어 보건 동아리로 변경하였습니다.

3. 보건 동아리에는 임상병리사를 꿈꾸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여러 보건계열 직업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가입하였고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끼리 모여 활동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임상병리사를 꿈꾸는 친구들이 한 모듬이 되어 임상병리사라는 직업과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였고, 개인적으로 코로나 19 백신과 혈전의 인과관계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면접관분들이 편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셔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 가지 질문이 아닌 한 질문에 꼬리질문을 하여 면접을 진행하니 자신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은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DGIST(대구과학기술원)

대학명	DGIST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융복합기초학부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 종합	전형명	교과면접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시간	15분	
	인원수	면접 위원 수: 2, 조별 학생 수: 1	
	면접절차	면접장 대기 (수험표, 신분증, 면접환경 확인) - 면접장 이동	
기타 유의사항	ZOOM 비대면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꾸벅 인사함)
 - 네 안녕하세요~ 일단 DGIST에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해맑게 웃고 있었음) 보니까 자신감이 넘쳐 보이네요~ 오늘은 화학관련 질문만 하기로 되어있어요~ 자 그럼 시작할 게요
 - 반트호프법칙과 관련한 활동을 진행했던데 반트호프법칙이 무엇인가요?
 - 반트호프 법칙이란 삼투압은 몰농도, 기체상수, 절대온도에 비례하다는 것입니다. (이후 묽은 용액의 총괄성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잘못 이해해 틀린 대답을 했음)
 - 완충 용액이 무엇인가요?
 - 용액의 pH농도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 완충 용액은 어떻게 제조하나요?
 - (예상 못 한 질문이라 당황해서 대답 못 함)
 - 약염기와 짝산으로 만드나요 강염기와 짝산으로 만드나요?
 - 강염기와 짝산으로 제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틀림)
 - 신체 내 완충용액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줄 수 있나요?
 -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이외에도 여러 화학용어 관련 질문을 진행함. 화학2 내용까지 ! ex)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의 원리 등)
- 디지스트에 오게된다면 어떤 공부를 하고 싶나요?
 - 화학과 에너지공학을 융합해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요?
 - DGIST가 추구하는 4C를 키워드로 삼아 저의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창의력으로 끊임없이 도전해 저의 꿈을 펼쳐나가는 데 DGIST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성장한 협력과 배려정신으로 지역, 국가 더 나아가 세계의 혁신을 창조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사실 면접 때 대답을 정말 못해서 (면접관분들께서 끝날때 쯤에 오늘 대답을 너무 못했는데 왜 그런지 변호해보라고도 하셨음.) 당연히 불합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합격했습니다.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추측해보자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인사성, 자신감인 것 같아요. 비록 대답은 많이 못 했지만 처음 접속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웃는 얼굴과 큰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아마 처음 봤을 때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합격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 온라인 면접

코로나로 인해 저는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내년에도 그럴진 모르겠지만 적어봅니다. 면접때 카메라가 두 개 필요합니다. 하나는 면접용, 하나는 주변 환경 보여주는 용도예요.(뒷모습 촬영) 면접 전 사전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꼭 해보는 걸 추천해요. 본 면접 때 15분 전부터 본인확인을 합니다. 신분증과 수험표, 주변을 확인하는데 주변 확인시 카메라를 360도로 돌리면서 보여줘야 합니다. (사실 이때부터 조금 웃겨서 긴장이 풀렸어요.)

- 면접후기, 면접 대비법, 면접 분위기

면접관분들이 제 생기부를 보고 질문을 뽑았다기 보단 생기부에 써져있는 관련 과학 용어들을 뽑아서 나열해 질문하시는 느낌이었어요. (간단히 말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전문 지식을 알고 있나를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생기부 하나부터 열까지 복습하고 준비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본인과 관련 깊은 과학 교과서나 수능특강 중심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예상 이외의 질문이 나오면 정말 당황스러운데 어떻게든 대답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좋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힌트도 주십니다. (신체 내 완충용액을 예시로 들 때 탄산을 이용하면 어떻게냐고 하셨음) 저는 대답을 잘 못 해서 당시엔 그렇게 느끼지 못했지만, 면접 분위기도 엄청 압박면접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면접 전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떤 장점이 있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공부하고 외우는 건 필수입니다. 대학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세요 !

- 기타 조언

디지스트 면접이 수능 전이라 최저준비도 같이한다면 부담이 클거예요. 면접 vs 최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걸 추천합니다.

디지스트는 수시 6개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여유가 된다면 지원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1차합격하면 주는 선물이 가장 기분 좋았습니다. 거창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원해보길 잘했다 싶어요. 자소서가 3000자라 많이 힘들겠지만 다른 자소서들 여러 개 섞어서 자연스럽게 작성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 응원합니다 :)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학명	DGIST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기초학부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 종합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 자소서 기반 개별면접 - 인성 면접 위주 대기실 >> 면접실 >> 퇴실 (온라인 화상 면접)		
기타 유의사항	신분증 지참, 수험표 지참		

질문 및 답변 내용

면접실엔 교수님 2분이 앉아 계셨음.

앞에 15분 타이머 있고, 처음 1분 정도는 유의사항 말해주심.

Q. 우선 지원동기 말해주세요.

A. dgist 무학과 단일학부의 전공 간 경계를 허무는 교육은 저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양자컴퓨터를 발전시켜 사회에 공헌하는 연구원이 되고자 합니다. 양자 컴퓨터에서 양자는 물리학 분야에 속하고, 컴퓨터는 전자공학, 컴퓨터 공학에 속하기 때문에, dgist의 자기 전공적 커리큘럼과 교육방식은 저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반도체가 무엇인가요?

A. (살짝 당황함) 14족 규소(Si)와 같은 물질을 의미합니다. 15족 원소나 13족 원소를 도핑시켜 전기 전도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Q. 에너지띠 위주로 얘기해보세요.

A. 우선 물질은 도체, 반도체, 부도체가 있는데 부도체는 에너지 띠틈이 크고, 반도체는 그것보다 더 작고, 도체는 거의 띠틈이 없습니다.

Q. p형 반도체가 무엇인가요?

A. 반도체에 13족 원소를 도핑시켜 양공이 많은 반도체입니다.

Q. n형 반도체는요?

A. 15족 원소를 도핑시켜 전자가 많은 반도체입니다.

Q. p형과 n형을 접합시키면 pn다이오드가 되잖아요? 이때 어떻게 전류가 흐르고, 전자가 어떻게 되죠?

A. 우선 p형엔 +전압을 걸어야 하고, n형엔 -전압을 걸어 p에서 n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때 전자는 n형의 높은 에너지에서 p형의 낮은 에너지 상태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전압을 반대로 걸어도 한계 전압을 넘으면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 Q. 그럼 발광 다이오드 설명해볼래요?
 A. 전자가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갈 때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빛의 파동과 같으면 빛이 나게 됩니다. (마지막에 버벅거림)
- Q. 발광 다이오드 특성과 반대되는 소자 없을까요?
 A. 광다이오드가 있습니다.
 Q. 그것도 비슷한 원리잖아요. 다른 거.
 A. (뭔가 잘못 들으셨나 생각했음. 발광 다이오드가 전자가 이동해 에너지를 잃어서 빛을 내고, 광 다이오드는 빛으로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이동하는 것으로 반대되는 것으로 맞는 답변이라 생각해서, 이 원리 이야기함.) 광전효과를 이용한 원리가 있습니다.
- Q. 그 예시는?
 A. 카메라에 있는 CCD가 있습니다. 이 CCD로 색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Q. 그럼 역학쪽에서 물어볼게요. 포물선 운동이 있잖아요? 이때 수직, 수평방향 속도는 어떻게?
 A. 등가속도, 등속 운동입니다.
 Q. 어떻게 구하고, 왜 등속 운동이죠?
 A. 처음 어떤 각도의 v 라는 속도를 가질 때, 수평방향은 $v\cos\theta$ 가 코사인, 수직은 $v\sin\theta$ 가 사인입니다. 포물선 운동은 중력만 받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알짜힘을 받지 않아 가속이 되지 않아 등속 운동을 합니다.
 Q. 그 수평으로 간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A. 수평 속도와 시간을 곱하면 알 수 있습니다.
 Q. 그 시간은 어떻게 구하나요?
 A. (당황함) 어..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는 시간과 내려가는 시간이 같아서 올라가는 시간을 알면 구할 수 있습니다.(횡설수설함. 시간을 구하는 식이 기억나지 않음.)
 Q. 그럼 각도에 따라 수평 길이나 높이가 다르잖아요?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A. 처음 수직 속도와 속도가 0이 되는 지점까지의 평균 속도와 시간을 곱하면 알 수 있습니다.
 Q. 언제 속도가 0이 되나요?
 A. 처음 수직 속도와 중력 가속도로 속도가 0이 되는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학습했던 내용이 기억날 수 있도록 질문을 계속해주신 듯함)
- Q.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탐구했는데, 모든 소리를 없앨 수 없었나요?
 A. 네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특히 말소리는 잘 들렸습니다.
 Q. 그런데 이게 노랫소리인지 말소리(노이즈)인지 어떻게 구별하죠?
 A. 저는 소리를 완전히 어떻게 없애는지 궁금했고, 노이즈를 구별하는 방법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Q. 네 알겠습니다. 그럼 푸리에 계수를 탐구했는데, 푸리에 계수가 뭐죠?
 A. 푸리에 계수를 알기 위해선 푸리에 급수를 알아야 합니다. 푸리에 급수는 주기를 가진 합성함수를 사인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 사인, 코사인 함수 앞에 곱해진 계수가 푸리에 계수입니다.
 Q. 그럼 그 합성함수를 이루는 사인 코사인 함수는 연속함수인가요?
 A. 저는 이산 푸리에가 아닌 연속 푸리에급수를 다루었습니다.

Q. 그러니까, 그 사인 코사인 합이 이산함순가요? 연속함순가요?

A. 연속함수입니다.(이건 사실 무슨 질문인지 아직도 모르겠음)

Q. 여기서 노이즈 캔슬링을 위해 무한 번의 계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를 양자 컴퓨터로 해결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럼 양자 컴퓨터의 원리가 뭔가요?

A.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를 이용하여 병렬적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Q. 큐비트 설명 좀 해주세요.

A. 큐비트는 양자의 중첩을 이용하여 고전컴퓨터의 비트를 대신합니다. 고전 컴퓨터에선 0과 1로 계산 했다면, 큐비트는 0과1을 동시에 계산해 병렬적 계산이 가능합니다.

Q. 혹시 큐비트가 만들기 힘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A. 아마 큐비트를 고립계의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데 그 기술이 아직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Q. 큐비트의 “~~~~ 이론” 아시나요? (생소한 이론이었음)

A. 아니요. 처음 들었습니다.

Q. 수학 대회 상을 넣어 주셨는데, 수학 내신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은데요?

A. 내신 시험은 제가 시험 문제만 줄곧 풀다가, 대회를 준비하면서 개념을 더 자세히 봐서 오히려 문제가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Q. 대회와 내신 시험이랑 큰 차이가 있나요?

A. 아무래도 내신은 변형 문제가 자주 나왔지만,

Q. 그럼 본인이 창의력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A. 네, 최대한 창의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혹시 본인의 창의력이 발휘된 그런 사례 있나요?

A. (당황함) 네. 제가 동아리에서 방사선 입자 궤적 실험을 했었는데, 이 실험이 실패를 해서, 그 원인을 알아보고자 변인을 다르게 해서 동시에 실험을 다시 진행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Q. 30초 정도 남았는데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A. 양자컴퓨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 중이고, 그만큼 어려운 분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공학자는 자신의 연구에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포기하지 않고 양자컴퓨터를 연구하고, 그 시작을 dgist에서 하고 싶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수학은 왜 안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2나 미적분 개념은 친구들 후기나 작년 후기를 보았을 때 알고 가는 게 좋을 듯싶다.

물2보다는 화2 개념을 중심으로 준비하였는데, 전공은 물리지만 화학 개념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는 수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모두 물1 물2 관련하여 질문하셨고, 그래서 포물선 운동은 답변이 매끄럽지 못했다.

혹시 모르니 일단 과학2 개념은 대부분 숙지해야 할 것이다.

전공 개념도 심화된 부분을 중심으로 준비했는데, 오히려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셨다.

지 스투 대 학 교

대학명	광주과학기술원	최종 합불현황	최종 합격
학과명	기초교육학부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예비번호 안 나옴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학교장추천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 본인확인 및 유의사항 전달(5분) - 면접(8분 또는 15분)		
기타 유의사항	교복 금지, 면접 보는 방 깨끗하게, 개인정보 말하면 안 됨		

질문 및 답변 내용

8분 면접

[질문]

-라디오존데에 관한 활동을 했던데 고층 분자 기상에 관심이 많은가요?

[답변]

-아니요 사실은 고층 기상을 연구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보다는 인터넷에서 성층권을 촬영한 영상을 봤는데 너무 멋있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고요. 여기에 각종 센서를 통해서 지구과학시간에 배운 내용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진행한 실험이라 고층 기상에 대한 큰 관심보단 멋있어서 한 활동이었습니다.

[질문]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뭔가요?

[답변]

-2학년 때 학교 주변 친구 한명이 혈액암에 걸려서 헌혈증 모으기 활동을 했었는데 시험기간이었지만 전날과 당일 시험공부를 포기하면서 태어나서 처음 헌혈을 하고 그 친구에게 헌혈증을 줬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질문]

-그 시험에서 점수와 활동 결과는 만족스러웠나요?

[답변]

-시험 점수는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제 시험 점수보다 그 친구를 살리는 일에 기여한 것이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질문]

-학교 와서 하고 싶은 일은 뭐가 있나요?

[답변]

-제가 하드웨어 분야와 소프트웨어 분야 모두 관심이 많은데 하드웨어쪽으로는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 구조를 연구할 것 같고 소프트웨어쪽으로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방법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답변]

-제가 지금까지 컴퓨터를 거의 독학으로 배워왔는데, 학교의 정규 수업과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공부하면 지금까지 제가 한 것들 이상의 것을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8분 동안 인성 면접만 봤다고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생기부만으로 보여서 더이상 안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 없어서 떨어졌나보다 생각할 필요는 없을 듯

GIST(광주과학기술원)

대학명	GIST	최종 합불현황	총원 합격
학과명	기초교육학부	총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예비번호 없음
전형유형	학생부 종합	전형명	학교장 추천 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시간	15분	
	인원수	면접 위원 수: 2, 조별 학생 수: 1	
	면접절차	면접장 대기 (수험표, 신분증, 면접환경 확인) - 면접장 이동	
기타 유의사항	ZOOM 비대면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우리 GIST에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네 안녕하세요!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준비했던 멘트)

- 학교생활이 전반적으로 어땠나요~?
- 대체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 본인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 저의 장점이자 단점은 욕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아서 어떤 일을 하든 저의 최대치를 끌어내려고 노력하지만, 그만큼 감정적으로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 학교장 추천전형으로 지원하셨는데, 고교가 본인을 왜 추천한 것 같나요?
- 여러 선생님들께 성실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선 어떤 자질이 필요한 것 같나요?
- 배려와 선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예를 들어줄래요?
- 1학년 때 저희 학교에 매점이 있어 교실 환경이 매우 쾌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부실장이던 저는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2학기때 분리수거 담당에 기꺼이 자원하여 담당 친구와

함께 환경 개선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쓰레기통 주변이 매우 청결해졌고, 친구들의 행동에도 큰 변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 아까 본인이 욕심이 많다고 했는데, 리더십이 뛰어난 것과 욕심이 많은 것은 상반되지 않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욕심은 남을 깎아내리며 내가 더 잘 할거야!와 같은 욕심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만족을 위한 욕심이기에 때문에 리더십과 상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저희 학교가 동아리는 물론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입학하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나요?

- 저는 기회가 된다면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학부생일 때부터 수소에너지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할 연구에 참여하여 꼭 저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 학교 활동 중에 어떤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 과학중점활동의 행사를 직접 계획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10초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 네! 저는 GIST의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경험을 쌓아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지역 국가 더 나아가 세계의 혁신을 창조하는 GIST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GIST에 진학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 전 관련 학과나 학교 홈페이지 정독은 필수예요!! 학교에서 어떤 방향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강점으로 생각하고 자랑하는지를 파악하면 간절한 마음이 좀 더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밝고 명랑한 태도도 한몫한 것 같아요. 많이 긴장되겠지만 되도록 티 내지 말고 성실하게 답변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홈페이지 Q&A에 분명 자기소개가 없다고 나와 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자기소개해달라고 해서서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일단 자기소개는 준비하세요..! (참고로 면접 6번 봤는데 GIST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기소개 요청했습니다.. 그래도 준비해놓는 게 좋습니다.)

수능 일주일 전 면접이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질문이 생기부나 자소서 관련해선 전혀 없었어요! 간단한 인성면접같으니 너무 부담갖지 말고 지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학기술원들이 아무래도 과학고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경쟁률이 높아서 걱정이 많이 되겠지만, 학교에서 했던 과학중점활동들도 충분히 경쟁력 있습니다. 수시 6개에 포함되지 않으니 한 번쯤은 지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광 주 과 학 기 술 원

대학명	지스트	최종 합불현황	예비
학과명	무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과기원의 경우에는 예비번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전형유형	학교장 추천 전형	전형명	학교장 추천 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였고, 집에서 줌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 화면상으로 보았을 때 대학 강의실에 3분의 면접관께서 앉아계셨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약 15분간 진행되었고, 세분이 학교활동과 물리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인성관련질문을 각각 담당하셨습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1. 지원동기

-저는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습니다. 1학년 국어시간 책을 읽고 장애인 인권 문제를 탐구하면서 편견이 미고용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3학년 사회문제탐구시간에 AI채팅으로 신입견을 제외하고 구인구직 매칭과 이력서 작성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프로그래밍라는 것이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래밍을 신청하며 주도적으로 배움의 기회를 얻고자했던 저의 자세가 세계와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지스트에 딱 맞는 학생이라고 생각했고 이에 지스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1학년 한국사 시간에 탐구한 온돌과학적 원리와 첨성대 수학적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구들장을 통해 열을 전달하고 대류를 통해 통과하면서 방바닥을 데워주는 원리로 열전도를 이용한 난방 방식의 일종입니다. 첨성대는 모든 직각 삼각형에 적용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하여 3 : 4 : 5로 설계하였습니다.

3. 굳이 첨성대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당시 즉 신라시대 때에는 가장 혁신적인 원리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함으로써 더욱더 안정적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4. 피타고라스 정리가 그 시대에도 존재했나요?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말로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비율관계에 대한 식이 존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방금전 3 : 4 : 5라는 비율이 모든 직각 삼각형에서 적용된다고 말했는데 모든 직각 삼각형에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까?

-네, 저는 3 : 4 : 5 비율이 다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6. 그렇다면 학생의 말은 납작한 직각 삼각형이든 부피가 큰 직각 삼각형이든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 부분까지는 탐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스트에 입학한다면 꼭 그 부분까지 탐구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a^2 = b^2 + c^2$ 으로 모든 직각삼각형은 3 : 4 : 5의 비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접 당시에는 긴장을 많이 하여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7. 자율주행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굳이 장애물을 인식하는 거리가 300cm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초음파센서가 인식할 수 있는 거리와 장애물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최적의 거리가 300cm이었습니다.

8. 그렇다면 300cm를 3m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코딩하는 과정에서 단위를 다르게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9. 아니, 초음파센서가 3m로 인식하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해주세요.

-저는 프로그래머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코딩하는 작업을 중점으로 두고 진행하였기 때문에 초음파 센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10. 전자기유도현상에 대해서 탐구하였는데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전자기 유도는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변하여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으로 자석의 속력이 빠를수록, 코일의 감은 수가 많을수록 유도전류의 크기가 증가합니다.

11. 탐구한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페이지랭크는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웹사이트 검색 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으로 수학 원리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류와 선별이 필요합니다.

먼저 각각의 홈페이지를 점으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링크된 다른 페이지를 누리는 것을 점끼리 연결한 선이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에 대응하는 행렬을 만들어 행렬 변환을 시도해 최종적인 행렬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순위를 매겨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행렬은 실수나 복소수 등의 숫자가 들어간 구조로 가로줄을 행, 세로줄을 열이라고 부릅니다.

12. 지스트의 인재상에 맞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지스트의 인재상 중 하나는 의사소통능력이고 저는 3년 동안의 학교생활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가장 큰 활동으로는 학생회 활동이 있습니다.

3대 100행사는 제가 학생회 임원으로서 처음으로 기획부터 진행까지 담당했던 행사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퀴즈 대결을 하며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눈이 좋지 않은 친구와 다리를 다친 친구들의 불편함을 알아차리고 학생회 회의를 주간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에 다음 행사 때는 글자크기를 늘리고 틀린 학생들이 이동하는 대신 빨간 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완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모두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12-1. 의사소통능력 말고도 창의성과 협동심도 있다는 점도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알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능력 하나를 뽑아 말씀드렸습니다.

13. 답변하지 못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30초 이내에 말씀해주세요.

-제가 답변하지 못한 내용은 지스트에 꼭 입학하여 탐구하며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지스트의 차별화된 기초교육학부에 입학해 폭넓은 지식을 배우고 전기전자컴퓨터공학을 전공하여 배운 기초지식들을 융합해 저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싶습니다. 졸업 후에는 AI대학원에 진학해 특히 기계학습과 딥러닝을 심화적으로 배우며 이를 활용한 연구로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든 따스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되어 대한민국과 지스트를 빛낼 수 있는 학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초반 질문부터 1학년 때 활동이 질문으로 나와 꽤 많이 당황했습니다. 혹시 몰라 준비는 해갔지만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 관련 활동은 학년을 가리지 않고 준비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각 질문에 달려오는 꼬리질문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한 활동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철저하게 알고 가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긴장해서 알고 있는 내용도 답변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긴장을 덜어내고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만큼은 확실하게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ENTECH(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학명	KENTECH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격
학과명	에너지공학부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 종합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시간	학생부 기반 면접 20분 + 창의성 면접 30분 + 25분	
	인원수	면접 위원 수: 2, 조별 학생 수: 1	
	면접절차	오전 학생부 기반 면접 : 수험표, 신분증 확인 - 대기 - 조마다 이동 - 면접실 입실 - 면접 진행 오후 창의성 면접 : 대기 - 조마다 이동 - 문제풀이실 입실 - 문제풀이 - 면접실 이동 - 입실 - 면접 진행	
기타 유의사항	하루종일 면접 진행, 서류 50% 면접 50%		

질문 및 답변 내용

<학생부 기반 면접>

○ 학교 생활이 대체로 어땠나요?

- 전반적으로 아주 순탄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크게 기여했거나,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나요? 없으면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 저희 학교 친구들이 대체로 착해서 큰 갈등은 없었지만, 굳이 하나 꼽아보자면, 1학년 때 매점이 있어서 학급 분리수거함이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당시 부실장이었던 저는, 친구와 함께 2학기 분리수거 담당을 자원하였고, 같이 하나하나 열심히 청소하다 보니 친구들의 행동이 변화하고, 이후 더 쾌적한 학급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소서 2번 내용)

○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유기화학에 대해 공부했던데, 어떻게 유기화학을 접하게 되나요?

- 제가 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 후에 내가 연구를 하려면 더 자세히 알아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화학1 시간에 '플라스틱은 탄소화합물이다'는 개념을 배워서 탄소화합물을 주로 다루는 유기화학을 공부해보자!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유기화학 학문이 많이 어렵진 않던가요?

- 네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학문이 그렇듯 한번 보고 또다시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니 쉽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제가 유기화학의 전부를 알고 있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한번 공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배운다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저는 연구분야에 대한 애정과, 끈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 (준비한 멘트 말씀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볼게요. 연구를 하다 보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해결할 것 같나요?

- 저는 우선 주변분들의 도움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의 생각이 합쳐지면 어떤 난제도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학교생활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 열심히 답변했습니다.

<창의성 면접>

문제풀이실에 들어가면 봉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장의 카드와 연습종이, 문제들이 있어요. 30분 동안 그 문제들을 차분하게 풀고, 조별로 면접실로 이동합니다.

면접실에 들어가면 본인이 생각한 답변을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일사량, 해류의 방향, 풍속, 풍향을 고려해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를 어디에 설립하면 가장 적합할지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큰 종이에 마을이 그려져 있는데, 스티커로 제가 생각한 적합한 장소를 말씀드리면 됐어요! 면접관분들이 여러 질문들을 해주십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의 과정을 차분히 설명드리면 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KENTECH는 에너지공과대학이기 때문에 환경에 관심이 많고, 환경문제에 누구보다 진심이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성 문제 또한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평소 관심이 많았던 학생이라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KENTECH 면접은 인성을 가장 많이 봅니다. 면접관분들과 45분 남짓 면접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성실히, 예의 바르게 답변한 것이 가장 큰 합격이유일 것 같아요!

• 면접 분위기

제가 했던 면접 중에 가장 편안하고 유쾌한(?) 분위기였습니다. 너무 긴장하고 있으면 차분히 천천히 말해도 된다고 얘기해주세요. 면접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른 면접보다 더 자세히,

길게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학생부 기반 면접을 진행한 면접관 분들이 그대로 창의성 면접도 진행하시기 때문에 친근감도 느껴지고 편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

• KENTECH 면접

거의 4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하루종일 호텔에서 면접을 합니다. 오전은 학생부기반, 오후는 창의성면접이라 정말 오랜 대기시간을 버텨야 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과자나 과일, 중식도 제공되어서 좋았습니다. 조별로 이동하고, 오후 창의성 면접이 끝나는 대로 귀가할 수 있어요. 저는 10조..여서 일출 때 들어가서 일몰때 나왔습니다. KENTECH가 2022년 기준 처음 만들어지는 학교이다 보니 학생 유치에 정말 많은 힘을 씁니다. 1차 합격 때 후드집업과 여러 가지 기념품을 보내줍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후드집업을 입고 면접을 봤어요. 그만큼 편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면접이 끝나면 교수님들이 학교에 대해 말씀해주십니다. 정말 새로운 면접이었어요.!

• 창의성 면접

학생부 기반 면접과는 달리 창의성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딱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모의기출문제만 조금 봤던 것 같아요. 누구든 충분히 풀 수 있는 난이도로 주어지기 때문에 별로 큰 부담은 안 가져도 됩니다! 30분동 안 풀때 시계가 없기 때문에 꼭 손목시계 정도는 챙겨가세요. 창의성 면접의 제시문은 정답이 없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면접관분들께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대학명	서울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불
학과명	의류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지역균형선발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 학생부, 자소서 기반 면접		
기타 유의사항	없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미술사 수업 중 생자필멸 전시회에서 특별히 중점을 두고 한 활동 있나요?

[답변] 도슨트 역할에서 현대미술 작품 해석에 중점 두고 활동했습니다. 데미안 허스트의 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불가능성이라는 작품을 해석할 때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에서 배운 하이데거의 철학을 적용해 해석했습니다. 그 결과, 현대미술이 난해하게 느껴졌던 이유가 작가의 철학이 내재되어있음을 깨달으며 미술에 대한 지식을 한층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문화 색채심리실험 탐구 느낀 점이 있다면 말해주고 이를 의류학과 연관 짓는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답변] 색채실험 탐구 후 느낀 점은 동일한 색채라도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의류와 관련짓는다면, 향후 패션 디자이너로서 옷감의 색을 선정할 때 내가 타겟으로 하는 대중들이 현재 어떤 사회적 정서를 겪고 있는지, 그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선정해야겠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지원동기와 진학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말해주세요.

[답변] 저는 원래 영상 계열에 관심이 많아서 팀버튼이나 아담 엘리엇 감독 등의 영상을 보며 그 스토리 텔링을 디자인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 제 내면적 성장 스토리를 영상으로 만들어봤는데, 우연히 민주킴 브랜드의 철학과 디올의 오프 꾸뛰르 영상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인간과 가장 밀접한 의류는 스토리를 보다 생동감있게 전달할 수 있는 매개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류에 스토리텔링을 더해 관객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자 의류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진학 후에는 이런 제 자신만의 브랜드를 론칭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답변] 저는 제가 대학에 입학한다면 향후 4년간의 시간이 결코 즐겁지만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디자이너는 1000장의 스케치를 통해 완성작의 10분의 1을 만들어내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4년간의 시간을 화려한 나비가 되기 위한 번데기로서 고통스러워도 참으며 성장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학창 시절에 생기부 활동을 열심히 했다면 서울대 지균 면접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생기부를 반복해서 보면서 각 활동의 간략한 활동 내용과 느낀 점을 되새겨보세요. 특히 도서목록은 간략한 느낀 점을 정리해둔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입시 생활을 응원합니다!

연 세 대 학 교

대학명	연세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
학과명	생활디자인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교과전형	전형명	학교장추천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 비대면 녹화 방식 - 랜덤으로 제시문 출제 - 문제 풀이 (8분) - 면접 녹화 (5분)		
기타 유의사항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참고용으로 예상 기출 문제 출제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I. 제시문

(가) 조선시대 선비들

: 노동은 근면성실하게 해야 한다. 자신이 할 일이 있으면 밤 새서라도 해야 한다.

(나) 비문학 지문

: 노동은 근면성실하다고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첫째, 과학기술이 발전한 지금, 예전에는 60만km 일했다면 지금은 기계가 30만km의 노동을 대체해준다. 즉, 인간은 30의 노동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얻는 것이다. 둘째, 노동뿐만 아니라 여가의 중요성이 커졌다. 인간이 노동을 하는 진정한 이유는 여가에서 비롯된다.

(다) 개미와 베짖이 이야기

: 노동을 열심히 안 한 베짖이는 추위에 떠느라 죽고 개미는 살아남아서 베짖이를 비웃는 이야기.

(라) 표, 그래프 출제

: A, B, C 각 나라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비율을 나타낸 표 & 2개월 후, 3년 후 각국의 생산성과 효율성 드러낸 그래프 두 개 출제

II. 문제

1. '나' 제시문을 읽고 '가', '나'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논해보세요
2. '가', '나', '다' 해석한 결과를 토대로 '라' 그래프를 해석해보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나 제시문의 화자는 노동이 근면성실하기만 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가내수공업이 주로 이뤄지며 개인의 근면함이 중시됐지만, 이젠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과학기술이 발전한 지금, 예전에는 60만쯤 일했다면 지금은 기계가 30만쯤의 노동을 대체해줍니다. 둘째, 현재 인간은 여가에서 노동의 기쁨을 성취합니다. 즉, 인간이 노동을 하는 진정한 이유는 여가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나의 화자는 가, 다에 대해 조금 비판적인 입장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가의 화자가 말하고 있는 조선시대는 가내수공업이 주를 이루어서 근면함이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현재 과학기술이 발전한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둘째, 다 제시문의 이야기는 노동보다 여가를 중시한 베짖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나의 화자는 여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짖이와 개미를 배척하고 한 진영에 대해 비판할 것이 아니라, 개미와 베짖이 각 성향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라 그래프를 해석해보겠습니다. 3개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A국입니다. A국은 노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100퍼센트인데, 통념에 따르면 A국의 생산성과 효율성은 항상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개월 후에는 높았지만 3년 후 A국의 생산성, 효율성은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B국을 살펴보겠습니다. B국은 3:7의 비율로 노동을 열심히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비율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좋은 예시입니다. 왜냐하면 3년 뒤에도 생산성과 효율성이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C국은 노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8:2로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개월, 3년 후 모두 저조한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나타나며 좋은 예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사회의 베짖이들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양 진영 간의 의견 대립과 비판이 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청회나 국민 회의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며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배려심과 이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이번에 새로 생긴 연세대 추천형 전형은 기출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하여 마무리 멘트의 요점은 ‘사회 통합’, ‘민주적 의사소통’으로 잡자고 생각한 채 시험에 임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기출 분석을 통해 잡아낸 연세대의 인재상에 불과합니다. 후배 여러분들도 이 전형에 지원한다면 선생님과 함께 기출 분석과 답변 연습을 반복하며 대학에서 원하는 답변을 찾아 내가고 깔끔하게 말하는 연습에 주력한다면 후회 없이 면접을 마치고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불합격
학과명	디자인공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예비 3번
전형유형	생기부+면접	전형명	지역인재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 면접관과 1대1 - 전공적합성 면접을 먼저 본 후 옆방으로 이동해서 인성면접을 봄. - 면접당 10분씩 진행.		
기타 유의사항	신분이 드러나는 복장 착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전공적합성

[질문] 디자인공학과를 알아보면서 다른 학교에도 디자인공학과가 있는데 왜 굳이 한기대에 지원하였나요?

[답변] (다른 학교의 디자인공학과와 한기대의 디자인공학과 교육과정의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한기대의 교육과정을 따라 학습하는 것이 나와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지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질문] 디자인에 대해서 스스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답변] (이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어서 벅거렸는데 좀 더 차분하게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답변] (이때 처음에 동기를 물어보시지 않아서 왜 이 학과를 지원하였는지 얘기하고 한기대의 이러한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지원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인성

[질문] 본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답변] (장점과 단점은 계속 생각하고 있던 질문이어서 생기부에 써져 있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어우러지게 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질문] 친구들과 활동을 하다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요?

[답변] (이때 가장 모범적인 답변을 해서 그런지 계속 그래도 친구와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고 자~꾸 물어보셨는데 저는 계속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답변하였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과별로 예시 문항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준비한 문항들이 나오지 않고 새로운 질문들이 나와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차분하게 얘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분위기가 생각보다 너무 차분해서 긴장을 많이 했지만 면접관님들은 친절했습니다. 저는 긴장하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면접장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면접준비로 종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들은 도착하면 제출하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할 분은 종이를 출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면접 순번이 빨랐기 때문에 더더욱 준비할 시간은 많이 없었고 순번이 늦은 사람들은 준비할 시간이 넉넉하고 늦게 끝납니다. 이 순번은 면접장에 들어가서 알 수 있으므로 잘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한 질문들에 이어서 계속 꼬리질문을 하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든 예상가는 질문들은 모두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불합격
학과명	디자인공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예비 8번
전형유형	생기부+면접	전형명	창의인재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관과 1대1 - 전공적합성 면접을 먼저 본 후 옆방으로 이동해서 인성면접을 봄. - 면접당 10분씩 진행. 		
기타 유의사항	신분이 드러나는 복장 착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전공적합성

[질문] 우리 학교의 디자인공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디자인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경험들을 섞어서 다른 학교의 디자인공학과와 한기대의 디자인공학과 교육과정의 차이점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기대의 교육과정을 따라 학습하는 것이 나와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지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앞서 얘기한 경험들에 대해 꼬리 질문을 하였고 만약에 디자인을 한다면 어느 쪽으로 하고 싶냐고 얘기하셔서 인테리어와 요즘 많이 떠오르는 인공지능과 IT 등등 주요 키워드를 섞어서 답변하였습니다.)

[질문] 디자인공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물리학도 중요하고 수학도 중요한데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이었나요?

[답변] 정보와 수학입니다. (이때 꼬리질문으로 수학에 대한 문제를 하나 내셨는데 미지수가 있는 삼차방정식이 있을 때 이 미지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셨고 답변 하였더니 수학이 중요해서 기본적인 걸 물어보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질문] 혹시 마음에 드는 조각상이나 작품이나 물모델이 있나요?

[답변] (저는 면접을 보기 전에 한기대에 대해 조사를 많이 했는데 한기대를 상징하는 조각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를 엮어서 대답하였고 면접관님의 좋은 반응을 본 것 같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답변] (제가 원래 알고 있던 디자인과 디자인공학과에 대해 조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공학과에 대한 꿈을 확신하였다고 얘기하였고 한기대의 맘에 드는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가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인성

[질문] 이 면접 전형은 창의인재입니다. 창의력이 있는 학생들을 뽑는 전형인데 창의력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창의력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라 머리를 엄청 굴린 기억이 있는데 많이 버벅거리어서 좀 더 여유롭게 얘기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먼저 제가 생각하는 창의력에 대해 얘기하고 한기대의 교육목표를 같이 얘기하면서 창의력의 중요성도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질문] 본인의 창의력을 상, 중, 하에서 판단한다면 무엇인가요?

[답변] 저는 중상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머뭇거렸는데 어떤 대답이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건축 관련으로 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활동을 하였나요?

[답변] (학교의 한 부분을 다시 디자인해보는 활동을 하였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기부에 환경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디자인과 환경을 엮어서 답변하였습니다.)

[질문] 읽은 책들 중에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나요?

[답변] (저는 환경에 관한 책이 많았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면서 해볼 수 있는 디자인들을 예를 들어 같이 얘기하였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과별로 예시 문항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준비한 문항들이 나오지 않고 새로운 질문들이 나와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차분하게 얘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분위기가 생각보다 너무 차분해서 긴장을 많이 했지만 면접관님들은 친절했습니다. 저는 긴장하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면접장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면접준비로 종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들은 도착하면 제출하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할 분은 종이를 출력하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면접 순번이 빨랐기 때문에 더더욱 준비할 시간은 많이 없었고 순번이 늦은 사람들은 준비할 시간이 넉넉하고 늦게 끝납니다. 이 순번은 면접장에 들어가서 알 수 있으므로 잘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한 질문들에 이어서 계속 꼬리질문을 하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든 예상가는 질문들은 모두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국대학교

대학명	건국대학교(충주)	최종 합불현황	최초합
학과명	뷰티화장품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cogito 자기추천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면접시간	10~15분	
	인원수	면접 위원 수: 2명, 응시 학생 수: 12~24	
	면접절차	대기실에서 대기하며 핸드폰 제출→신분증 검사→호명이 되면 도우미를 따라 면접실로 입실→ 면접 진행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의사항 : 전자기기는 볼 수 없으므로 종이로 뽑아가는 것을 권함 (특히 생기부) - 면접실 분위기 : 다들 자기 순서가 될 때까지 생기부를 열심히 봄, 정숙한 분위기 - 교복 착용 여부 등 기타 참고할만한 사항 : 교복을 착용한 학생은 없었음, 단정하고 깔끔한 것이 좋음(정장식), 자기소개가 없음 		

질문 및 답변 내용

- 질문 : 신발이 너무 예쁘네요~ 헤어스타일은 원래 그런가요? 메이크업도 깔끔하네요 본인이 직접 하신 건가요?
- 답변한 내용 : 네. 저는 남들과는 다르고 눈에 튀는 걸 좋아합니다. 메이크업도 제가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런진 모르겠지만 칭찬을 엄청 많이 하심.)

- 질문 : 자, 이제 시작할게요. 1학년 때 틴트형 화장품을 기획했는데 이걸 어떤 건가요?
- 답변한 내용 : 1학년 통합사회 시간에 진로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 활동했습니다. 그중에서 화장품에 관심이 있었던 제가 의견을 내어 화장품을 주제로 기획했습니다. 일반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 손등에 덜어 사용하기 때문에 손에 묻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틴트형 파운데이션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해 보았습니다.

- 질문 : 영어 시간에 화장품과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화장품BM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 답변한 내용 : 저는 화장품BM에겐 소비자의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심리학을 수강해 심리에 대해 더 공부했습니다.

- 질문 : 취업을 한다면 어디에 하고 싶나요?
- 답변한 내용 : 아모레퍼시픽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 질문 :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모레를 가고 싶어 하는군요. 아모레 중 어느 화장품에 들어가고 싶나요?
- 답변한 내용 : 저는 에스쁘아 화장품 회사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 질문 : 아모레에서 에스쁘아를 많이 밀어주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괜찮나요?
- 답변한 내용 : 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 질문 : 왜 에스쁘아를 들어가고 싶나요?
- 답변한 내용 : 에스쁘아는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제가 원하는 블링블링하고 핑크핑크한 색감과 다른 제품에서는 볼 수 없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 질문 : 중국어 시간에 한국 화장품과 중국 화장품에 대해 비교한 적이 있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 답변한 내용 : 제가 조사한 바로는 중국 같은 화려한 패키지와 강한 색감을 가진 화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경극같이 눈에는 눈, 코는 코.)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 자연스럽고 청순한 이미지의 메이크업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 (공격 질문) 질문 : 그건 경극에서만 그런 거 아닌가요?
- 답변한 내용 :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질문 : 출결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혹시 어디 아팠나요?
- 답변한 내용 : 2학년 때 속이 좋지 않아 조퇴한 적이 많았습니다. 정말 솔직한 말씀 드리면 참을 수 있었지만 조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질문 : 근데 수상 내역을 보면 체육은 100점이네요.. 이게 어떻게 된거죠?
- 답변한 내용 :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운동 중입니다.
- 질문 : 어떤 운동을 주로 하나요?
- 답변한 내용 : 공복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 질문 : 혹시 목표 몸무게가 몇 키론가요? 다이어트 하는 이유는 뭐죠?
- 답변한 내용 : 저는 55kg까지 빼고 싶습니다. 대학교 들어오기 전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 질문 : 2학년 동아리 시간에 비누 만들기 활동은 어떤 건가요?
- 답변한 내용 : 비누 만들기 활동 같은 경우 쉽고 간단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손씻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아리원들과 비누를 만들어 각 층 화장실에 배부한 후 친구들의 관심을 받아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 질문 : 그럼 마지막으로 자신을 어필해 주실래요?
- 답변한 내용 :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의 결실은 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뷰티 화장품학과에 입학해 건국대 글로벌 캠퍼스를 알릴 수 있는 화장품BM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후배들을 위한 조언

- 합격한 이유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한다.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가고 싶지 않은 대학이었지만 열심히 준비하는 면접자들을 보면서 괜히 긴장됐다.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임했다. 생기부는 나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내가 했던 활동들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기부를 잘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 예상 질문들을 뽑았지만 거기선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자신의 생기부의 남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들을 뽑아 사전에 연습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건국대학교

대학명	건국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화장품 공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최초합
전형유형	학생부 종합	전형명	KU 자기추천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국대학교 건물 내 학과별 지정해준 방으로 들어감. • 그 방에 컴퓨터가 놓여있고 비대면으로 면접 진행. • 교수님 한 분, 입학사정관 한 분과 학생 한명 2:1로 진행 • 면접 시간은 약 10분 • 입장 후 자기소개 없이 바로 질문 시작. • 약 10분 정도가 지나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고 마무리. 		
기타 유의사항	<p>면접 시간이 좀 짧아서 그런지 질문하고 답하면 바로 다음 질문이 연달아 나오고 뭔가 굉장히 스피드하게 진행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대답하다 보면 순식간에 훅 지나가는 느낌이에요.</p>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발효 화장품이 무엇인가요?

[답변] 미생물이 갖고 있는 효소가 원재료를 변형시켜서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성분 물질들이 피부에 쉽게 흡수되도록 만들어진 화장품을 말합니다.

[질문] 그럼 발효 과정이란?

[답변] 미생물이 원재료를 더 작은 산물로 분해시켜 피부에 흡수되기에 용이한 물질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발효과정에서 특정환경조건이 전제되어 있는데 알고 있는지?

[답변] 무산소 호흡 조건입니다.

[질문] 1학년 때 주의해야 할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발표했다고 했는데, 주의해야 할 3가지 성분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답변] 이소프로필메칠페놀, 미네랄 오일, 아보벤존이 있습니다.

이소프로필메칠페놀은 피부점막 자극성이 강해서 여드름을 유발할 위험이 있고,

미네랄오일은 석유에서 추출한 오일인데 피부 호흡을 방해합니다.

아보벤존은 햇빛을 만나게 되면 활성산소를 생성하여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질문] 화장품 안정제로 사용되는 성분에 대해서는 아는 것 없나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학교에 와서 깊이 있게 배우고 싶습니다.

[질문] 미적분 등급이 좀 낮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답변] 수학 공부도 늘 열심히 하는 편이었지만 저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다보니 학교시험은 변별력을 주기 위해 단시간 내에 문제를 빨리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역량이 부족했던 저로서는 내신 등급을 받는데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부족한 유형들을 따로 정리하는 오답 노트를 만들고, 이와 비슷한 유형을 반복적으로 풀어내는 연습을 한 결과 3학년 때는 성적향상을 크게 이뤄낼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질문] 2, 3학년 모두 과학탐구를 3과목 들었는데 이과 학생들의 경우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그렇게 시키는 건지?

[답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명, 화학은 화장품 연구원을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기초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했고, 지구과학을 선택한 이유는 지구과학에 나오는 다양한 광물들 중에 화장품의 원료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흥미를 가지게 되어 선택하였습니다.

[질문]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지 않고 기하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답변] 고급화학에 등장하는 '분자충돌이론'에서 분자들이 충돌하는 방향에 따라 유효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충돌 방향을 계산하는 부분에서 기하의 원리가 이용된다는 것을 알고 흥미를 갖게 되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킬레이트제란 무엇인가요?

[답변] 화장품에는 미량의 금속들이 들어 있는데, 이 금속들이 화장품의 성분들을 변질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킬레이트제인데, 금속 원소들이 화장품 성분들과 결합하여 변질되기 전에 킬레이트제가 대신 결합하여 화장품을 더 안정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질문] 2학년때 친구들과 직접 폼클렌징을 만들어보며 그 과정에서 PH를 평가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ph에 맞추려고 했는가?

[답변] ph측정 종이를 이용해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ph7~8 정도의 중성에서 약염기 정도의 ph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질문] 보통 폼클렌징을 만들 때 약산성에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약염기로 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세정력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질문] 다음에 다시 한번 폼클렌징을 만든다면 어떤 폼클렌징을 만들고 싶은가?

다음에는 ph6정도의 약산성 폼클렌징을 만들어 민감성 피부의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질문] 피부 장벽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pH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했는데, PH의 차이가 외부자극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답변] 피부에는 피부피지보호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피부에 염기성 성분이 많으면 약산성을 띠는 피부피지보호막이 쉽게 벗겨지게 되고 자극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pH가 10에 가까울수록 민감성 피부인 것이고, 피부피지보호막이 두껍게 형성되어있어 과다한 피지가 분출하는 경우가 지성피부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답변] 화장품은 예전에는 꾸미는 것에 초점이 맞춰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토피 피부를 위한 화장품부터 탈모에 관련된 제품들도 많아서 과학적인 부분들도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고등학생 때부터 화학과 생명과학에 걸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건강과 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공학자가 되고자 합니다. 저만큼 화장품 분야에 절실한 사람도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꿈을 이제 건국대학교 화장품 공학과에서 펼쳐보고 싶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내신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에게는 성적이나 과목선택 관련 압박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본인이 낮은 성적을 받은 이유, 극복한 과정까지 차분하게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예상했던 질문 그대로 물어볼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생기부, 자소서를 바탕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질문들을 꿰고 있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 나오더라도 기존 준비했던 답안들을 조합해서 충분히 대답해낼 수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대학명	건국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경영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18번
전형유형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명	KU 자기추천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대학교 건물 내에서 비대면 화상 면접 실시		
기타 유의사항	화상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 평가자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수 있고, 나의 목소리도 면접 평가자가 잘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대답하고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생활복을 학생회에서 만들 수 있었는데, 학교협동조합을 이용해서 만든 이유가 있나요?
 [답변] 우리 학교 주변 삶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것이 학교협동조합의 설립취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협동조합에서 주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 문제인 교복 미착용 문제를 찾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복을 학교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제작했습니다.

[질문] D2C 모델에 대해서 탐구를 하셨는데, D2C 모델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D2C 모델은 Direct to Customer의 줄임말로 기업이 고객에게 직접 다가가서 판매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중간기존 유통 플랫폼을 제외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직접 마주하여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중간 유통 플랫폼에서 얻었던 간접적 데이터에서 소비자의 직접적인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질문] 국제 경제 시간에 코로나19가 국제 경제에 미친 영향을 항공사들의 적자 요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탐구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 항공사들의 적자 요인과 극복하기 위한 전략 하나씩 답해주세요.
 [답변] 항공사들의 가장 큰 적자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산업의 타격입니다. 항공사는 여행 사업을 가장 중요하게 다룹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국가가 국경을 닫고, 사람들의 이동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행산업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항공사들의 적자 요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적자를 극복하고 여행사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 국내여행사들은 국내 무착륙비행과 같은 여행상품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주세요.

[답변] 건국대 경영대학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경영대학의 핵심가치는 문제 해결력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키워 실무 능력을 가진 인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핵심가치는 경영컨설턴트를 꿈꾸고 있는 저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여 건국대 경영학과에 와서 꿈을 키우고 싶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tip. 저는 위와 같이 크게 4개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이사이마다 꼬리 질문을 계속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저와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플랫폼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이죠?’, ‘국제 경제인데 국내 기업만 조사하신 건가요?’ 등의 꼬리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활동, 그리고 생기부의 모든 내용을 완전히 파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바로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생기부와 자신의 활동에 대해 완벽히 파악한 상태라면 어떻게 꼬리 질문이 나오든지 모두 대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산업경영학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예비4번
전형유형	학생부 종합	전형명	창의인재 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 전공적합성 10분 + 인성 10분 - 인원 수 각각 1:1 여러 검사 후 대기실 입장-> 대기 후 면접 실 입장 -> 한 방에 교수님 (혹은 입학사정관) 한 분씩, 총 두 방에 들어가 면접응시		
기타 유의사항	보통의 대학교보다 10분 정도 면접시간이 길어서 마지막 번호였는데 5시간 대기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첫 번째 방>

○제일 잘 본 과목과 못 본 과목은?

-잘 본 과목-영어, 못 본 과목 -중국어

○왜 둘 다 언어인데 하나는 잘 보고 하나는 못 봤지? (웃으면서 물어보심)

-영어는 어렸을 때부터 꾸준한 학습이 있었지만 중국어는 고등학교 와서 처음 배우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어의 부족한 성적은 ~~한 활동을 하며 부족한 점을 채워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그럼 잘 본 과목인 영어는?

-영어는 '자기 극복 프로젝트'를 통해 올려갈 수 ...

(여기서 말을 끊으시고 바로 자기극복 프로젝트를 물어보심)

○자기 극복 프로젝트가 뭔데?

-학습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우고~~~한 활동을 하여 영어 성적을 올려갔다.

○생기부에 있는 책들은 다 직접 고른건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읽으라고 해서 읽은 건가?

(여기에서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는지를 묻는 티가 많이 났음)

-직접 골랐다

○그럼 'ESG혁명이 온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ESG가 뭔가요?

~~,책임 경영 등 투명경영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로그를 뛰어넘는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바이럴 마케팅이 뭐냐?

-바이럴은 바이러스가 퍼지는 듯한 모습을 보고 붙여진 이름인데 이름처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산해나가는 마케팅 형식이다.

○경영 경제와 관련되어서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배웠는가?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경제

○2학년 경영 동아리에서 뭘 했냐?

-동아리원들끼리 회사를 운영하고 물품을 제작하여 판매

○그 물품은 직접 만들어서 판매한 건가? 학생이나 선생님을 대상으로 판건가?

-직접 만들./ 선생님 학생 모두에게 판매

○꿈이 콘텐츠마케터라고 했는데 콘텐츠 마케터가 뭘데?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 정확히 뭘지 설명해봐라

-콘텐츠마케터에 대해 설명

○아까도 우리 학교의 여러 커리큘럼에 대해 언급하긴 했지만 우리 학교 커리큘럼 중 배워보고 싶은 걸 얘기해봐라

-찾아간 커리큘럼 두세 개를 이야기함.

<두 번째 방>

(1학년 동아리가 ‘공대생’이라는 동아리였음)

○공대생? 공대생이 뭐야? 아 동아리야? 그럼 여기서 뭐 로봇 인공지능 이런 거 배우냐? 한 번 네가 얘기해봐 (공대생이라는 동아리에 매우 흥미를 느껴 하시는 게 보였음)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 사회를 선도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배웠다.

○오~~로봇에 대해서는 뭘 배웠지?

-로봇공학자, 가정용로봇 등등

○또 다른 건?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뭘 배웠나?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등

○오~내가 로봇 커리큘럼?(프로그램?)을 계획 중이었는데! 그 수업을 들으면 잘 맞겠네~ 근데 그거는 좀 어려울 텐데 잘 할 수 있냐?

-잘할 수 있다.

○컴퓨터에 대해서도 다룰 텐데 그거에 대해선 배워본 적은 있나?

-컴퓨터 그래픽 수업을 들은 경험이 있고 정보시간에 코딩을 배워본 적이 있다.

○이 학교 어떤가? (생각보다 위의 질문들이 빠르게 넘어가고 이 질문으로 왔음)

-대기하면서도 계속 봤지만 깨끗하고 쾌적하고 좋았다.

○음~다행이네~ 더 궁금한 거 있어?

-(이건 생각을 못 해와서 빨리 뭐 물어볼지 생각하고 있었음)

○괜찮아 아무거나 물어봐 여기에 오는 교통편이나 뭐 아무거나 다 괜찮아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검색해 갔었던 이 학교 대표 홍보대사에 대해서 물어봄

후배들을 위한 조언

-자기주도적학습과 전공적합성을 매우 중요시 한다는 것을 질문을 받으면서 느꼈음. 이를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잘 준비해간다면 좋을 것 같음

-생각보다 즉석에서 보고 바로 질문 하시는 게 더 많았음

-두 번째 방에 계셨던 교수님은 산업경영학과이지만 경영보다는 4차산업혁명 관련 분야나 기술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 보였음

-대기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서 너무 지쳐버릴 수 있으니 유의해두고 가면 좋을 듯함.

2022학년도 대학면접 후기집

예체능계열



서울예술대학교

대학명	서울예술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불합격
학과명	영상학부(디지털 아트) - 인터랙티브 아트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
전형유형	일반전형(실기성적우수)	전형명	일반전형 (실기-창작과 발상)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p>학교 강의실에 들어가면 수험번호 순서로 큰 테이블에 혼자 앉아서 실기를 진행한다. 세 단어와 사진들이 엄청 많은 종이를 주는데 그 세 단어를 조합해서 큰 주제를 만들고 그 주제에 맞춰 사진을 오려 붙이는 콜라주로 작품을 만들어낸다. (올해는 [메타버스] [미래] [온라인]이 나왔다.) 시간은 3시간으로 딱 맞춰서 끝내거나 넉넉하게 할 수 있는 편이다. 크고 두꺼운 도화지에 작품을 완성하면 작품설명서 또한 같이 작성해야 하는데 작품을 그대로 설명하고 작품의 의도와 본인의 생각을 적어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출하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만든 포트폴리오 또한 제출할 수 있다.</p> <p>작품을 제출하고 나면 본인의 작품에 대해 교수들과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하며 면접을 본다. 작품을 제작한 당일 날 바로 면접을 보는 사람은 수험번호대로 3명 정도고 그 다음날에 나머지 사람들 면접을 이어서 본다. 면접장에 들어가면 교수님들께서 작품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고 그 설명에 덧붙여서 질문을 하거나 전공에 대한 지식을 묻는 추가 질문을 하기도 한다. 포트폴리오를 제출했다면 포트폴리오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한다. 면접은 15분이다.</p>		
기타 유의사항	<p>콜라주에 필요한 가위나 풀은 기본적으로 준비해주는데 색연필이나 싸인펜도 학교에서 제공해준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대체적으로 본인 물품을 가져온 경우가 많았다.</p>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아침 먹고 왔어요?

[답변] 긴장하면 속이 뒤집어지는 편이라... 아침은 안 먹고 왔습니다.

[교수] 면접 보는데 속을 든든하게 채워야죠~ (웃음)

[질문] 여기 교실 어때요? 조명 예쁘죠?

[답변] 은은한 밝기에 노란빛 전구라 저희들 긴장을 풀어주시기 위해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작품설명 해줄래요?

[답변] 아, 일어나서 해도 될까요?

[교수] 아니요 앉아서 하세요

[답변] 저는 미래의 여자가 VR을 끼고 소파에 앉아서 메타버스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큰 그림으로 잡아서 그렸는데요, 여자의 머리카락이 휘날리며 퍼지고 그 머리카락에 그림이 그려지는 형태인데 머리카락에 그려진 그림은 여자가 들어간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해봤습니다. 우선 메타버스가 활성화되고 발전되면 본인의 외형보다는 캐릭터의 외형을 써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세계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였고, 그 캐릭터의 외관을 가꾸기 위해 메타버스 세계의 브랜드들이 형성될 것이라 생각해 가게 사진을 이용해보았습니다. 또한 메타버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친구와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을 극대화 시켜 이 쪽에 표현하였고, 앞으로 영상이 더욱 발전한다면 영상을 이용해서도 크기와 공간에 한계가 없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쪽에다가 표현해보았습니다.

[교수] 잘 들었습니다.

[질문]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주셔서 포트폴리오를 한 번 봤는데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걸 제가 기획 쪽으로 집중해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결과물의 완성도 쪽에 집중해서 봐야 할까요?

[답변] 둘 다 봐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쪽만 고른다면 기획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 실기고사는 해마다 주제가 바뀌는데 올 한 해 가장 이슈였던 키워드가 나오거나 옛날 자료들을 찾아보면 뜬금없는 키워드가 나오기도 한다. 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이전 실기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연습해보는 게 좋다.

- 작품을 그리거나 만들면서 작품 설명서에 어떻게 적을지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구상하는 게 좋다. 개인적으로는 작품 구상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작품 설명서를 급하게 쓰는 바람에 평소 쓰던 글씨보다 엄청나게 날려썼다. 시간 분배를 잘 해야 한다.

- 너무 긴장되면 가기 전에 약국에서 청심환을 사다가 면접이나 실기 보기 1~2시간 전에 미리 마셔두는 게 좋다. 청심환 따위 왜 마시냐는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청심환의 필요성을 알았다. 원래 말을 논리정연하게 잘 하는 사람이라 면접도 끄떡없다고 생각했지만 긴장한 탓에 말도 우왕좌왕하고 앞 뒷말이 안 맞는 대답을 많이 했었다. 다른 대학은 청심환 마시고 차분하게 면접 봤는데 그 대학은 합격했다. 너무 긴장해서 걱정되면 차라리 청심환을 마시는 걸 추천한다.

- 면접장이 엄청 크고 교수님들이 앞쪽에 반원 형태로 수험생을 둘러싸는 형태로 앉는데 (엄청 가깝지는 않다) 그렇다 보니 교수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잘 보여 압박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 그래도 긴장한 학생들이 보이면 잘 풀어주려고 아침은 먹고 왔는지 그런 시시껄렁한 말도 해주시니까 너무 긴장 안 해도 된다.

- 면접장에는 질문 많이 하는 교수, 계속 뭘 쓰고만 있는 교수, 듣는 등 마는 등 하면서 눈도 안 마주치는 교수 그렇게 포지션이 다들 있다. '왜 내가 얘길 하는 데 안 듣지? 관심이 없나?'

그런 생각은 금물이다. 그러다 보면 나한테 계속 질문하는 교수만 쳐다보기 마련인데 이때 시선 처리를 잘 해줘야 한다. 교수님들 한 명 한 명을 둘러보면서 교수의 태도에 신경 쓰지 않고 이야기하는 습관도 들여야 한다.

- 가슴 왼쪽에 수험표를 달기 위한 옷핀 하나를 준비해가는 게 좋다. 대부분 수험표를 안 달고 들어가긴 했는데 수험생 유의사항에 옷핀을 지참하라는 말이 적혀있다. 들고 가도 안 좋을 건 없으니 일단 들고 가서 도움 주는 재학생들한테 물어보거나 주변에 다른 수험생들 분위기를 잘 살펴서 달지 말지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

계 원 예 술 대 학 교

대학명	계원예술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광고브랜드디자인과	총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
전형유형	일반전형	전형명	일반전형(면접)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전형이 면접 전형이지만 면접장에 도착하면 감각 테스트라는 실기와도 엇비슷한 걸 한다. 주어지는 주제에 맞춰 30분동안 그림을 그린다. 올해 주제는 한국적 소재와 물고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시오, 였다. 그리고 나면 감각 테스트 용지를 제출하고 본인 차례가 올 때까지 면접을 기다린다.		
기타 유의사항	계원예술대학교만 준비하는 학원 다니면서 면접을 준비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A 교수] 자기소개 달달달 외운 거 말고 자연스럽게, 본인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역량이란 엮어서 자기소개 해주시고 그를 뒷받침하는 근거나 특별한 일도 함께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답변] 제가 생각하기에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제 역량은 집요함입니다. 좋아하는 것이 생긴다면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파고드는 집요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사례로 일본의 애니메이션 회사인 스튜디오 지브리에 편지를 보냈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커갈수록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보며 지브리가 예술을 창작할 때에는 어떤 가치관과 철학, 그리고 사상을 가지고 예술에 임하는지 궁금증이 생겨 일본어를 직접 독학한 다음 손편지에 제 궁금함을 담아 스튜디오 지브리에 보냈었는데 그 이후에 스튜디오 지브리의 대표이사인 스즈키 토시오씨께서 제 손편지를 직접 읽어보시고 본인이 직접 쓴 저서인 지브리의 철학이라는 책과 함께 답장이 온 적 있습니다.

[B 교수] 대단한 친구네~ 그럼 그 편지를 보내려고 일본어를 독학한 거야?

[답변] 네 맞습니다!

[B 교수] 독학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답변] 이제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A 교수] 그러면 영어도 한 번 시도 해봤어요?

[답변] 아, 네! 영어도 시도해보기는 했는데 영어는 일본어나 한국어랑 어순이 반대여서 미드를 보면서 최대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구요

[A 교수] 집요한 사람이라면 영어도 하면 될 텐데? (웃음)

[답변] (웃음) 제가 한 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B 교수 질문] 본인이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세요

[답변] 저는 2년 동안 재능기부 동아리인 기브유의 활동을 이어서 해왔는데요, 알리고 싶은 사회 이슈를 재능기부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소방관이 국가직화가 되지 않았던 시절, 저희 동아리 부원들은 본인의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직업인 소방관이 어떻게 국가직이 아닐 수가 있냐며 분노했고, 이를 알리기 위해 소방관의 국가직화를 응원하는 배지를 만들어서 교내에서 배지를 판매한 금액으로 지역 소방서에 직접 기부를 하기도 하고 국가직화를 위해 힘써주시는 국회의원님께 배지를 보냈다가 국정회의 때 배지가 주목되어 학생인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소방청장님의 귀에 들어가서 직접 소방청장님께 감사장을 수여 받았던 일이 제일 성취감 있었습니다.

[C 교수 질문] 아직 입학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나 싶겠지만 (웃음) 학과를 졸업하고 나면 무엇을 할 건가요?

[답변] 원래 어릴 때 심장이 뛰다라는 연예인 참여 형식의 소방관 다큐멘터리를 접하고 소방관의 힘듦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또한 소방관의 국가직화를 응원하는 배지를 만드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더욱 깊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경험이 발판이 되어 ‘소방관을 위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의 장래희망이 소방관이라 방향성을 잡기 위해 장차 소방관이 될 사람이 생각하는 소방관의 힘듦에 대해 물어봤는데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인 PTSD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방 인력이 부족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 소방관분들이 병원에 가신다면 소방 체제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 그 불편함에 집중해 병원에 가지 않고도 휴가 시간이나 여가 시간에 PTSD를 치료할 수 있는 심리 키트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하고 고안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소방 관련 브랜드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대부분 소방관에게 수익금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주어 조직에 도움을 줄 뿐이지, 개인에게는 돌아가는 수익금이 없었습니다. 저는 금전적인 도움보다 소방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 개인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심리적인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키트의 내용물은 정하지 못했는데, 저에게는 심리학이라는 의학적 지식을 배운 적도 없을뿐더러 알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주 시청하는 의사 유튜브 채널 중 심리학 전공의가 계십니다. 그 분께 저는 광고 브랜드디자인과를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소방관을 위한 PTSD 치료 키트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내용의 자문을 구하는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B 교수] 그걸 언제 보냈는데요?

[답변] 한 달 전쯤에 보냈습니다.

[B 교수] 답장이 왔어요?

[답변] 답장은... 받지 못했습니다 (웃음)

[A 교수 질문] 본인 이야기 다 잘 한 것 같아서 물어볼 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답변] 저는 11월 20일날 열렸던 디모 데이 졸업 전시회(광고브랜드디자인과 졸업 전시회)에 다녀왔는데요, 그때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을 보듯 상상만 했던 것들을 이렇게 구체화 시켜나가는 과정의 결과물을 저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과 동시에 아! 이 길이 내 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광고브랜드디자인과에 꼭 진학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 감각 테스트라고 그림 잘 그려야 하는 건가? 하고 걱정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교수들의 수험생의 창의력과 아이디어, 수험생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느낌의 테스트이니 그림 실력은 상관없다. (아이디어만 참신하고 좋으면 진짜 그림은 줄라맨으로 그려도 됨) 하지만 면접 때 감각 테스트했던 그림에 대해서 질문 하기도 하지만 안 할때도 있다. 그건 랜덤이라 감각 테스트에서 점수 따겠다고 목숨 걸거나 감각 테스트 망했다고 면접 망치는 일만 하지 말길 바란다.
- 참고자료 스케치하는 방 옆 방이 바로 면접 보는 방이라 그림 그릴 때 교수님들이 면접장에서 나오셔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수험생들 그림을 보시며 다니신다. 교수님들은 단지 우리가 궁금해서 한 번씩 살펴보시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는 게 좋다.
- 교수님이란 은근 거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의자 배치가 멀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크게 말해야 한다.
- 교수님들이 나름 미소도 잘 지어주시고 끄덕끄덕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주셨는데 긴장한 친구가 있다면 중간중간 농담도 해주시면서 분위기도 풀어주시는 편이다.
- 광고브랜드디자인과는 '자연스러움'을 엄청나게 추구한다. 면접 때 서두를 외워 온 자기소개 말고 자연스러운 자기소개 해보세요.라고 운 띄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사람을 추구한다.
- 조금, 약간 이런 긴장하면 나오게 되는 부사들 정말 조심해야 한다.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금기어다. 학원에 다니면서 학원 조교님이 재학생이셔서 교수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교수님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고 한다. 왜냐면 나는 이미 네 이야기를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 왜 또 이야기하냐 나 무시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 학부가 커뮤니케이션 학부, 즉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소통에서의 예절을 중요시 여긴다. 따라서 다른 학생들이 이야기할 때도 경청하며 듣는 자세를 보여야 하고 교수가 나에게 질문을 할 때 눈을 잘 맞추고 질문을 잘 듣고 있다는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이야기하다가 헛기침하면 바로 죄송하다고 해야 한다.
- 면접 당일 되기 전까지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서 교수님 얼굴을 외워두면 좋다. 긴장도 덜 하게 되고 교수님을 뵈게 됐을 때 내적 친밀감이 쌓인 게 많아서 하고 싶은 말이 술술 나오게 되는 계기도 된다.
- 계원예대는 다른 학교들과 달리 본인의 이름을 말해도 되고, 심지어 교복도 입고 가도 된다.
- 추상적인 답변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교수님들이 계속해서 추상적인 답변에서 끊임없이 꼬리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추상적인 답변은 절대 금물.
- 전공지식에 대한 질문도 가끔 나온다고 한다. 특히 브랜드와 브랜딩에 대한 개념은 면접 보기 전까지 꼭 외우고, 브랜드와 브랜딩에 대한 나만의 정의도 내려두는 것이 좋다.

동 아 방 송 예 술 대 학 교

대학명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수시 1차 최조합
학과명	방송기술계열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최조합
전형유형	자소서 기반 면접	전형명	대학 자체_면접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처음 입실 시간에 맞춰서 가면 먼저 온 순서대로 면접 가번호를 받아서 진행함. 총 대기실이 3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배님들과 조교님들이 긴장 풀어주시려고 노력해주심! 면접은 3대 1로 이루어졌으며 자소서와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진행되었음.		
기타 유의사항	교수님께서 따로 물어보시는 거 아니면 이름과 수험번호를 이야기하면 안 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지원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말해볼래요?

[답변] 사실 제가 중계시스템 관련 사업체를 가지는 것이 먼 미래의 목표인데요! 사실 이번에 교내 코로나로 진행 못 한 입학식, 졸업식, 축제를 제가 직접 온라인으로 구축했습니다! 이거 때문에 교장 선생님께 공로상도 받았는데요! 교수님들께 주도적으로 선생님이 시키는 일만 하는 학생이 아니라는 걸 포트폴리오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질문] SI 하겠다는 학생은 처음 보는데요??

[답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게임방송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방송시스템 쪽으로 꿈꾸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본 과만 지원한 거예요?

[답변] 넵 본 과만 지원했습니다. 저 떨어지면 바로 군대 가야 하는데 군대 안 가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교수님 빵터지심)

[질문] 군대는 빨리 가야 하는데 ㅋㅋㅋ

그러면 벌써 신청을 넣은 거예요?

[답변] 앗 떨어지면 바로 넣을 거 같습니다ㅎㅎ

[질문] 이거 학원 강의 시스템은 학생이 직접 한 거예요?

[답변] 넵 친한 학원 선생님께서 이런 시스템을 필요로 하셔서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인터넷으로 견적 내서 진행했는데요! 업체에서는 300 부른 견적을 제가 했을 때는 120만 원 선에서 끝내서 굉장히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질문] 그러면 장비를 내가 사서 단 거야?

[답변] 넵. 제가 선생님께 돈을 받아서 구매해서 설치해드렸습니다!

[질문] 그런 시스템은 지금 너네 집에 있는 건가??

[답변] 아뇨 학원 안에 설치되어있고 제가 없어도 사용이 가능하실 수 있게끔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질문] 사실 방송 구축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죠?? 사람들이 안 해 버릇해서 그런 거지

[답변] 아 네 맞는 거 같습니다 ㅎㅎ,.. 그래서 제가 가진 지식을 후배와 방송부원들이 쓸 수 있게끔 매뉴얼 제작해서 배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 한 거 같음)

전 다 되었습니다(다음 교수님께 질문 넘어감)

[질문] 그러면 우리학교 와서 어느 전공 하고 싶어요?

[답변] 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촬영에 관심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촬영을 할 예정이지만 제 미래 목표를 위해 시스템 수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질문] 그 사진에서 보면 카메라가 하나뿐인데 멀티캠은 사용 안 해본 거야?

[답변] 교내 방송장비로 비디오 믹서 거쳐서 여러 카메라 사용해봤는데요!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방식에서는 카메라를 여러 대 연결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만 사용한 거 같습니다!

[질문] 카메라를 캐논 웹캠 드라이버에서 연결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연결한 거지?

[답변] 게임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런 OBS라는 스튜디오는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내에서 컴퓨터로 영상을 보내야 하는 과정에서 캐논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이 기본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선생님께 캡처보드를 구매해달라고 말했으나 예산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선에서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캐논 제조사 찾아가서 공부하면서 캐논 웹캠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될 거 같아서 그걸 사용했습니다!

(교수님 끄덕끄덕)

[질문] 그러면 비디오 스위처는 다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답변] 교내 방송반 장비로 비디오 믹서 사용해봤습니다!

[질문] 그러면 루틴 스위처랑 비디오 스위처가 뭐가 다른지 알아요? 이거 되게 많이 헷갈리더라고

[답변] 루틴 스위처는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그런 스위처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말 그대로 루틴. 뭐 어찌구 이런 건데 ...--

[답변] (잠깐 타이밍 보고)

앗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학교 입학해서 교수님 밑에서 배워보겠습니다!!

[질문] 아니 중요한 거 들어가기도 전에 요점을 다 잡았네 ㅋㅋㅋ

[답변] 앗 죄송합니다 ㅎㅎ,....

[질문] 사진 보니까 아날로그 믹서인데 디지털 믹서는 써봤어요?

[답변] 넵 영상 제작할 때 스튜디오 빌려서 녹음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스튜디오에서 디지털 믹서 사용했습니다!

[질문] 근데 디지털 믹서는 소리도 작고 페이더도 적고 기능은 많잖아요. 왜 그런 거 같아요?

[답변] 아날로그 믹서는 안에 앰프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제대로 대답 못 한 듯)

---백○○교수님 질문---

[질문] 스트리밍이 뭔지 알아요??

[답변] 스트리밍은 송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스트리밍이랑 다운로드가 뭐가 달라요?

[답변] 스트리밍은 신호를 송출하는 개념이고 다운로드를 받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스트리밍은 뭐 이런 거고 다운로드도 이런 거예요. (이론 설명해주심)

[답변] 앓 죄송합니다. 부족한 부분 교수님께 꼭 배워보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버퍼링은 왜 생기는 줄 알아요?

[답변] 넵 네트워크 속도가 영상이 전달되는 속도를 못 따라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버퍼링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답변] 이를 해결하려면 5G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UHD 같은 경우에는 전송 용량도 크기 때문에 그게 맞는 5G를 사용함으로써 버퍼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쯤 할까요? (주위 교수님들끼리 서로 마주 보며)--

[답변] 앓 저 마지막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답변] 저 사실 백○○ 교수님 5G 이동통신을 활용한 UHD 방송 관련 논문 읽고 왔습니다...!

서울에서 안성까지 중계하신 거 보고 되게 놀랐는데요...!

최근 5G가 발달하면서 누구나 쉽게 방송을 하는 시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께서 저를 꼭 전문성 있는 학생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후배들을 위한 조언

포트폴리오는 무조건 가져가세요!

무조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질문 유도를 이끌어내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어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질문이 나와도, 학교 와서 잘 배워보겠다! 라는 식으로 어필하시는 거두 좋아요!

내신이 많이 낮아도 면접만 잘 보면 되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서울예술대학교

대학명	서울예술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불합격
학과명	방송영상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불합격
전형유형	면접+작문 실기유형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처음 대기실로 들어가서 각종 유의사항을 듣고 작문 시험장으로 이동함. 작문 시험장에서 종이를 총 두 장 배부받는데, 한 장은 답안작성지, 한 장은 문제지임. 문제지에 있는 작문 주제에 맞게 작문을 작성하고 면접 대기실로 이동하고 면접을 진행함.		
기타 유의사항	처음 들어가자마자 핸드폰 전원은 모두 꺼야 함. 준비해 온 모든 자료를 볼 수 없으며 대기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야 함. 포트폴리오 영상은 USB 안에 저장해서 제출해야 함. 신분증 필수. 들어가자마자 정해진 멘트를 통해 자기 자신을 소개해야 함. (1분 내외)		

질문 및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미래 방송 스태프가 될 수험번호 000번입니다. 제가 선택한 전공은 촬영이고, 개인 역량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로 가져온 영상들은 제가 촬영한 영상들입니다.

이 영상들로 교수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제가 단순히 촬영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한 교내 축제, 입학식, 졸업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 카메라 설치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건데요. 서울예대 와서도 옥00 교수님의 방송시스템 수업 너무 기대하고 있고 에이쁠 맞을 자신 있습니다. 학교 와서 제 장점을 살려 영상활동 많이 해보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직접 방송한 거예요?

[답변] 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개인 방송을 진행해오면서 이런 관련 지식들을 코로나로 인해 교내축제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obs와 캡처보드를 이용해 생중계했습니다.

[질문] 캠은 하나만 쓴 거예요?

[답변] 네 교내 입학식과 졸업식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카메라를 하나만 연결할 수 있어서 하나로 진행했지만, 교내 방송반 장비로는 두 대 사용했습니다

[질문] 이거 말고 따로 제작해본거 있어요?

[답변] 교내 방송반으로서 여러 교내영상을 제작해 봤는데요 또한 제가 학생회이기도 해서 교내 캠페인 영상 많이 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내 교육공모전 나가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보기도 하고, 교내 댄스 동아리들과 연락해 뮤직비디오도 촬영했습니다.

[질문] 그런거 찍을 때 장비는 방송반 거로 찍은 거예요?

[답변] 방송반 장비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주로 제 소니 a6000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a7m3로 기변했는데요! 포트폴리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보였던 노이즈 같은 부분이 다 해소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 와서도 비싼 카메라로 영상 많이 찍어보겠습니다!

[질문] 댄스 뮤비 영상 찍을 때 감도는 몇으로 두고 찍었어요?

[답변] 댄스뮤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내촬영을 주로 해서 조리개를 최대한 열어도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3200에서 6400에 두고 찍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노이즈가 심할 텐데?

[답변] 그래도 a6000 자체가 노이즈를 잘 잡아주는 편이라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잡아준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야외에서는?

[답변] 야외에서는 100으로 두고 찍었습니다!

[질문] 50으로 안 찍고?

[답변] a6000은 최소 감도가 100이어서 100으로 찍었는데요!
이번에 기변한 a7m3는 50이어서 좋았던 거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렌즈는 뭐 썼어요?

[답변] a6000 사용할 때는 18105 렌즈 사용했습니다!

[질문] a7m3가 풀프레임이죠? 그거는 렌즈 뭐 썼어요??

[답변] 아무래도 돈이 부족해서 18105 그대로 쓰고 렌탈해서 사용했었는데요, 학교 와서는 영상으로 돈 벌면서 렌즈 현금으로 사보겠습니다!!

[질문] 마지막 할 말 해봐요

[답변] 사실 김00 교수님 2015년부터 4k uhd 논문 쓰신 거 봤습니다! 이런 영상 산업에 있어서 선두주자로 서시는 거 보고 꼭 교수님 밑에서 배워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장점들 활용해서 학교생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면접장 가보면 많이 떨릴 텐데... 그냥 떨지 말구 다 내뽐고 오세요!

그리고 제가 본 22학년도 입시부터는 영상분석과 세부 전공 선택이 사라졌는데, 영상분석은 사라졌지만 세부 전공은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뽑는 거 같아요!

처음 들어가서 할 개인 특기 발표 꼭 준비해 가시고 포트폴리오 영상도 자기 전공에 맞는 부분으로 뽑아가시면 좋을 거 같아요! 행운을 빌어요!

홍 익 대 학 교

대학명	홍익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
학과명	미술자율전공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종합	전형명	미술우수자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 대면 면접 방식 - 문제 출제 - 문제 풀이 (24분) - 문제 답변 & 공통/학생부 기반 질문 (10분)		
기타 유의사항	홍익대에서 문제 풀이용(그림 그리기, 답변 작성) 연필과 볼펜 제공, 고사장이 매우 추움		

질문 및 답변 내용

[제시문] 1번. 아래 (가), (나), (다) 작품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하십시오

(가)



(나)



(다)

흰색 조형물 야외 설치 작품.
 막 사각형처럼 자잘자잘한게
 모여서 장벽 같은 네모판 중심이
 있고 거기 주위로 파도처럼
 웨이브 곡선 형태 면이 감싼
 그런 조형물 작품. 제목에
 barrier가 들어간 작품.

[제시문] 2번. (가)는 몬드리안의 연작이다. 갈수록 조형요소가 변화하고 있다. 이를 반대로 적용
 해서 아래 (나)에서 자유롭게 상상해 그려보시오.

(가)



(나)

블랙&화이트의 줄무늬가
 곡선적으로 그려진 추상화

[질문] 교수1: 1번 문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간략하게.

[질문] 교수2: 그리고 1번 문제 뿐 다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다면 골라보고,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답변] 일단 공통점은 입체조형물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가와 나는 원색의 컬러를 썼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이점은, 우선 가는 실내 설치작품입니다. 또한 일상에서 흔히 보는 사탕이라는 소재를 작품에 집어넣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리고 나 작품은 작품 중심으로 갈수록 점이적으로 공의 크기가 커지면서 중앙의 큰 공을 강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큰 공은 원색 레드 컬러를 써서 훨씬 강조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 작품은 가, 나와 달리 채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더불어 야외 설치작품이고, 곡선적인 형태를 이룬 조형물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가장 맘에 드는 작품은 곤잘레스 토레스의 무제입니다. 이 작품은 사탕이라는 소재를 실제 작가의 연인 몸무게만큼 놓아서 관람객이 먹게 했는데, 자기 연인과의 사랑의 소멸과 생성 과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연인이 죽어도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작가의 고백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의미가 마음에 들어서 골랐습니다.

[질문] 교수2: 그러면 작품의 제목이 '무제'인데, 학생이 제목을 달아본다면 어떤 제목이 좋을까요?

[답변] 저는 '내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교수1: 그러면 학생은 의미적 측면에서 작품이 좋다고 하는 건 데, 혹시 조형적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작품이 마음에 드나요?

[답변] 음, 저는 '다' 작품이 마음에 듭니다. 작품을 자세히 보면 사각형의 자잘자잘한 파츠들로 구성돼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직선적인 부분이 모여서 전체적으로는 곡선적인 형태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질문] 교수1: 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항 답변해보세요. 작품을 그린 이유나 의미를 말씀하시고 제목을 짓는다면 무엇이 있을지 말씀해보세요.

[답변] 먼저, 제시된 몬드리안의 그림은 처음엔 거의 구상적인 나무를 그리다가 점차 선적 요소를 위주로 추상적으로 그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시된 문제에서 이와 반대로 작품을 제작하라고 해서, 몬드리안은 구상에서 추상의 흐름을 보였으므로 저는 반대로 선적 요소를 위주로 추상적으로 그린 추상화를 구상적인 무언가를 떠올려서 표현하려 했습니다. 저는 '나' 작품을 보고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빙빙 꼬며 놀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나 작품은 선적 요소만 사용했지만 선이 모여서 면이 된다는 생각에, 제 그림에는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면적 요소로 드러내려 했고, 여기에 명암을 줘서 저를 환하게 품어주셨던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질문] 작품의 제목을 짓는다면 어떻게 지을 건가요?

[답변] 저는 머리카락이라고 짓겠습니다. 저는 머리카락 하면 어렸을 때 꾸지람을 들으면서까지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장난 치던 경험이 있어서, 머리카락은 어머니를 떠오르게 합니다.

[질문] 교수1: 아 그래요? 그러면 작품 색감은 어떻게 하실래요?

[답변] 우선 노란색을 사용하겠습니다.

[질문] 작품 전체 다요?

[답변] 아, 아니요! 어머니의 몸체만 노란색으로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노란색은 밝고 경쾌한,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색깔인데, 제겐 어머니와의 기억이 밝고 따뜻한 느낌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머리카락 부분은 보라색과 핑크색을 사용하겠습니다. 보라색은 성숙을 의미하는 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머니는 제 인격을 성장하게 하시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고, 핑크색은 사랑스럽고 여성스러운 색깔이라고 생각해서 어머니의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교수1: 혹시 머리카락을 사용한 작가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답변] 음...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면접을 위해 미술 교과서를 공부할 때 봤던 작품 중, 물줄기를 소재로 머리카락을 표현한 작품이 떠오릅니다.

[질문] 교수1: 아~ 저는 구스타프 클림트 작품이 떠올랐어요. 머리카락 짙 내려온 그 그림 알죠? 학생 작품 느낌이 약간 그런 것 같지 않나요?

[답변] 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질문] 교수2: 학생은 여기 학교 입학하면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죠?

[답변] 저는 입학하면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 슬프고 우울한데 거기에 미래를 꿈꾸는 힘을 보태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질문] 교수2: 그러면 디자이너가 최종 목표인 건가요?

[답변] 네, 넓게 보면 디자이너지만 저는 디자이너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건 영상이지만 영상을 조형물에 쓸 수도 있는 거고, 무대 디자인할 때 쓸 수도 있죠. 또, 영상에서 빠질 수 없는게 스토리텔링인데,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나중에 제품 패키지 디자인이나 브랜드 가치관 설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렇군요. 아 지금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다 돼서요, 혹시 마지막으로 이 말만은 하고 싶다, 아주 짧게 부탁해요. 있나요?

[답변] 아, 네! 음... 저는 앞으로 제가 대학에 들어온다면 4년간의 시간이 결코 달콤할 거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려한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하는 번데기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4년간의 시간을 고통스러워도 더 지구력 있게, 버텨내는 시간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질문] 교수2: 아, 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면접 마치겠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홍익대학교는 아직까지도 최상위 미대에 속한 만큼, 실기가 아니라 종합, 면접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3년 동안 실기와 병행하여 학교생활을 할 때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먼저, 성적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 3학년 때 빼놓아진 했지만 몇 과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과목을 공부할 때 1등급을 꿈꾸며 공부했습니다. 비록 모든 과목이 성적이 좋진 않았지만 모두 1등급을 받았다는 무모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학생부 활동에 주력해야 합니다. 일반고라서 활동이 다양하지 않다는 피해의식을 버리고 넓게 바라보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건 특성화 미술고등학교 아이들의 뻘한 활동입니다. 저는 수학, 과학과 미술을 연관을 짓는다든지, 미술사 공부를 깊이 있게 한다든지 등 특성화고 아이들은 하지 않는 활동을 스스로 찾아서 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앞의 두 가지를 잘 병행해온 사람이라면 3학년 때 면접 준비를 할 것입니다. 저는 면접 준비를 학원에서 했지만, 집에서 틈틈이 혼자 공통질문에 답변해보기도 하고 기출 문항을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해보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 환경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 찾아 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시 생활을 응원합니다!

연 세 대 학 교 (미 래)

대학명	연세대학교(미래)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디자인예술학부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10번
전형유형	학생부 종합, 자기소개서, 제시문면접	전형명	활동우수자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제시문 숙지 30분 이후 면접 15분, (시간 남을 시 인성면접)		
기타 유의사항	면접 위원수 2. 조별학생 수 1		

질문 및 답변 내용

- 어서와라 학교 오는 길이 참 예쁘지 않나
 - 아 은행앞이 흐드러지게 있어서 오면서 계속 감탄했다. 내년에도 오고 싶은 곳이다.
- 그렇다(웃음) 오늘 잘 해서 꼭 내년에 와라. 준비 많이 했나?
 - 많이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의견을 전달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다.

- 그럼 먼저 제시문 1의 밑줄 쳐진 실존의 종말(이 아니라 실존의 ㅇㅇ였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뜻인지 해석하고 제시문A에 대해 논해보라
 - 먼저 실존의 종말은 정확한 지표와 자신의 신념에도 응하는 내용이지만 맞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아 그렇게 서술한 것 같다. 제시문 B처럼 주변인들이 부작용으로 인해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화자 마음의 신념이 무너진 것 같다. 하지만 나중에 다잡고 백신을 맞으려는 것을 보아 백신접종을 권장하는 내용이 아닐까, 나중에 창밖으로 보는 사람이 지나간다면 화자처럼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추측을 해본다.

- 그럼 제시문B에대해 언급했으니 넘어가 보겠다. 접종자와 비접종자의 장단점을 논해보라
 - 접종자는 일단 돌파감염은 두렵지만 서도 기존의 바이러스는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집단면역을 위해 공동체에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단점은 부작용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 있겠다. 실제로 저도 열로 고생을 하기도 했다. 비접종자는 심신의 안정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다. 우리 지역에도 대학생 한 분이 돌아가신 뉴스를 접했을 때 많이 놀랐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무서웠던 심정을 억누를 수 있을 것 같다. 단점은 반대로 바이러스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있고, 집단면역 공동체에 기여할 수 없다는 점 아닐까 생각한다.

- 그럼 학생은 접종자와 비접종자 어느 쪽이 낫다고 생각하는가?
 - 접종자쪽이라고 생각한다.

○ 그럼 접종자의 입장에서 비접종자를 설득해보아라

- 일단 집단면역이 되려면 70~90%의 사람이 면역이 생겨야 한다, 이러한 것들에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공동체와 개인 둘중 무엇이 더 중요하겠나, 또한 부작용이 많다는 것은 그저 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확한 지표는 없고 언론은 자극적인 기사를 내야 사람이 많이 보기에보다 자극적인 것을 다룰 수도 있다. 잘 생각해보자 아주 과거에 영국에서 페스트포비아가 왜 돌았는가 페스트를 최악처럼 보도한 언론의 탓도 있지 않았나,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 나는 너와 함께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러니 같이 맞으려 가면 안 되겠냐 하고 설득할 것 같다.

○ 짧은 시간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 완전 설득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 감사하다



○ 이 의자를 보고 조형의 원리에 맞추어 설명해보아라. (점, 선, 면 등 조형의 원리는 이미 주어진 상태였음)

- 우선 크기, 색채대비가 가장 눈에 띈다. 보색은 서로를 띄워줄 수 있으면서 보다 강조할 수 있는 색이다. 또한 같은 크기로 붙어있으면 촌스러울 수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색이다. 그것이 크기대비로 들어와 있어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강조다. 아까 고속도로 타고 오다가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모양을 보았다. 이것 또한 강조인 것 같고, 이 의자의 모서리 면이나 나사를 조이는 부분을 색으로 바꾸어 포인트를 준 것 같다. 의자의 선이 모두 노란색이었다면 3원색이 맞추어져서 눈이 아플 것 같다.

미약한 식견으로 이거를 현대식으로 바꾸어보고 싶었다. 지금 질감은 플라스틱 내지는 철인 것 같은데 이것을 가죽으로 바꾸고 앉기 편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색 또한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처럼 채도를 낮춘다면 눈이 피로한 현대인들에게도 적합한 의자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 위의 시계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사례이다. 이것을 파악하고 서술하라

- 형태부터 보자면 옆의 구슬은 시, 앞의 구슬은 분을 나타내는 것 같다. 내가 알기로 시각 장애인들은 시각 대신 청각이나 촉각과 같은 다른 감각들이 많이 발달 된 것으로 안다. 이 시계는 촉각을 활용하니 그러한 사람들에게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 구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의 시까지 튀어나온 것이 좋다. 당연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부끄럽게도 줄리면 시계를 가끔

거꾸로 찬다. 나중에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그치만 이 시계는 12는 화살표, 6은 일자로 되어있어서 위아래를 구분하기도 편한 시계인 것 같아 더욱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손목의 띠가 메탈로 되어있는 것이다.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도 스트랩을 바꿀 수 있는 거로 아는데 이것도 교체가 가능하면 가죽으로 바꾸어 구멍이 뚫린 쪽으로 본인 손목에 맞게 길이조절이 용이하게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시계이다.

○ 나는 학생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한다. 이름 학교 수험번호 아는 것이 없는데 보니까 학생은 국어성적이 좋은 것 같다. 국어성적과 디자인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은가?

- 국어도 문학 비문학 언어와매체 화법과작문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언어와매체를 참 열심히 했다. 문법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학생들의 성적이 비슷하니 매체의 활용 부분에서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매체의 활용을 배우면서 아 이 책에는 이러한 편집디자인을 하면 되고 이 매체에는 UI/UX 디자인을 하는 것이 좋겠구나 하며 더욱 열심히 공부해 국어성적이 좋게 나온 것도 있는 것 같다.

○ 학생 동아리 활동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많이 한 것 같다 혹시 예술고등학교를 다녔나?

- 아. 아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 중이다.

○ 그럼 이렇게 많은 활동은 어떻게 했나?

-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진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케이스라 1학년 때도 미술을 하고 싶은 00다. 혹시 필요하면 불러라 하고 소개했고, 활동할 때 혹시 포스터나 인포그래픽이 필요한 경우에 먼저 가서 도와줄까? 이야기하여 많은 활동내용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방금 말씀 하셨던 것처럼 예술고등학교 친구들에게 활동으로 뒤쳐질 수도 있겠다 생각해 스스로 많이 찾아서 하려고 했다. 그 결과가 많은 활동으로 나온 것 같다.

○ 오늘 수고했다 꼭 쉬어라. 제시문 종이는 뒤에 두고 나가면 된다

- 감사하다 내년에 꼭 뵙고 싶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제시문면접같은 경우는 시사를 많이 반영하니 기출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자신의 기출이 아니더라도 다른 인문기출 찾아보고 자신이 가고싶은 학교의 지역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등등, 내가 지원한 학교는 원주시에 위치해 있고 의, 치, 수가 있는 학교이기에 의료나 사람들의 건강을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실제로 유니버설디자인이 나온 것도 그러한 것에서 발안한 것 같다. 그 학교와 지역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답변은 무조건 당당하게 해야 한다. 조금 더듬고 말끝이 해요 로 끝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말해야 한다. 교수님들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원하는 건 아니다.

동 아 방 송 예 술 대 학 교

대학명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최종 합불현황	합격
학과명	영상제작과	충원합인 경우 최초예비번호	
전형유형	면접	전형명	면접전형
면접 절차 및 과정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하는 순서대로 가번호 부여 - 교수님 3분 학생 1명으로 약 5분간 진행 - 마스크 벗고 얼굴 확인 후 면접 진행 - 포토폴리오를 제출하는 사람들은 재학생한테 제출 		
기타 유의사항	<p>코로나로 인해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 엄청 큰 투명칸막이가 있어서 교수님들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학생 목소리도 교수님이 잘 못 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p>		

질문 및 답변 내용

들어가자마자 교수님 3분 계심
01010 (교수님, 학과장님, 교수님)

0(재학생)
x(나)

마스크 벗고 확인 먼저함.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셔서 큰소리로 또박또박 대답했음.

- 자기소개랑 지원동기 한번 말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 나갈 드라마를 만들고 싶은 수험번호 101번입니다.
저는 드라마가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바쁜 현대인들에게 휴식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폭넓은 이론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겸비할 수 있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제 꿈을 펼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운 좋게 드라마 하셨던 교수님이 있어서 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은데 되게 나긋나긋하고 친절하게 말해주셔서 좀 대화하는 기분..)

(교수님1)

-그럼 드라마가 하고 싶은 건가?

네 그렇습니다.

-드라마 어떤 파트하고 싶어요? pd?

연출하고 싶습니다. 드라마pd하고 싶습니다.

-뭐 그럼 본인이 생각해놓은 소재나 아이디어?

(여기서 시간을 조~금 오래 썼음)

저는 현대 사회에서 익명이 가진 특성을 부각시켜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 이 뒤로 길게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질문) 개인정보라는 게 이름이나 주소지 뭐 그런 건가?

네 맞습니다.

(교수님2)

-내신은 어느 정도?

o점대 입니다!

-우리 학교 식으로?

아니요 전체내신입니다!

-우리 학교 식으로 말해봐요

그것도 o점대 입니다!

-내신에 대한 아쉬움은 없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그 당시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한 학년에 몇 명?

한 학년에 약 300명 정도 됩니다.

교수님이 (규모가 꽤 큰 고등학교네~)

-영상은 여기 쓴거 말고도 많이 만들어봤고?

그동안 만들었던 영상을 나열하면서 많이 만들어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아리에서 만든 건 아니고 혼자 만들었어?

네. 혼자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시켜서 만든 건가?

아니요. 제가 주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영상이 만들고 싶고 그랬으면 방송부나 이런데 들어가서 뜻이 맞는 친구들이랑 미니 드라마 이런 거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나?
저희 학교 방송부는 기자재 위주로 돌아가는 방송부로 영상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학 기간 중 본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주도적으로 영상을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 만들었지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고 참여해줘서 수월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학과장님)

-물어보고 싶은 건 다 물어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 ~
저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저에게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로 자라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 될 것임을 자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앞에서 안녕히계세요 ~!! 하고 나왔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코로나로 인해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 엄청 큰 투명칸막이가 있어서 교수님들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학생 목소리도 교수님께서 잘 못 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2022학년도 대학면접 후기집

- 자 료 제 공 : 2021학년도 충청북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 총 괄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 이광우
- 기 획·검 토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혁신과 과장 김동영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혁신과 교육과정지원팀 장학관 손기향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혁신과 교육과정지원팀 장학사 홍영은
- 발 행 인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 김병우
- 발 행 일 : 2022년 3월
- 발 행 처 : 충청북도교육청
 (2863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TEL. 043)290-2000 FAX. 043)290-2510
 <http://www.cbe.go.kr>

※ 이 책의 어느 부분도 충청북도교육청의 승인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재생하거나 이용할 수 없음